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5~9세기 新羅의 對日 交涉 硏究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新 飼 早 樹 子

5～9세기 新羅의 對日 交涉 硏究

지도교수 권 오 영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新 飼 早 樹 子

新飼早樹子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고는 신라의 대일 교섭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하여,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국가와 지역 단위의 교섭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경제적 조건인 '물건의 움직임과 이동', 정치적 조건인 '외교제도'와 '외교문서'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인 '외교항로'에 주목하여 5세기부터 9세기 중엽까지의 신라의 대일 교섭의 실태와 전개에 대해 검토했다. 신라와 일본의 동향만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주변 국가의 동향도 포함하여 검토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 요인을 근거로 할 때 5세기부터 9세기 중엽까지의 신라의 대일 교섭은 다섯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와 국가 이외의 존재와 복수의 교섭 형태가 보이는 5세기부터 6세기 초까지의 단계이다. 신라와 북부 규슈의 교섭을 보여주는 증거로는 貝 무역이 있다. 5세기부터 6세기 초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吉備叛亂傳承과 磐井의 亂을 계기로 하여 변화를 맞이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磐井의 亂이 진압된 이후 6세기 전반의 시기이다. 본래 신라와 교섭하고 있었던 왜의 지방세력은 왜 왕권에 편입되었으며, 그들이 소유하는 항로도 왜 왕권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6세기 초의 磐井의 亂 이전까지는 신라와 왜 지방세력의 교섭 관계가 왜 왕권과는 별도로 존재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왜 왕권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 왕권의 입장에서는 畿內 지역과 博多灣을 연결하고 한반도에 이르는 교통로와 외교권을 장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므로 磐井의 亂을 계기로 하여 신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북부 九州의 다양한 집단이 소멸하거나, 백제와의 관계가 강한 왜 왕권에 편입되면서 신라와의 관계는 소원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문헌 사료뿐만 아니라 고고학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602년의 阿莫城 전투 이후 신라가 왜와 적극적으로 교섭 관계를 맺게 된 610년 이후의 시기다. 신라는 602년의 아막성 전투 이후 혼란한 정세 속에서 주변 국가와의 충돌을 반복하고 있었고 당과의 관계 유지도 큰 과제였다.

이와 같은 국제상황에서 신라는 610년 이후 왜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시작한다. 이 시기에 신라가 실행한 대왜 외교정책으로 신라의 소유한 '新羅道'를 이용하여 왜의 대당 외교를 도와주거나, 불상과 불교 관련 용품 등을 보내면서 人的·物的인 외교 교섭의 형식이 병행되었음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라가 왜에 불상과 불교 관련 용품을 보내는 행위는 신라가 당에게 보냈던 품목과 비교하면 문화적 우월성을 제시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라의 정치·외교적인 의도가 포함한 외교교섭 수단의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7세기 신라가 왜의 大唐學問僧을 당에 데려다준 행위는 '送迎 외교' 혹은 '中繼 외교'로 설명되어왔다. 이는 신라가 당까지의 육로와 해로를 포함한 교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구려, 백제와 달리 신라만이 실행할 수 있었던 외교정책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 방법은 한강유역의 영역화에 성공한 신라가 백제, 고구려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대왜외교 정책의 한 형식으로서 전략적인 의미가 큰

외교 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7세기 말의 羅唐戰爭 이후부터 당으로부터 浿江 이남의 영유를 정식으로 인정받는 735년까지의 기간이다. 602년의 아막성 전투 이후부터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영유권을 공인받는 735년까지는 신라 입장에서 대일 교섭의 중요도가 높아졌던 시기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즉, 나당전쟁 이후 신라는 유민 문제, 고구려나 백제 고지의 지배 문제 등으로 인해 대당 관계가 불안정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라는 일본에 사신을 빈번하게 파견하였고, 別獻物이라는 이전에 없었던 교섭 형태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당나라의 존재가 있었고 그 속에서 신라는 일본에 대한 교섭 정책을 세운 것이다.

730년대에는 당과의 관계가 새롭게 진전되고 그로 인해 대일 외교의 전략적인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 기점은 바로 732년에 당과 발해의 전쟁에 신라가 참여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결정적이었던 계기는 735년의 당이 신라에게 패강 이남의 영유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신라가 대일 교섭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한 시기는 신라가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 관계를 맺게 된 610년부터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영유를 정식으로 인정받는 735년까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신라가 735년에 王城國이라고 자칭하고 이에 대해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취한 배경 역시 신라가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땅을 정식으로 인정받았던 사건의 영향이 크다고 여겨진다. 732년 당과 발해의 전쟁을 계기로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일본의 전략적인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는 735년 이후부터 마지막 신라 사신이 파견된 779년까

지이다. 신라와 일본은 唐禮를 받아들이면서도 각자의 방식대로 변용하여 외교 교섭을 추진하였지만, 변용 과정에서 발생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신라와 일본 사이에는 외교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마찰은 景德王代와 惠恭王代의 신라의 대일본 사신 파견과 일본의 신라인에 대한 조치 등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 신라의 제일 중요한 외교과제는 일본이 아니었지만, 신라는 정세에 따라 대일 교섭을 추진하면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752년을 기준으로, 신라의 대일 교섭이 정치적(公的) 성격에서 경제적(私的) 성격으로 변화했다고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신라의 대일본 정책의 입장을 고려하면, 610년 이래 신라가 인지하는 대일본외교의 전략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735년을 중요 기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買新羅物解〉 이외에도 正倉院文書의 향약류 반납문서를 살펴보면 향약의 현물 반납이 증가한 것은 9세기 때이며 8세기 단계에서는 향약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9세기 동아시아 국제 무역의 확대에 따른 신라 상인의 활동을 752년의 대일 교섭과 연결하여 신라 상인의 성격이 변화한 계기로 보기는 어렵다.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의 신라의 대일 사신은 모두 일본에서 '放還'이라는 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경덕왕대와 혜공왕대는 漢化정책이 추진되고 신라 내부의 개혁이 실행되었던 시기로, 735년 이전의 시기와 달리 대일 교섭의 중요도가 하락했던 시기다. 아울러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의 신라 국내 상황은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사신 파견 주체인 신라 입장에서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의 대일 사신의 성격을이 동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 번째는 9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의 국제무역이 확대되고 신라상인의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는 시기이다. 신라에는 복수의 外港이 존재하며 각 외항은 중앙과 지방세력을 연결하여 국제 무역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통일기 신라의 외항은 각각 중앙 사회와 연결되는 한편, 지방에서 성장하였던 재지 세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외항은 중앙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운영될 수는 없었지만, 중앙과 연결된 강도의 측면에서는 여러 층위가 존재하였다.

9세기 신라의 대일 교섭은 확대된 동아시아 국제 무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은 신라상인을 매개로 하여 당, 서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유통되는 외래품들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9세기의 신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한 남해무역의 실태와 서아시아 이슬람 지역과의 관계는 신라상인 관련 사료, 해양고고학에서의 침몰선 연구 성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대일(왜)교섭, 조개 무역, 新羅道, 동아시아 국제 무역, 남해무역, 외항

학 번 : 2016-30848

목 차

序論 ····· 1

1.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 ····· 1
2. 기존 연구 성과의 검토 ····· 5
3.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 12

一. 신라와 왜의 교섭 교통로의 다양성 ····· 18

1. 麻立干時期 왜의 신라 침공 기사 해석 ····· 19
2. 한반도 패각 제품과 조개 무역 ····· 44
3. 신라와 北部九州의 관계와 교통로의 변화 ····· 56

二. 對日 교섭의 중요성과 신라의 통일 ····· 88

1.'新羅道'와 對倭 교섭 ····· 90
2. 羅唐戰爭 이후 신라의 대외정책 ····· 127

三. 동아시아 사회의 동요와 교섭 형식의 복잡화 ····· 151

1. 景德王代 신라의 대일본 사신과 무역품의 이동 ····· 151
2. 惠恭王代 신라 대일본 사신의 성격과 특징 ····· 182
3. 8세기 말 신라에 대한 일본의 외교조치 ····· 209

四. 9세기 신라 국제 무역 활동의 확대 ····· 221

1. 신라의 外港, 재지세력, 중앙의 관계 ····· 223
2. 9세기 이후 신라 국제 무역의 확대 ····· 256

結論 ····· 284

참고문헌 ····· 295

Abstract ····· 326

표 목 차

[표 1] 신라와 일본이 교환한 외교문서 ····· 6
[표 2] 《三國史記》 新羅本紀 5세기대의 對倭 관계 기사 22
[표 3] 5세기 중엽~6세기 경주 지역의 패각 제품과 패각 장식 마구 ····· 45
[표 4] 왜와 삼국의 불교를 통한 대외 교섭 ····· 118
[표 5] 7세기 말 신라의 別獻物 ····· 131
[표 6] 《일본서기》에 보이는 7세기 말의 신라학문승의 움직임 ····· 133
[표 7] 哀莊王代 假王子 관련 사료 ····· 156
[표 8] 景德王代 對唐 관계 기사 ····· 163
[표 9] 〈매신라물해〉에 보이는 품목 ····· 175
[표 10] 경덕왕대 말기 신라의 대일 사신 ····· 183
[표 11] 惠恭王代에 일어난 亂 ····· 186
[표 12] 惠恭王代 초기의 《三國史記》 災異·怪異 기사· 193
[표 13] 惠恭王 9~12년 신라의 對唐 사신 기사 ····· 198
[표 14] 신라인과 신라 관련 인물의 대일 교섭 기사 (장보고 사망 이전) ····· 263
[표 15] 正倉院 소장 향약 대상 산지 분석 결과 ····· 271

그 림 목 차

[그림 1] 東海岸 지역의 왜 關聯地 ····· 29
[그림 2] 新澤千塚 126호분 출토 금제 龍文透彫方形板 ····· 40
[그림 3] 新澤千塚 126호분 출토 유리 그릇과 접시 ····· 41
[그림 4] 야광패 ····· 48
[그림 5] 야광패 출토 유적과 조개 무역의 경유지 ····· 49
[그림 6] 천마총·황남대총 출토 야광패 국자 ····· 50
[그림 7] 고령 지산동 44호분 출토 야광패 국자 [복제품] 50
[그림 8] 岩戶山고분과 石人의 복제품 ····· 57
[그림 9] 艫山고분 출토 금동제 三葉文帶金具 [복제품] ···· 77
[그림 10] 5세기부터 6세기 초까지 신라와 왜의 교섭 상황 ····· 81
[그림 11] 관산성, 아막성의 위치 ····· 100
[그림 12] 당성에서 바라본 서해 ····· 112
[그림 13] 현재 登州의 해안 ····· 114
[그림 14] 황해 중부 횡단항로와 고대의 침몰선 ····· 115
[그림 15] 8세기 중반 신라와 주변 국가의 관계 ····· 218
[그림 16] 울산 반구동유적 Ⅰ-1호 건물지 ····· 227
[그림 17] 선진리 석실 ····· 241
[그림 18] 金憲昌의 亂 때 사료에 보이는 지방의 상황 ····· 252
[그림 19] 4월 5일조에 등장하는 재당신라인의 宿城村 비정지 ····· 260
[그림 20] 동남아시아의 주요 항구 [1세기 이후] ····· 269
[그림 21] “寶曆二年 七月十六日”이라는 기년이 새겨진 도자기 ····· 275

[그림 22] 벨리퉁[BELITUNG] 침몰선의 오리 모양의 금은기 ····· 276
[그림 23] 금은기와 法門寺 박물관에 소장 금은기 ····· 276
[그림 24-1] 벨리퉁 침몰선 출토 손잡이가 있는 컵형 금기 ····· 277
[그림 24-2] 중국 西安 陝西省歷史博物館 소장 손잡이가 있는 컵형 금기 ····· 277
[그림 25] 자우 탄 침몰선 한자, 인도어, 아랍어가 보이는 도자기 편 ····· 279
[그림 26] 자우 탄 침몰선의 “Ambārak”라고 해석할 수 있는 파편 ····· 279
[그림 27] ‘Yazd-bōzēd’라는 글자가 확인된 월주요 제작 항아리 ····· 281

序 論

1.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

본 논문에서는 신라와 일본(倭)이라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신라의 對日 교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1] 특히 경제적인 조건인 '물건의 움직임과 이동', 정치적인 조건인 '외교제도'와 '외교문서'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인 '외교항로'에 주목하여 5세기부터 9세기 중엽까지 신라의 대일 교섭의 실태와 전개를 살펴보고, 대외정책 결정의 원인이 된 역사적인 배경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신라와 일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주변 국가의 동향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 검토 대상은 唐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당을 통하여 신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까지도 확장하려고 한다. 신라의 대일 교섭은 당사자 양국 사이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安史의 亂' 발발 이후 당의 서방[吐蕃]과 동방[藩鎭] 정책으로 인한 변화이다. 당은 東에서 西, 다시 西에서 東의 방향으로 군사적 대응을 펼쳤으며 특히 안사의 난 직후에는 서방 정책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당은 동방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으며, 신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외교를 구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신라의 대일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금까지 신라와 일본의 대외교섭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로, 한일 양국 연구자 간 관심사의 편중에 따른 사료 선택의 경향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이로 인하여 양국 학계에서 전개된 연구의 방향성이 달라졌고, 양자의 견해를 복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

1) 본론에서는 天武天皇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시기는 '倭'로, 그 이후 시기는 '日本'으로 규정한다.

이에 서로의 연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통이 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차이와 불충분한 이해 역시 신라와 일본 간 대외교섭의 실태를 규명하기 어렵게 만든 이유 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 기존 연구에서는 규범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난 모순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교섭의 실상을 충분히 복원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룬 외교문서 등 대부분의 문헌 사료는 일본 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어, 신라 측의 상황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였다. 또한 신라와 일본 관련 기사를 검토하더라도 외교 규범인 '외교제도'와 외교 실태인 '물건의 움직임과 이동' 사이에는 외교 규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지금까지는 동아시아에 律令 體制가 성립한 이후에 보이는 대일 교섭의 성격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별 연구의 진전으로 인하여 오히려 대외교섭의 전체상을 조망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외교섭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전개되며 이러한 요인은 각국의 대외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물건의 움직임과 이동', '외교제도', '외교문서' 그리고 '교통로' 등의 각 분야의 연구가 심화된 결과, 대외교섭의 일측면이 파악되었으며 대외관계사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외교섭의 실태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조건, 정치적인 조건, 지리적인 조건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론에서는 5세기에서 9세기 중반이라는 비교적인 긴 기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함으로써 신라 대일 교섭의 변화상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5세기에서 9세기 중반까지 신라와 일본의 대외교섭 성격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대외정책 결정의 원인이 된 역사적인 근거를 고찰하는 것이다. 5세기에서 9세기 중반까지로 연구 대상 시기를 설정한 이유는 각 시기의 정치적인 맥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먼

저 5세기대 신라는 북방의 고구려, 서쪽에는 고구려와 대립하는 백제, 남쪽에는 왜와 연대한 가야에 둘러싸여 중국과 직접 교섭할 수 없었고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신라는 정치적으로 왜와의 관계를 중시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5세기부터 신라와 왜 양국 관계 기사가 빈번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역시 이 시기부터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한이 되는 9세기 중반은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고, 그 주역으로 활동했던 장보고가 신라의 내란 과정에서 사망했던 시기이다. 장보고는 신라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대두한 인물로, 활발한 국제 무역 활동을 전개한 동시에 신라의 청해진 세력을 통솔하는 군사적인 면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보고가 사망한 9세기 중반 이후에는 신라가 이용하는 주요 항로가 황해 남부 사단항로로 변화하였고, 일본 역시 이 항로를 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이 신라에 의지하지 않고 당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항로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신라는 對일본 외교정책에 교통로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신라를 포함한 한반도의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하였던 산동반도와 직접 연결되는 항로의 활용이 줄어들고, 당에서는 명주가 대두함에 따라 교역 대상이 강남상인들로 변화한다. 즉 신라 하대의 국내 상황과 대일 교섭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9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변화가 감지된다고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9세기 중반을 하한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교섭'은 신라와 일본 양자가 자신의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구축하려고 한 의도가 존재하였으므로 성립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와 일본의 교섭은 신라와 일본 각각의 국내상황과 국제정세에 따라 전개되었으며, 때로는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시기 및 지역적인 범위에서 변천이 보이는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교섭'이라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섭이 시작되는 시기에 대해, 일본은 5세기 이전부터 한반도로부터 선진문물을 받고 있었으며, 한반도 역시 일본열도와 교류하

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교섭을 추진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古墳時代 전기부터 왜 왕권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왜 왕권 이외의 지역 사회가 주체가 되어 신라와 외교 활동을 전개한 양상을 보면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왜 왕권 이외의 諸 세력과 신라의 교섭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라는 그 이후의 시기에 한반도 정세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타개책의 하나로 대일 교섭을 추진한 경우가 보이며, 대일 외교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을 때도 일본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후 9세기 동아시아 세계에서 국제 무역이 확대했을 때도 신라는 다수의 외항을 각 지역에 설치하고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점에서 신라와 일본 사이에는 시간적이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단계와 층위의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섭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唐禮라는 본격적인 외교의례를 도입한 이후 신라의 대일 외교가 변화하는 양상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신라는 중국 왕조에서 기원한 율령제도를 수용하여 자신들의 외교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러한 상황은 인접한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며 외교 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신라와 일본의 대외교섭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주변 국가와의 교류에서 드러나는 외교교섭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특수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신라 대외정책은 동아시아 주변 국가의 영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당과 동남아시아 간의 남해 무역, 안사의 난에서 기인한 서방 지역의 움직임도 고려할 것이다. 이처럼 주변 세계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들이 신라와 일본의 대외교섭에 미친 영향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신라와 일본 사이에 나타나는 대외교섭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인 의의를 규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기존 연구 성과의 검토

1) 신라·일본의 대외관계사 연구

대외관계사 연구에서는 신라와 당 혹은 일본과 당을 중심으로 하는 遣唐使 연구가 주된 경향이었다. 또한, 한반도와 일본 개별 지역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동아시아 범위에서 신라와 일본의 역할에 주목한 본격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일본에서의 대외관계사 연구는 견당사를 중심으로 한 당과의 대외관계사가 오랫동안 중시되어왔다. 따라서 일본과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 국가들의 외교 관계는 일본과 당의 교섭 횟수를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당과의 관계를 중계·보완할 뿐이라고 저평가되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스즈키 야스타미[鈴木靖民]는 한반도와 일본의 대외관계를 언급하였으며 그 이후 해당 연구를 발전·보완하여 한반도 삼국과의 관계사 연구를 진행하였다.[2] 또한 《日本書紀》를 재검토하여 대외관계사를 고찰한 연구도 제시되었다.[3]

그 이후 신라와 일본의 대외관계사 연구는 '외교의례 및 외교제도'와 '외교문서'라는 방향으로 수렴된다. 먼저 외교의례와 외교제도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8세기 신라의 영접 의례 전반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과 일본, 고려시대의 사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4] 그리고 《大唐開元禮》 賓禮條의 조목이 신라에서 실제 운용된 사례를 입증하여 당으로부터의 빈례 수용이 신라 중대의 왕권 강화에 이바지하였다고 파악하였다.[5] 그리고 신라의 외빈 영접 의례가 정비되는 과정, 외빈에 대한 영접 절차와 방식, 이를 위해 운영된 영접 관부들의 역

2) 鈴木靖民, 1985 《古代對外關係史の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3) 金鉉球,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4) 박남수, 2011 〈8세기 신라의 동아시아 외교와 迎賓 체계〉 《新羅史學報》 21; 2011 《한국 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 주류성에 재수록.
5) 채미하, 2011 〈신라의 賓禮- 당 사신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43; 2015 《신라의 오례와 왕권》, 혜안에 재수록.

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대외 인식과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을 함께 검토한 연구가 있다.[6]

한편 일본학계에서는 일본에 파견된 신라 사신이 나니와[難波]에서 빈례를 받았던 점에 주목하여 입경 경로와 외교 빈례를 살펴보고 사신의 외교의례 장소로서 難波가 가지는 지역적 중요성을 제시한 연구가 확인된다.[7] 또한 '예의 보편성', '군주 사이의 외교 관계', '主客 관계에 따른 賓禮'라는 세 개의 관점으로 신라를 포함한 일본의 대외 빈례를 고찰한 연구도 있다.[8]

다음으로는 '외교문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외교문서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타국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교환한 문서이며, 그중에서도 군주가 상호교환한 문서의 경우 '國書'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료에서 내용이 확인되는 신라와 일본의 외교문서는 5건이다. 외교문서는 《三國史記》 등 한국 내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모두 일본 측 자료에 남아 있는데, 대부분은 일본 조정이 신라에 발송한 외교문서이다. 다만, 신라가 일본에 보낸 '新羅執事省牒'이 1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서가 가지는 특수성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9]

[표 1] 신라와 일본이 교환한 외교문서

출전	연대	사료일자	문서종류	발신 대상	비고
《續日本紀》	706	慶雲년 정월丁亥	慰勞詔書	日→新	외교문서 初出

6) 黎虎, 1998 《漢唐外交制度史》,蘭州 :蘭州大學出版 ;2019 《漢唐外交制度史[增訂本]》,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최희준, 2018 《新羅 外賓 迎接儀禮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森公章, 1995 〈古代難波における外交儀禮とその變遷〉 田中健夫 編,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東京: 吉川弘文館; 1998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東京: 吉川弘文館에 재수록.

8) 浜田久美子, 2018 〈古代日本の外交儀禮-唐·新羅·渤海との比較-〉 田中史生 編, 《日本古代と興亡の東アジア》, 東京: 竹林舍; 2022 《日本古代の外交と禮制》, 東京: 吉川弘文館.

9) 노명호 외, 2000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상》, 서울대학교출판부.

《續日本紀》	706	慶雲3년 11월癸卯	慰勞詔書	日→新	
《續日本紀》	726	神龜3년 7월戊子	勅書	日→新	金順貞의 勅書
《續日本紀》	780	寶龜11년 2월庚戌	慰勞詔書	日→新	마지막 신라사
《續日本後紀》	836	承和3년 12월丁酉	執事省牒	新→日	新羅執事省牒

우선 외교문서의 序頭 부분에 주목하여 외교문서 자체의 성격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10] 예컨대 당 외교문서 서두의 정형구에는 '皇帝敬問', '皇帝問', '勅'의 3종류가 있는데, '皇帝敬問', '皇帝問'의 경우는 慰勞詔書에 사용한 정형구이며 '勅'은 論事勅書에 사용한 정형구이다. 일본 조정이 신라에 보낸 慰勞詔書의 서두 정형구는 "天皇敬問新羅國王"인데, 이것은 당이 사용한 외교문서인 慰勞詔書가 "皇帝敬問(皇帝問)某"로 시작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5세기 이후 일본이 신라에 보낸 외교문서는 중국의 공문서 서식을 바탕으로 하여,[11] 일본의 독자적인 요소를 더한 형식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외교문서가 수록된 사료의 전후를 보면 외교의례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당시 일본에서는 율령이 완성되면서 화이사상이 고양되었고, 그 결과 신라에 보내는 외교문서로 일본 상위의 명백한 상하관계를 드러내는 慰勞詔書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조정이 신라에 보낸 국서는 일본 율령의 근본에 있는 중화사상의 구체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의 입장은 달랐는데, 나당전쟁 이후 신라와 당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일본의 慰勞詔書를 수용하였으나, 신라와 당의 관계가 진전되고 일본에 대한 외교적 중요도가 감소하면서 이를 거부했다.[12]

---

10) 中村裕一, 1991 《唐代制勅研究》, 東京: 汲古書院, 261~272쪽.

11) 당나라 황제가 사용한 공문서의 서식으로는 《大唐六典》 권9, 中書禮條에 의하면 1. 冊書, 2. 制書, 3. 慰勞制書, 4. 發日勅, 5. 勅旨, 6. 論事勅書, 7. 勅牒의 7개 종류가 보인다.

12) 石井正敏, 1992 〈古代東アジアの外交と文書 -日本と新羅·渤海の禮を中心に

2) 고대 동아시아의 交通路에 대한 연구사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통하여 기원전부터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신라나 일본에서 율령을 바탕으로 한 외교체제가 도입된 이후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대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제도의 수용 정도, 국내의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국가 성립 이전의 한반도와 일본의 교섭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유적은 사천 늑도유적이다. 1985년 이후 몇 번의 발굴조사가 진행된 결과, 해당 유적에서는 대일 교섭을 증명할 수 있는 彌生土器, 土師器, 須惠器 등의 왜계토기가 확인되었다.[13] 이외에도 대외교섭의 상황을 보여주는 유물로 燕, 樂浪, 前漢과 관계가 있는 외래유물이 다수 발굴되었다. 낙랑계 유물은 주로 전한 시기의 것으로 비정할 수 있는데, 이는 기원전 1세기대의 교섭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14]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일 교섭의 거점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장거리 교섭의 거점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4세기에서 6세기의 한반도와 왜왕권의 교섭에 대하여 중앙과 중앙의 고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도 주목하여 교섭 활동의 다양성을 포착한 연구도 확인된다.[15]

한편 이시모타 쇼[石母田正]는 '交通'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16] 그는

-〉; 2001 《日本渤海關係史の硏究》, 東京: 吉川弘文館에 재수록. 그 외 외교문서를 다룬 연구로는 신라를 포함한 외교문서 전체를 해석한 연구 성과가 있다(鈴木靖民·金子修一·石見淸裕·浜田久美子, 2014 《日本古代の外交文書》, 東京: 八木書店).

13) 사천 늑도 유적에서 출토된 야요이토기의 경우 물건이 직접 전래된 '舶載品'과 기술이 전래되어 현지에서 제작된 '현지제작품' 두 가지 종류가 모두 확인된다(국립진주박물관 편, 2016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쓰지》, 국립진주박물관).

14) 井上主稅, 2014 《朝鮮半島の倭系遺物からみた日朝關係》, 東京: 學生社, 29쪽.

15) 박천수,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高田貫太, 2014 《古墳時代の日朝關係 -新羅·百濟·大加耶と倭の交涉史-》, 東京: 吉川弘文館; 2017 《海の向こうから見た倭國》, 東京: 講談社; 2021 《アクセサリーの考古學 倭と古代朝鮮の交涉史》, 歷史文化ライブラリー522, 東京: 吉川弘文館.

16) 중국 사료상에 보이는 '交通'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七野敏光, 1993 〈九朝律考

‘交通’이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품 교환, 유통, 상업 그리고 생산기술의 교류,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전쟁과 외교를 포함한 대외관계,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문자의 사용부터 법의 계승까지 다양한 교류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17] 이 견해는 ‘交通’이라는 표현에 함축된 세 가지 측면을 밝힌 성과로, 그 이후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18] 본 연구에서는 바닷길을 ‘航路’, 육지를 통하는 길을 ‘陸路’라고 표현하고, 航路와 陸路를 포괄하여 ‘交通路’라고 정리하겠다.

신라의 대외 항로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황해 연안을 따라서 산동반도의 登州로 향하는 경로가 제시되었다.[19] 이후 1980년대에 신라의 대당 사신 관련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는 항로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다.[20]

신라의 사행 항로는 ①황해 북부 연안항로, ②황해 중부 횡단항로, ③황해 남부 사단항로의 세 항로가 제시되었으며, 각 항로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상황과의 관련성이 언급되었다.[21] 교통로에 관한 연구가 진전

および漢唐間正史刑法史〉 滋賀秀三 編, 《中國法政史基本資料の硏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榎本淳一, 2008 《唐王朝と古代日本》, 東京:吉川弘文館 등이 있다.

17) 石母田正, 1971 〈日本の古代國家〉; 1989 《石母田正著作集第三卷 日本の古代國家》, 東京: 岩波書店, 20쪽에 재수록.

18) 平野卓治는 정치적인 영역의 ‘交通’에 주목하여, 일본의 율령 국가의 구조가 당이 아닌 신라와 발해와의 ‘交通’을 통해 규정되었다고 보았다(平野卓治, 1994 〈日本古代國家の成立·展開と對外 ‘交通’〉 《歷史學硏究》 664). 한편, 松原弘宣은 의사, 정보의 교환이 정신적인 영역의 ‘交通’에 포함된다는 관점에서 출토 문자자료의 정보전달 형식에 대해 고찰했다(松原弘宣, 2009 《日本古代の情報傳達》, 東京: 汲古書院).

19) 內藤雋輔, 1930 〈朝鮮支那間の航路及び其の推移に就いて〉 《內藤博士記念史學論叢》; 1961 《朝鮮史硏究》, 京都：東洋史硏究會 에 재수록.

20) 孫兌鉉, 1980 〈古代에 있어서의 海上交通〉 《韓國海洋大 論文集》15, 57쪽; 孫兌鉉·李永澤, 1981〈遣使航運時代에 關한 硏究〉 《韓國海洋大 論文集》16; 孫兌鉉, 1982 《韓國海運史》, 亞成出版社, 42쪽에 재수록; 申瀅植, 1989 〈韓國古代의 西海交涉史〉 《國史館論叢》2.

21) 權悳永, 1996 〈新羅 遣唐使의 羅唐間 往復行路에 對한 考察〉 《歷史學報》149; 1997 《古代韓中外交史 -遣唐使 硏究-》, 일조각에 재수록; 고경석, 2011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 -중부횡단항로와 남부사단항로 개설 시기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21; 권덕영, 2012 《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전덕재, 2013 〈新羅의 對中·日 交通路와 그 變遷〉 《역사와 담론》65; 윤재운, 2015 《교류의 바다 동해》, 경인문화사; 강봉룡, 2016 《바닷길로 찾아가는 한국

됨에 따라 신라 선박의 항해 기술에 주목한 연구도 나타났다.[22] 또한 이러한 항로를 사용한 집단인 在唐新羅人[23]에 주목하는 등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졌다.[24]

1990년대에는 신라와 이슬람 상인의 무역 교통로로 상정된 신라-揚州, 廣州, 明州를 경유하는 항로도 주목받았다.[25] 한편 바다를 다문화, 다민

고대사》, 경인문화사; 馮立君, 2019 《唐朝与東亞》,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2) 김재근, 1985 〈張保皐 時代의 貿易船과 그 航路〉 《張保皐의 新硏究》, 완도문화원, 148~150쪽; 席龍飛, 2000 〈隋·唐時代造船技術發展〉 《中國造船史》, 武漢: 湖北敎育出版社; 최근식, 2005 《신라 해양사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권덕영, 2012 앞의 책.

23) '재당신라인'이라는 표현은 김문경이 처음 제시했다(김문경, 1984 《唐代의 社會와 宗敎》, 崇田大學校出版部). 재당신라인은 '당나라에 살고 있던 신라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재당신라인 사회는 '당나라 안에 신라인들이 모여 살던 집단거주지' 정도로 다소 막연하게 인식되어왔다. 재당신라인에 관해서는 여전히 재당신라인 사회의 형성과 해체, 중국 내륙지방의 신라인 사회 존재 여부와 분포 상황, 신라인 사회와 본국과의 관계, 당나라의 정치·경제·문화 발전에 있어서 재당신라인들의 역할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권덕영, 2005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일조각, 29~40쪽).

24) 金文經, 1967 〈赤山 法華院의 佛敎儀式 -佛敎 大衆化 過程의 一齣-〉 《史學志》1; 1969 〈在唐新羅人의 集落과 그 構造〉 《李弘稙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84 앞의 책에 재수록; 李永澤, 1982 〈9世紀 在唐韓國人에 대한 考察 -入唐求法巡禮行記를 중심으로〉 《韓國海洋大學論文集》17; 卞麟錫, 1992 〈9세기 在唐新羅坊의 性格에 관한 試論的考察〉 《인문논총》3; 掘敏一, 1998 〈在唐新羅人の活動と日唐交通〉 《東アジアの中の古代日本》, 東京; 硏文出版; 이유진, 2001 〈9세기 재당신라인의 활동에 대하여〉 《中國史硏究》13-1; 近藤浩一, 2002 〈赤山法花院과 平盧軍節度使〉 《韓國古代史硏究》28; 田中俊明, 2003 〈アジア海域の新羅人—九世紀を中心に—〉 《東アジア海域圈の史的硏究》, 京都; 京都女子大學; 崔宰榮, 2004 〈8~9世紀 唐朝의 蕃坊 運營과 在唐 新羅人社會 -唐朝의 외래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통제양상 비교〉 《韓國古代史硏究》35; 권덕영, 2005 앞의 책; 田中史生, 2007 〈江南の新羅人交易者と日本〉 佐藤信他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 東京; 山川出版社 ; 2012 《國際交易と古代日本》, 東京; 吉川弘文館에 재수록; 고경석, 2008 〈재당 신라인사회의 형성과 발전〉 《韓國史硏究》140; 荻原史明, 2013 〈淸海鎭大使張保皐と在唐新羅人居留地の關係について-泗州漣水縣を中心に〉 《史苑》73; 山崎雅稔, 2015 〈唐における新羅人居留地と交易〉 《國學院大學紀要》53.

25) 이용범, 1969 〈處容說話의 一考察 -唐代 이슬람 商人과 新羅-〉 《震檀學報》32; 1989 《韓滿交流史硏究》, 同和出版公社에 재수록; 家島彦一, 1991 《イスラム世界の成立と國際商業 國際商業ネットワークの變動を中心に》, 東京: 岩波書店; 尹明喆, 1996 《동아지중해와 고대 일본》, 청노루; 강봉룡, 2005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한얼미디어; 家島彦一, 2006 《海域から見た歷史インド洋と地中海を結ぶ交流史》,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하세봉, 2010 〈한국의 동아시아 해양

족, 다권력의 상호 관계가 형성되는 역동성의 공간이라고 전제하고 국가 형성을 고찰한 연구도 확인된다.[26]

3) 고대 대외교역 연구에 대한 연구사

한국의 고대 대외교역 연구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고조선에서 남북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대외교역, 교역품, 교역로를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미 관련 연구사가 정리된 바 있다.[27] 고대사회에서 교역 활동은 물자교류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정치권력과 문화 변천의 중요 변수였다.[28] 경제인류학에서는 '流通'을 호혜성, 재분배, 시장교환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한다. 이때 호혜성과 시장교환의 경우 양측의 당사자가 等價라고 인식한 가치를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교역'의 범주에 속하며 재분배와 분리된다.[29]

윤재운은 교역을 물물교환과 동일하게 정의하면서도, 상거래와 물물교환을 포함하는 무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무역구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생산되는 자원과 물품, 기술이 서로 다르므로 지역 간 교역 활동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9세기 후반까지의 대중국, 대일본의 교역 양상을 공무역과 사무역으로 구분하고 정리했다. 즉, 중국과 일본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적 관점으로 신라 하대에 확장된 해상무역을 이해한 것이다.[30] 한편 박남수는 신라의 수공업 기술에 주목하여 교역품의 산지 혹은 용도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31]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과 일본의 교섭, 동서문물의 교류 현황, 그 가운데에 나타

사 연구 - 민족주의적 성과와 탈근대적 전망 -〉 《동북아문화연구》 23.

26) 권오영, 2019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 세창출판사, 16~17쪽.

27) 윤용구, 2007 〈삼한 삼국의 교역〉; 김창석, 2007 〈남북국시기의 교역〉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28) 李賢惠, 1994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記念韓國史學論叢》 上;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일조각, 264쪽에 재수록.

29) 김창석, 2004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20~24쪽.

30) 윤재운, 2006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31) 박남수, 1996 《신라수공업사》, 도서출판신서원.

난 한국 고대 문화의 특성을 동아시아 교역사라는 개념으로 검토했다.[32]

한편 많은 연구자들이 고대 무역의 형태를 공무역과 사무역으로 구분하였다. 소위 '朝貢'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품 교환이 행해지는 것은 공적인 교역으로,[33] 금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이루어졌던 교역을 사적인 교역으로 이해한다.[34]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에도 공무역과 사무역을 구분하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조공을 공무역,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고 상인들이 관여가 확인된 경우를 사무역이라고 이해하는 연구자가 많다. 특히 신라와 일본의 경우 752년의 신라사 파견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양국의 무역이 공무역에서 사무역으로 전환되었다고 이해하였다.

3.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현재 신라와 일본의 대외교섭에 관련한 자료들은 충분히 남아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 자료뿐만 아니라 대외관계 연구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했던 사료들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신라사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자료는 《삼국사기》이지만, 신라와 일본의 대외교섭에 한정한다면 충분한 정보를 싣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일본서기》에서 확인되는 신라 관계 사료와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신라의 대일 교섭

32) 박남수, 2011 앞의 책.

33) 이러한 형식에 대하여 조공을 무역의 일종이라고 보고 '朝貢貿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朝貢과 貿易은 원래 완전히 다른 관념임을 지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조공에 경제적인 의미가 포함되며 국가의 무역 독점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물의 가치를 웃도는 回賜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된 점은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지배자로서의 정당성과 권위 확보에 있었으며, 따라서 朝貢과 貿易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榎本淳一, 2008 앞의 책, 131쪽).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도 '朝貢貿易'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4) 金庠基, 1934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야 [一]〉 《震檀學報》1, 86쪽.

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삼국사기》, 《일본서기》는 原典 왜곡의 문제가 있으므로[35] 논문에서는 엄밀한 사료 비판을 전제로 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신라와 일본의 교통로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리적 조건상 일본은 바다를 건너야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항해를 위한 교통로를 확보하고 장악하는 것은 교섭을 진행할 때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로는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시대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5세기 조개 무역과 관련된 교통로가 주목된다. 5세기 중엽 경주 고분에서 출토되는 마구류에 장식된 조개는 규슈[九州] 이남 南島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라와 九州의 貝 무역에 관여한 이들은 九州 지역의 海人 집단이었다. 이 시기 九州에는 이와이[磐井]나 히노키미[火君] 등 유력 호족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九州와 신라의 교섭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라, 九州 호족, 해인 집단, 왜 왕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 '新羅道'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6세기 이후를 살펴보겠다.[36] 이 시기에는 신라의 대당 교류

---

35) 《삼국사기》에 관하여 井上秀雄, 1968 〈三國史記の原典をもとめて〉 《朝鮮學報》48; 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京: 東出版에 재수록; 田中俊明, 1982 〈三國史記中國史書引用記事の再檢討〉 《朝鮮學報》104; 深津行德, 1991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중국 사서 인용에 대한 소고〉 《청계사학》8; 高寬敏, 1996 《三國史記の原点的研究》, 東京: 雄山閣; 강종훈, 2011 《삼국사기 사료비판론》 여유당; 전덕재, 2018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등이 있다. 또한 《일본서기》에 관하여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卷, 東京: 吉川弘文館; 新川登龜男·早川萬年編, 2011 《史料としての〈日本書紀〉-津田左右吉を讀みなおす》, 東京: 勉誠出版; 遠藤慶太, 2012 《東アジアの日本書紀-歷史書の誕生-》, 東京: 吉川弘文館; 2015 《日本書紀の形成と諸資料》, 東京: 塙書房; 遠藤慶太·河內春人·關根淳·細井浩志編, 2018 《日本書紀の誕生-編纂と受容の歷史-》, 東京: 八木書店; 瀨間正之編, 2018 《「記紀」の可能性(古代文學と隣接諸學10)》, 東京: 竹林舍 등이 있다.

36) 二章 1節에서 언급할 '新羅道'는 《日本書紀》 卷25 白雉 5년(654) 2월조의 사료에서 보이는 표현이고, 현재 통용되는 '황해 중부 횡단항로'를 가리킨다. 이는

가 확대되면서, 일본의 大唐留學僧侶나 일본의 대당 사신 역시 신라도를 이용했다. 이러한 신라도의 외교적인 이용을 염두에 두고, 대외교섭에서 나타난 신라의 외교정책의 특징을 고찰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당과 일본의 율령 조문을 비롯한 법제 관련 사료를 적극적으로 원용했다. 일본은 당의 제도를 수용하여 율령을 완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라의 율령도 당의 율령만큼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신라와 일본의 외교 관계 전개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율령은 당 중심의 세계 질서의 보편성을 전제하는 제도이며, 당의 주변 국가인 신라와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변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용 과정에서 발생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신라와 일본 양국은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唐禮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신라와 일본의 외교의례 마찰에 대해 살펴보겠다.

하나의 사례로, 752년에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 金泰廉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선행연구에서는 正倉院文書〈買新羅物解〉에서의 교역 품목을 토대로, 752년을 기점으로 신라 사신의 성격이 정치적 측면에서 교역적 측면으로 바뀌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시 대외교역은 '官司專賣制'를 바탕으로 한 국가 사이의 행위이므로 이때의 교역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는 교역과 정치를 구별하기보다는, 하나의 범주로 파악하려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매신라물해〉의 재검토를 통해 752년의 신라 사신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신라의 경우 752년 이전부터 다양한 형식으로 일본에 물건을 보내는 외교방식을 채용하여 대일 교섭을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라의 물자를 매개로 한 대일 교섭에 관하여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주변 국가

《삼국사기》에 보이는 '唐恩浦路'가 육로까지 포함한 교통로인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본고에서 언급하는 '신라도'는 8세기의 발해에서 신라로 통하는 대외교통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미리 언급해두고자 한다.

와의 관계를 검토한 후 해당 물자가 가지고 있었던 외교정치적 의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의 대일본 사신은 일본에서 '放還' 조치를 받았던 사신이므로 양자의 성격을 동일하게 이해해왔던 견해가 다수였다. 그러나 신라 국내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드러내지 못한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의 대일본 사신의 성격 차이를 《續日本紀》는 물론 《삼국사기》와 중국 사료를 이용하여 규명하도록 하겠다.[37] 또한 그 시기의 신라와 신라인에 대한 일본의 조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이 내린 太政官符를 통하여 8세기말의 신라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확인하겠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신라의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항구를 살펴보겠다. 신라는 여러 外港을 거점으로 하여 동아시아 무역을 전개했다.[38] 9세기 전반 신라가 발행한 두 개의 '新羅執事省牒'이 남아 있는데, 기존에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라 상인과는 다른 측면에서 신라와 일본 간의 관계를 제시하려고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39] 본 논문에서는 신라 각지의 외항을 살펴본 후, 신라 중앙, 외항, 지방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때 〈泗川 船津里新羅碑〉, 〈菁州 蓮池寺鐘銘〉 등의 금석문을 통하여 지방세력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신라 대외교섭의 다원성을 살펴보겠다. 또한, 그 시기 신라의 국제 무역 활동의

---

37)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의 대일본 사신에 관한 기사는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와 중국 사료를 활용하여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의 대일본 사신의 성격 차이를 검토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38) 김창석은 '外港'을 외부 정치체—고대국가 성립 후에는 외국—의 사절과 교역상 등이 입국하거나 자국의 사절과 교역인이 출국할 때 활용된 항구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대비되는 內港이라는 개념도 제시하였는데, 內港은 어민들이 배를 정박하는 漁港, 수취한 조세를 왕도로 운송하는 중간 기착지 등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았다. 외항이 외교교섭이나 대외교역과 같은 대외적 기능을 담당했다면, 내항은 권역 내의 생산, 유통 등 대내적 기능을 맡고 있었다고 규정한다(김창석, 2015 〈삼국시기 신라 外港의 변천과 그 배경〉 《島嶼文化》 45, 12~13쪽). 본 연구에서는 김창석의 '外港'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39) 정순일, 2022 〈신라국 집사성첩에 보이는 해민의 이동 실태와 도해 허가 문서〉 《史叢》 105, 152~160쪽.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新羅商人'이라는 표현을 史書, 類書, 日記, 資材帳 등에서 확인하고, 해양고고학의 성과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무역 속에서의 신라의 국제무역 실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章으로 구성하였다. 一章에서는 5세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신라와 왜의 대외교섭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1節에서 마립간시기 《삼국사기》, 《일본서기》에 보이는 양국 관계 사료를 재검토하겠다. 2節에서는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한반도의 패각 제품과 패 무역, 그리고 그 경로를 검토한다. 3節에서는 신라와의 교섭에 있어서 왜 왕권과는 다른 방식의 교섭 관계가 확인되는 키비[吉備] 지역과 북부 九州의 상황을 살펴보고 신라와의 독자적인 교섭을 전개한 지방이 왜 왕권에 편입되는 과정을 검토하겠다.

二章에서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신라의 대일 교섭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 변화를 고찰하겠다. 1節에서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한 후 신라도를 이용하여 대일 교섭을 실행한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다. 2節에서는 나당전쟁 이후 당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료상에 보이는 '別獻物'의 출현을 주목하고자 한다.

三章에서는 8세기 후반부터 마지막 신라의 대일본 사신이 보이는 779년까지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1節에서는 景德王代 신라의 대일본 사신과 무역품의 이동에 주목하되, 특히 752년의 신라의 대일본 사신 문제와 〈매신라물해〉를 검토하겠다. 2節에서는 惠恭王代 신라의 대일본 사신이 경덕왕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규명하겠다. 3節에서는 신라의 대일본 사신이나 '流來新羅人' 등 증가한 신라인에 대한 일본의 외교 조치를 살펴보겠다.

四章에서는 9세기 신라의 동아시아 무역 확대와 신라의 외항, 중앙, 지방사회의 관계를 살펴보고 신라의 무역 활동 전개의 배경에 대해 논하겠다. 1節에서는 신라의 항구가 존재하는 菁州[康州](현재의 진주), 良州(현재의 울산) 그리고 완도가 있는 서남해안 지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외항, 중앙, 지방사회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신라가 9세기 어떠한 배경을 바

탕으로 국제 무역을 실행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겠다. 2節에서는 교환된 신라의 물품을 통하여 남해무역의 실태와 동아시아 무역과의 관계를 고찰하겠다.

一. 신라와 왜의 교섭 교통로의 다양성

본 장에서는 5세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신라와 왜의 대외교섭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5세기 신라와 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자가 적대적 관계였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 이유는 《三國史記》를 통해서 볼 때, 이 시기 양국 간의 전쟁 기사가 빈번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료를 엄밀하게 검토하면 이 시기 신라와 왜 사이의 교섭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지만, 교섭과 관련된 기사는 다소 '단발적'이라는 한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고고학계에서는 이 시기 신라와 왜의 대외교섭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5세기 전반 일본에 유입된 金銅 제품이 신라산이라는 점, 종래 한반도산이라고 여겨졌던 硬玉製曲玉이 일본산이라는 점, 그리고 경주에서 확인되는 조개 제품의 원산지가 일본 규슈[九州] 이남이라는 점 등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1)]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신라와 일본 九州 지역의 교섭이다. 九州 지역에서는 이와이[磐井]의 亂이 일어나는 6세기 전반은 물론 그 이전 시기에도 신라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유구·유물이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 일단 5세기에서 6세기 중반까지 신라와 독자적으로 교섭을 시행하였다고 여겨지는 九州 지역 정치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5세기부터 6세기대의 문헌 사료에 보이는 신라와 왜의 교섭 관계 기사를 재검토하여, 이 시기 신라와 왜의 관계를 단순히 '적대적'으로만 볼 수 없음을 논증하겠다.

다음으로는 磐井의 亂 종결 이전까지 왜 왕권과 별도로 운영되었던 九

1) 九州의 조개제품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木下尙子, 1996 《南島貝文化の研究 · 貝の道の考古學》, 東京: 雄山閣; 九州國立博物館, 2006 《南の貝のものがたり》 福岡: 朝日新聞社; 井上主稅, 2014 《朝鮮半島の倭系遺物からみた日朝關係》, 東京: 學生社; 朴天秀, 2016 《신라와 일본》, 진인진 등이 있다.

州 지역과 신라의 교섭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세기 중엽 경주 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마구류에 장식된 조개는 九州 지역 이남 미나미시마[南島]에서 채취된 것이다. 당시 신라와 九州 지역의 조개 무역에 관여한 인물들은 九州 지역의 海人 집단이었다. 더불어 이 시기 九州에는 磐井이나 히노키미[火君] 등 유력호족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九州와 신라의 교섭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신라, 九州 지역 호족, 海人 집단, 왜 왕권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진행하겠다.

1. 麻立干時期 왜의 신라 침공 기사 해석

5세기 신라와 왜의 대외교섭 상황은 《삼국사기》, 《日本書紀》를 통해서 볼 때 전쟁 기록이 빈번하므로, 양국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이었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이 시기 전쟁 관련 기사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양국의 교섭 관련 기사를 들 수 있다. 더불어 5세기 한반도에는 고구려의 본격적인 남하가 시작되어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지고 있었다. 신라는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서 외부와의 교섭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신라와 왜의 관계는 기존과 같이 전쟁 기사에만 주목하는 방식이 아닌, 당시의 국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장에서는 5세기~6세기 중반 신라와 왜의 대외교섭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료에 보이는 신라의 대외교섭을 한반도에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5세기 신라와 백제는 남하하는 고구려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毗有王은 訥祗麻立干 17년(433)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였고 신라도 이에 응하였다.[2] 이른바 '羅濟同盟'이 결성된 것이다.[3] 백제는 이듬해에도 신라에 좋은 말 두 필과[4] 흰 매를

2)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訥祗麻立干 17년(433) 秋7월조 "百濟遣使請和, 從之."
3) '羅濟同盟'에 대하여 鄭雲龍, 1996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關係〉 《白山學報》

선물하였으며[5] 신라는 황금과 명주를 보내며 호응하였다.[6] 이후 신라와 백제의 공조는 오래 이어졌으며 눌지마립간 39년(455)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자 신라는 백제를 지원하였으나[7]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475년에 고구려 長壽王이 백제 漢城을 공격했으며[8] 이후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였다. 더욱이 炤智麻立干 15년(493)에 신라 왕녀와 백제 東城王이 혼인하였고,[9] 소지마립간 16년(494)에 신라 장군 實竹이 고구려에 패하여 犬牙城에서 포위당했을 때 백제 동성왕이 3천의 지원군을 보내 도와주었다.[10] 이듬해에 고구려가 백제 雉壤城을 공격하자 신라군이 지원하였고, 이에 백제왕이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신라와 백제가 '나제동맹'을 결성한 것은 삼국을 둘러싼 외교 관계의 일대 전환이자 커다란 진전이었다. 이처럼 5세기대 신라와 백제의 관계는 '나제동맹'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양국 관계가 한결같이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즉, 신라는 백제와 함께 고구려에 대응하고 있었지만 때때로 백제를 공격하기도 했고, 백제도 간혹 신라를 공격하였다.[11]

46, 105쪽; 박진숙, 2000 〈百濟東城王代 對外政策의 變化〉 《백제연구》, 98~102쪽; 우선정, 2000 〈麻立干時期 新羅의 對高句麗關係〉 《慶北史學》23, 25쪽; 정재윤, 2001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관계에 대한 고찰〉 《湖西考古學》79쪽;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양기석, 2013 《백제의 국제관계》, 서경문화사, 179~180쪽 등을 참고함.

4)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訥祇麻立干 18년(434) 春2월조 "百濟王送良馬二匹."

5)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訥祇麻立干 18년(434) 秋9월조 "又送白鷹."

6) 《三國史記》 卷3 百濟本紀 毗有王 8년 10월(434) 冬10월조 "冬十月, 新羅報聘, 以良金·明珠."

7)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訥祇麻立干 39년(455) 冬10월조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

8)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慈悲麻立干 17년(474) 秋7월조 "高句麗王巨連, 親率兵, 攻百濟. 百濟王慶遣子, 文周求援. 王出兵救之, 未至百濟已陷, 慶亦被害."

9)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炤智麻立干 15년(493) 3월조 "百濟王牟大遣使請婚. 王以伊伐飡比智女送之."

10)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炤智麻立干 16년(494) 秋7월조 "將軍實竹等, 與高句麗戰薩水之原, 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兵圍之. 百濟王牟大遣兵三千, 救解圍."

11) 하일식, 2021 〈마립간 시대 신라의 정치와 외교〉 《신라학 강좌 총서 2-마립간과 적석목곽분》, 국립경주박물관, 403쪽.

한편 5세기 신라는 백제와의 관계와 더불어서 고구려의 압박에 대한 대응을 고민했다. 신라의 이와 같은 외교정책의 변화는 소지마립간과 智度路葛文王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결과이며 삼국의 관계 정립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은 5세기 중반 무렵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눌지마립간 34년(450)에 고구려 변방의 장수가 悉直(현재의 삼척)에 사냥나온 것을 신라 何瑟羅(현재의 강릉) 성주가 살해한 기록이 있다. 이 사건으로 양국 사이에 긴장이 높아졌는데, 결국 눌지마립간이 사람을 보내 고구려에 사과하여 마무리되었다.[12] 그리고 5세기 중반에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려 했다. 소지마립간 3년(481) 고구려가 狐鳴 등 7개 성을 공략하고, 彌秩夫(현재의 흥해)까지 진공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가야가 신라를 지원하자 철수하던 고구려군은 泥河[13]에서 참패하였다.[14] 이러한 전황은 '나제동맹'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5세기 후반의 한반도의 정세는 남하를 진행하는 고구려에 대항하여 백제, 신라 그리고 대가야가 연대한 관계였다.

이와 같은 한반도 내 정세와 더불어서 對倭 관계도 유의된다.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라와 왜의 교섭은 주로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5세기대 《일본서기》의 경우 연대 문제가 있어서 기사의 전후 관계를 《삼국사기》 기사와 병행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먼저 5세기대 《삼국사기》에 보이는 대왜 관계 기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표 2]이다.

---

12)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訥祇麻立干 34(450)년 秋7월조 "高句麗邊將獵於 悉直之原, 何瑟羅城主三直出兵, 掩殺之. 麗王聞之怒, 使來告曰, '孤與大王修好至歡也, 今出兵殺我邊將, 是何義耶.' 乃興師侵我西邊. 王卑辭謝之, 乃歸."

13) 남한강 상류 혹은 강릉 일대에서 동해로 들어가는 하천을 가리킨다.

14)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炤智麻立干 3(481)년조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표 2] 《三國史記》 新羅本紀 5세기대의 對倭 관계 기사

연대		내용
實聖尼師今	원년(402) 3월	倭國과 우호관계를 맺고 奈勿王의 아들 未斯欣을 볼모로 삼았음
	4년(405) 4월	倭兵이 와서 **明活城**[15]을 공격함. 기병을 이끌고 **獨山**[16] **남쪽**에서 잠복하였으며 3백여 명을 죽였음
	6년(406) 3월	倭人이 **동쪽 변경**을 침범함
	6년(406) 6월	倭人이 **남쪽 변경**을 침범하여 100명을 노략질해 갔음
	7년(408) 2월	倭人이 對馬島에 군영을 설치하며 습격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뽑아 적의 군영을 격파하고자 함. 舒弗邯 未斯品의 말 듣고 關門을 설치함.
	14년(415) 8월	倭人과 **風島**에서 싸워 이겼음
訥祇麻立干	2년(418)	왕의 동생 未斯欣이 倭國에서 도망해 돌아왔음
	15년(431) 4월	倭兵이 **동쪽 변경**을 침입하여 **明活城**을 포위하였는데 물러갔음
	24년(440)	倭人이 **남쪽 변경**을 침범하여 生口를 노략질해서 돌아갔음
	24년(440) 6월	倭人이 **동쪽 변경**을 침범함
	28년(444) 4월	倭兵이 **金城**을 10일 동안 포위함. 기병을 이끌고 **獨山 동쪽**까지 추격했지만 패배함
慈悲麻立干	2년(459) 4월	倭人이 兵船 1백여 척으로 **동쪽 변경**을 습격하며 **月城을 포위함**. 왜인이 퇴각하려고 하자, 군사를 내어 공격하여 패배시켰음. 북쪽으로 추격하여 절반 이상이 물에 빠져 죽음
	5년(462) 5월	倭人이 **活開城**을 습격해 깨뜨리고 1,000명을 사로잡아 갔음
	6년(463) 2월	倭人이 **歃良城**에 침입하였는데 퇴로에 매복하여 격파함. 왜인들이 자주 영토를 침입하였으므로 변경에 **2개의 성을 쌓음.**
	19년(476) 6월	倭人이 **동쪽 변경**을 침범함. 장군 德智를 파견하여 물리치고, 2백여 명을 죽여 사로잡았음
	20년(477) 5월	倭人이 군사를 일으켜 **五道**로 쳐들어 왔지만 결국 돌아갔음.

炤知麻立干	4년(482) 5월	倭人이 **변경**에 쳐들어왔음
	8년(486) 4월	倭人이 **변경**을 침범함
	15년(493) 7월	**臨海鎭**[17]과 **長嶺鎭**[18] 두 진을 설치하여 倭賊에 대비함
	19년(497) 4월	倭人이 **변경**에 쳐들어왔음
	22년(500) 3월	倭人이 **長峯鎭**을 공격하여 함락함

《삼국사기》에 보이는 신라의 대왜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사료계통론 논쟁'[19]과 양국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연구[20]로 나눌 수 있다. [표 2]를 참고해 본다면 5세기대에 왜가 신라 영토를 지속적으로 침

15)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과 천군동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 산성에 비정된다. 金城보다 동쪽에 위치한 성이였다고 생각된다.

16) 獨山에 대하여《東京雜記》권1 산천조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후에 새로 추가한 부분)에 '獨山'이 나온다. '鄕校山'이라고도 하는데, 신광현 동쪽 2리에 있다고 되어 있어 현재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혹은 사정리에 해당한다. 신광면은 곡강천을 통해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17) 臨海鎭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로 비정한 견해가 제시한 바가 있다(전덕재, 2013 〈상고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역사문화연구》45, 23쪽).

1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상도 경주부 역원조에서 부의 동쪽 25里에 長嶺院이 있다고 언급하였고, 산천조에서 부의 동쪽 25리에 楸嶺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장령원이 추령 근처에 위치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추령은 동해안의 감포 방면에서 경주 시내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장령진은 감포 방면에서 공격해오는 왜군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주둔지였다고 추정된다(전덕재, 2011 〈4~6세기 신라의 동해안지역의 경영〉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40, 172~173쪽). 이와 같이 長嶺鎭의 위치가 경주의 추령 근처이며 왜군의 침입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할 때, 신라가 3세기 후반의 이른 시기에 동해안에 진출하여 말갈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쌓았던 대관령의 長嶺柵(長嶺鎭)과는 별개의 장소로 보아야 한다(전덕재, 2013 앞의 논문, 23쪽).

19) [표 2]에도 보이는 바와 같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倭人", "倭兵"이라고 표기된 기사와 "倭國"이라고 표기된 기사가 있다. 이로 인하여 두 기사군의 계통에 따른 왜의 실체 문제가 파생되었다(木下禮仁, 1982 〈五世紀以前の倭關係記事-《三國史記》を中心として-〉, 森浩一編 《倭人傳を讀む》, 東京: 中央公論社, 125쪽).

20) 이 시기의 대왜관계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지만, 任那 문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범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實聖尼師今은 즉위하자마자 왜에 奈勿麻立干의 아들인 未斯欣을 볼모로 보냈다. 실성이사금은 奈勿尼師今 44년(399)에 귀국했지만, 10년 동안 고구려에 質子로 머물러 있었었다. 실성이사금이 고구려에 질자로 머물러 있었던 기간 동안 왜의 침공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에 고구려에서 보내는 군사 규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왜를 강대한 세력으로 인식했다는 견해가 있다.[21]

하지만, 사료를 보면 왜의 침공은 내물이사금 9년(364년)에도 확인되고, 특히 38년(393)의 침공 때에는 金城까지 포위되었다는 기사가 있기에 실성이사금이 왜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성립하기 어렵다. 오히려 신라의 대외정책을 고려한다면, 실성이사금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주변 국가와의 대외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 대상에 왜도 포함하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399년에 왜가 신라를 침략하자 다음 해인 400년에 廣開土王이 파견한 5만의 군대가 왜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고대 동아시아에서 질자를 보내는 정책은 반드시 국가 간의 강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질자로 갔던 사람은 양국 관계를 맺는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22] 그 당시 신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왜와의 화친을 위해서 질자 정책을 선택하였다고 여겨진다. 질자로 보낼 인물로는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물이사금의 아들인 未斯欣을 질자로 선택하였다는 견해도 있는데,[23] 이러한 이유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신라는 북방에 고구려가 존재하였고, 서쪽에는 고구려와 대립하는 백제, 남쪽에는 왜와의 연대가 강한 가야가 있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구려나 백제를 통하는 '重譯外交'에 한정되었다. 즉, 양국 관계를 원활히 맺을 질자의 경험이 있고

---

21) 장익수, 2010 〈新羅 麻立干期 對倭戰爭의 影響 -對外關係의 變化와 國防政策의 强化-〉 《한국사연구》150, 15쪽.
22) 河內春人, 2018 《倭の五王 王位繼承と五世紀の東アジア》, 東京: 中央公論新社, 44~45쪽.
23) 장익수, 2010 앞의 논문, 16쪽.

내물이사금의 아들이었던 미사흔이 신라의 대왜 정책을 위해 선정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즉, 신라의 왜에 대한 질자 외교는 '贈與外交'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눌지마립간 卽位條에 의하면 눌지마립간은 실성이사금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눌지마립간 역시 고구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눌지마립간은 고구려를 중시하는 동시에 왜에도 대응하는 외교를 실시했다. 눌지마립간 시대에는 왜가 내륙까지 침입하였는데, 15년(431) 4월에는 明活城이, 28년(444) 4월에는 금성이 10일 동안 포위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눌지마립간대 왜의 신라 침공은 440년대 초에 집중된다.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사이에 연대 차이가 있지만, 수정된 연대를 참고하면,[24] 442년에 왜가 신라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일본서기》에는 신라의 계략에 따라 왜군이 대가야로 공격 대상을 바꾸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왜가 신라 침공을 목적으로 파병했음에도 갑작스럽게 공격 대상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25] 사료적인 신뢰성을 고려할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따라서 《일본서기》 기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50년대 慈悲麻立干 시기에는 국제상황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는 한반도의 상황뿐만 아니라 南北朝의 정세와 관련이 있다. 450년 北魏가 남하하여 宋을 대패시켰다. 이를 계기로 하여 송나라의 대세는 기울어졌으며. 453년에는 元嘉의 治가 일어나며 혼란이 생겼다. 그러나 북위 내부적으

---

24) 木羅斤資 기사의 연대를 3周甲(180년) 늦게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참고하여, 神功天皇 62년조의 연대를 442년으로 보았다.

25) 《日本書紀》 卷9 神功天皇 62년조 "遣襲津彦 擊新羅[百濟記云, 壬午年, 新羅不奉貴國. 貴國遣沙至比跪令討之. 新羅人莊飾美女二人, 迎誘於津. 沙至比跪, 受其美女, 反伐加羅國.加羅國王己本旱岐, 及兒 百久至·阿首至 ·國沙利·伊羅麻酒 ·爾汶至等, 將其人民, 來奔百濟. 百濟厚遇之. 加羅國王妹 旣殿至, 向大倭啓云, 天皇遣沙至比跪, 以討新羅. 而納新羅美女, 捨而不討. 反滅我國. 兄弟人民, 皆爲流沈. 不任憂思. 故, 以來啓. 天皇大怒, 卽遣木羅斤資, 領兵衆來集加羅, 復其社稷. 一云, 沙至比跪, 知天皇怒, 不敢公還. 乃自竄伏. 其妹有幸於皇宮者. 比跪 密遣使人, 問天皇怒解不. 妹乃託夢言, 今夜夢見沙至比跪. 天皇大怒云, 比跪何敢來. 妹以皇言報之. 比跪 知不免, 入石穴而死也.]."

로도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한화정책을 진행했던 황제에 대한 선비족의 반발로 인해 대외적인 정책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450년대 남북조는 국제상황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신라도 고구려에 離叛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고구려 장수왕은 454년 신라를 공격했다. 백제는 455년 9월에 갑자기 비유왕이 사망하였고 이어서 10월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때 신라는 백제를 도와주었다. 즉,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對 신라·백제라는 구도를 그릴 수 있으며, 왜는 신라 침공이라는 형태로 한반도 정세에 관여했다. 자비마립간 시대 기사를 살펴본다면, 왜는 459년부터 신라에 대한 침공을 재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왜의 침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는 비유왕대의 백제를 통하여 430년, 438년, 443년 그리고 451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점이다. 《宋書》 외국전에 의하면 왜 오왕인 珍은 438년에 사신을 파견하여 “使持節, 都督倭 · 百濟 · 新羅 · 任那 · 秦韓 · 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이라고 자칭하고 上表하며 이러한 호의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결국 ‘安東將軍·倭國王’만을 수여 받았다. 이어 즉위한 濟가 443년에 사신을 파견을 했을 때에도 珍과 마찬가지로 ‘安東將軍·倭國王’을 수여 받았는데, 451년에 다시 사신을 파견했을 때는 “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를 加號해 주었으며 將軍號도 ‘安東大將軍’으로 승격되었다. 興은 462년에 사신을 파견하며 ‘安東將軍·倭國王’ 호를 받았다. 475년에 즉위한 武의 경우, ‘倭國王’이라는 칭호에는 변화가 없지만, 장군호는 “使持節, 都督倭 · 百濟 · 新羅 · 任那 · 加羅 · 秦韓 · 慕韓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이라고 自稱하였다.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백제를 추가하여 七國諸軍事 및 安東大將軍을 자칭한 것이다.

또한 이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開府儀同三司’의 지위를 원하고 있는 것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이 463년 고구려에게 ‘開府儀同三司’를

수여하였는데, 왜의 武가 고구려를 의식하고 동아시아에서 우위성을 인정받기 위해 이를 요구하였다는 지적도 있다.[26] 즉, 5세기대 왜가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목적은 官爵 수여에 있었다. 송나라로부터 수여된 관작은 왜 내부적으로 장군호의 재분배나 부관제라는 구조로써 왜 왕권의 권력 강화에 이용되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백제, 고구려와 경합하기 위한 직위라는 의미가 있었으며, 신라 공격의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표 2]의 자비마립간 시대 기사를 보면,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신라가 왜군의 침공에 대응하여 공격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비마립간 이전까지는 신라가 바다를 건너는 선제공격을 기획하더라도 결국 실행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된다. 하지만, [표 2] 사료와 같이 신라는 방어를 목적으로 변경에 성을 축조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이 시점부터 신라의 방어범위가 변경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이후도 대왜 방어 조치를 유지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국방 강화의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비마립간 시기를 거쳐 국방 체제가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발발하였던 대왜 전쟁의 양상은 이전과 달라진다. 신라가 왜의 침입로를 따라 성을 축조함으로써 적절하게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 강화 정책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2]를 참고한다면 왜는 고구려가 남하하여 백제의 한성을 함락한 475년 이후에 신라 침공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왜가 신라를 침공한 이유는 백제의 한성 상실로 인해 나제동맹이 약화되어 왜의 對신라 관계에서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 점, 그리고 고구려의 남하로 인해 신라와 고구려가 가까워질 가능성을 우려했을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능성을 하나하나 논증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점은 한반도 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왜가 신라에 대한 활발한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왜의 대신라 강행 외교는 자비마립간 20년

26) 김현구, 2009 《고대 한일교섭사의 諸問題》, 일지사, 191~197쪽; 河內春人, 2018 앞의 책, 217쪽.

(477)에 멈추었다. 그 이유는 왜왕 계승이라는 국내적인 문제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繼體天皇 즉위를 둘러싼 계승 문제의 혼란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에 밑줄을 그은 부분은 왜가 신라를 침략한 지역이나 경로이다. 이를 보면 5세기대의 왜는 기본적으로 '동쪽 변경' 즉, 한반도의 동해안 지역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獨山은 현재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 위치하였고, 風島[27]와 長峯鎭도 역시 동해안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되었다.[28] 風島의 구체적인 위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臨海鎭, 長嶺鎭, 長峯城, 沙道城[29] 등은 영일만에서 경주로 진출하는 왜군을 방비하기 위해 설치한 성, 군진이라고 이해된다. 특히 장봉성은 영일만으로 온 왜군에 대비하기 위해 쌓은 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위치는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北兄山城'일 가능성이 있다.[30]

그리고 독산은 왜군의 퇴로로써 사료에 보인다. 특히 금성과 明活城까지 도달한 경우 독산 방면으로 퇴각한 예가 보인다. 만약 독산이《東京雜記》에서 제시한 대로 신광현 동쪽 2리, 현재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혹은 사정리에 해당한다면 포항 쪽의 동해안으로 퇴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신광면과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포구는 월포리에 위치한 '月浦'라고 한다.[31]

---

27) 風島의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다.

28) 전덕재는 월포 이북지역에 배를 정박시키고, 경주 시내까지 진출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은 점, 조선시대에 倭寇가 영일만을 자주 침략하자 通洋浦에 水軍萬戶를 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5세기대 金城 또는 月城에 이른 왜군들 역시 영일만에 배를 정박한 후 형산강을 따라 경주 시내로 진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전덕재, 2013 앞의 논문, 22쪽).

29) 沙道城은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라고 비정한 견해가 있다(전덕재, 2013 위의 논문, 23쪽).

30) 전덕재, 2013 위의 논문, 23쪽.

31) 전덕재, 2013 앞의 논문.

[그림 1] 東海岸 지역의 왜 關聯地 (필자 제작)

이와 같이 왜인의 침략은 동해안 지역에서 빈번하였지만, 406년과 440년에는 남쪽 변경에 나타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63년에는 왜군이 歃良城(현재 경남 양산시)을 침략하였다가 신라군에게 격퇴당하였으며, 이때 신라는 왜인의 침략에 대비하여 변경지역에 2개의 성을 쌓았다는 내용이 보인다.[32] 더구나 444년, 459년에는 신라의 수도까지 왜군

32) 왜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남쪽 변경지역에 2성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를 시작으로 자비·소지마립간대에 소백산맥과 낙동강 동안에 축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문헌에 직접 전하지는 않지만,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걸쳐 신라가 대가야의 동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낙동강 동안에 산성을 쌓았다는 추정이

이 진격하여 금성을 포위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라는 왜의 침공에 대하여 동해안 지역을 대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침입해 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방비할 필요가 있었다. 즉, 당시 신라의 대외 방어 정책의 기조는 남하하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과 함께, 왜에 대한 대비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남쪽 변경을 침범'한 경우에는 낙동강수계를 통하여 금성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 왕권이 신라와 직접 교섭하는 것은 7세기 전반 이후라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 신라와 대립적인 교섭을 전개한 왜의 실체를 '북부 九州의 왜'로 보는 견해도 많다.[33] 하지만, 5세기대 사료에 나타난 왜를 단일한 성격 혹은 집단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동쪽 변경을 침범'한 경우가 많이 보이지만, 동쪽 해안에서 왜의 기항지가 포항[月浦]이라고 상정한다면, 왜가 포항까지 어떤 항로를 통해 왔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남쪽의 울산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가정하면, 월포는 금성보다 북쪽에 위치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왜에서 포항까지의 항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참고가 되는 것은 고구려의 대왜 사신이 사용한 교통로이다. 사료를 보면 고구려의 대왜 사신은 북부 九州에 도착한 경우도 있지만, 표류하다가 결국 고시[越] 해안에 다다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공식적인 고구려 대왜 사신 파견의 시작이라고 이해되기도 하는 570년의 사례 역시 이러한 경우이다. 이때 고구려 사신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로는 바로 울릉도와 오키섬[隱岐島] 등을 거쳐 쓰루가만[敦賀灣]에 이르는 '東海斜斷航路'이다.[34] 동해 사단항로는 함흥 근처의 포구를 출발하여 강원도

가능하다(전덕재, 2008 〈삼국시대 낙동강 수로를 둘러싼 신라와 가야세력의 동향 - 낙동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93, 60쪽).

33) 선석열, 2008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왜의 실체〉 《인문학논총》 31. 한국학계에서는 대체로 九州 지역의 독자적 정치세력이《삼국사기》신라본기 등에 나타난 왜의 실체일 것으로 보고, 畿內의 왜 왕권을 배제하여 생각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강종훈, 2011 《삼국사기 사료비판론》, 여유당, 122쪽). 이러한 입장으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李鐘恒, 1977 〈三國史記에 보이는 倭의 實體에 대하여〉 《국민대학논문집》 인문과학편11; 金澤均, 1990 〈三國史記 新羅의 對倭關係 記事 分析〉 《江原史學》 6 등이 있다.

연안을 따라 삼척 부근까지 도달한 후 바다로 나아가는 항로이다.[35] 이와 관련하여, 隱岐島 연안의 해류 등을 조사한 해양학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겨울 이외의 시기에는 隱岐島을 거쳐 敦賀灣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36] 사료상 왜가 동해안에 나타난 것은 봄과 여름으로, 隱岐島을 경유하여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對馬暖流(TWC)의 流路는 대마도를 경계로 西水道와 東水道로 나뉜다.[37] 대마난류는 불안정한 暖流지만, 서수도를 통과한 대마난류는 東韓暖流로 불리며 안정성이 높아진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향할 때, 가장 항해의 어려움이 큰 항로는 한반도 남해안에서 對馬島로 건너갈 때의 항로이다.[38] 대마난류의 계절적인 高周波變動은 11월부터 1월까지 제일 강해지며, 5월부터 8월까지는 약해진다.[39] 이는 앞에서 확인된 왜가 한반도로 건너간 계절과도 일치한다.

동해 사단항로는 육지에서 육지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오키섬을 거쳐 敦賀灣에 도달해야 하므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계절을 맞추면 항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

34) 윤재운, 2021 〈한국 고대 해상 교통로 연구의 성과와 관계〉 《해양문화재》14, 24~25쪽.

35) 정진술, 2009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416쪽.

36) 矢部いつか, 2005 〈隱岐海峽周辺海域における流れ場の季節變化〉 《海と空》80—4, 165~166쪽.

37) Hong-Ryeol Shin, Ji-Hoon Lee, Cheol-Ho Kim, Jong-Hwan Yoon, Naoki Hirose, 2022 Long-term variation in volume transport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estimated from ADCP current measurement and sea level differences in the Korea/Tsushima Strait, *Journal of Marine Systems* 232, pp 2.

38) 廣瀨直毅, 2019 〈東シナ海~日本海の海流と航海環境〉 《古代東アジアの航海と宗像·沖ノ島 報告書》〈神宿る島〉宗像·沖ノ島關連遺跡群 特別研究事業, 福岡, 65~68쪽.

39) 대마난류의 경우 계절적인 고주파 변동보다는 단기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해류라고 한다. 단기적인 영향은 구체적으로 바람이나 기압(태풍) 등이 해당한다. (Boonsoon Kang, Naoki Hirose, 2014 Transport Variability in the Korea/Tsushima Strait: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to Synoptic Atmospheric Forcing, *Continental Shelf Research*, 81, pp 57.). 九州大學應用力學研究所(RIAM)에서는 부산과 하카타[博多]를 연결하는 페리 카멜리아[カメリア]의 운행을 이용하여 이 해역에 관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5세기 후반의 신라가 이미 삼척과 강릉지역을 강력하게 지배·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가 동해 사단항로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40] 따라서 왜가 포항에 도착한 항로는 김해나 동래에 상륙한 후 북상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5세기대의 왜의 군사 활동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이는 《일본서기》 雄略 8년(464) 2월조에 보이는 한반도와 越國 해안에 대한 조치를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연결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任那王이 膳臣斑鳩, 吉備臣小梨, 難波吉士赤目子에게 신라를 구원하도록 권하자, 膳臣 등은 직접 힘써 군대를 위로하고 군사들에게 빠르게 공격할 준비를 시켜 급히 진격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와 대치한 지 10여 일이 지나자, 밤에 험한 곳을 파서 땅굴을 만들어 군대의 무기와 식량을 모두 운반하고 매복병을 배치하였다."라는 내용이 보인다.[41] 이에 관하여 고구려와의 교전을 기록한 문장은《三國志》魏書 武帝紀에 "未至營止. 諸將未與太祖相見皆怖. 太祖乃自力勞軍, 令軍中促爲攻具, 進復攻之. 與布相守百餘日.", "乃夜鑿險爲地道, 悉過輜重, 設奇兵. 會明賊謂, 公爲遁也. 悉軍來追. 乃縱奇兵, 步騎夾攻, 大破之." 등에 같은 문장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참고한 윤색으로 보고 사실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성과를 참고하면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와카사[若狹] 지역의 니시즈카[西塚]고분의 피장자가 가시와데노이카루카[膳臣斑鳩]일 가능성을 지적한 견해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와의 전투를 위해 若狹 지역을 중심으로 군단이 편성되어 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 西塚 고분의 피장자가 반드시 膳臣斑鳩가 아니더라도, 若狹나

40) 전덕재, 2011 앞의 논문, 167쪽.

41) 《日本書紀》 卷14 雄略 8년(464) 2월條"由是, 任那王勸膳臣斑鳩[斑鳩, 此云伊柯屢俄.]吉備臣小梨難波吉士赤目子, 往救新羅. 膳臣等, 未至營止. 高麗諸將, 未與膳臣等相戰皆怖. 膳臣等乃自力勞軍. 令軍中, 促爲攻具, 急進攻之. 與高麗相守十餘日. 乃夜鑿險, 爲地道, 悉過輜重, 設奇兵. 會明, 高麗謂膳臣等爲遁也. 悉軍來追. 乃縱奇兵, 步騎夾攻, 大破之. 二國之怨, 自此而生[言二國者, 高麗新羅也.].膳臣等謂新羅曰, 汝以至弱, 當至强. 官軍不救, 必爲所乘. 將成人地, 殆於此役. 自今以後, 豈背天朝也."

越의 지방세력이 왜왕의 명령을 받아 한반도에 파견된 세력집단 및 그 후예일 가능성도 있다.[42] 실제로 후쿠이[福井]현 텐진야마[天神山] 7호분과 무카이야마[向山] 1호분의 피장자는 若狹 지역 주도하에 편성된 군단에 참여하며 군사 행동에 종사한 수장층으로 추정된다. 부장품에서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게 보이며, 대가야계 문물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 무덤에서 확인되는 대가야계 부장품의 유입 배경은 중·북부 九州계 매장시설이 채용되고 아리아케해[有明海]·야쓰시로해[八代海] 연안 지역의 무덤에도 대가야계 부장품이 풍부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若狹, 에치젠[越前] 지역과 중·북부 九州 지역의 밀접한 관계를 상정하고, 중·북부 九州 지역을 경유하여 대가야계 물품을 입수했다고 보는 의견이 주류이다.[43]

그러나 더욱 주목되는 것은 대가야의 요청으로 군사 파견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이다. 구체적으로 天神山 7호분이나 向山 1호분에서 출토된 대가야계 귀걸이는 일본열도에 도입된 최초의 자료인 반면에, 有明海나 八代海 연안 지역에서는 귀걸이뿐만 아니라 대가야계 유물이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九州를 경유하여 도입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44]

무엇보다 4세기 말부터 5세기 후반까지 꾸준히 대가야 유물을 부장하고 있는 지역은 若狹·越前 지역이다. 이 지역 세력은 동해를 활용해 대가야와 직접 교섭하였는데, 대가야는 고구려의 남하에 대응하기 위해 若狹·越前 지역의 군사력을 지원받고, 若狹·越前 지역은 그 대가로 대가야계 문물을 입수한 것으로 이해된다.[45] 즉, 若狹·越前 지역에 해당하는 호쿠리쿠[北陸] 지방은 대가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

42) 入江文敏, 2011 《若狹ㆍ越古墳時代の硏究》, 東京: 學生社, 20쪽.
43) 入江文敏, 2011 위의 책, 116쪽.
44) 高田貫太, 2014 《古墳時代の日朝關係—新羅ㆍ百濟ㆍ大加耶と倭の交涉史—》, 東京: 吉川弘文館, 231쪽.
45) 朴天秀, 2006 〈古代の韓半島からみた若狹との交流〉 《若狹の古墳時代》, 若狹三方縄文博物館; 高田貫太, 2014 앞의 책, 231쪽; 박천수 2022 《고대한일교류사》, 경북대학교출판부, 502쪽.

다.

그러나 문제는 한반도에서 동해를 통하여 왜로 건너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왜에서 동해를 건너 한반도에 가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北陸 지방으로 가는 경우에는 해류나 조류, 계절을 맞추면 충분히 항해가 가능했다. 그러나 반대 방향의 항해는 그렇지 않았다. 후대의 일이지만, 일본에 온 발해 사신이 귀국할 때 北陸를 출발하여 북상하는 루트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동해를 횡단하여 한반도에 도착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고령지역에서 남강수계를 거쳐 남해안으로 가는 교통로 상에 6세기 전엽의 왜계 고분이 집중되며, 일본열도에서의 금동제품은 기나이[畿內]를 분포 중심으로 하지 않으며, 畿內에서 동일본으로 가는 교통로 상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볼 때, 대가야-왜의 교섭은 대가야에서 동해를 건너 北陸 지방을 경유하는 경로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46]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왜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동쪽 변경에 나타난 왜를 5세기대 전체에 걸쳐 단일한 집단이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료에 의하면 “倭人이 對馬島에 군영을 설치하며 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므로, 북부 九州를 경유한 교통로를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도 상술하겠지만, 5세기대의 북부 九州는 한반도로 향할 때의 중요한 경유지이자 기항지이다. 5세기대 내내 북부 九州가 똑같은 대외 의식을 유지하고 한반도와 왜 왕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즉, 다양한 교류의 모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400년부터 450년대까지 고구려가 동해안 지역을 영역으로 편제하여 지배하였는데,[47] 5세기 후반이 되면 신라가 동해안 지역의

46) 박천수, 2022 앞의 책, 500쪽.

47)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에 보이는 군현명의 분포를 보면 고구려가 후에 신라의 영역이 된 지역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동해안 지역은 5세기 초에서 말까지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고 본 견해도 있다 (김정배, 1998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문제〉 《한국사연구》61·62합집, 78~80쪽).

읍락과 취락을 행정촌과 자연촌으로 재편한다. 이에 대하여 신라가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해 연안항로나 사단항로를 통하여 고구려가 왜와 연결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울러 두 항로를 이용하여 동해안 방면을 침략하는 왜를 방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48]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왜는 단순하게 신라 금성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고구려와 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5세기대 기사에 나타난 대로 왜가 금성보다 북쪽에 있는 포항을 기항지로 사용한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비마립간 시기 일본의 움직임으로 주목되는 것은 《일본서기》에 보이는 기비씨[吉備氏] 관련 기사인 吉備氏叛亂伝承記事이다. 이 반란 전승의 내용 중에 왜의 신라 토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라본기에 보이는 왜의 침공 기사와 시기가 같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서기》 雄略 7년(463) 8월조, 《일본서기》 雄略 7년(463) 是歲條, 《일본서기》 淸寧天皇卽位前期를 들 수 있다. 우선 《일본서기》 雄略 7년 8월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1] 8월에 官者인 吉備弓削部虛空이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다. 吉備下道臣前津屋[어떤 책에서 말하기를, 國造吉備臣山이라고 하였다]이 虛空을 머무르게 하여, 한 달이 지나도 상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천황은 身毛君大夫를 보내어 불렀다. (中略) 천황이 이 이야기를 듣고, 物部병사 30인을 보내어 前津屋과 아울러 일족 70인을 베어 죽였다.[49]

A-1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기비[吉備]로 돌아온 관자인 기비노유게베노오오조라[吉備弓削部虛空]를 吉備에 머물게 하여 使役하고 있다. 그 이후

48) 전덕재, 2011 앞의 논문, 167쪽.

49) 《日本書紀》 卷14 雄略天皇 7년 8월조 “八月.官者吉備弓削部虛空取急歸家. 吉備下道臣前津屋[或本云, 國造吉備臣山.] 留使虛空, 經月不肯聽上京都. 天皇遣身毛君丈夫召焉.…天皇聞是語, 遣物部兵士卅人, 誅殺前津屋幷族七十人.”

吉備弓削部虛空은 雄略天皇이 파견한 사자와 함께 귀경하였고, 사키즈야[前津屋]의 천황에 대한 不敬을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雄略天皇은 物部兵士卅人을 吉備에 파견하여 前津屋과 그 일족 70명을 주살했다는 내용이다. '官者'라는 표기로부터 吉備弓削部虛空은 왕권 측에도 仕奉하는 인물이었음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 토벌은 사료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단순히 천황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前津屋이 왕을 모시는 관자를 吉備에 억류하고 사적으로 使役한 것이 前津屋 토벌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고 여겨진다.[50] 吉備弓削部虛空과 같이 왜 왕권 내에 편입된 상태에서 유력 호족에게도 使役하여 이중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이 단계에 왜 왕권이 지방의 유력 씨족을 왕권 내에 완전히 편입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유력 호족이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 체제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독자적인 세력 체제 가운데에는 왜 왕권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던 한반도와의 대외교섭 항로도 포함된다. 실제로 고고학적 성과로 봤을 때 吉備 지역은 신라와 관계가 깊은 유물이 보이고, 왜 왕권과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1]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 雄略 7년(463) 是歲條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 사료는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A-2] 이 해에 吉備上道臣田狹이 궁중에서 시중을 들었는데, 항상 稚媛을 친구에게 자랑하기를 "천하의 어떤 아름다운 사람도 내 아내만 못하다. 빼어나고 너그러우며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빛나고 온화하며 구석구석 예쁘다. 또한, 화장도 하지 않고, 향기로운 기름도 바르지 않는다. 세상에 드문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천황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였다. 그리고 친

50) 笹川尙紀, 2011 〈白猪屯倉·兒嶋屯倉に關する初步的硏究〉, 新川登龜男·早川万年 編 《史料としての《日本書紀》—津田左右吉を讀み直す》, 東京: 勉誠出版.
51) 龜田修一, 2022 〈吉備の考古學 吉備の渡來人〉, 龜田修一·白石純編 《講座考古學と關連科學》, 東京: 雄山閣.

히 稚媛을 데려와서 女御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田狹에게 벼슬을 주어 임나국사로 삼았다. 얼마 후에 천황은 稚媛을 가까이 하였다. 田狹臣은 稚媛과 혼인해서 兄君과 弟君을 낳았다 [다른 책에서 말하기를, 田狹臣 아내의 이름은 毛媛이다. 葛城襲津彦의 아들인 玉田宿禰의 딸이다. 천황이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을 듣고 남편을 죽이고 친히 총애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田狹이 부임한 곳에 갔을 때 천황이 자신의 아내를 총애한다는 것을 듣고 도움을 구하러 신라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이때 신라는 왜를 섬기지 않았다.[52]

[A-3] 천황은 田狹臣의 아들 弟君과 吉備海部直赤尾를 불러 “너희들이 신라에 가서 벌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西漢才伎인 歡因知利가 곁에 있었다. 이에 나아가, “저보다 재주가 있는 자가 韓國(카라노쿠니)에 많이 있습니다. 불러서 부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천황이 군신을 불러서 “그렇다면 歡因知利를 弟君 등에 따르게 하여 백제로 가서 함께 칙서를 전하고, 재주 있는 자를 바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弟君이 명을 받들어 무리를 이끌고 가서 백제에 이르러 그 나라에 들어갔다. 그런데 國神이 노파로 변해서 홀연히 길에 나타났다. 弟君이 가서 나라가 먼지 가까운지 물었다. 노파는 “다시 하루를 더 가야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弟君은 스스로 길이 먼 것을 생각하여 치지 않고 돌아왔다. 그리고 백제가 바친 今來才伎를 큰 섬 속에 모아 놓고,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여러 달을 머물러 있었다.[53]

---

52) 《日本書紀》卷14 雄略天皇 7년(463) 是歲조 “是歲, 吉備上道臣田狹侍於殿側. 盛稱稚媛於朋友曰, 天下麗人莫若吾婦, 茂矣綽矣.諸好備矣. 曄矣溫矣. 種相足矣. 鉛花弗御, 蘭澤無加, 曠世罕儔,當時獨秀者也. 天皇傾耳, 遙聽而心悅焉. 便欲自求稚媛爲女御. 拜田狹爲任那國司, 俄而天皇幸稚媛. 田狹臣娶稚媛而生兄君,弟君也.[別本云, 田狹臣婦名毛媛者. 葛城襲津彦子, 玉田宿禰之女也. 天皇聞體貌閑麗, 殺夫自幸焉.] 田狹旣之任所聞天皇之幸其婦, 思欲求援而入新羅. 于時, 新羅不事中國.”

53) 《日本書紀》卷14 雄略 7년(463) 是歲조 “天皇詔田狹臣子弟君與吉備海部直赤尾曰, 汝宜往罰新羅. 於是, 西漢才伎歡因知利在側. 乃進而奏曰, 巧於奴者多在韓國. 可召而使, 天皇詔群臣曰, 然則宜以歡因知利副弟君等. 取道於百濟, 幷下勅書. 令獻巧者. 於是. 弟君銜命. 率衆行到百濟而入其國. 國神化爲老女. 忽然逢路. 弟君就訪國之

[A-4] 임나국사 田狹臣은 弟君이 (신라를) 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몰래 사람을 백제에 보내 "너의 목이 얼마나 튼튼하여 남을 치려고 하는가? 전해 듣건대 천황이 나의 처를 받아들여 이미 아이[아이는 앞의 내용에 보인다]도 있다고 한다. 지금 두려운 것은 화가 몸에 미치려고 하는데 발꿈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의 아들인 너는 백제를 근거로 하여 일본과 연락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임나에 근거하여 또한 일본과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弟君을 타일렀다. 弟君의 부인 樟媛은 나라에 대한 마음이 깊고, 군신의 의리가 간절하였다. 충성스러운 마음은 밝은 해보다도 낫고, 절개는 푸른 소나무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이 모반을 미워하여 자기 지아비를 죽여 집안에 몰래 묻고, 곧 海部直赤尾와 함께 백제가 바친 手末才伎를 이끌고 큰 섬에 머물렀다. 천황은 弟君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日鷹吉師, 堅磐[堅磐은 柯陀之波라고 읽는다.] , 固安錢을 보내어 함께 復命하도록 하였다. 마침내 왜국의 吾礪 廣津邑[廣津은 比慮岐頭라고 읽는다.]에 안치하였는데, 병들어 죽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천황은 大伴大連室屋에게 명하여 東漢直掬으로 하여금 新漢陶部高貴, 鞍部堅貴, 畵部因斯羅我, 錦部定安那錦, 譯語卯安那등을 上桃原·下桃原·眞神原등 세 곳에 옮겨 살게 하였다[어떤 책에서는 吉備臣 弟君이 백제로부터 돌아와서 漢手人部, 衣縫部, 宍人部를 바쳤다고 하였다.].[54]

遠近. 老女報言. 復行一日而後可到. 弟君自思路遠不伐而還. 集聚百濟所貢今來才伎於大嶋中. 託稱候風.淹留數月."

54) 《日本書紀》卷14 雄略 7년(463) 是歲조 "任那國司田狹臣乃喜弟君不伐而還. 密使人於百濟. 戒弟君曰. 汝之領項有何鋼. 而伐人乎. 傳聞. 天皇幸吾婦遂有兒息. [兒息已見上文] 今恐. 禍及於身可足待. 吾兒汝者. 跨據百濟. 勿使通於日本. 吾者據有任那. 亦勿通於日本. 弟君之婦樟媛. 國家情深. 君臣義切. 忠踰白日. 節冠青松. 惡斯謀叛盜殺其夫. 隱埋室內. 乃與海部直赤尾將百濟所獻手末才伎在於大嶋. 天皇聞弟君不在. 遣日鷹吉士堅磐固安錢. [堅磐. 此云柯陀之波.] 使共復命. 遂卽安置於倭國吾礪廣津邑. 而病死者衆.[廣津. 此云比盧岐頭.] 由是, 天皇詔大伴大連室屋. 命東漢直掬. 以新漢陶部高貴.鞍部堅貴. 畫部因斯羅我. 錦部定安那錦. 譯語卯安那等遷居于上桃原. 下桃原. 眞神原三所.[或本云. 吉備臣弟君還自百濟. 獻漢手人部. 衣縫部. 宍人部.]"

사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2는 雄略天皇에게 아내 와카히메[稚媛]을 빼앗긴 기비노카미쯔치노타사[吉備上道臣田狭]가 任那에서 모반을 기획하려고 한 이야기이고, A-3는 雄略天皇의 명령을 뒤엎고 신라 정토를 시도하지 않고 아버지인 田狭臣의 권고에 응하려 했으나 자신의 아내인 구수히메[樟媛]에게 살해된 동생의 이야기이며, A-4는 백제의 다나스에노데히토[手末才伎]를 헌상한다는 내용이다. 즉 세 가지 이야기가 혼합되어 기록되어 있다. 사료를 통해서 볼 때, 田狭臣과 오토키미[弟君]의 부모는 吉備氏로, 한반도와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吉備上道臣田狭이 한반도로 파견된 배경은 천황이 그의 아내인 稚媛을 왕비로 삼고 싶어하여, 그를 임나 국사에 임명하였다고 전한다. 稚媛는 사료에 “別本云. 田狭臣婦名毛媛者. 葛城襲津彦子. 玉田宿禰之女也.”라고 해서 가쓰라키씨[葛城氏]의 태생이었다고 생각된다. 雄略天皇 초기 단계는 야마토왕권이 중앙 유력 호족인 葛城氏나 지방 유력 호족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이며 사료의 시기와도 합치한다. 따라서 단순히 葛城氏인 稚媛이 마음에 들어 왕비로 삼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왕권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을 읽어야 하는 기사이다.

그 이후 吉備上道臣田狭와 稚媛의 아들인 弟君이 기비노아마베노아카오[吉備海部直赤尾]와 함께 신라 토벌의 명을 받자 가와지노아야노데히토칸인지리[西漢才伎觀因知利]가 함께 백제를 경유하여 신라에 들어간다. 이 吉備海部直赤尾는 吉備氏의 해상교통을 관할했던 씨족이지만 도래계 씨족의 西漢才伎觀因知利가 동행하였고, 백제를 거쳐 신라로 건너갔다는 점은 당시 왕권으로서는 신라로 건너가는 안전하고 확실한 항로를 소유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료를 통해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당시 吉備氏 집단은 왜 왕권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신라 외교교섭 항로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2] 新澤千塚 126호분 출토 금제
龍文透彫方形板[東京國立博物館 소장](東京國立博物館,
2020 《出雲と大和》, 180쪽)

물론 5세기대 신라의 대왜 관계는, 문헌 사료에서 확인되듯이 긴박한 한반도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신라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외교교섭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나라현[奈良縣] 가시하라시[橿原市]의 니자와센즈카[新澤千塚] 126호분 등의 고고학적 성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왜와 신라 사이에 교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5] 정치적인 表象性이 높은 龍文·三葉文透彫帶金具가 畿內 지역과 그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피장자의 머리 오른쪽에서 유리제 용기가 출토되었는데, 유리제 접시 위에 유리제 그릇을 얹은 상태이다. 유리제 그릇은 알칼리 유리로 만들어졌고 담황녹색을 띠고 있으며, 유리제 접시는 알칼리 유리로 만들어졌고 짙은 남색을 띤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접시 안쪽 면에는 새, 나무, 인물, 말, 꽃잎 등이 그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바깥 면에도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세한 점은 알 수 없

55) 新澤千塚 126호분에서는 신라산 금공품과 유리용기 등 출토되었다(中村大輔, 2013 〈韓半島 玉文化의 硏究 展望〉 《한국 선사 고대의 옥문화 연구》, 복천박물관).

다. 유리제 용기들은 모두 접시의 도안 등으로 보아 사산왕조 페르시아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新澤千塚 126호분에는 신라의 영향으로 유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이 부장 된 것이다.

[그림 3] 新澤千塚 126호분 출토 유리 그릇과 접시[東京國立博物館 소장](東京國立博物館, 2020 《出雲と大和》, 179쪽)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왜 왕권이나 중앙 씨족만으로 군대를 편성하거나, 신라로 도항하는 교통로를 운영하기 어려웠음을 고려한다면, 왜 왕권이 吉備 집단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라와 교섭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吉備 집단은 독자적인 대신라 외교 경로를 통해 왜 왕권, 또는 일본열도 내 다른 지역과는 다른 대신라 교섭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독자적인 대신라 교통로를 소유하고 있었던 북부 九州도 마찬가지였다. 왜 왕권은 외교 교통로를 소유한 吉備 집단 등 강대한 세력을 주시하고 있었다. 吉備氏는 雄略 7년(463) 是歲條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반도 남동부와 관계가 깊었고, 독자적으로 한반도와의 외교 협상이 가능한 교통로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때 田狹과 弟君 등은 吉備氏와 한반도의 외교 교섭을 담당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은 吉備叛亂伝承 시기를 계기로 吉備 집단의 외교 교섭권과 해상교통로 소유권이 점차 왜 왕권으로 집약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변모했다고 판단된다.

吉備叛亂傳承 시기의 吉備 지역사회의 변동은 고고학적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4세기 후반 吉備 지역에서는 부족동맹을 이끄는 首長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분구 길이 100m 규모의 전방후원분이 축조된다.

또한 吉備氏의 세력이 매우 강대한 점은 是月조의 “吉備上道臣이 星川皇子를 구하려고 생각해서 40종의 배를 이끌고 해로에 나아갔다.”는 내용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56]. 이 사료는 배를 造船할 수 있을 만큼의 재료와 직능을 吉備가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시대는 다르지만, 造東大寺司主典 아토노오타리[安都雄足]의 예에서도 조선 기술은 상당히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雄足의 ‘雄足의 宅’은 단순한 교역용 선박 목재 집적소가 아니라 중앙인 奈良나 호라[保良]에서의 목재 공급도 담당하고 있었다. 목재를 다루는 雄足 자신의 능력에 의해 ‘雄足의 宅’이 후지와라노나카마로[藤原仲麻呂]의 家産機關에 통합되었다는 지적도 있다.[57] 이처럼 고대의 외교에 있어 배를 만들기 위한 목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다. 이처럼 8세기 초에 신라와의 大臣外交로 대두한 仲麻呂가 자신의 유력한 경제 기반으로 ‘雄足의 宅’을 소유한 것처럼, 외교교섭에서 목재 공급과 직능 집단을 소유하는 것은 외교상의 교통 확보라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했다. 吉備 지역에서 吉備氏가 조선 기술의 직능을 구가하게 된 요인은 철 자원 공급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와의 교섭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소지마립간 시기에 보이는 왜 침공 기사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해당 시기는 고구려가 공격 대상을 백제에서 신라로 바꾼 481년, 484년, 489년, 494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484년에는 백제가 신라를 지원하고, 뒤이어 495년에는 신라와 백제가 혼인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신라는 백제와 동맹 관계를 결렬시키고 대략 501년

56) 《日本書紀》 卷15 淸寧天皇 총서(479) 是月條 “是月,吉備上道臣等, 聞朝作亂, 思救其腹所生星川皇子, 率船師卌艘, 來浮於海. 旣而聞被燔殺, 自海而歸.”

57) 山本幸男, 1985 〈造東大寺司主典安都雄足の〈私經濟〉〉 《史林》 68-2, 京都大學文學部史學硏究會.

이전에 고구려와 다시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58] 적어도 497년 무렵에 이르러 고구려와 신라의 화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59]

그렇다면 소지마립간 초 왜의 신라 침공(482년, 486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당시 왜의 침공은 백제와 신라의 우호 관계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486년에 보이는 침공은《일본서기》顯宗 3년(487) 是歲條의 帶山城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60] 당시 왜군의 군사 편성은 중앙 유력 호족이 장군을 맡아 각각의 호족군을 주도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오오토모씨[大伴氏]가 군사적인 기능을 소유한 伴造氏族인 구메배[來目部] 같은 병력을 이끌었다. 즉, 왜군은 유력 호족에 의존한 군사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료에서 보이는 기노오오이와[紀生磐]는 가야와 신라의 경계에 머물렀으며 그 사건에는 가야계의 인물인 任那左魯 나카타코우하이[那奇他甲背]가 관여했다고 보인다. 이 사건은 왜국의 중앙유력호족이 한반도에 온 후 가야세력과 결탁하여 백제에 대항하려고 한 사건이며, 백제는 이에 대응하여 북부 가야지역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시기 왜의 대외 동향은 명확하지 않다. 이 시기 북부 가야지역 관여와 관련해서는 葛城氏나 기씨[紀氏]로 대표되는

---

58) 曺凡煥, 2016 〈新羅 智證王代 北魏에 사신 파견과 목적〉 《서강인문논총》46, 81~82쪽.

59) 고구려와 신라가 화의한 시기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다. 496년~497년 牛山城 전투에서 신라가 고구려의 공격에 의해 우산성을 함락당하는 위기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구원군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라와 백제 관계에 틈이 생겼다는 견해(우선정, 2011 《新羅 麻立干 時期의 成立과 展開》,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7쪽), 〈忠州高句麗碑〉를 文咨明王 代 신라와 화의한 결과물로 보고, 496년~497년 무렵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변화하였다는 견해(서지영, 2012 〈5세기 羅·麗관계 변화와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한국고대사연구》68, 128쪽)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충주 고구려비〉를 통한 해석은 문제가 있음이 이미 지적되기도 하였다(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411~413쪽).

60) 《日本書紀》 卷15 顯宗 3년(487) 是歲條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官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 高麗地也.]. 築帶山城, 距守東道. 斷運粮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內頭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禰, 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 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유력 호족의 독자 행동일 가능성도 있으며 남부 가야지역에서의 吉備氏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호족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61] 당시 왜는 중앙과 지방의 유력 호족을 왕권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으며 이는 왜 왕권 입장에서 외교 혹은 군사상의 큰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할 북부 九州와 신라의 교섭과도 관계가 있다.

자비마립간 시기에 국방 강화 정책을 시작한 이후로, 왜의 침공은 나타나지만 내륙까지 진입하는 데는 거듭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신라가 국내 문제에 집중하여 內治와 外治를 균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62] 이는 소지마립간 시대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소지마립간 22년(500) 3월 기사를 마지막으로 智證痲立干대 이후에는 왜의 지속적인 침공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세기 신라는 왜의 지속적인 침공을 받고 있었다. 왜의 침공은 한반도나 남북조의 움직임과 연계되었던 것으로, 이 시점에는 신라와 왜 양국 관계가 긴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살펴본다면 신라와 왜의 관계를 시사하는 유물이 한반도와 일본의 양자에서 확인된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 5세기대부터 한반도, 특히 신라권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패각 제품과 장식 마구, 그리고 북부 九州 지역에서 보이는 신라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반도 패각 제품과 조개 무역

1) 한반도에서 보이는 패각 제품

5세기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물질자료는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패각 제품 혹은 패각을 사용한 마구류

61) 森公章, 2006 《東アジアの動亂と倭國》, 東京: 吉川弘文館, 100~105쪽.
62) 장익수, 2010 앞의 논문, 32쪽.

이다. 패각 제품은 주로 야광패를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현재 고대 한반도에서 패각을 사용한 마구가 출토된 유적은 총 33개소이다. 이 중 29개소에서 출토된 마구는 鉢部 중앙에 패각을 끼워 넣은 발부조합반구형 운주·십금구이며, 조개의 종류는 대부분 청자고둥이다.[63] 이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에 경주 혹은 주변 지역에서 보이는 패각 제품과 패각 장식 마구이다. 다음 [표 3][64]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패각 제품과 패각 장식 마구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5세기 중엽~6세기 경주 지역의 패각 제품과 패각 장식 마구

종류	출토	소재	시기	비고
패각 사용한 제품	경주 황남대총 북분	야광패	5세기 후엽	가공한 야광패의 테두리를 금동제 복륜으로 장식한 국자형 杯 2점
	경주 금관총	야광패	5세기 말	가공한 야광패의 테두리를 금동제 복륜으로 장식한 국자형 杯 3점
	경주 천마총	야광패	6세기 초	가공한 야광패의 테두리를 금동제 복륜으로 장식한 국자형 杯 1점
	경산 임당동 E-1호분	긴타카하마	5세기 후엽	어형 장식품 1점
	경산 조영동 C1-1호분 주곽	청자고둥	5세기 중엽	청자고둥을 가공한 패부 1점(다른 패각 제품과 함께 출토됨)
	경주 은령총	청자고둥	6세기 초	청자고둥 3점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청자고둥	선덕여왕 3년(634)	사리장엄구, 2점의 청자고둥, 6점의 경옥제 곡옥

63) 朴天秀, 2016, 《신라와 일본》, 진인진, 75쪽.

64) [표 3]은 木下尙子, 1996 《南島貝文化の研究 貝の道の考古學》, 東京: 雄山閣, 2002 〈韓半島の琉球列島産貝製品-1~7世紀を對象に-〉 西谷正編, 《韓半島考古學論叢》, 埼玉: すずさわ書店; 井上主稅, 2014 《朝鮮半島の倭系遺物からみた日朝關係》, 東京: 學生社; 朴天秀, 2016 《신라와 일본》, 진인진 등을 참조하여 작성했다.

패각 장식 마구	경주 황남대총 남분 부곽	청자고둥	5세기 중엽	청자고둥의 나탑부를 반구좌의 형태로 가공한 소반구형·보요부형 장식마구
	경주 금관총	청자고둥	5세기 후반	청자고둥의 나탑부를 가공하여 장식마구의 반구좌로 사용. 패각 중앙에 구멍을 뚫음
	경주 황오동 100번지 유적 1호 적석목곽묘	청자고둥	6세기 초	청자고둥을 반구좌로 가공한 후 중앙에 구멍을 뚫어 금동제 보주형 장식을 담
	경주 천마총	청자고둥	6세기대	
	경주 계림로 14호분	청자고둥	6세기	

신라 경주 일대에서 발견되었던 杯와 장식 마구의 재료로 사용되는 야광패, 청자고둥, 긴타카하마 등의 패각은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에는 서식하지 않는다. 청자고둥을 사용한 장식 마구의 경우 5세기 중엽 이전부터 보이기 시작하며 6세기부터는 운주·십금구에 응용된다. 패제 三繫裝飾具가 경주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이 장신구는 신라 고유의 장식 마구와 류큐열도[琉球列島] 산 패각을 융합하여 창안한 물품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65] 그 이유는 5세기 이전 일본에서 패각은 주로 '貝釧'으로 사용되었으며, 장식 마구류에 적용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식 마구에 琉球列島 산 패각을 융합한 방식은 신라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패각을 사용한 마구류의 기원과 제작 기술에 대해서는 기노시타 나오코[木下尙子]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패각을 사용한 장신구 문화가 한반도에 유입되는 것은 三燕 기마문화 유입의 연장 선상으로 이해되며, 신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마구는 '삼연→고구

65) 木下尙子, 2002 앞의 논문, 526~531쪽; 朴天秀, 2016 앞의 책, 81~82쪽.

려→신라'로 이어지는 마구 문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신라는 지속적으로 상위계층을 위한 새로운 장식 마구를 창안하였으며, 마구의 재질과 형태를 통해 馬裝의 서열화를 진행했다.[66] 그리고 마구 고고학에서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낙동강 이동에서 신라 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장식마구 양식은 신라 왕권에 의해 다른 복식 요소와 세트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에서 마장은 복식과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지위를 보여주는 성격이 강하였다.[67] 복식의 하사를 통하여 지배 종속 관계를 맺고 강화하는 구조는 원래 고구려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라에서 장식 마구의 도입은 단순한 '물건'의 도입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마장 질서를 체계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즉, 단순한 물건의 도입이 아니라, 물건의 하사를 매개로 한 정치적 관계의 형성 또는 통치의 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68]

경주 이외에 김해 대성동 91호분에서 출토된 한반도 最古의 패제(청자고둥) 삼계 장식구도 주목된다. 사료에서 금관가야와 중국의 교섭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신라는 고구려 사신의 안내를 받아 377년과 382년 前秦에 견사하는 등 북방 세계와 접촉하였다. 대성동 91호분이 조영되는 4세기 중엽 시기에는 금관가야가 신라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에 청자고둥제 장식마구와 로만글라스는 신라를 경유하여 유입된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69] 5세기 중엽 이전의 경주 이외 지역에서 출토된 사례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패각을 사용한 장식마구는 신라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유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

66) 木下尙子, 2002 앞의 논문, 528~588쪽.
67) 낙동강 이동에서 출토된 모든 마구의 생산과 유통을 신라 왕권이 관리하였다는 것은 아니다(諫早直人, 2012 《東北アジアにおける騎馬文化の考古學的研究》, 東京: 雄山閣, 179쪽).
68) 諫早直人, 2012 위의 책, 176~182쪽.
69) 朴天秀, 2016 앞의 책, 79~83쪽.

2) 북부 九州를 매개한 조개 무역

위의 [표 3]을 참고한다면 야광패를 사용한 杯는 경주의 주요 왕릉에 주로 부장되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의 왕릉에서는 패각 장식 마구류도 함께 부장된 특징을 보인다. 야광패는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이남의 열대 인도양과 태평양에 분포하는 대형 巻貝이다.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에 야광패를 사용한 제품은 九州 혹은 혼슈[本州]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으며,[70] 일본열도에서 야광패의 수요가 높아졌던 시기는 당나라에서 螺鈿 기술이 전달되었던 8세기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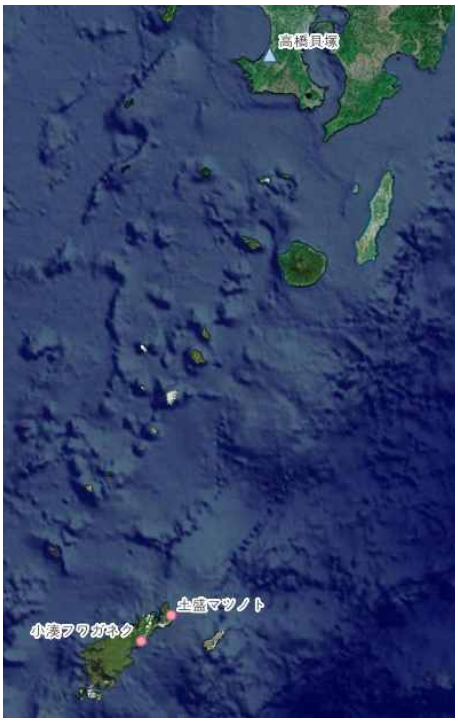
[그림 4] 야광패(九州國立博物館, 2006 《南の貝のものがたり》87쪽 인용)

야광패를 채집하며 가공한 거점 유적으로 언급되는 奄美大島의 도모리마츠노토[土盛マツノト]유적과 고미나토후와카네쿠[小湊フワガネク]유적에서는 대량의 야광패가 출토되었다.[71] 이들 유적은 토기 편년에 의해 7세기부터 사람들이 활동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미완성된 패제 숟가락[貝

70) 木下尙子, 2002 앞의 논문, 516쪽. 그리고 5세기부터 6세기 전반에는 팔찌 소재의 주요 소비지도 九州에 집중한다(木下尙子, 2022 〈琉球列島の先史文化〉 《筑紫と南島》, 東京: KADOKAWA).

71) 木下尙子, 2010 〈先史奄美のヤコウガイ消費 -ヤコウガイ大量出土遺跡の理解に向けて-〉 《熊本大學文學部論叢》101, 40～42쪽.

匙]뿐만 아니라 가공 실패작도 출토되었다. 奄美大島에서 야광패를 채집하고 가공하는 거점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열도에서 본격적으로 야광패를 사용한 나전 공예는 견당사를 통하여 기술이 전래된 8세기대부터 시작하므로 공급개시가 수용개시보다 1세기 앞서기 때문에 연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표 3]에서 보이듯이 이미 5세기대부터 경주에서 야광패를 사용한 사례가 보인다.[72]



[그림 5] 야광패 출토 유적과 조개 무역의 경유지 (필자 제작)

조개 集積 유적에서는 九州 지역의 야요이 토기나 팔찌의 형태로 가공한 조개가 출토되기 때문에, 이곳이 조개를 제공하던 사람들의 본거지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북부 九州뿐만 아니라 南九州, 中九州의 야요이 토기나 아마미 제도[奄美諸島]의 토기가 공반하는 경우가 많다. 조개의

72) 九州國立博物館, 2006 앞의 책, 90～93쪽; 木下尙子, 2008 〈正倉院傳來の貝製品と貝殼 -ヤコウガイを中心に-〉 《正倉院紀要》31.

운반과 유통 행위는 현재의 구마모토현[熊本縣],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아마미 제도의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九州 사쓰마반도[薩摩半島]에 위치한 가고시마현 미나미사쓰마시[南さつま市]의 다카하시패총[高橋貝塚]은 중요한 중계지이며, 그보다 남쪽에 있는 南九州人과 奄美諸島의 사람들이 바닷길을 연결하고 있었다.[73]

[그림 6] 천마총·황남대총 출토 야광패 국자 (박천수, 2016 앞의 책, 74쪽 인용)

[그림 7] 고령 지산동 44호분 출토 야광패 국자 [복제품]
(2016.5, 국립중앙박물관 필자 촬영)

경주지역을 제외하고 야광패가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 44호분이다. 경주 외의 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에 따라 야광패의 유입 과정과 신라와 대가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제기된 바 있다. 먼저, 지산동 44호분 조영 세력이 왜 왕권을 통하지 않고 야광패를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즉, 대가야가 九州 지역의 호족이나 해인 집단을 통하여 야광패를 입수하였다는 견해이다.[74]

이와는 달리, 대가야가 신라를 통해 입수했다는 의견도 있다.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로 비정되는 지산동 44호분은 금관총과 비슷한 시기의 고분이고, 청자고둥을 사용한 마구가 5세기 전반에 이미 신라에서 고안되

73) 木下尙子, 2022 앞의 책, 217쪽.
74) 木下尙子, 2002 앞의 논문, 516~518쪽.

었음을 고려한다면 대가야가 야광패 제품을 직접 입수하였기보다는 신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75] 이러한 견해는 야광패 제품 역시 마구와 같은 맥락에서 신라의 영향을 나타내는 유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물론 대가야에 패각 제품 제작 기술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자의 견해는 한계점이 있지만, 대가야와 북부 九州를 연결한 경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더불어 후자의 견해 역시, 재료는 같은 패각이지만 청자고둥을 사용한 장식 마구와 야광패를 사용한 제품을 동일하게 신라제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해당 시기에는 일본에서 야광패를 사용한 제품이 보이지 않고, 야광패를 채집하며 가공한 거점으로 언급되는 奄美大島의 土盛マツノト 유적과 小湊フワガネク 유적의 연대 역시 한반도에서 야광패가 출토되는 유적의 연대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자고둥과 달리, '야광패 무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76] 다만, 5세기 이전 패각의 길을 고려하면 야광패, 청자고둥, 긴타카하마 등의 패각은 九州의 호족 혹은 해인 집단을 통하여 입수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야광패의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는지 등의 문제에 있어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지만, 기본적으로 야광패는 신라 주도로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 한반도의 비취곡옥 제품과 비취의 산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유물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비취곡옥이다. 비취는 일본열도, 미얀마 북부, 중국 雲南省 등지에서 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반도 내에서는 원재료가 산출되지 않고

75) 井上主税, 2014 앞의 책, 226~272쪽.
76) 安里進, 2013 〈7~12世紀の琉球列島をめぐる3つの問題〉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79, 400~404쪽.

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고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비취곡옥은 니이카타현[新潟縣] 이토이천[糸魚川]산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77]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비취곡옥은 왜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비취 계통의 유통 과정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비취곡옥은 일본 학계의 연구를 참고한다면 크게 콤마형 곡옥(翡翠丁字頭勾玉)[北陸系]과 반구형 곡옥(翡翠半玦形勾玉)[九州系]으로 나뉜다.[78][79]

먼저 한반도 내에서 콤마형 곡옥은 부산 복천동 80호분과 38호분에도 출토되었지만, 유의미한 수량이 확인되는 시점은 경주 월성로 가-13호분(4세기 말), 황남대총 남분(5세기 중엽) 단계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일본열도에서의 출토 시점보다 늦은 양상이다.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콤마형 곡옥은 일본열도에서 야요이시대 중기 중반부터 고분 시대 중기 전반(5세기 전반)까지 제작된 것과 동시대 물품이거나, 혹은 傳世品일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내 비취 곡옥의 소비와 유통 양상은 5세기대 고분 부장이 이루어지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나아가 5세기 후반에는 경주 중심의 유통과 소비가 정점에 달하고, 합천·고령·창녕지역에 유통되기 시작한다. 당시 대가야는 신라와 왜를 경유하며 비취곡옥을 입수하였고, 대가야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도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 소가야지역에서도 왜와의 교류가 확인되는 시점에 비취곡옥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80]

---

77) 米田克彦, 2005 〈古墳時代の玉生産と玉文化〉 《玉文化の謎を探る》

78) 형식과 지역을 연결하여 翡翠丁字頭勾玉[北陸系]와 翡翠半玦形勾玉[九州系]로 구분하는 견해는 大野克彦, 2002 〈弥生・古墳時代の玉〉 北條芳隆・禰冝田佳男編 《考古資料大觀》 제 9 권, 東京: 小學館에서 제시한 것이다. 본고에서 지역적 차이를 제시하기 위하여 翡翠丁字頭勾玉[北陸系]과 翡翠半玦形勾玉[九州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79) 한국 학계에서는 翡翠丁字頭勾玉은 콤마형 곡옥, 翡翠半玦形勾玉은 반구형 곡옥으로 분류하고 있다.(박유림, 2019 〈신라 고분 출토 경옥제 곡옥 연구〉 《한국고고학보》 113, 한국고고학회, 120쪽).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콤마형 곡옥'과 '반구형 곡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80) 최혜린, 2018 〈영남지역 출토 삼국시대 비취곡옥 연구〉 《영남고고학》 81, 155~164쪽. 최혜린은 한반도 내에서의 비취곡옥 유통의 양상과 특징을 시기별로

이 중 신라 권역에서 출토된 비취곡옥은 일부 경주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왜에서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며 교역 주체는 畿內 지역일 확률이 높다. 즉 '畿內-북부 九州'의 루트로 한반도에 입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비취곡옥의 경유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북부 九州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기타큐슈[北九州] 지역에서는 고분시대 전기까지 비취곡옥이 확인되지만, 중기 이후부터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반대로 온카천[遠賀川] 하류역과 무나카타[宗像] 및 주변 지역에서는 야요이시대부터 고분시대 종말기까지 비취곡옥이 확인된다. 비취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곡옥의 경우에는 宗像와 주변 지역에서 고분시대 중기부터 출토량이 증가하는 모습이다.[81] 이는 고분시대 중기 이후에 해당하는 4세기 말 이후에 오키노시마[沖ノ島]에서 국가제사가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신라 내에서는 여러 차례 왜에서 비취곡옥을 입수하는 등 주로 최상위 계층에서 유통과 소비를 독점하였다.[82] 이와 같은 모습은 최상위 위계에서 유행하고 발전한 경주지역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콤마형 곡옥이 왜에서 입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83]

일본열도의 콤마형 곡옥에서 주목되는 것은 콤마형 곡옥과 함께 부장되는 유물의 양상이다. 고분시대 전기 일본열도에서는 '콤마형 곡옥+韓半島系管玉+감청색 환옥'의 유물조합상이 중요시된다. 이와 같은 유물조합상은 畿內의 중추에서 왜의 각 집단으로 배포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畿內 이외의 지역에서는 '콤마형 곡옥+한반도계관옥+감청색 환옥'은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84] 주로 畿內 지역

Ⅰ～Ⅶ단계에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81) 宇野愼敏, 2015 〈宗像および周辺地域出土勾玉の地域性とその歷史的意義 -宗像市·福津市·古賀市·新宮町を中心として-〉 《法政考古學》41, 2~3쪽.

82) 박유림, 2019 앞의 논문, 146～147쪽.

83) 한반도에서 비취의 원료는 보이지 않지만, 콤마형 곡옥과 반구형 곡옥을 한반도에서 제작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84) 왜가 중시했던 '翡翠丁字頭勾玉+韓半島系管玉+감청색 환옥'의 유물조합상은 김

에서 관찰되는 특징적인 모습이다.[85] 따라서 이와 같은 콤마형 곡옥에 관한 기존 연구 중에는 畿內의 중추가 북부 九州의 정통한 후계자임을 이와 같은 유물조합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견해도 있다.[86] 다만, 콤마형 곡옥의 故地가 북부 九州라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87]

다음은 합천 옥전 M4호분에서 출토된 반구형 곡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반구형 곡옥은 야요이시대 중기 중반을 전후하여 北陸 서부에서 출현한다. 물론 北陸 동부는 비취의 원산지인 이토이천[糸魚川]를 포함한 지역이지만, 야요이시대 후반부터 호쿠리쿠 서부 지역의 新潟縣 후키아케[吹上]유적이나 시모야치[下谷地]유적 등에서 반구형 곡옥의 제작이 시작된다.

그러나 北陸 서부에서는 야요이시대 후기에 반구형 곡옥을 제작하는 유적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분시대 전기 초반이 되면 北陸 지방 전체에서 비취를 포함한 반구형 곡옥을 제작하는 유적은 보이지 않는다. 즉, 반구형 곡옥의 제작은 야요이시대의 종말과 함께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구형 곡옥 제작의 하한과 옥전 M4호분의 사이에는 약 250년의 격차가 있다. 그러므로 야요이시대 중기에 北陸 서부에서 제작된 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 한반도에 전세되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비취곡옥은 단순히 희소한 소재로 제작한 유물을 넘어 정치적 표상으로 활용되었다. 외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며, 또 내적으로는 최상위 계층의 압도적 보유량을 바탕으로 배타적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동시에 신라의 화려한 金工 문화에 편입되어 頸飾 외에도 다양한 장신구에 활용되며 새로운 문화 창출에 일조하였다.

해 대성동 18호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谷澤亞里, 2020 《玉からみた古墳時代の開始と社會変革》 , 東京: 同成社; 박천수, 2022 앞의 책).

85) 谷澤亞里, 2020 위의 책, 223쪽.

86) 森貞次郎, 1980 〈弥生勾玉考〉 《鏡山猛先生古稀記念 古文化論攷》; 木下尙子, 1987 〈弥生定形勾玉考〉 岡崎敬先生退官記念事業會編 《東アジアの歷史と考古》中, 東京: 同朋舍出版.

87) 谷澤亞里, 2020 앞의 책.

앞서 언급했듯, 비취 제품 경주의 왕릉에서 집중적으로 보이지만,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비취곡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옥전 M4호분 출토 비취곡옥의 입수 경로에 관해서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88] 첫째, 야요이시대 중기 중반에 해당하는 기원전 3~2세기경부터 옥전 M4호분이 구축된 5세기 말까지 일본열도 내에서 제작된 것을 옥전 고분군 조영 세력이 순차적으로 입수해 매장했을 가능성이다. 둘째, 초기 한반도의 비취곡옥 유통 거점인 부산·김해 지역에서 전세된 뒤, 나중에 유입된 비취곡옥과 함께 옥전 고분군을 구축한 세력이 입수하여 고분에 부장되었을 경우이다. 셋째, 제작 시기가 다른 비취곡옥을 일본열도에서 일괄적으로 가져와 고분에 부장한 점을 통해 볼 때, 옥전 고분군을 축조한 세력이 직접 왜에서 입수하거나 신라왕릉을 세운 세력을 거쳐서 입수했을 가능성이다.

다카하시 코우지[高橋浩二]는 현재 세 번째 가능성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콤마형 곡옥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콤마형 곡옥이 많이 출토되는 畿內나 그 주변에서 입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입수 경로나 유통의 통제가 가능했던 세력으로는 왜 왕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옥전 M4호분 출토품 중 신라계 杏葉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의 사례처럼 금관에 다량의 곡옥을 장착하고 콤마형 곡옥을 다량 부장할 수 있었던 신라 왕권을 한 단계 거쳐 입수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콤마형 곡옥와 반구형 곡옥의 공반 관계는 황남대총 남분에서 확인된다. 옥전 M4호분에서는 반구형 곡옥 1점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출토품은 모든 투명도가 높고 녹색을 띠는 비취이며, 콤마형 곡옥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신라 금관에 장식된 비취곡옥은 시기가 지날수록 비취의 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옥전 M4호분에서의 출토 양상은 녹색 투명의 비취곡옥

88) 高橋浩二, 2016 〈韓國玉田M4号墳出上の翡翠半玦形勾玉とその流通過程〉 《玉文化研究》2, 308~309쪽.

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콤마형 곡옥의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황남대총 남분이나 북분과 상통한다. 따라서 황남대총 남분이나 북분을 조영했던 세력이 왜에서 비취곡옥을 입수할 때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옥전 고분군 조영 세력 역시 신라 중앙을 거쳐 입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일본열도 산 원료가 신라 중앙을 통해 유입되거나, 가공하여 주변 지역으로 분배되었다는 점에서 고령 지산동 44호분에서 출토된 야광패 제품과 유사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가야 세력이 금제 장신구를 제작하는 등 수준 높은 금속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비취원료만 수입한 뒤에 직접 곡옥을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실물관찰과 제작 기술 연구를 통한 앞으로의 연구성과를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양상을 종합하자면, 당시 신라는 한반도에서 산출하지 않은 원료로 제작된 제품을 주변 세력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력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3. 신라와 北部九州의 관계와 교통로의 변화

1) 磐井의 亂과 북부 九州세력의 움직임

5세기 왜 왕권은 기본적으로 백제나 대가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두 나라와 비교하면 신라와의 관계는 거리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5세기 후반에는 유력 지역 호족인 吉備 세력의 규모가 커졌는데, 왜 왕권은 하상·해상교통 경로를 소유하고 있었던 吉備 주변의 지역 집단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왜 왕권은 6세기 초 단계까지도 북부 九州 지역의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다. 이러한 북부 九州 지역의 세력이 바로 筑紫君磐井이다. 현 후쿠오카현 야매시[八女市]에 소재한 이와토야마[岩戶山]고분은 그 피장자가 筑紫君磐井로 추정되는 전방후원분이다.

[그림 8] 岩戶山고분과 石人의 복제품(2017. 8, 필자 촬영)

《일본서기》에 의하면 북부 九州의 유력 호족인 筑紫君磐井은 왜 왕권에 出仕하고 있었다. 磐井는 왜 왕권의 종속적 정치집단의 우두머리에게 수여된 '筑紫君'이라는 카바네[カバネ]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북부 九州에 왜 정권의 공통 상징인 전방후원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89] 磐井는 磐井의 亂 이전 단계에도 왜 왕권과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磐井의 난 이전인 6세기 초 이전까지는 북부 九州의 세력이 왜 왕권과는 다른 한반도와의 외교 경로를 유지하고 있었고, 완전히 왜 왕권에 편입된 존재가 아니라 신라와 독자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磐井의 亂에 대해서는 《일본서기》뿐만 아니라 《古事記》, 《筑後國風土記》逸文에도 기술되어 있고, 《國造本紀》에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는 등 비교적 자료가 풍부하기에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90] 그런데 磐井의 난에 대한 각각의 기술이 모두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지 않아, 사료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제일 상세한 기술이 보이는

89) 都出比呂志, 1995 〈前方後圓墳體制と地域權力〉 門脇禎二編, 《日本古代國家の展開》上, 東京: 思文閣出版.

90) 田村圓澄·小田富士雄·山尾幸久, 1985 《古代最大の內戰磐井の亂》, 東京: 大和書房; 吉田晶, 2005 《古代日本の國家形成》, 東京: 新日本出版 등을 참조함.

《일본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1은 繼體 21년(527) 6월 壬辰朔 甲午(3일), B-2는 繼體 22년(528) 11월 寅朔 甲子(11일)에 기록되어 있다. B-1의 繼體 21년(527) 6월 壬辰朔 甲午(3일) 기사는 내용상 네 가지 부분으로(①~④) 나눌 수 있다.

[B-1-①] 近江毛野臣이 무리 6만을 거느리고 임나에 가서 신라에 의해 멸망당한 南加羅와 喙己呑을 다시 일으켜 세워 임나에 합치고자 하였다. 이때 츠쿠시[筑紫]의 國造 磐井이 은밀히 반역을 도모한 지 수년이 지났다. 그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항상 틈을 보고 있었다. ② 신라가 이를 알고 몰래 뇌물을 磐井에게 보내어 毛野臣의 군사를 막아주기를 권유하였다. ③ 이에 磐井은 火國과 豊國의 두 지역을 점거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밖으로는 해로를 막아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국의 연공을 바치는 배를 끌어들이고, 안으로는 임나에 파견하는 毛野臣의 군사를 차단하고 함부로 큰소리치기를, “지금 사신은 전에는 나의 동료로서 몸을 서로 부비고 한 그릇에 밥을 나누어 먹었는데, 어찌 갑자기 사신이 되었다고 나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가.”라고 하고 싸움을 일으켜 따르지 않으며, 교만하고 기세등등하였다. 이에 毛野臣은 방해를 받아 중도에 머무르게 되었다. ④ 천황은 大伴大連金村과 物部大連麤鹿火와 許勢大臣男人 등에게 조를 내려서 “筑紫의 磐井이 반란을 일으켜 서쪽의 변방을 점거하고 있으니, 누가 가히 장군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大伴大連 등이 입을 모아 “정직하고 어질고 용감하며 병법에 달통한 바가 지금 麤鹿火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천황이 “좋다.”고 하였다.[91]

---

91)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1년(527) 6월 壬辰朔 甲午(3일)조 “B-1-① 近江毛野臣, 率衆六萬, 欲住任那, 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喙己呑, 而合任那. 於是, 筑紫國造磐井, 陰謨叛逆, 猶預經年. 恐事難成, 恆伺間隙. ② 新羅知是, 密行**貨賂**于 磐井所, 而勸防遏, 毛野臣軍. ③ **於是, 磐井掩據火豊二國, 勿使修職. 外邀海路, 誘致高麗百濟新羅任那等國年貢職船, 內遮遣任那毛野臣軍,** 今爲使者, 昔爲吾伴, 摩肩觸肘, 共器同食. 安得率爾爲使, 俾余自伏儞前, 遂戰而不受. 驕而自矜. **是以, 毛野臣, 乃見防遏, 中途淹滯.** ④ 天皇詔大伴大連金村, 物部大連麤鹿火, 許勢大臣男人

[B-2] 대장군 物部大連麤鹿火가 친히 적의 우두머리 磐井과 筑紫의 御井郡에서 교전하였다. 깃발과 북소리가 마주하니, 먼지가 자욱이 일어났다. 양 군사 사이에 승기를 잡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쓴 전투가 벌어졌으나, 마침내 磐井을 참하고 반란을 완전히 평정하였다.[92]

磐井의 난은 527년과 528년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다. 먼저 B-1-①을 살펴본다면 왜 왕권은 21년 6월에 신라에 의해 멸망한 南加羅(금관가야)와 喙己呑을 다시 일으켜 세워 임나에 합치고자 하였다. 筑紫의 國造인 磐井은 은밀히 반역을 도모한 지 수년이 지났으며, 항상 틈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B-1-②를 참고하면 신라가 이를 알고 몰래 뇌물을 磐井에게 보내어 毛野臣의 군사를 막아주기를 권유하였다.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B-1-③부분이다. B-1-③에 의하면 磐井은 히노쿠니[火國]과 도요노쿠니[豊國]의 두 지역을 점거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磐井의 세력이 이와토야마 고분이 있는 八女 지역 뿐만 아니라 火國과 豊國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九州 중부 지역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磐井은 밖으로는 해로를 막아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국의 年貢을 바치는 배를 끌어들이고, 안으로는 임나에 파견된 毛野臣의 군사를 차단했다. “해로를 막아”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국의 “연공을 바치는 배”를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보이며, 그 결과로 왜 왕권이 파견한 毛野臣의 군사의 길목이 막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료상에 보이는 “해로”는 북부 九州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의 “해로 차단”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로가 아니

等曰, 筑紫磐井反掩, 有西戎之地. 今誰可將者. 大伴大連等僉曰, 正直仁勇通於兵事, 今無出於麤鹿火右. 天皇曰, 可.”

92)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2년(528) 11월 寅朔 甲子(11일)조 “B-2. 大將軍物部大連麤鹿火, 親與賊帥磐井, 交戰於筑紫御井郡. 旗鼓相望, 埃塵相接. 決機兩陣之間, 不避萬死之地. 遂斬磐井, 果定疆場.”

라 九州와 近畿를 연결하는 해로였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93] 그런데 九州와 近畿를 연결하는 바닷길을 차단하는 것을 한반도와 북부 九州를 연결하는 해로를 차단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사료에서 보이는 "해로 차단"에는 한반도와 북부 九州를 연결하는 교통로와 九州와 近畿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차단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磐井 세력은 九州와 近畿를 연결하는 해로를 차단했으며, 한반도로 도해하는 해로를 포함한 磐井가 관장하던 교통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B-1-④에 의하면 천황은 오오토모노오오무라지카나무라[大伴大連金村]과 모노노배노오오무라지아라카비[物部大連麤鹿火]와 고세노오히토[許勢大臣男人]에게 조를 내려 筑紫에 보낼 장군에 관해 물었다. 이때 모두가 麤鹿火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추천하였다. 그리고 B-2를 보면 大將軍 物部大連麤鹿火가 磐井과 筑紫의 미이군[御井郡]에서 교전하였으며 승기를 잡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쓴 전투가 벌어졌으나, 마침내 磐井을 참하고 반란을 완전히 평정하였다는 것이 사건의 귀결이다.

B-1-①에 南加羅와 喙己呑이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가 금관가야를 편입한 것이 532년으로 연대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 繼體紀의 경우 繼體天皇이 사망한 연대를 28년으로 전하는 본이 있지만, 〈百濟本紀〉에 따라 25년이라고 적었다는 기사가 있어서 참조된다. 이에 《일본서기》 磐井의 亂의 연대 역시 3년을 늦추어 530년에서 531년에 걸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가 있다.[94] 기본적으로 《일본서기》繼體紀 기사의 연대는 확실하지 않은 점이 많아서, 그 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고사기》에는 오오미노게누신[近江毛野臣]의 이름이 보이지 않

93) 田中史生, 2018 〈磐井の亂前後の北部九州と倭王權〉 新川登龜男編《日本古代史の方法と意義》, 東京：勉誠出版, 292쪽.
94) 山尾幸久, 1986 《日本古代の國家形成》, 東京: 大和書房.

아서 毛野臣의 파병이 난이 발발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의심스럽다. 만약에 《일본서기》의 연대를 3년 늦춰도 南加羅의 멸망인 壬子(532년) 이전이기에 연대의 모순은 해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삼국사기》를 참고해보면 法興王 11년(524)에는 왕이 나아가 남쪽 변방의 새로 확장한 영토를 순행하였는데, 가야국의 왕이 와서 만났다는 내용이 보인다.[95] 이에 관하여 법흥왕이 만난 가야국의 왕을 금관가야(南加羅)왕으로 보는 견해와 대가야의 왕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96] 하지만, 일단 그 시기 신라가 가야 지역에 어느 정도로 압박을 주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점은 계체 21년(527) 8월조부터 다음 해 22년(528) 11월조까지는 윤색이 보이는 사실이다. 다음 계체 21년(527) 8월조를 내용상 C-1-①~⑩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C-1] ①조를 내려 “大連이여, 磐井이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대가 가서 정벌하라.”고 하였다. 物部麤鹿火大連이 두 번 절하고, ②“무릇 磐井

95)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法興王 11년(524) 秋9월조 “王出巡南境拓地, 加耶國王來會.”

96) 이 사료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加耶國王을 금관가야왕으로 보는 견해는 《日本書紀》 卷17 繼體 23년(529) 4월조에 기록된 신라의 伊叱夫禮智干岐가 ‘金官·背伐·安多·委陀’ 또는 ‘多多羅(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須那羅(김해의 금관국)·和多·費智’ 등 4개 촌을 공략하여 차지한 사건을 524년으로 앞당겨서 이해한 다음, 신라 법흥왕이 차지한 지역에 순행하며 금관가야왕이 찾아와 항복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는 견해(朱甫暾, 1982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 -新羅의 膨脹과 關聯하여-〉, 《慶北史學》 4)가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대가야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8년(514) 3월조에 伴跛(대가야)가 신라의 麻且亥와 推封을 빼앗고 촌읍을 약탈하였다고 전한다. 여기에서의 추봉을 경남 밀양으로 비정하고, 법흥왕이 두 국가가 맞닿게 된 탁기탄(경남 창녕군 영산면으로 비정) 주변의 경계를 대가야와 상호 확정하기 위해 524년에 대가야의 왕과 만났다는 견해(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190~192쪽), 대가야가 514년에 빼앗은 마차해(창녕군 장마면 강리 및 유리 일대)와 추봉(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을 522년 3월 혼인동맹을 맺을 때 신라에게 돌려주며 낙동강 서안의 일부 지역을 신라에 양보하였는데, 법흥왕이 524년에 이곳을 순행할 때에 대가야왕이 친선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났다는 견해(전덕재, 2018 〈가야지역을 둘러싼 신라와 백제의 대립〉 《신라와 백제, 소통과 갈등》, 충청남도역사문화원·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등도 있다.

은 西戎의 간교한 자로서 물이 막힌 것을 믿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③산이 험한 것을 의지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④또한, 덕을 등지고 도를 어기면서 교만하게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⑤과거의 道臣으로부터 室屋에 이르기까지 천황을 도와 나쁜 무리들을 벌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구해온 바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늘의 도움만은 신이 항상 중히 여기는 바입니다. 삼가 명을 받들어 정벌에 나서겠습니다."라고 하였다. ⑥이에 조를 내려 "좋은 장수가 군사를 일으킴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며, 자신을 미루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다. 공격하면 강물이 터지는 것과 같이 하고, 싸우면 바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하라."고 하였다. ⑦ 그리고 거듭 조를 내려 "대장은 백성의 생명을 좌우하며, 사직의 존망이 걸려있다. ⑧분발하여 삼가 천벌을 실행하라."고 하고, ⑨천황이 친히 斧鉞을 잡아 대련에게 내리면서 ⑩"長門 동쪽은 짐이 다스린다. 筑紫 서쪽은 그대가 다스려서 상벌을 스스로 시행하고 일일이 보고하지 말라."고 하였다.[97]

이때 C-①의 "詔曰. 咨. 大連, 惟茲磐井弗率. 汝徂征."이라는 부분은 《尙書》의 "帝曰. 咨禹. 惟茲有苗弗率. 汝徂征."이라는 부분과 일치한다. 그리고 ⑦의 "大將民之司命. 社稷存亡. 於是乎在."라는 부분은 《抱朴子》의 "大將民之司命. 社稷存亡. 於是乎在."이라는 기술과 일치한다. 《일본서기》 권17 繼體 21년(527) 8월 辛卯朔조에서도 대부분 내용이 《藝文類聚》를 인용하여 윤색되었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98]

따라서 繼體紀 기사는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

97)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1년(527) 8월 辛卯朔조 "秋八月辛卯朔, C-①詔曰, 咨, 大連, 惟茲磐井 弗率. 汝徂征. 物部麤鹿火大連 再拜言, ②嗟, 夫磐井西戎之姧猾. 負川阻而不庭. ③憑山峻而稱亂. ④敗德反道. 侮嫚自賢. ⑤在昔道臣, 爰及室屋, 助帝而罰. 拯民塗炭, 彼此一時. 唯天所贊, 臣恆所重. 能不恭伐. ⑥詔曰, 良將之軍也, 施恩推惠, 恕己治人. 攻如河決. 戰如風發. ⑦重詔曰, 大將民之司命. 社稷存亡, 於是乎在. ⑧勗哉. 恭行天罰. ⑨天皇親操斧鉞, 授大連曰, ⑩長門以東朕制之. 筑紫 以西汝制之. 專行賞罰. 勿煩頻奏."

98) 小島憲之, 1962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上, 東京: 塙書房, 114~132쪽, 388~389쪽.

다.[99] 물론 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漢籍에 따라 문장을 작성한 것과 기사에 표현된 사건 내용이 허구인 것은 구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100] 磐井의 亂 사건의 역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磐井의 난 이후 한반도의 변화와 신라의 대왜 관계

(1) 港市國家 금관가야의 멸망

磐井의 亂이 마무리되는 것과 비슷한 시점에, 금관가야는 신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왜는 일찍부터 금관가야가 운영하는 해안지역의 항구를 통하여 선진문물을 받아들였다. 즉, 왜의 입장에서 금관가야의 멸망은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금관가야의 멸망과 관련하여, 近江毛野臣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毛野臣이 한반도로 도해한 이후의 활동을 볼 때, 외교협상을 임무로 하는 왜국의 사신으로서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료에 따르면 毛野臣의 파견지는 安羅였으며, 신라와 금관가야(南加羅)의 재건을 협상하는 것이 임무였다. 교섭은 안라에서 행해졌으며, 신라와 백제는 각각 사신을 파견했다. 이때 안라는 국왕과 국내의 “大人”이 고당 위에 올라 왜의 사신과만 협의하는 식으로 응대하였는데, 이는 가야를 침공하려고 하는 신라와 백제의 사신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안라로서는 신라와 백제를 침략하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협의가 정리되지 않았다.

그 이후 毛野臣은 熊川으로 이동하여 신라와 백제의 왕을 소집해 사태의 해결을 도모하려고 한다. 그러나 신라와 백제는 사신만을 파견하였고, 毛野臣은 국왕이 직접 오지 않은 것을 비난한다. 이에 양국의 사신은 귀국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99) 山尾幸久, 1986 앞의 책, 110~111쪽.
100) 荊木美行, 2016 〈磐井の亂の再檢討〉 《皇學館大學紀要》54, 13~14쪽.

신라의 군대가 多多羅原에 주둔하고 있었을 때, 가와지노우마카이노미카리[河內馬飼首御狩]의 행동을 上臣에 대한 살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빌미로 금관가야의 4촌을 공격하고, 사람과 물건을 노략질하여 신라로 돌아왔다.[101] 결국 금관가야는 신라의 2차 침공을 받아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멸망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毛野臣는 귀국할 수 없게 되었고, 530년의 단계에도 구시무라[久斯牟羅]에 머물고 있었다. 사료에 따르면, 왜는 귀국하지 못한 毛野臣의 일탈 행위를 보고받고 毛野臣를 다시 불러오려고 하지만, 毛野臣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 御狩을 귀국시켰다. 안라의 아리시토[阿利斯等]는 신라와 백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청병하고, 신라와 백제의 힘을 빌려 毛野臣을 배제하고자 계획했다. 신라는 금관가야 공략의 목표를 달성한 때였으므로, 이때는 주로 백제의 출병이 행해졌다.

毛野臣은 백제의 병사가 온다는 것을 듣고 농성한다. 사료에 의하면 이 농성에는 안라의 阿利斯等도 동행하고 있다. 백제는 안라가 파견한 사신 奴須久利를 포로로 잡아 신라의 병사와 함께 성을 포위하고, 阿利斯等에게 毛野臣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백제는 이 안라 침공을 구실로, 久礼牟羅城을 쌓았다. 또한 신라는 돌아오는 길에 5개의 성을 공격했는데, 그중 후나무라[布那牟羅]는 신라가 공격한 카라[대가야]의 3성의 하나라는 점에서 신라에도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국은 530년 10월에 쓰키노키시[調吉士]가 안라로부터 귀국하고, 毛野臣의 행위를 왜왕권이 알게 되지만, 毛野臣은 귀국 길에 대마도에서 사망하였다. 여기까지가 문헌상에서 보이는 毛野臣의 움직임과 금관가야에 관한 기사의 내

101)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3년(529) 4월조 “新羅改遣其上臣伊叱夫禮智干岐[新羅, 以大臣爲上臣. 一本云, 伊叱夫禮知奈末.], 率衆三千, 來請聽勅. 毛野臣, 遙見兵仗圍繞, 衆數千人, 自熊川, 入任那己叱己利城. 伊叱夫禮智干岐, 次于多多羅原, 不敬歸待三月. 頻請聞勅. 終不肯宣. 伊叱夫禮智所將士卒等, 於聚落乞食. 相過毛野臣傔人河內馬飼首御狩. 御狩入隱他門, 待乞者過, 捲手遙擊. 乞者見云, 謹待三月, 佇聞勅旨, 尙不肯宣. 惱聽勅使. 乃知欺誑, 誅戮上臣矣. 乃以所見, 具述上臣. 上臣抄掠四村[金官背伐安多委陀, 是爲四村. 一本云,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爲四村也.], 盡將人物, 入其本國. 或曰, 多多羅等四村之所掠者, 毛野臣之過也.”

용이다.

가야의 역사는 대체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전기는 금관가야, 후기는 대가야가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세기대까지는 금관가야의 세력이 두드러졌다면,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급격히 대가야가 성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와 왜의 관계를 시사하는 유물이 많이 보이지만, 대표적인 왜계 문물은 須惠器, 土師器, 馬具, 大刀, 甲冑, 巴形銅器, 石製模造品, 南島産 조개류 등이 있다. 금관가야와 왜의 교섭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기를 올라가 양국 간의 교섭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료에 따르면 가야의 경우 철을 매개로 왜와 교섭한 모습이 보인다. 《三國志》 권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에 의하면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라는 기사가 있다. 이를 보면 弁辰에서는 鐵이 생산되는데, 韓·濊·倭人들이 모두 와서 구매해갔다고 한다. 시장에서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樂浪과 帶方의 두 군에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3세기 단계에는 이미 철을 매개로 하여 한반도 동남부와 왜가 활발하게 교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을 매개한 관계가 문헌 사료에서 보이는 3세기보다 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102]

야요이시대에 한반도 남부로부터 철의 소재나 철에 관한 도구를 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적은 부산 동래 내성유적이다. 주거지가 2기 확인되었는데, 1호 주거지 내부에는 爐가 있으며 그 주변에서 철기를 제작했을 때의 부산물인 鐵滓 및 鐵塊가 발견되었다. 즉, 내성유적은 철을 만든 공방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 대부분은 야요이 토기나 이를 모방하여 현지에서 제작한 토기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성 유적에서 철 제작에 관여한 사람 중에 북부 九州에서 들어온 사람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03] 철에 관하여 울산 달천유적도 주목된다. 출토된

102) 井上主稅, 2014 《朝鮮半島の倭系遺物からみた日朝關係》 學生社.

토기의 대부분은 현지의 토기지만, 내성유적과 마찬가지로 북부 九州계의 야요이 토기도 포함되어 있다. 낙랑계 토기도 공반되어, 철의 원료인 철광석을 구할 수 있었던 중요 지점이었다고 생각된다.[104] 한반도에서 철 생산이 보이는 사례이며 이를 매개로 하여 바다를 건너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항로 상의 거점이 바로 사천 늑도유적이다. 여기에서도 수많은 야요이 토기가 출토되었으며[105] 철을 제작했을 때 사용한 爐가 많이 발견되었다. 늑도유적에서는 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剝片도 발굴되었으므로 현지에서 그 당시 철기가 제작된 것은 분명하다. 전한 시대의 화폐, 낙랑계 토기, 청동의 鏃도 출토되었다. 즉, 늑도유적은 북부 九州뿐만 아니라 낙랑군과 교역한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지점이었다.[106] 이후 전기가야 시기의 항구는 古金海灣 지역이며, 그중 고김해만 서쪽 김해 관동리유적과 신문리유적은 항구 유적으로 추정된다. 신문리유적은 관동리유적을 운영하였던 집단의 거주유적이라고 생각되는데,[107] 3 세기 후반부터 4 세기 초로 편년되는 土師器도 출토된 바 있다.[108] 그러나 4

---

103) 高田貫太, 2017 《海の向こうから見た倭國》 講談社現代新書, 2414, 講談社.

104) 울산 달천유적 일대는 達川鐵山까지 직선거리로 1.45km에 위치한다. 울산 달천유적은 고려시대 이후의 유적도 확인되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고대부터 철의 원료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울산 달천유적까지 왔을 정황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울산대학교박물관, 2000 《울산달천유적》 울산대학교박물관 학술연구서5; 蔚山文化財硏究院, 2008 《蔚山達川遺蹟 1次 發掘調査》; 蔚山文化財硏究院, 2010 《蔚山達川遺蹟 3次 發掘調査》).

105) 늑도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10%가 야요이 토기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시기는 야요이시대 전기 말부터 후기 초까지 수 백년에 이르는 긴 시기로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내성유적과 같이 북부 九州계의 토기가 중심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늑도유적 역시 북부 九州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심봉근, 1997 〈三千浦 勒島遺蹟 出土의 凹線文 彌生係土器에 대해서〉 《문물연구》1, ;慶尙南道, 慶尙大學校博物館 共編, 2001 《勒島遺蹟을 통해 본 韓·中·日 古代文化 交流》).

106) 慶尙南道, 慶尙大學校博物館 共編, 2001, 앞에 책.

107) 高田貫太, 2017, 앞의 책.

108) 대성동고분박물관편, 2007 《김해 신문리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三江文化財硏究院編, 2009 《金海 官洞里 三國時代 津址 김해 율하택지사업구간 내 발굴조사보고》.

세기 대의 자료에 비해 5세기 중엽 이후 자료가 적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유적의 중심연대는 4세기 전엽부터 5세기 중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109] 그러므로 관동리유적은 항구를 운영한 유적이고 북부 九州와 교역의 거점으로 이용하였던 항구라고 여겨진다.

반면에 왜의 경우 3세기 후반에 후쿠오카현[福岡縣] 니시진마치[西新町]유적이 융성한다. 西新町유적은 부뚜막이 있는 竪穴住居 유구가 보이고 한반도계 토기도 많이 출토되었으며 동시에 일본열도의 토기도 보이기 때문에[110] 도래인의 존재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西新町유적에서는 3세기 후반부터 爐의 사용이 확인된다.[111] 왜에서는 보통 5세기에 이르러 부뚜막이 있는 주거지가 보급되었다. 그러므로 3세기 후반 부뚜막의 사용과 한반도계 토기의 출토라는 상황은 한반도에서 도래하였던 사람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유적 주변에는 철기 및 철 생산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점도 한반도와의 관계를 시사한다.[112] 그러나 4세기 이후가 되면 북부 九州와 西新町유적이 급속히 쇠퇴하였으며, 반대로 沖ノ島에서는 제사유적이 융성하였다. 왜 왕권과 금관가야의 직접

---

109) 정선운, 2022 〈加耶 港市의 成立과 展開〉,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논문, 52쪽.

110) 福岡市教育委員會編, 1989. 2000. 2006. 2008 《西新町遺跡》, 《西新町遺跡2》 《西新町遺跡7》 《西新町遺跡11》.

111) 重藤輝行, 2012 〈九州に形成された馬韓·百濟人の集落〉, 중앙문화재연구원편 《마한·백제인들의 일본열도 이주와 교류》 서경문화사.

112) 교역의 거점으로 하카타만 연안이 중심이 되었다. 久住猛雄는 "博多灣貿易論"을 제시하고 하카타만의 무역 기간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다. 그중 야요이시대 후기부터 고분시대 전기 전반까지 무역의 주도권은 북부 九州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前期博多灣貿易'의 시기에 관하여 동시기를 비교하면 畿內 지역에서 낙랑계 및 삼한계 토기의 출토례가 많지 않다. 반면에 西新町유적처럼 많은 倭系土器 및 韓半島系土器가 출토한 유적은 보이지 않으므로 西新町유적은 "國際貿易港"이라고 표현하였다(久住猛雄, 2014 〈博多灣貿易の成立と解体·再論～土器からみた倭と韓半島の交易網の変遷～〉 仁濟大學校加耶文化硏究所·金海市《第20回加耶史國際學術會議 金官加耶の國際交流》). 또한, 유적의 존속 시기를 고분시대 전기 말이라고 생각하여 전자의 경우보다 길게 상정한다. 대외교섭은 西新町유적에 집중한 반면, 鍛冶은 하카타[博多]유적, 또 토기제작은 今山, 今宿유적에 보이고 각종 생산 사업을 전문 특화한 경향이 강함을 지적할 수 있다. 상호 보완적인 분업을 형성하였던 것이다(重藤輝行, 2012 위의 논문).

교역이 가능한 해상교통로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관가야에서는 4세기에 들어서면,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4세기부터 5세기 전반에 木槨墓[널무덤]가 축조되는데, 내부에서 筒形銅器가 출토되었다.[113] 통형동기는 정치성이 강한 출토 유물로, 금관가야와 왜 간 직접 교역의 본격화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성동 88호에서는 巴形銅器 13점이 출토되었으며, 하나의 고분에 부장한 예로는 일본과 비교하여도 가장 많은 수량이다. 이처럼 4세기에는 西新町유적의 쇠퇴와는 대조적으로 고김해만 쪽에서 왜와의 새로운 관계가 보이는 것이다.

이 시기의 가야를 둘러싼 정치적인 배경은 고구려와 백제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라는 고구려에 대해 종속적인 태도를 취했다.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은 금관가야를 포함한 주변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114] 특히 금관가야는 낙동강을 끼고 신라와 對峙하는 위치와 관계에 있었으므로 4세기 후반부터 5세기까지의 낙동강 유역 세력의 범위와 추이에 유의해야 한다. 김두철에 의하면 가야 맹주였던 김해에서는 가야전기에는 수장묘로 목관묘가 채용되었으나 그 이후 석곽묘로 전환한다. 석곽묘로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전환기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부산 복천동고분군의 묘제 변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고분의 분포와 입지는 '김해내만' 지역에 위치하는데,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하여 양동리, 망덕리, 칠산동, 능동고분군 등 많은 고분군이 있으며 바로 이 지역이 전기 가야의 중심지였다. 이 고분군들보다 유적의 밀집도는 훨씬 떨어지지만, 낙동강에 직접 면한 거점이나 바다로 이어지는 거점 등 교통의 요지들에도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

113) 筒形銅器의 제작지와 유통에 대해서는, 왜의 금관가야 贈答說을 반박하는 입장으로 金官加耶 製作說 · 兩製作說 등이 제시되었으나, 아직 제작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井上主稅, 2014 앞의 책).

114)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故國原王 39년(369)조 "三十九年, 秋九月, 王以兵二萬, 南伐百濟, 戰於雉壤, 敗績.";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故國原王 41年(371)冬十月條 "四十一年冬十月, 百濟王率兵三萬, 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是月二十三日薨. 葬于故國之原百濟蓋鹵王表魏曰, 梟斬釗首. 過辭也."

하지만, 전기가야 몰락 이후 김해 지역은 무덤 조영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소규모화한다. 석곽묘로 대표되는 후기가야의 고분군은 진례분지나 진영과 같은 낙동강 생활권이나 낙동강과 면한 거점으로 분산 이동한 경우가 많다. 즉, 전기가야가 김해내만을 중심지로 하면서 바다를 생활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고, 후기가야로 오면서 낙동강을 배경으로 생활 거점을 바꾼 것을 알 수 있다.[115] 즉, 전기가야 시기의 왜는 '김해내만'지역의 집단과 활발하게 교섭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후기가야 단계의 중심지 이동뿐만 아니라, 금관가야가 신라에 편입되었던 사건은 한반도와의 교섭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왜에 있어서도 큰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2) 신라의 아라가야의 멸망에 대한 영향

6세기 이후 신라와 백제가 아라가야로 진출하는데, 그 과정은 사료에 '사비회의'로 나타난다. 그 당시 신라와 아라가야의 경계는 大江水인 낙동강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라가야와 신라의 경계지대인 久禮山은 낙동강 북안으로 볼 수 있으며, 신라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아라가야와 경계를 이루는 구례산 지역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116] 즉,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했던 6세기 전반 이후 아라가야는 신라에 대응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① 제1회 '사비회의'

이러한 배경에서 사료상의 '사비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는 541년과 544년 두 번에 걸쳐 행해졌다. 회의 관계 기사는 〈백제본기〉를 원사료로 하며, 관련하여 《일본서기》의 分註에도 〈백제본기〉 원문의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115) 김두철, 2022 〈加耶轉換期 金海 狗耶·金官國의 推移〉 《고고광장》31, 94~102쪽.

116) 남재우, 2019 〈아라가야의 공간과 지배〉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444쪽.

첫 번째 회의는《일본서기》欽明 2年(541) 4月條이며,[117] 두 번째 회의는 欽明 4年(543) 12月是月條[118], 欽明 5年(544) 正月條,[119] 正月是月條,[120] 2月條, 3月條, 11月條[121]를 통해 그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

117) 《日本書紀》 卷19 欽明 2년(541) 4월조 "夏四月. 安羅次旱岐夷呑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旱岐, 散半奚旱岐兒, 多羅下旱岐夷他, 斯二岐旱岐兒, 子他旱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闕名字.], 往赴百濟, 俱聽詔書. 百濟聖明王謂任那旱岐等言, 日本天皇所詔者, 全以復建任那. 今用何策, 起建任那. 盍各盡忠, 奉展聖懷. 任那旱岐等對曰, 前再三廻, 與新羅議. 而無答報. 所圖之旨, 更告新羅, 尙無所報. 今宜俱遣使, 往奏天皇. 夫建任那者, 爰在大王之意. 祇承敎旨. 誰敢間言. 然任那境接新羅. 恐致卓淳等禍[等謂喙己呑·加羅. 言卓淳等國, 有敗亡之禍.].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恆隆. 而今被誑新羅, 使天皇忿怒, 而任那憤恨, 寡人之過也. 我深懲悔, 而遣下部中佐平麻鹵·城方甲背昧奴等, 赴加羅, 會于任那日本府相盟. 以後, 繫念相續, 圖建任那, 旦夕無忘. 今天皇詔稱, 速建任那. 由是, 欲共爾曹謨計, 樹立任那等國. 宜善圖之. 又於任那境, 徵召新羅, 問聽與不. 乃俱遣使, 奏聞天皇, 恭承示敎. 儻如使人未還之際, 新羅候隙, 侵逼任那, 我當往救. 不足爲憂. 然善守備, 謹警無忘. 別汝所遣, 恐致卓淳等禍, 非新羅自强故, 所能爲也. 其喙己呑, 居加羅與新羅境際, 而被連年攻敗. 任那無能救援. 由是見亡. 其南加羅, 蕞爾狹小, 不能卒備, 不知所託. 由是見亡. 其卓淳, 上下携貳. 主欲自附, 內應新羅. 由是見亡. 因斯而觀, 三國之敗, 良有以也. 昔新羅請援於高麗, 而攻擊任那與百濟, 尙不剋之. 新羅安獨滅任那乎. 今寡人, 與汝戮力幷心, 翳賴天皇, 任那必起. 因贈物各有差. 忻忻而還."

118) 《日本書紀》 卷19 欽明 4년(543) 12월 是月조 "十二月, 百濟聖明王, 復以前詔, 普示群臣曰, 天皇詔勅如是. 當復何如. 上佐平沙宅己婁·中佐平木刕麻那·下佐平木尹貴·德率鼻利莫古·德率東城道天·德率木刕眛淳·德率國雖多·奈率燕比善那等, 同議曰, 臣等稟性愚闇, 都無智略. 詔建任那. 早須奉勅. 今宜召任那執事·國國旱岐等, 俱謀同計, 抗表述志. 又河內直·移那斯·麻都等, 猶住安羅, 任那恐難建之. 故亦幷表, 乞移本處也. 聖明王曰, 群臣所議, 甚稱寡人之心."

119) 《日本書紀》 卷19 欽明 5년(544) 正月조 "五年 春正月, 百濟國遣使,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俱答言, 祭神時到. 祭了而往."

120) 《日本書紀》 卷19 欽明 5년(544) 正月是月조 "是月, 百濟復遣使,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日本府·任那, 俱不遣執事, 而遣微者. 由是, 百濟不得俱謀建任那國."

121) 《日本書紀》 卷19 欽明 5년(544) 11월조 "十一月, 百濟遣使, 召日本府臣·任那執事曰, 遣朝天皇, 奈率得文·許勢奈率奇麻·物部奈率奇非等, 還自日本. 今日本府臣及任那國執事, 宜來聽勅, 同議任那. 日本吉備臣, 安羅下旱岐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卒麻君·斯二岐君·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旱岐, 久嗟旱岐, 仍赴百濟. 於是, 百濟王聖明, 略以詔書示曰, 吾遣奈率彌麻佐·奈率己連·奈率用奇多等, 朝於日本. 詔曰, 早建任那. 又津守連奉勅, 問成任那. 故遣召之. 當復何如, 能建任那. 請各陳謀. 吉備臣·任那旱岐等曰, 夫建任那國, 唯在大王. 欲冀遵王, 俱奏聽勅. 聖明王謂之曰, 任那之國, 與吾百濟, 自古以來, 約爲子弟. 今日本府印岐彌[謂在任那日本臣名也.], 旣討新羅, 更將伐我. 又樂聽新羅虛誕謾語也. 夫遣印岐彌於任那者, 本非侵害其國[未詳.]. 往古來今, 新羅無道. 食言違信, 而滅卓淳. 股肱之國, 欲快返悔. 故遣召到, 俱承恩詔, 欲冀, 興繼任那之國, 猶如舊日, 永爲兄弟竊聞, 新羅安羅,

《일본서기》 권19 欽明 2년(541) 4월조에 의하면 첫 번째 회의는 백제 聖明王의 주도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료도 〈백제본기〉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제의 안라에 대한 입장이 사료에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 사료와 이어지는《일본서기》 欽明 2년 7월 조의 성명왕의 말 부분에는《吳志》孫權傳을 인용하고 있다. 魏, 吳, 蜀의 긴장 관계를 신라, 백제, 임나의 긴장관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서기》의 편찬 태도에 대해서는 유의가 필요할 것이다.[122] '사비회의'의 목적은 신라의 남부가야 진출이 본격화됨에 안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이다. 그리고 제1회의 '사비회의'는 안라국의 친신라적 외교 태도가 보인다.[123] 백제는 신라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관을 파견하였고, 신라는 남부가야 지역에 대한 진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압박보다는 외교적인 수단으로 안라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兩國之境, 有大江水. 要害之地也. 吾欲據此, 修繕六城. 謹請天皇三千兵士, 每城充以五百, 幷我兵士, 勿使作田, 而逼惱者, 久禮山之五城, 庶自投兵降首. 卓淳之國, 亦復當興. 所請兵士, 吾給衣粮 欲奏天皇, 其策一也. **猶於南韓, 置郡令·城主者, 豈欲違背天皇, 遮斷貢調之路. 唯庶, 剋濟多難, 殲撲强敵. 凡厥凶黨, 誰不謀附. 北敵强大, 我國微弱. 若不置南韓, 郡領·城主, 修理防護, 不可以禦此强敵. 亦不可以制新羅. 故猶置之, 攻逼新羅, 撫存任那.** 若不爾者, 恐見滅亡, 不得朝聘. 欲奏天皇, 其策二也. 又**吉備臣·河內直·移那斯·麻都, 猶在任那國者, 天皇雖詔建成任那, 不可得也. 請, 移此四人, 各遣還其本邑.** 奏於天皇, 其策三也. 宜與日本臣·任那旱岐等, 俱奉遣使, 同奏天皇, 乞聽恩詔. 於是, 吉備臣·旱岐等曰, 大王所述三策, 亦協愚情而已. 今願, 歸以敬諮日本大臣[謂在任那日本府之大臣也.] 安羅王·加羅王, 俱遣使同奏天皇. 此誠千載一會之期, 可不深思而熟計歟."

122) 瀨間正之, 2023 〈續 · 欽明紀の編述〉 《萬葉集研究》42, 137쪽.

123) '사비회의'에 참여한 국내 대인에 대하여 안라국의 뜻에 동조하는 소국들의 대표 이해하는 견해(김태식, 1993 《加耶聯盟史》일초각, 201~202쪽), 안라지역연맹체에 속하는 소국단위의 수장이라고 본 견해(백승옥, 2004 〈'안라고당회의'의 성격과 안라국의 위상〉 《지역과 역사》14, 22~23쪽), 안라국 이외의 諸國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안라국의 재지대표세력으로 이해한 견해(백승충, 1995 《加耶의 地域聯盟史 硏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42쪽), '사비회의'가 국제회의인 것을 인정하고 가야 諸國의 참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견해(이연심, 2020 〈6세기 전반 가야와 신라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회편, 《가야와 주변, 그리고 바깥》, 주류성, 309쪽)등이 있다.

5세기 이후 안라국과 왜 왕권의 물적 교류가 본격화되는데, 6세기에는 안라국과 왜 왕권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들 왜계 인물의 활동을 《일본서기》 繼體・欽明紀를 통해 알 수 있다.[124]

또한 백제는 欽明 2년(541) 7월 조와 9월 조에 확인되듯 왜에 사절을 파견하고 있으며, 9월 조에서는 扶南의 재물을 가져온 사실이 보인다. 이것은 541년에 백제가 남조 양에 사신을 파견했을 때에 얻은 물품을 분배한 것이며, 왜에게 가치가 높은 '扶南財物'을 줌으로써 지지를 획득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기본적으로 왜 왕권은 백제의 대응에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안라의 현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모습이 엿보인다. 실제로 가와치노아타니노에나시[河內直移那斯]와 마쓰[麻都]의 행동과 비교해도 "백제가 가야 諸國의 안정을 확립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낼 뿐이다. 결국 백제는 안라에서 郡令·城主를 철수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야 諸國의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제1회의 회의에 의한 일련의 흐름이다.

② 제2회째 '사비회의'

544년 11월에 개최된 제2회의 회의는 백제가 안라에 주둔했던 이후에 행해진 회의이므로 제1회 회의의 대응에 따라 각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보인다. 신라의 위협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료에서는 任那執事, 任那旱岐等, 日本府執事, 日本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회합을 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백제와 안라의 관계가 이전만큼 양호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백제와의 관계에서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던 신라가 獨山城 전투에 구원병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백제에 협조하고, 안라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한 결과 가야 諸國 대한 백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

124) 이연심, 2010 〈6세기 전반 가야, 백제에서 활동한 '왜계 관료'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8, 238~239쪽; 2014 〈안라국의 대왜교역로에 관한 검토〉 《한국민족문화》 51, 71~76쪽.

다.[125]

欽明 5년(544) 11월 조에 보이는 “吳財”는 이전의 ‘扶南財物’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백제가 梁과의 외교에서 얻은 물품을 이용하여 가야를 끌어들이려고 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백제가 왜에 대한 외교 전략에 사용한 “吳財”나 ‘扶南財物’은 扶南의 물건이 남해 무역을 통하여 남조에 들어왔으며, 백제가 남조와의 교섭을 통해 얻은 귀한 물건을 가리킨다고 이해된다. 부남국은 빈번하게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며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503년에는 梁 武帝에게 산호 불상을 공헌하고 ‘安南將軍扶南王’의 작호를 받았으며, 511년, 514년, 517년, 519년, 520년, 530년, 535년, 539년에도 양에 조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6] 이러한 부남국의 외항이 바로 현재 베트남의 옥 에오[Oc Eo] 유적이며[127], 대표적인 港市國家이다.[128] 옥 에오 유적에서는 백제와 유사한 연리문 유리구슬이 발견되어 백제와의 관계도 생각할 수 있다.[129]

이러한 백제의 다양한 대외교섭 상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梁職貢圖》이다.[130] 《양직공도》를 보면 백제 사신은 波斯(사산조 페

125) 위가야, 2020 〈540년대 ‘사비국제회의’와 한반도 남부 정세〉 《백산학보》116, 180쪽.

126) 권오영, 2014 〈고대 한반도에 들어온 유리의 고고, 역사학적 배경〉 《韓國上古史學》85, 148쪽.

127) 한성백제박물관편, 2019 《백제의 대외교섭과 베트남 옥에오문화》; 국립해양연구소편, 2020《베트남 옥에오문화 -고대해상 교역의 중심 옥에오-》.

128) 港市國家란 港市가 발전한 형태이고, 항구도시, 항만도시, 항구성시에 해당한다. 원래 이 표현의 대상인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인도인과 현지인들의 교역활동에 의해 말레이반도를 비롯한 항로 연안에 존재한 교역 중심을 지칭한다(桃木至朗編, 2008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東京: 岩波書店). 港市라는 관념을 고대사 초기의 단계에 반영한 것은 1990년대 초의 Kathirithamby Wells이다. 이에 대하여 비판도 있지만, 港市國家의 개념을 기원전부터 19세기까지 통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Kathirithamby Wells and Villiers, John ed. 1990, *The Southeast Asian Port and Polity, Rise and Demise* :Singapore University Press, Singapore). 최근에는 공간과 시대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다(권오영, 2023 〈고대 동아시아의 항시와 항시국가〉 주경철·유성희 엮음 《해양과 메가아시아》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연구총서, 진인진).

129) 권오영, 2014 앞의 논문, 148쪽.

130) 《梁職貢圖》의 여러 판본 가운데, 북송 모본과 다른 2개의 모본은 題記가 결

르시아) 사신의 뒤, 龜玆[131] 사신의 앞에 있다. 특히 현재의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은 남조에만 사신을 보내고 있으며 북조에 보낸 예는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132] 물론 지리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와의 독점적인 교섭은 남조 외교의 특징이다. 그리고 上表文을 보면 불교적인 성격이 강한 표현이 보이므로 불교를 매개한 교섭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와의 교섭에 보이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133] 이러한 불교적인 연결은 《梁職貢圖》上表文 이외에 다른 사례도 찾을 수 있다. 《續高僧傳》에 의하면 545년 인도에서 扶南으로 건너온 인도 승려 Paramartha(眞諦: 499~569)가 양 무제의 초청을 받아 546년 南海[廣州]를 거쳐 建康에 도착하였다고 한다.[134] 이러한 상황에서 남조의 南京 建康城을 무대로 백제와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교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품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왜에 전달한 吳財, 扶南財物 등은 이러한 물건을 활용한 백제 외교정책의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교역 교통로의 변화와 磐井의 난 이후의 대신라 관계의 소극화

①北部 九州 출토 신라계 유물

먼저 5세기 전반의 북부 九州에 대해 살펴보겠다. 5세기 전반의 북부 九州와 한반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고학 자료로는 福岡縣 우키하시[うきは市]의 츠키오카[月岡]고분이 있다. 月岡고분의 한반도계 부장품은 신

실되어 있어 북송 모본의 제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2011년에 새롭게 "淸張庚諸番職貢圖卷"이 소개되면서 이 제기를 참고하여 상호 보완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

131) 《梁書》 諸夷傳에 의하면 龜玆는 한대부터 존재했던 나라지만, 남조와는 382년부터 교섭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양이 성립한 후 503년에 다시 교섭을 재개하였고, 양대에 두 번의 사신을 보냈다. 북위에는 세 차례 사신을 보내고 있다. 이 점을 볼 때 사신을 보냈던 회수는 많지 않으므로, 외교 상대로서 양을 중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132) 金子ひろみ, 2014 〈南朝梁の外交とその特質〉 《梁職貢圖と東部ユーラシア》, 東京: 勉誠出版, 134쪽.

133) 위의 논문, 134쪽.

134) 권오영, 2017 〈狼牙脩國과 海南諸國의 세계〉 《百濟學報》20, 219쪽

라계와 백제·대가야계로 다양한 계통이 보이며, 고분의 피장자나 조영 집단이 다각적인 교섭을 거듭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月岡고분에는 畿內의 왜 왕권을 중심으로 사용된 長持形石棺을 충실하게 모방한 竪穴式石室이 매장주체시설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현재 북부 九州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또한, 5세기 전반 왜 왕권과 신라의 정치경제적인 교섭을 반영한 龍文·草葉文透彫製品도 보이므로 우키하[浮羽]지역의 유력 수장이 왜 왕권이나 畿內의 중앙호족층과 연결되어 왜 왕권 외교에 참여한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135]

한편 福岡縣 아사쿠라시[朝倉市] 쓰쓰미하스이케마치[堤蓮町] 1호분에서도 다양한 한반도계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堤蓮町 고분군의 조영 집단은 독자적인 지위·존재·권위가 있어 독자적으로 한반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왜 왕권의 관계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136] 이 지역의 다양한 한반도계 문화의 수용과 도래인 집단 활동을 모두 왜 왕권 주도의 외교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북부 九州의 유력 세력의 수장들은 주체적인 대외교섭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137] 즉 전자의 경우 왜 왕권이 관여하는 對한반도 교섭이고, 후자의 경우는 지역사회 주체의 對한반도 교섭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후자의 집단은 신라와의 관계를 맺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5세기 후반에는 대한해협 연안 지역에도 왜 왕권이 관여하는 對한반도 교섭을 담당한 집단과 지역사회 주체의 對한반도 교섭을 담당한 집단이 병존했다. 대한해협 연안 지역에서는 磐井의 亂이 일어나기 이전인 5세기 후반 단계에는 대가야계 귀걸이나 대금구를 부장한 유력 수장층의 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5세기 후반이 되면 쓰야자키[津谷崎] 연안 지역인 福岡縣 후쿠쓰시[福津市] 가쓰우라미네노하타[勝浦峯ノ畑]고분이 축조되고, 이 지역에 유력

135) 高田貫太, 2022 〈考古學による日朝關係史から見た‘磐井の亂’〉 《國立歷史民族博物館硏究報告》231, 248쪽.
136) 吉武孝禮, 1999 〈まとめ〉 《堤蓮町遺跡》甘木市敎育委員會, 72쪽.
137) 高田貫太, 2022 앞의 논문, 250쪽.

수장묘가 조영되기 시작한다. 宗像 지역의 宗像氏는 제사를 담당하는 씨족이며, 북부 九州의 본거지와 沖ノ島, 그리고 부산·김해는 일직선으로 연결되었다. 이 시기부터 宗像 지역에서 백제·대가야계의 유물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宗像 세력이 沖ノ島 제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도 명확해 보인다.[138] 이러한 왜 왕권이 주도로 사용한 沖ノ島를 경유하는 교통로는 종래의 博多灣交易을 부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다. [139] 한반도와 왜의 교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김해내만' 지역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금관가야가 신라에 편입되었던 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신라와 왜의 교섭을 생각할 때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磐井의 난 이후의 신라와 왜의 관계이다. 앞에서 《일본서기》 계체기에는 磐井의 난이 일어난 이유는 신라가 磐井에게 뇌물을 보내 毛野臣의 군사를 막아주기를 권유하는 등의 신라와 磐井의 관계를 왜 왕권이 문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료에서 제시한 磐井과 신라의 관계를 다른 각도에서도 확인해보기 위해 북부 九州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신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물은 福岡縣 이이즈카시[飯塚市] 하제야마[櫨山]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제 三葉文帶金具로, 5세기 후반 신라에서 널리 확인된다. 櫨山고분 출토 금동제 삼엽문대금구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출토된 사례이다.[140] 櫨山고분 피장자는 대신라 교역을 담당했던 인물이었거나, 혹은 북부 九州 지역에 정착한 신라계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141]

---

138) 重藤輝行, 2014 〈宗像地域における古墳時代首長の對外交涉と沖ノ島祭祀〉 世界遺産推進會議編 《宗像·沖ノ島と關連遺産群 研究報告1》; 大高廣和, 2014 〈沖ノ島究の現在〉 《歷史評論》776.

139) 菱田哲郎, 2013 〈古墳時代の社會と豪族〉 《岩波講座日本歷史》, 第一卷, 東京: 岩波書店.

140) 嶋田光一, 1991 〈福岡縣櫨山古墳の再檢討〉 兒嶋隆人先生喜壽記念事業會 編, 《古文化論叢 兒島隆人先生喜壽記念論文集》, 福岡: 兒嶋隆人先生喜壽記念事業會, 551~543쪽.

141) 高田貫太, 2021 《アクセサリーの考古學 倭と古代朝鮮の交涉史》, 歷史文化ライブラリー522, 東京: 吉川弘文館, 161~162쪽.

[그림 9] 櫨山고분 출토 금동제 三葉文帶金具
[복제품]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櫨山고분은 遠賀川 상류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에는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매장시설과 부장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신라와 긴밀한 관계가 보인다. 遠賀川 상류의 가호[嘉穗] 분지는 수계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히비키탄[響灘]에 나아 갈 수 있고, 육로를 통해 동쪽으로 진출 수 있으며, 히타[日田] 분지를 경유하면 스오우탄[周防灘] 연안 각지로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서남북 교통로의 거점이다.[142]

당시 북부 九州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귀걸이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福岡縣 다카와군[田川郡] 가와라정[香春町]의 나카하타[長畑] 1호분에서는 5세기 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신라계 귀걸이가 출토되었는데, 田川 분지 일대는 주로 신라와의 관계가 깊다.[143] 5세기 왜에서는 대가야계 귀걸이 혹은 대가야계 귀걸이에 倭적 요소가 가미된 귀걸이가 주로 출토되지만, 북부 九州에서는 그러한 귀걸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5세기에는 왜 왕권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유력자들은 대가야계 귀걸이를 입수하였다. 하지만 북부 九州에서는 왜 왕권을 매개하지 않은 교섭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동시에 신라와의 관계가 깊었다고 볼 수 있다.[144]

142) 高田貫太, 2014 앞의 책, 197~204쪽.
143) 高田貫太, 2021 앞의 책, 237~238쪽.

6세기 전반의 博多灣·唐津灣 지역에서 대가야계 귀걸이가 증가하는 요인은 磐井의 난 이후의 대외 교섭의 변화와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145] 磐井의 난이 일어나는 6세기 전반 무렵 대한해협 연안의 북부 九州에도 대가야계 귀걸이가 유통되는 양상을 통해, 한반도와의 대외교섭과 관련하여 왜 왕권과 대한해협 연안 지역의 관계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146]

②火國 집단과 有明 海人 집단

마지막으로 磐井의 세력 하에 있었다고 언급된 火國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일본서기》 繼體 22년(528) 12월조에 의하면 磐井의 난이 종결된 후 磐井의 아들인 葛子가 왜 왕권에 '糟屋의 屯倉'을 헌상했다다.[147] 가스야[糟屋]는 대한해협 연안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중요한 둔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사료를 보면 筑紫君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磐井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도래인 집단과 磐井이 독자로 소유하고 있었던 외교권이 왜 왕권으로 통합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대가야 귀걸이가 출토되는 지역이 6세기 초부터 대한해협 연안 지역까지 확대하는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와도 일치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磐井이 독점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조개 무역 경로의 존재이다. 신라의 조개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① 왜 왕권을 통한 입수 가능성, ② 九州 호족을 통한 입수 가능성, ③ 왕권이나 九州 호족을 통하지 않고 해인 집단을 통하여 직접 입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② 九州 호족을 통해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통설에 해당한다. 신라의 패각 입수는 九州 동쪽 방면

144) 高田貫太, 2021 위의 책, 239쪽.
145) 重藤輝行 2016, 〈筑紫君磐井の亂と八女の古墳文化〉 《八女の名寶》九州歷史資料館, 45쪽.
146) 高田貫太, 2014 앞의 책, 205~209쪽; 2021 앞의 책, 239~241쪽.
147) 《日本書紀》 卷17 繼體 22년(528) 12월조

을 통한 경로가 아니라 대한해협 방면을 통한 九州 서쪽의 패각 무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磐井의 亂 직전 서쪽의 조개 무역 경로는 磐井과 연대 관계에 있었던 火君 세력도 관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繼體 21년 6월조를 참고하면 磐井은 火·豊에도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148] 특히 火君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최근 문헌사에서의 씨족 연구 성과가 주목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筑紫 지역에 가까운 기쿠치[菊池] 지역에서 존속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쿠치씨[久々智氏], 오오토모배씨[大伴部氏]는 筑紫君과 '同祖 관계'에 있으며, 菊池는 火國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磐井과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149]

또한 고고학적인 성과를 검토하였을 때, 백제와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이 축조되었다. 또한, 橫口式 家型石棺이 확인되는 有明海 연안에는 5세기 전반부터 6세기 중엽까지 아소석[阿蘇石]제의 횡구식 가형석관을 매장한 고분이나 石製 表飾가 있는 고분이 수장묘로서 축조되었는데, 여기에 밀집된 수장묘를 근거로 '有明首長連合'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즉, 백제·대가야계 부장품이 확인되는 有明海·八代海 연안 지역은 왜 왕권과 직접 연결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신라계의 자료가 적다는 경향성이 보인다.

이러한 연합을 주도한 것이 야매[八女] 그룹이고, 여기에 히코[肥後] 남부세력과 기쿠치천[菊池川] 유역의 肥後 북부세력, 히젠[肥前] 남부세력이 참여하였다.[150]《肥前國風土記》에서의 土蜘蛛傳承의 土蜘蛛는 마쓰우라군[松浦郡]와 소노기군[彼杵郡]을 비롯한 '海人[有明海人]'을 가리킨다. 나가사키현[長崎縣] 고토우열도[五島列島] 오지카섬[小値賀島]을 포함한 肥前 지역 연안부의 해인들은 죠몬시대 이래 한반도와의 교류에 관여하고, 한반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아리아케해 연안의 호족들은 그들

148) 《日本書紀》 卷17 繼體 21년(527) 6월조
149) 溝口優樹, 2021 〈古代肥後の地方豪族と鞠智城〉 《地域社會からさぐる古代山城 鞠智城》, 熊本: 熊本縣教育委員會, 43~50쪽.
150) 柳澤一男, 2014 《筑紫野君磐井と磐井の亂》, 東京: 新泉社, 62~66쪽.

의 ‘有明 교통로’를 이용해 한반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151] 즉, 이 지역은 북부 九州 인근 대한해협의 하카타만[博多灣] 연안 지역과는 다른 측면에서 한반도와 관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를 한반도까지 연결되는 해로로 설명하자면 한반도 서남해 연안 지역에서 五島列島를 경유하여 九州 서북부 지역까지 도달하고, 현재 구마모토현[熊本縣]인 肥後 등 아리아케해 연안지역을 왕래하는 ‘有明 교통로’로 연결되는 ‘남해 사단항로’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152] 이 항로는 전남지역 마한세력과 九州지역 토착집단 사이의 교류 과정에서 개척되었던 항로이고, 영산강 유역과 북부 九州 사이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관계가 3세기부터 5세기 단계에 밀접하였다는 견해를 참고하면,[153] 영산강 유역의 토착 집단과 九州 집단 사이의 활발한 교류는 남해 사단항로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154] 즉, 九州의 ‘有明 해인’ 집단이 활동한 五島列島와 有明海를 경유하고 한반도와 연결되는 해로는 전통적으로 신라와 가야 등 한반도의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아니었으며, 신라가 이러한 九州의 해인 집단을 매개하여 북부 九州로 건너갔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151) 瓜生秀文, 2018 〈怡土城に關する諸問題 -怡土城築城擔當者と〈肥前守〉について-〉 大宰府史跡發掘五〇周年記念論文集刊行會 編, 《大宰府の硏究》, 東京: 高志書院, 392~399쪽.
152) 문안식, 2015 〈백제의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와 기항지〉 《사학연구》119, 136쪽.
153) 吉井秀夫, 2004 〈토기자료를 통해 본 3~5세기 백제와 교류의 교류관계〉 《漢城期 百濟의 물류시스템과 對外交涉》한신대학교 학술원.
154) 문안식, 2015 앞의 논문, 137쪽.

[그림 10] 5세기부터 6세기 초까지 신라와 왜의 교섭 상황 (필자 제작)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서쪽의 조개 무역 경로에 존재한 집단은 그 이전 시기부터 존재한 해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磐井의 亂을 계기로 하여 서쪽의 조개 무역 경로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왜 왕권이 주도한 북부 九州의 한반도 교섭 교통로는 6세기 후반에 새롭게 왜 왕권이 신라와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교통로와 연결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 6세기 중반 가야 멸망 이후의 吉備 지역의 변화

그러나 吉備叛亂傳承과 磐井의 亂을 계기로 하여 신라와 교섭 관계를 맺고 있었던 왜의 지방 세력은 왜 왕권에 편입되었으며, 그들이 소유하는 항로도 왜 왕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왜 왕권의 외교권 강화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6세기 초의 磐井의 亂 이전까지는 신라와 왜 지방 세력의 교섭 관계가 왜 왕권과는 별도로 존재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왜 왕권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가야가 신라나 백제에 편입된 이후 吉備 지역에 왜 왕권의 지배 시설인 屯倉을 설치한 기사이다. 《일본서기》에 보

이는 시라누이[白猪]屯倉 · 고치마[兒嶋]屯倉에 관한 사료는 일곱 차례나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欽明 16년(555) 7월 壬午조, 欽明 17년(556) 7월 己卯조, 欽明 30년(569) 정월 辛卯朔조, 欽明 30년(569) 4월조, 敏達 3년(574) 10월 丙申조, 敏達 4년(575) 2월 壬辰朔조, 敏達 12년(583) 是年조에 확인할 수 있다. 白猪屯倉·兒嶋屯倉에 蘇我氏가 파견되는 것도 백제가 가야를 편입한 555년 이후이다. 특히 吉備臣은 안라에 파견하였던 가야와 血緣적 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백제 성명왕이 일본에 송환을 요구한 인물에 포함되는 것을 생각하면 반백제적 인물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蘇我氏는 近畿 지방에 기반을 둔 도래계 씨족과 함께 백제와의 강한 관계가 있던 畿內 씨족이다. 왜 왕권이나 백제와의 연계가 강한 蘇我氏의 파견은, 한반도에서 吉備氏의 외교교섭 역량이 저하되는 것이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신라의 침공에 의해 欽明 23년(562)에는 안라 뿐만 아니라 대가야도 신라의 세력 하에 들어가 吉備氏는 본격적으로 활동의 장소를 잃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吉備의 屯倉 설치는 왜 국내에서 세토나이카이해[瀨戶內海] 지역의 교섭 항로 거점 확보와 함께 吉備氏의 세력의 원천이 되는 츄고쿠[中國] 산지의 철과 瀨戶內海의 소금을 탈취하고, 吉備 지역을 왜 왕권의 완전한 복종하에 둔다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吉備의 屯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농업적으로도 직능적으로도 吉備가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蘇我氏와 같은 강력한 씨족이 파견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蘇我氏의 입장에서도 吉備 지방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기는 부차적인 이익이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대외교섭의 무대에서 매우 견고한 교통로를 확보한 것이라는 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吉備氏나 吉備 지방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와의 대외교섭을 담당해 온 집단이지만, 6세기 단계에 왜 왕권의 屯倉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독자적인 대외교섭 교통로를 소지하고 있던 吉備氏가 완전히 왜 왕권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5세기의 吉備傳承 기사의 시점에서 吉備氏는 왜 왕권과의 관계를 강화

하였고, 그들이 소유하는 교통로를 왜 왕권에도 제공하였다. 즉 5세기 단계에서는 전통적으로 吉備氏가 소유하고 있던 교통로가 왜 왕권으로 이행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왜 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것은 아니며, 吉備는 왜 왕권 내에 편입되면서도 일정 정도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吉備 지방의 상황은 고고학적 내용으로부터도 뒷받침되고 있다. 5세기에는 오카야마현[岡山縣] 쓰쿠리야마[造山] 고분 등의 거대 전방후원분이 출현하는데, 이는 지역 수장층과 도래인 집단의 우두머리 혹은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수장층과 관련이 깊다고 추정된다. 동시에 그 주변 지역에서는 분구 길이 100m 규모의 전방후원분이 확인되지 않고, 5세기 후반의 료구산[兩宮山] 고분·슈쿠테라야마[宿寺山] 고분을 마지막으로 1세기에 걸쳐 고분 규모가 축소한다.

반면에 해안지역에서는 고분의 규모가 유지되고 새롭게 帆立貝形前方後圓墳이 축조되는 등 한반도계 요소가 강해진다. 帆立貝形前方後圓墳은 백제계의 獸面打出帶金具가 출토되고 도래계 수혈식석실을 채용한 요시이강[吉井川] 하류역 동쪽 해안의 오카야마현 우시부미아자차우스야마[牛文茶臼山] 고분과 오다가와[小田川] 하류역 서안의 덴구야마[天狗山] 고분, 쇼부자코[勝負砂] 고분 등이 축조된다.[155] 이를 볼 때, 吉備 집단은 가야·신라와의 교섭 경로를 소유하고 있었던 중소수장층으로서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吉備叛亂傳承에서 확인되는 왜 왕권에 仕奉한 吉備弓削部虛空이나 吉備海部直赤尾 등은 요시이천[吉井川] 하류 지역 동안(오사후네[長船] 북부·남부 지역) 혹은 우시마도만[牛窓灣] 연안 지역의 중소 수장묘 피장자로 비정되고 있다.[156]오타천[小田川] 하류 지역의 天狗山고분, 勝負砂고분을 축조한 집단, 吉井川下流域 동쪽이나 牛窓灣 연해부의 집단은 5세기의 吉備傳承 기사 이후 시점도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吉備 지역의 집단이 왜 왕권에 의해

155) 高田貫太, 2014, 앞의 책, 221쪽.

156) 龜田修一, 2001 〈古墳の時代—古代國家への道—〉 《牛窓町史 通史編》, 岡山: 牛窓町 ; 龜田修一, 2008 〈吉備と大和〉 土生田純之 編, 《古墳時代の實像》: 東京, 吉川弘文館; 高田貫太, 2014 앞의 책, 221～222쪽.

완전하게 장악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吉備傳承 이후도 해상 교통의 경험이나 실적을 바탕으로, 대외교섭 교통권의 장악을 목표로 하는 왜 왕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활동한 집단의 모습을 상정해 볼 수 있다.

④왜 왕권 중심부의 권력 편입 과정과 周縁部 왕궁군

여기에서는 이 시기의 왜 왕권 중심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5세기 한반도와 왜 왕권의 관계는 《일본서기》나 《고사기》에 보이는 宮 소재지를 관칭한 王名을 중심으로 5세기와 6세기 왜 왕권의 지배구조 차이를 고찰한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157]

5세기 왕궁은 기존에 상정한 것보다 광역에 걸쳐 있고, 그 범위는《일본서기》와 《고사기》에 보이는 왕족 반역 전승의 전개와 일치한다. 왕궁 범위 설정을 토대로 奈良 분지 동남부의 왕궁군을 중추부 왕궁군, 오사카만[大阪灣] 일대와 나라 분지 북부, 교토[京都] 분지 남부를 周縁部 왕궁군으로 지칭한다. 중추부 왕족은 왜왕을 배출하는 유력 집단인 반면에 주연부 왕족은 중추부 왕족에 대립적 의도를 내포한 집단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5세기 왜 왕권 왕족의 편성 형태는 왕족과 호족의 느슨한 연합체였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왜왕을 배출하는 유력집단과 주연부 왕족의 궁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관련 유적의 존재와 한반도에 이어지는 수계경로의 존재이다. 5세기 야마토[大和]에서 기이[紀伊]로 가는 경로의 기노천[紀ノ川] 수계경로는 정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군사적 의미도 포함한 중요한 수계였다. 제1기는 葛城氏와 紀臣 세력이 서로 연계하며 紀ノ川 수계경로의 주도권을 잡은 단계이다. 葛城氏는 한반도에서 온 도래인들과 관계를 맺어서, 紀伊 水門부터 紀ノ川를 통하여 葛城 지방의 각지에 거주하며 5세기 전반부터 중엽의 난고[南郷] 유적군과 같

157) 古市晃, 2011 〈五·六世紀における王宮の存在形態-王名と叛逆傳承-〉 《日本史研究》 587: 2013 〈倭王權の支配構造とその展開〉 《日本史研究》 606: 2016 〈五·六世紀の倭王宮に關する基礎的考察〉 《日本古代·中世都市論》, 東京: 吉川弘文館; 古市晃, 2019 《國家形成期の王宮と地域社會-記紀·風土記の再解釋-》, 東京: 塙書房에 재수록.

은 대규모 수공업 생산을 시작했다. 南郷 유적에서 보이는 도래계 집단은 가야계, 백제계라는 지적이 있으며 葛城氏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葛城氏는 왜 왕권 초기 대외활동을 주도한 씨족이다. 즉, 왜 왕권은 가야, 백제계 집단과 연계하여 중앙집권화를 진행하였다. 즉, 5세기 후반 이후에는 葛城 지역은 왜 왕권의 관리하에 있으며 왕권 경영의 牧으로 되었다.

반면 紀臣 세력은 紀ノ川 하류 유역부터 하구 지역을 장악하여 전방후원분을 축조하고 가야와의 교류를 통하여 문물을 도입했다. 다만, 우지[宇智] 지역의 호족도 한반도로 건너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을 구성한 여러 세력이 이 경로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연합군을 편성하여 공동으로 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나루타키[鳴瀧] 유적의 창고군은 그 당시 군사기지라고 추정되었다. 제2기는 葛城氏 멸망 이후의 상황이다. 멸망 원인은 紀ノ川 수계경로의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왕권 직속의 군사적 씨족인 大伴氏가 기노카와 수계경로에 개입하였고 雄略 시대에는 紀臣과 연계하며 나쿠사군[名草郡] 및 나카군[那賀郡]에 세력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일본서기》 雄略 9년 3월, 5월조의 신라토벌 기사에서 '신라토벌'에 참가한 사람으로 이름이 확인되는 7명 중 紀氏, 大伴氏 외에는 소카노카라코[蘇我韓子]밖에 없다. 蘇我韓子는 토벌군의 내분을 이유로 사살되었던 장군이다. 중심세력의 멸망에 따라 약체화한 구 '葛城氏' 세력의 일부가 왕권을 주체로 한 한반도 토벌군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이 이야기가 구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紀ノ川를 확보하는 것은 북부 九州의 항로와 연계하여 한반도와 왜 왕권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또한, 磐井의 난을 계기로 설치된 粕屋屯倉의 위치를 볼 때도, 대한해협 서쪽의 조개 무역 교통로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 왕권은 磐井가 소유한 교통로를 편입하고, 그 이전에 편입한 紀ノ川 수계경로와 연결하여 對한반도 경로를 형성했다. 이때 왜 왕권이 편입한 북

부 九州의 한반도 교섭 교통로는 6세기 후반에 새롭게 왜 왕권이 신라와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교통로와 연결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점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5세기부터 6세기 초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5세기에는《삼국사기》에 확인할 수 있다시피 왜의 침공 기사가 빈번하며 양국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시기에 吉備 지역과 북부 九州의 지방 세력은 신라로 향하는 항로를 확보하였으며 신라와 교섭을 맺고 있었다. 즉, 왜 전체가 신라와 적대적인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는 경주를 비롯한 신라와 관계가 있었던 지역에서 한반도에서 산출되지 않는 야광패를 가공한 제품이 부장되는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바로 북부 九州를 경유한 조개 무역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더욱 磐井 세력이 糟屋의 해역을 봉쇄할 경우, 왜 왕권은 한반도와의 교류가 어려웠기 때문에, 沖ノ島을 경유한 교통로가 博多灣보다 서쪽을 사용한 기존 교통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왜 왕권은 博多灣 연안에 那津官家를 설치하여 북부 九州의 屯倉을 편입하고 관리하였다. 이러한 왜 왕권이 설치한 26개의 屯倉 중에 22의 둔창이 서일본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吉備氏의 세력 하에 있었던 瀨戶內海 연안 지역, 磐井 세력과 관계가 있었던 筑紫·豊·火 지역에 설치하였던 것을 사료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왱 왕권의 둔창 설치는 지방 지역 지배의 강화와 관련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지방 세력 견제뿐만 아니라 교통로도 강하게 의식한 배치였다. 瀨戶內海에서 周防灘, 대한해협과 博多灣에 이루어진 糟屋屯倉 · 那津官家까지의 수륙 교통로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158]

6세기의 磐井의 난 이후 왜 왕권은 屯倉制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博多灣을 항구로 하는 왜 왕권의 대외교섭 체제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부 九州가 담당해온 신라와의 교섭도 간소화하게

158) 松原弘宣, 1985 《日本古代水上交通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된다. 즉 왜 왕권의 입장에서 畿內 지역과 博多灣을 연결하고 한반도에 이르는 교통로와 외교권을 장악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므로 磐井의 난을 계기로 하여 북부 九州 지역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對한반도 교섭을 실시했던 집단이 왜 왕권에 편입되면서 북부 九州와 신라와의 교섭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문헌 사료뿐만 아니라 고고학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양자의 사료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二. 對日 교섭의 중요성과 신라의 통일

7세기 초는 신라의 입장에서 대왜(일) 교섭의 중요성이 올라가는 시기이다. 602년 백제와의 阿莫城 전투, 603년 고구려의 北漢山城 공격 등 한반도에서 삼국 간 전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610년 이후 신라가 빈번하게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교섭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일본은 신라를 거쳐 당나라에 건너가는 경로를 활용하였는데 入唐學問僧들은 나당전쟁의 긴장 시기에도 신라를 경유하는 新羅道를 사용하여 왕래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당나라로 파견한 사신은 백제를 경유하여 왕래하기도 했기 때문에, 불교 관계 집단이 신라도를 사용한 배경에는 정치 외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7세기 이후 적극적으로 신라가 당나라의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활발한 불교적 교류가 일본의 입당학문승 왕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신라가 신라도를 이용하여 일본과 불교 관련 교류를 이어간 정치외교적인 의도를 생각해야 한다. 신라가 일본의 신라도 사용을 막지 않았던 이유를 禮 제도를 바탕으로 '길을 빌려준다'는 외교의례적인 역할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힘든데, 경로를 막음으로써 생기는 이점이 없고 오히려 불리한 점이 컸기 때문이다. 나당전쟁 때 신라는 일본이 백제를 지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당나라로 가는 경로를 막는 것은 외교의례의 면에서 신라측에 불리하였을 것이다. 이때 백제도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이 신라도를 사용하는 것에 필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527년 이와이[磐井]의 亂이 종결된 후, 백제는 일본의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본의 중앙 지역에 도래인 사회를 만들었다. 신라의 경우 백제처럼 할 수는 없었지만 일본에 신라도를 빌려줌으로써 교섭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 당시 신라는 한강유역을 확보하여 당나라에 건너가는 안정적인 경로를 소유하였는데, 당나라로 직접 횡단이 어려운 일본에게 당나라로 건너가기 위한 경로를 빌려주는

것은 7세기 최대의 외교 카드가 되었다.

7세기 한반도에서는 당나라의 압박과 삼국의 충돌,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이라는 큰 혼란이 일어났으며 신라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외교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신라의 외교 정책을 다룬 개별 연구가 많긴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신라의 대외정책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신라 외교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겠다.

신라는 경기 화성 지역을 영역화함으로써 이 지역을 외교 교섭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드러내는 물질적 자료가 화성 당성 유적이다. 교역 항구의 역할을 맡았던 당성은 신라와 당나라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신라 최전선의 요충지가 되었으며, 나당전쟁 중에는 서해안 지역의 對唐 요새로서 중요도가 높았던 산성이다. 즉, 통일 혼란기 한반도의 정세에 따라 당성은 역할과 쓰임새가 달라졌다. 발굴조사에 의하면 당성 유적은 단계적으로 경영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1] 그러므로 7세기 신라 대외정책의 변천과 당성 유적의 경영단계를 함께 검토한다면, 당나라와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던 시기와 戰時 신라가 채택한 海防 최전선의 사용방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변화와 唐制의 수용에 따라 신라에서는 외교 관제 개혁이 실행되었으며 국내 관제와 외교의례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신라 외교의례의 성격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대외관직의 운용 방식과 그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근거를 고찰하겠다. 신라의 국제 외교는 경제·지리·정치적인 조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전개되었다. 7세기 동아시아 각 국가에선 주변 국가와의 긴장 관계가 노정되었으며,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주변 여러 국가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대외정책과 관련된 여러 조건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한다면 신라가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결정한 대외정책의 배경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1) 裵基同·朴晟喜, 2001 《唐城-2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1. '新羅道'와 對倭 교섭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정세와 함께 신라의 대외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對倭 관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는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과 그 이후에 실행한 대왜 교섭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관산성 전투와 신라의 한강유역 확보

(1) 신라에게 있어 관산성 전투의 의미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 9년(548) 2월조, 高句麗本紀 陽原王 4년(548) 정월조, 百濟本紀 聖王 26년(548) 정월조에 의하면 고구려는 6000명의 병사로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해 남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백제는 신라로부터 3000명의 구원병을 얻어 고구려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다. 신라가 삼국 간 전투의 주체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진흥왕 11년(550)이다. 《삼국사기》 550년 1~3월 기사에는 道薩城과 金峴城을 둘러싸고 백제와 고구려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백제는 550년 1월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취했으며 고구려는 550년 3월 군대를 보내어 백제의 금현성을 포위하였다. 541년에 맺어진 백제와 신라의 우호 관계와 548년의 攻守 활동에서 미루어보면, 백제의 금현성이 포위당했을 때 신라는 백제를 지원하는 원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2)]

하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1년(550)조를 보면 진흥왕은 군사를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방전으로 곤핍해진 백제의 국면을 이용하여 도살성과 금현성을 모두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3)]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나·제동맹군의 한강 공략 시점을 진흥

2)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324쪽.

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11년 春正月조 "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湌異斯夫, 出兵擊之取二城."

왕 112년(551) 3월로, 고구려본기에서는 같은 해 9월로 전한다. 신라본기는 진흥왕 12년(551) 3월 진흥왕의 娘城 순수와 우륵의 소환·귀의과정이 일괄 정리된 후에 부기된 것이어서 연월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4] 신라가 도살성과 금현성을 차지하는 과정은 신라 한강유역 진출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라는 國原을 차지한 이후 진흥왕 12년(551) 9월 백제와 공동 작전 하에 한강유역 공략에 나섰다. 이 시기 신라와 백제는 한강유역을 공략할 때까지 동맹국의 지위를 유지하였다.[5]

551년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이 한강유역을 공략한 뒤 신라는 상류의 10개 군을 백제는 하류의 6개 군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곧 신라는 한강 하류의 백제 점령지 또한 영역화하기를 원했다. 그 지역은 산악 지대인 상류 지대와는 달리 평야 지대이고,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553년 7월 신라는 한강 하류의 백제 영역을 공격하였는데, 고구려는 이미 상실한 한강 유역과 함흥평야 일대를 신라에게 넘겨주고 대신 양국이 화평한 관계를 맺어서 남부 국경선의 안정을 보장받았다.[6] 이는 나제동맹이 파기된 계기로서 의미가 있으며 곧 관산성 전투가 발생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4년(553) 7월조를 통해 신라가 553년 7월에 백제의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新州를 설치했으며, 阿飡 金武力을 軍主로 삼아 통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7] 이러한 내용은 《日本書紀》에도 있는데,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8] 관산성 전투는 백제본기 성왕 32년(554) 7월조에서는 554년 7월이라고 하였지만, 《일본서기》에서는 554년 12월이라고 기록되었다. 진흥왕 14년(553) 7월조에 의하면 백제 성왕은 신라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의 딸을 진흥왕의 小妃로 시집보냈다.

---

4) 장창은, 2020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290쪽.
5) 장창은, 2020 위의 책, 294쪽.
6)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433쪽.
7)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14년(553) 7월조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興, 以阿飡武力爲軍主."
8) 《日本書紀》 卷19 欽明 13년(552)조, 14년(553)조, 15년(554)조.

그러나 성왕 32년(554) 7월조와 같이 결국 554년 7월 백제가 군사를 보내면서 관산성 전투가 일어났다.[9] 553년 백제가 한강 하류를 신라에게 빼앗기자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관산성 전투 초기에는 백제가 우세하였다. 餘昌이 후방의 본진에서 지휘하면서 선봉장으로 삼은 東方領이 관산성을 공취하였다. 여창은 관산성을 차지한 후 久陀牟羅에 성을 쌓아서 신라군의 침입에 대비하였다.[10] 관산성을 빼앗긴 신라는 신주 군주 김무력까지 동원해 총력전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성왕 32년(554) 7월조 기사의 내용과 같이, 신라는 성왕이 여창을 위로하기 위해 보병과 기병 50명만을 데리고 관산성으로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신라는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보내 관산성으로 오는 길목을 차단하고 성왕을 기다렸고, 성왕은 매복군에게 잡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성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전세는 급격히 신라 쪽으로 기울었다. 신라는 관산성을 포위했고 여창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퇴각하였다. 결국 백제는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과 좌평을 잃고 군사 29,600명이 전사하는 타격을 입었다.[11]

관산성은 신라에서 백제로 향하는 炭峴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백제와 연합한 가야연맹 군대는 소백산맥을 넘어 전북 장수군 장계면 또는 무주군 무주읍에 이르렀고 여기서 다시 금산군 금산읍을 거치는 루트를 통해 이동하였는데, 금산읍에서 백제와 대가야 연합군이 공략하기에 가장 수월한 지역이 바로 관산성이었다. 더구나 관산성을 빼앗으면 추풍령을 넘어 김천 지역을 위협할 수 있으며, 북쪽으로 충북 보은의 삼년산성뿐만 아니라 한강유역을 공략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백제 성왕이 관산성을 공격한 것으로

---

9)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32년(554) 7월조 “三十二年, 秋七月, 王欲襲新羅, 親帥步騎五十, 夜至狗川, 新羅伏兵發與戰, 爲亂兵所害薨. 謚曰聖.”

10) 《日本書紀》 卷19 欽明 15년(554) 12월조.

11)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15년(554) 7월조 “百濟王 明襛 與 加良 來攻管山城 . 軍主角干 于德 ·伊湌 耽知 等, 逆戰失利. 新州軍主 金武力 以州兵赴之, 及交戰, 裨將 三年山郡 高于都刀 急擊殺百濟王. 於是, 諸軍乘勝, 大克之, 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

이해된다.[12]

관산성 전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는 신라와 전투를 벌였던 백제, 가야, 왜였으며, 신라의 배후세력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고구려가 있었다. 관산성 전투는 한반도의 모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고 왜 또한 군사를 원조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13]

관산성 전투는 신라에게 한강유역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후속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관산성 전투 이후 신라는 555년 10월 북한산에 순행하여 강역을 넓혀 정했으며,[14] 555년 비사벌에 완산주를 설치하고,[15] 557년에서는 사벌주를 폐지하고 감문주를 설치하였다.[16] 또한 568년 실시된 진흥왕의 순수와 그 결과물인 '북한산비', '황초령비'는 관산성 전투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라는 한강유역을 확보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한강유역이 지정학적으로 지닌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중국과의 외교에 독자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신라는 전투 승리로 한강유역은 물론 함경남도 안변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게 되어 건국 이래 최대의 판도를 유지하게 되었다.[17] 또한 한강유역에 대한 안정적 지배를 관철하고 對中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실제로 진흥왕 25년(564) 北齊와의 교섭 기사가 확인되는데,[18] 565년에는 북제로부터 '樂浪郡新羅王'이라는 책봉을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백제나 고구려

12) 전덕재, 2009 〈관산성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新羅文化》 34, 67~70쪽.
13)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189~191쪽.
1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16년(555) 10월조 "冬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15)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16년(555) 春正月조 "十六年, 春正月, 置 完山州 於比斯伐."
1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18년(557)조 "廢沙伐州, 置甘文州, 以沙飡起宗爲軍主. 廢新州, 置北漢山州."
17) 양기석, 2013 《백제 정치사의 전개과정》, 서경문화사, 387~390쪽.
18) 《北齊書》 卷7 帝紀 7, 武成河淸 3년 12월조.

가 주로 대중교섭을 주도하였는데, 이 시기 신라와 북제 간 교섭은 추후 일어날 삼국의 항쟁과도 관련된 대중교섭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다.

(2) 가야의 멸망 이후 신라의 '調' 문제

《일본서기》에서는 왜국이 安羅를 통하여 任那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541년과 544년 2번의 사비회의 기사가 있다. 임나의 문제를 다룬 이전의 연구에서는 왜가 사비회의 이전부터 임나일본부를 통해 영토적 지배를 실시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는 김해 지역의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이미 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야 諸國이 분쟁하여 사비회의가 열리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사료상에 등장한 왜국을 근거로 이전부터 임나에 왜국이 개입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즉, 임나일본부의 존재와 왜의 임나 지배를 상정하는 가설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왜가 신라에 임나의 '調'를 요청한 기사에서, 신라 사신이 가져온 조를 곧 임나의 공헌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19] 다만, 신라 사신의 파견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서기》의 다른 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서기》의 欽明 23년(562) 6월의 任那復建詔는 《梁書》王僧辯傳의 서맹문을 근거로 윤색된 기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임나복건조에서는 서맹문의 侯景이 신라, 양무제가 신공황후, 후경을 토벌한 王僧辯·陳霸先이 태자(후에 敏達)·대신 소가노이나메[蘇我稻目]로 각각 치환되어 있다.[20] 이러한 윤색은 '한문 관련 지식'을 지닌 사람이 《일본서기》를 독해한다는 점에서, 신라와 후경을 동일시하는 평가를

---

19) 任那의 調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에는 三品彰英, 1971 〈聖德太子の任那對策〉 《聖德太子論集》, 東京: 平樂寺書店; 山尾幸久, 1979 〈任那に關する一史論〉 末松保和博士古希記念會編, 《古代東アジア史論下卷》, 東京: 吉川弘文館; 鈴木靖民, 1985 〈奈良時代における對外意識〉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鈴木英夫, 1996 《古代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金鉉球,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46~152쪽; 西本昌彦, 1990 〈倭王權と任那の調〉 《ヒストリア》129; 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등이 있다.

20) 遠藤慶太, 2015 《日本書紀の形成と諸資料》, 東京: 塙書房, 250～267쪽.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6세기 백제-왜의 국제관계를 배경으로 서맹문이 백제에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백제본기〉를 편찬한 백제계 서기관의 新羅觀이 任那復建詔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6세기 중반 이후 백제계 서기관의 활동·역할에 주목한 것으로, 〈百濟三書〉의 성립 시점을 통설의 天武·持統이 아닌 推古 무렵으로 보는 입장과 연관된다.

그렇다면 D-1 사료《일본서기》 권20 敏達 4년(575) 3월 乙丑조의 "천황은 신라가 任那를 세우지 않으므로 황자와 大臣에게 '임나의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라는 기록은 欽明 23년 6월의 임나복건조의 내용을 받아서 작성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임나복건조가《양서》 왕승변전의 윤색이므로 천황이 신라에게 명하였다는 不可解한 내용을 《양서》 왕승변전의 관점으로 재검토할 수가 있다. 《일본서기》에서 중국 사료를 인용하고 작성하는 윤색의 방법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의 《일본서기》 사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우선 575년 때의 관련 기사인 《일본서기》 敏達 4년(575) 3월 을축조, 《일본서기》 敏達 4년(575) 4월 경인조, 《일본서기》 敏達 4년(575) 6월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D-1] 乙丑(11일)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調를 바쳤다. 평년보다 많았다. 천황은 신라가 任那를 세우지 않으므로 황자와 大臣에게 "임나의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21]

[D-2] 吉士金子를 신라에 사신으로 보내고, 吉士木蓮子를 任那에 사신으로 보내고, 吉士譯語彦을 백제에 사신으로 보냈다.[22]

---

21) 《日本書紀》 卷20 敏達 4년(575) 3월 乙丑(11일)조 "乙丑, 百濟遣使進調, 多益恒歲. 天皇以新羅未建任那. 詔皇子與大臣曰, 莫懶懈於任那之事."

22) 《日本書紀》 卷20 敏達 4년(575) 夏4월 庚寅(6일)조 "夏四月乙酉朔庚寅, 遣吉士金子使於新羅. 吉士木蓮子使於任那. 吉士譯語彦使於百濟."

[D-3]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調를 바쳤다. 평소의 예보다 많았다. 아울러 多多羅·須奈羅·和陀·發鬼 네 개 邑의 調를 바쳤다.[23]

D-2의 4월 경인조에서 왜도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4월 경인조에 대한 대응이 D-3의 6월조인데, 이 6월조에서는 '四邑之調'라는 표현이 보인다. 사료에는 신라에서 일본으로 보낸 물건으로 '調', '調賦'가 등장한다. 신라 사신이 진조한 '조'는 정치성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사료에 보이는 일련의 '조'를 모두 같은 성격으로 간주할 수 없다. '四邑之調'와 관련하여, '조'를 가야와 왜국의 교역물자인 철 자원으로 해석하여 신라가 왜국에 선진문물을 제공하여 문화적 우위를 보였다고 해석한 견해가 있으며, 《일본서기》 편찬시의 왜곡을 고려하여 '조'의 공헌을 부정한 견해도 있다.[24] 하지만 신라의 국제상황을 고려할 때 신라가 왜에 사신을 파견한 기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敏達 4년(575) 6월조의 4년 후 시점인 敏達 8년(579) 冬10월조에서 신라는 '조'와는 별도로 불상을 보냈다. 그리고 9년 夏6월에 신라 사신의 조를 받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년 후의 11년 冬10월조에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확인되고 있어서 윤색 혹은 오류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敏達 8년(579)에 신라가 불상을 보냈다는 기사는 자신의 문화적 우위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진흥왕 말기인 570년경 신라는 국가 기반을 확립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 시기는 한반도의 대외전쟁이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단계를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신라가 한강 유역과 가야 諸國을 영역화하면서 삼국의 역학 관계는 크게 변화하였고, 영역 지배 강화에 따른 삼국의 새로운 전쟁 양상은 수당 왕조의 출현 이후 국제적 대전으로 연결되었다.[25] 이에

---

23) 《日本書紀》 卷20 敏達 4년(575) 6월조 "新羅遣使進調多, 益常例. 幷進多多羅, 須奈羅, 和陀, 發鬼四邑之調."

24) 延敏洙, 1992 〈《日本書紀》の〈任那の調〉關係記事の檢討〉 《九州史學》105; 연민수, 1998 앞의 책에 재수록.

25)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삼국의 긴장 관계는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변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랜만에 신라에서 왜로 敏達 4년(575) 사신이 파견되었다. 이는 신라가 삼국의 관계가 변용되어 백제·고구려 양자와 긴장관계에 이르자 외교방침의 하나로 파견한 사신이라고 생각된다. 정세를 고려한다면 신라가 대외정책으로서 왜국에 사신을 파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 시기의 사신 파견이 7세기 초와 크게 다른 점은 신라가 왜와 지속된 외교교섭을 맺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575년 이후 사료에서 신라의 왜에 사신을 보내는 사례가 잠시 보이지 않게 된다.

같은 시기에 고구려 역시 왜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26] 이는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중요한 일이다. 왜에 파견된 고구려 사신은《일본서기》 欽明 31년(570) 4월조에 “처음으로 越의 해안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에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다.[27] 선행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항로도 제대로 개척되지 않은 왜로 고구려가 갑작스럽게 사신을 파견한 이유를 두고,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고구려의 입지가 약해진 상황에 주목하였고 이와 함께 신라와의 관계도 고려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신라가 560년부터 남북 양조와 협상을 시작하였고,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압력과 함께 상당한 위협을 주었다는 견해이다.[28]《삼국사기》와 《北齊書》를 보면 565년에 진흥왕은 북제로부터 ‘東夷校尉’의 관직으로 책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29]

---

26) 고구려의 對倭 외교는 4년 후에 중단되고, 20년 후인 595년에 다시 승려 惠慈가 파견되어 재개된다.

27) 李弘稙, 1971 《韓國古代史의 硏究》, 新丘文化社; 李成市, 1990 〈高句麗와 日隋 外交 -이른바 國書 문제에 관한 一試論-〉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上, 창작과비평사; 연민수, 2003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이영식, 2006 〈5~6세기 고구려와 왜의 관계〉 《北方史論叢》11; 李成制, 2009 〈570年代 高句麗의 對倭交涉과 그 意味 -새로운 對外戰略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 《韓國古代史探究》2; 이영재, 2012 〈6세기 말 고구려의 정국과 대왜 교섭 재개(再開)의 배경〉 《역사와 현실》83.

28) 李成市,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東京: 岩波書店.

29) 《北齊書》 卷7 帝紀7 “(河淸 四年) 二月甲寅 詔以新羅國王金眞興爲使持節 東夷

반면 고구려 平原王의 책봉호는 '領東夷校尉'이며, 이후 북제가 책봉호를 새로이 하는 것은 사료상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領東夷校尉였던 평원왕이 東夷校尉였던 진흥왕보다 높은 품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30] 東夷校尉는 東夷의 중심세력이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제가 고구려보다 신라를 중시하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1] 하지만 북제가 평원왕에게 준 東夷校尉를 진흥왕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공존하는 가운데 평원왕의 우위를 인정하고자 한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65년 신라의 東夷校尉 책봉은 삼국의 대표가 완전히 신라에게 넘어갔다기보다는 東夷 세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고구려의 절대적 우위에서 상대적 우위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견해 역시 주목할 만하다.[32] 어쨌든 이 시기 고구려의 대중 외교도 백제보다 신라의 동향에 비중을 두고 전개되고 있었다.[33] 특히 신라가 568년에 남조 陳에 사신을 파견하여 접근하는 등 활발한 외교 행위를 했음을 고려하면 고구려가 신라에 가지는 위기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阿莫城 전투와 신라의 적극적인 對倭 교섭 의미 변화

(1) 신라에게 있어 阿莫城 전투의 의미

신라는 眞平王대 전반까지 국내 정비에 매진하였으며, 7세기 초부터 신라와 왜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난다. 신라는 610년을 계기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왜 외교를 개시했다. 이러한 신라의 대왜 교섭 변화의 원인이

校尉樂浪郡公 新羅王."

30)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東京: 吉川弘文館 215~216쪽 각주 111.

31) 井上直樹, 2008 〈570年代の高句麗の對倭外交について〉 《年報朝鮮學》11 ; 2021《高句麗の史的展開と過程と東アジア》, 東京: 塙書房 358쪽에 재수록.

32) 전상우, 2018 〈6세기 후반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화와 신라 阿旦城 공격〉 《한국고대사연구》89, 184쪽.

33) 井上直樹, 2008 앞의 논문; 앞의 책, 358쪽.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600년 전후의 한반도 내 신라의 정세를 살펴보겠다. 먼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 4년(602) 8월조와 《삼국사기》 백제본기 武王 3년(602) 8월조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E-1] 〔24년(602)〕 가을 8월에 백제가 阿莫城을 공격해왔다. 왕이 장수와 사졸들에게 맞서 싸우도록 하여 크게 무찔렀으나 貴山과 箒項이 전사하였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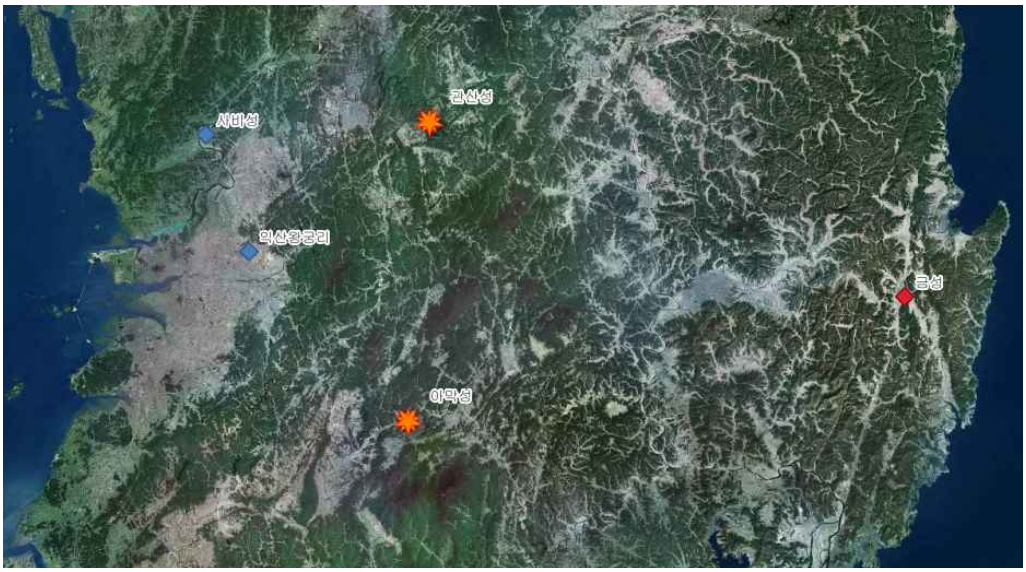
[E-2] 3년 가을 8월에 왕이 군사를 내어 신라의 阿莫山城 [母山城이라도 한다.]을 포위하였다. 신라 왕 眞平이 정예 기병 수천 명을 보내 막아 싸우니 우리 군사가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 신라가 小陀, 畏石, 泉山, 甕岑 등 4성을 쌓고, 우리 경계에 쳐들어와서 핍박하였다. 가까이까지 쳐들어 왔다. 왕이 노하여 좌평 解讎에게 명령하여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그 네 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신라 장군 乾品과 武殷이 무리를 거느리고 막아 싸웠다. 해수가 불리해지자 군사를 이끌고 泉山 서쪽의 큰 진펄 가운데로 물러나 군사를 매복해 놓고 기다렸다. 武殷이 승세를 타고 갑옷 입은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큰 진펄에 이르자 매복한 군사들이 일어나 급히 공격하였다. 武殷은 말에서 떨어지고 군사들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武殷의 아들 貴山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군사는 마땅히 싸움터에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어찌 감히 도망쳐 물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겠는가.” [貴山은] 말을 아버지에게 주고 즉시 小將 箒項과 함께 창을 휘두르며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나머지 군사들이 이것을 보고 더욱 분발하니 우리 군사가 패하였다. 해수는 겨우 [죽음을] 면하여 말 한 마리를 끌고 혼자 돌아왔다.[35]

---

3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平王 24년(602) 8월조 “秋八月, 百濟來攻阿莫城. 王使將士逆戰, 大敗之, 貴山 ·箒項死之.”

35)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武王 3년(602) 8월조 “秋八月, 王出兵, 圍新羅阿莫山城[一名母山城.]. 新羅王眞平遣精騎數千拒戰之, 我兵失利而還. 新羅築小陁·畏石·

사료를 통해 백제가 아막성을 공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 威德王 24년(577) 이후 신라와 백제의 군사적 충돌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신라 眞智王 때 577년과 578년 두 차례의 교전을 제외하면,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백제와 신라는 상호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 가운데 대내적 안정을 추구했다.[36]



[그림 11] 관산성, 아막성의 위치 (필자 작성)

590년대에 들어서 신라는 대내적·대외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대백제 전선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백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혼란스러웠던 백제의 국내 정세는 신라의 군사적 진출을 자극했는데, 위의 사료 내용과 같이 602년 아막성 전투가 발발했

泉山·甕岑四城, 侵逼我疆境. 王怒令佐平 解讎, 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新羅將軍乾品·武殷, 帥衆拒戰. 解讎不利, 引軍退於 泉山西大澤中, 伏兵以待之. 武殷 乘勝, 領甲卒一千, 追至大澤, 伏兵發急擊之. 武殷墜馬, 士卒驚駭, 不知所爲. 武殷 子 貴山大言曰, “吾嘗受敎於師曰, ‘士當軍無退., 豈敢奔退, 以墜師敎乎.” 以馬授父, 卽與小將 箐項 , 揮戈力鬪以死. 餘兵見此益奮, 我軍敗績, 解讎 僅免, 單馬以歸.“

36) 이정숙, 2012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 연구》, 혜안.

다. 아막성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남원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E-2 기사에 의하면 무왕은 낙동강 중류역의 4개 성에 보병부대 4만 명을 보내 신라를 공격하였다. 아막성 전투는 무왕이 즉위한 후 영토 확장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개한 대신라 전투로, 백제가 소백산맥을 넘어 옛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일으킨 전투의 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37]

한편 아막성 전투를 왜의 출병과 고구려의 개입 없이 백제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38] 이는 무왕의 영토 확장을 7세기 초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막성 전투의 주도권과 관련해서도 백제를 중시한 견해와 신라를 중시한 견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라는 이 전투 이후 고구려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嬰陽王 14년(603) 8월조에 의하면 "14년(603)에 왕이 장군 高勝을 보내어 신라 北漢山城을 공격하였다. 신라왕이 병사를 이끌고 漢水를 건너오자, 성의 안에서 북을 울리고 떠들면서 서로 호응하였다. 고승은 저들은 많고 우리가 적어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퇴각하였다."고 한다.[39]

이 기사는 고구려의 신라 공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동일한 사건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 25년조에 1만 정도의 병사로 고구려 군사를 막았다는 기록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아막성 전투를 계기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으며, 신라는 외교적 고립과 군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사료에 의하면 603년 북한산성 전투에서 신라 진평왕은 직접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침공을 막아냈다. 고구려의 북한산성 침공을 계기로 신라의 한강 유역을 비롯한 북방 영역에 대한 방비의 중요성은 높아

37) 이도학, 1997 《새롭게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203쪽; 김병남, 2002 〈百濟 武王代의 영역 확대와 그 의의〉 《韓國上古史學報》 38, 55쪽; 김병남, 2004 〈百濟 武王代의 阿莫城 전투 과정과 그 결과〉 《全南史學》 22.

38) 박종욱, 2013 〈602년 阿莫城 戰鬪의 배경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9.

39)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嬰陽王 14년(603) 8월조 "王遣將軍 高勝, 攻新羅北漢山城. 羅王率兵過漢水, 城中鼓噪相應. 勝以彼衆我寡, 恐不克而退."

졌다. 신라의 입장에서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북방 영역을 방어하는 것은 대중교섭을 유리하게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신라는 한강유역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고구려, 남쪽으로는 백제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북한산성 전투 이후에도 고구려는 608년 2월에 신라의 북쪽 경계를 습격하여 8천명을 노획하였으며,[40] 같은 해인 608년 4월에는 신라의 牛鳴山城을 함락시켰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610년경부터 신라의 대왜 정책에 변화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라는 이 시기부터 이전과는 달리 왜에 적극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한편 아막성 전투를 교통로와 연결지어 전투의 목적을 고찰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신라의 진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남원 고룡 지역은 백제 남부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백제 대왜 교통로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백제가 대왜 교통로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원 일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신라의 4성 축조 및 영역 침범으로 인해 형성된 이 일대의 군사적인 긴장은 백제로서는 무시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 신라가 영천을 넘어 남원 지역까지 장악한다면 섬진강 하류 지역이 위험하게 될 것이다.[41] 즉, 아막성 전투는 신라가 백제의 대왜 교통로를 차단하고 백제 방면의 공격로와 섬진강 수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남원 일대에 진출하려 했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신라가 백제의 대왜 교통로를 차단하고자 한 것은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시도된 신라의 대왜 교섭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 당시 왜의 한반도 교섭은 주로 백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신라는 신라도를 사용한 왜와의 교섭을 실행하고자 백제의 대왜 교통로를 차단한 것이다.

---

4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平王 30년(608) 2월조 “高句麗侵北境, 虜獲八千人.”;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嬰陽王 19년(608) 春2월조 “命將襲新羅北境, 虜獲八千人.”

41) 박종욱, 2013 앞의 논문.

(2) 아막성 전투 이후 신라와 왜의 관계 변화

①610년 신라와 왜의 관계

그러면 아막성 전투 이후 사료에서 확인되는 신라와 왜의 적극적인 교섭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침공하고 신라와 당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신라의 고립 상태가 강해졌다. 신라의 대왜 교섭은 610년 사신 파견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아막성 전투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혼란이 지속된 상황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전과는 달라진 신라 사신과 관련된 사료로 《일본서기》 推古 18년(610)조, 推古 19년(611) 秋8월조를 먼저 살펴보겠다.

[F-1] 가을 7월에 신라의 사인 沙喙部 奈末 竹世士와 임나의 사인 喙部 大舍 首智買가 筑紫에 도착하였다.[42]

[F-2] 9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와 임나의 사인을 불렀다.[43]

[F-3] 겨울 10월 기축삭 병신(8일)에 의하면 사인이 왕경에 도착하였다. 이날 額田部連比羅夫에게 명하여 신라 객을 영접하기 위한 飾馬의 우두머리으로 삼고, 膳臣大伴을 임나 객을 영접하는 장식마의 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阿斗 강변에 있는 숙사에서 쉬게 하였다.[44]

[F-4] 정유(9일)에 객인 등이 조정에서 배알하였다. 秦造河勝과 土師連菟에게 명하여 신라 객의 안내역으로 삼고, 間人連鹽蓋와 阿閉臣大籠을 임나 객의 안내역으로 삼았다. 이들은 함께 인도하여 남문으로 들어와

---

42) 《日本書紀》 卷22 推古 18년(610) 秋7월조 “新羅使人沙喙部奈末竹世士, 與任那使人喙部大舍首智買, 到于筑紫.”

43) 《日本書紀》 卷22 推古 18년(610) 9월조 “遣使召新羅, 任那使人.”

44) 《日本書紀》 卷22 推古 18년(610) 冬10월 己丑朔丙申조 “冬十月己丑朔丙申, 新羅, 任那使人臻於京. 是日命額田部連比羅夫爲迎新羅客莊馬之長. 以膳臣大伴爲迎任那客莊馬之長. 卽安置阿斗河邊舘.”

뜰 안에 섰다. 이때에 大伴咋連과 蘇我豐浦蝦夷臣, 坂本糠手臣, 阿倍鳥子臣 등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뜰에 엎드렸다. 이에 양국의 객들이 각각 재배하고 사신의 취지를 주상하였다. 즉시 4인의 대부가 일어나서 나아가 대신에게 말하였다. 이때 대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청사 앞에 서서 들었다. 드디어 모든 객들에게 녹을 사하였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45]

[F-5] 가을 8월에 신라는 沙喙部 奈末 北叱智, 임나는 習部 大舍 親智周智를 파견하여 함께 조공하여 왔다.[46]

F-1은 신라의 사신인 沙喙部 奈末 竹世士와 임나의 사인 喙部 大舍 首智買가 일본 규슈의 筑紫에 같이 도착했다는 기사이다. 首智買는 임나의 사신이라고 기록되었지만, 喙部 大舍는 신라의 관직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또한 F-3 기사에는 推古 18년(610)의 사신이 飛鳥京에 입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왜가 그 이전에 신라의 사신을 대하는 방식과 다르다. 이때의 賓禮는 608년 수나라 裴世淸의 입경 의례와 유사한 형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610년 이전에는 진평왕 20년인 推古 6년(598) 8월조에 신라가 왜에 사신을 파견한 기사가 보이지만,[47] 이외에 신라의 왜 관련 기사는 확인되지 않아서 당시 신라와 왜의 교섭이 잠시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10년 오랜만에 신라가 왜에 사신을 파견한 원인으로는 일본과 隋 간 관계 개시가 지적된다. 왜는 推古 8년(600), 推古 15년(607), 推古 17년

45) 《日本書紀》 卷22 推古 18년(610) 10월 丁酉조 "客等拜朝庭. 於是, 命秦造河勝土部連菟爲新羅導者. 以間人連臨蓋, 阿閇臣大麻呂爲任那導者. 共引以自南門入之立于庭中. 時大伴咋連. 蘇我豐浦蝦夷臣, 坂本糠臣, 阿倍鳥子臣. 共自位起之進伏于庭. 於是, 兩國客等各再拜以奏使旨. 乃四大夫起進啓於大臣. 時大臣自位起. 立聽前而聽焉. 旣而賜祿諸客, 各有差."

46) 《日本書紀》 卷22 推古 19년(611) 秋8월조 "新羅遣沙喙部奈末北叱智. 任那遣習部大舍親智周智, 共朝貢."

47) 《日本書紀》 卷22 推古 6년(598) 8월조.

(609)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推古 8년(600) 왜의 對隋 사신은 478년 이후로 오랜만에 중국에 파견된 공식 사신이었다. 왜가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목적을 《일본서기》 '임나의 調' 문제와 연결시켜 논한 견해가 있는데, 이는 왜가 신라와의 교섭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 文帝의 지지와 수의 정치력, 군사력을 통해 해결하려 했으며 수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에 들어가고자 했다고 해석하였다.[48] 그러나 지금까지 교류가 없었던 수에 調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애당초 '임나의 調' 기사 자체에 《일본서기》에서 확인되는 윤색 가능성이 상정되는 이상, 왜의 대수 사신 파견을 임나의 조 문제의 해결 사건과 관련시켜 고찰하기는 어렵다. 동아시아 세계에서 통일국가인 수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은 주변 국가였던 왜로서 중요한 외교적 과제였는데, 한반도의 국가보다 늦지만 推古 8년(600)에 겨우 왜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왜의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 신라와 거리를 두고 隋·唐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씨족이 대두하여, 推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외교 방침이 도모되었을 것이다. 왜가 대수 사신을 파견한 사건의

48) 북부 九州 磐井 세력의 멸망 이후, 사료 D-1, D-2, D-3처럼, 대가야의 멸망 시기에 신라와 왜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보이지만 양자의 관계는 지속되지 않으며 신라와 왜의 교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의 중앙 정권은 백제 혹은 고구려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고 유지했다. 즉, 신라와 왜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진평왕 32년(610) 이후이다. 이때, 신라가 임나 대신으로 임나의 조를 보냈던 움직임인 推古 18년(610)조, 推古 19년(611) 秋8월조의 '임나의 조'를, 당시 신라가 불리한 국제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왜 왕권에 대하여 행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라 평가한 견해가 있다(田村圓澄, 1979 〈新羅送使考〉 《朝鮮學報》 90, 65~69쪽). 반면에 《日本書紀》의 편찬자가 임나가 이미 멸망해 버린 시점에 임나 사신의 내조라는 기사를 남긴 것에 대한 의문을 토대로 한 다른 견해 역시 제시되었다. 즉 推古條에 드러난 편찬자의 대외의식이 과장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관련 내용은 이미 멸망한 임나국과 임나 사신의 진조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왜 왕권의 대외 외교방침의 변화를 예고하는 推古條의 각 시기에 삽입시킨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허구의 존재를 통해서 멸망 이전의 임나가 일본의 내관이였다는 내용을 역사적인 근거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진조 기사는 推古條 편자의 시대적 사상이 편찬 이데올로기에 투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325~332쪽).

경우 '임나의 調' 문제보다는 왜에게 통일국가 수나라와 대외관계를 맺고 동아시아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급무였다는 점, 당시 왜의 국내 상황으로 인해 대외방침이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나라 煬帝의 고구려 정벌 시도로 삼국과 수나라의 균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고구려·백제의 공격으로 신라가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왜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낸 일은 신라에게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이에 610년에 신라가 왜에 접근한 배경으로, 아막성 전투 이후 신라가 궁지에 빠져있었다는 삼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7세기에 왜가 수와 교섭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②622년 신라와 왜의 관계

610년 이후 신라는 적극적으로 대왜 사신을 파견하였다. 610년 이후의 사신 파견 양상을 보여주는 기사는 《일본서기》 推古 31년 [30년=622] 秋7월조이다.

이 기사의 실제 연대는 622년으로, 신라 진평왕 44년의 사건이다. 이 사료에는 연대 문제가 있다. 《일본서기》 여러 간본에서는 사건의 시점을 推古 31년(623)이라고 하지만 최고 寫本인 이와사키본[岩崎本]에서 推古 30년이라고 하여, 《일본서기》 推古 31년~33년조는 사실 30년~32년조에 해당한다.[49]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정한 연대로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왜의 외교적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일본서기》 推古 30년(622) 秋7월조와 推古 30년(622) 是歲條도 같이 살펴보겠다.

[G-1] 31년 가을 7월에 신라가 大使 奈末 智洗爾를 임나가 達率奈末 智를 파견하여 함께 내조하였다. 그리고 불상 1구 및 금탑과 사리를 바쳤다. 또 큰 觀頂幡 1구와 작은 번 12개를 바쳤다. 곧 불상은 葛野의 秦

49) 623년 왜가 견지한 외교적 입장에 관해서는 크게 等距離·均衡외교라고 생각하는 입장(井上光貞, 鬼頭淸明, 鈴木靖民, 森公章, 西本昌弘)과 分裂·二面외교라고 생각하는 입장(石母田正, 八木充, 山尾幸久, 金鉉球, 鈴木英夫)이 병존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다.

寺에 안치시켰다. 그 외 사리와 금탑·관정번 등은 모두 四天王寺에 봉납하였다. 이때 대당에 있던 학문승인 惠齊와 惠光 및 의원 惠日과 福因들이 모두 智洗爾를 따라 귀국하였다. 그리고 惠日 등이 함께 "당나라에 유학한 자들은 다 학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소환함이 좋을 것입니다. 또 저 대당국은 법전과 의식이 정비된 훌륭한 나라입니다. 항상 통하여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50]

[G-2] 이 해에 신라가 임나를 토벌하였다. 임나는 신라에 복종하였다. 이때 천황이 신라를 토벌하려고 대신과 의논하고 군경에게도 의견을 들었다. 田中臣은 "급하게 정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사정을 살펴 반역인지 확인하고 난 후에 쳐도 늦지 않습니다. 청컨대 한 번 사자를 파견하여 그 사정을 살피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中臣連國은 "임나는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內官家입니다. 지금 신라인이 쳐서 소유하였습니다. 청컨대 군세를 정비하여 신라를 토벌하고 임나를 되찾아 백제에게 귀속시켜야 합니다. 어찌 신라가 영유하게 할 것입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田中臣이 "옳지 않습니다. 백제는 反復이 많은 나라이고, 잠깐 사이에도 항상 속입니다. 무릇 저쪽이 청하는 바를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백제에 귀속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토는 중지하였다.[51]

G-1 기사는 약 15년 만에 임나의 조가 보이는 기사이다. 이 시기 왜에

50) 《日本書紀》 卷22 推古 30년(622) 秋7월조 "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 任那遣達率奈末智, 並來朝. 仍貢佛像一具, 及金塔幷舍利, 且大灌頂幡一具, 小幡十二條. 卽佛像居於葛野秦寺. 以餘舍利. 金塔, 灌頂幡等皆納于四天王寺. 是時, 大唐學問者僧惠齊, 惠光, 及醫惠日, 福因等並從智洗爾等來之. 於是, 惠日等共奏聞曰, 留于唐國學者, 皆學以成業. 應喚, 且其大唐國者法式備定之珍國也, 常須達."

51) 《日本書紀》 卷22 推古 31년(622) 是歲條 "是歲, 新羅伐任那. 任那附新羅. 於是天皇將討新羅, 謀及大臣, 詢于群卿. 田中臣對曰, 不可急討. 先察狀, 以知逆後擊之不晩也. 請試遣使覘其消息. 中臣連國曰, 任那是元我內官家. 今新羅人伐而有之. 請戒戎旅征伐新羅. 以取任那附百濟. 寧非益有于新羅乎. 田中臣曰, 不然. 百濟是多反覆之國. 道路之間尙詐之. 凡彼所請皆非之. 故不可附百濟. 則不果征焉."

서는 신라를 정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따라서 왜가 한반도와 긴장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사료를 윤색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어, 신라 정벌의 현실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왜 왕권 내에 두 가지의 외교 입장이 병존한다는 점이다. 왜 왕권은 磐井의 亂 이후부터 신라가 아니라 백제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대외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그런데 G-2의 내용에 의하면 왜 왕권 내의 외교 입장이 백제 일변도로 정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G-2는 신라 정벌을 두고 천황과 대신들이 의논하고 있는 기사이다. 사료에 따르면 中臣連은 “군세를 정비하여 신라를 토벌하고 임나를 되찾아 백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中臣連은 백제와 협조하고 신라를 토벌하는 것을 추진하는 왜의 전통적인 親百濟派이다.

반면에 田中臣은 “급하게 정토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며, 신라의 토벌에 반대하였다. 또한 田中臣은 “백제는 反復이 많은 나라이고, 잠깐 사이에도 항상 속인다.”고 하여 백제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田中臣은 신라와의 협조 외교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親新羅派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양자 사이에는 외교 입장의 대립이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에 왜 왕권 내부에서 전통적으로 실행해 왔던 친백제적 외교에 반하는 입장도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으로 소가[蘇我]씨와 협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우마야토노황자[廐戶皇子]의 사망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겠지만, 무엇보다 신라가 아막성 전투 이후 610년부터 실행해왔던 대왜 외교 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이때의 신라 정벌은 중지되었지만,[52] 왜 왕권 내의 외교적 입장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G-1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사신의 관직명이다. 이전 시기 사신의

52) 推古 31년 是歲條에서 신라토벌의 대장으로 蘇我계 씨족의 境部臣雄摩侶와 中臣鎌足의 삼촌인 中臣連國이 임명되고 있다. 이 신라 토벌군에서도 군사계 씨족 이외에 많은 蘇我계 씨족이 편성되고 있으며, 친백제 입장을 추진하고 왔던 蘇我계 씨족을 중심으로 군대가 편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직에는 ‘임나의 사신’이라는 표기가 있어도 신라 6부의 부명이나 신라 관직명을 칭한 임나의 사신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임나의 사신’이 신라에 속하고 있다는 신라의 의도가 일본에 가시적으로 표현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G-1 기사에서는 처음으로 백제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達率奈末智’라는 관직이 등장하고 백제 관등명이 확인된 사례이다.[53]

그리고 推古 30년(622)의 사신은 많은 불교 관련 용품을 가지고 왔다. 구체적으로 큰 觀頂幡 1구와 작은 번 12개를 바쳤는데, 불상은 가토노[葛野]의 하타데라[秦寺]에 안치시켰으며 이외의 사리, 금탑, 관정번 등은 모두 시텐노지[四天王寺]에 봉납하였다. 이때 백제와 고구려의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아스카데라[飛鳥寺]에는 봉납하지 않았던 점이 중요하다. 또한, 618년 수가 멸망하기 전까지 왜는 백제를 경유하여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당이 성립한 후부터는 신라를 경유하여 중국의 선진문물을 입수하였다. 이 역시 이때를 기점으로 확인되는 큰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불상을 포함한 불교 용품은 신라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方産之物” 계열 외에 속한 물품이다. 신라는 왜에 이미 6세기 후반이나 7세기 초반에 불교 관련 용품을 보냈는데, 이는 신라가 당나라를 대상으로 교섭하는 경우와 비교된다. 불교와 그와 관련된 문물은 일반적으로 중국과 그 이서·이남 지역에서 신라로 이동했으며, 신라가 당나라에 불교와 관련된 물품을 보낸 사례는 元和 5년(810), 9세기가 되어서야 확인된다. 즉 왜의 경우와는 큰 시기 차를 보인다. 불상을 포함하여 다수의 불교 용품을 가져온 G-1의 推古 30년조는 신라가 스스로 ‘선진문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상황을 왜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작

53) 백제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達率奈末智’라는 관직이 등장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의 의견이 있다. ①백제와 맺은 불온한 상황의 존재라고 보는 입장, ②신라로부터 ‘임나의 조’를 받는 역사적 근거를 강조하기 위해 임나 멸망의 이유를 반복하는《일본서기》편자의 윤색이라고 보는 입장, ③백제가 신라 침공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 백제와 동조한 신라에 대한 위협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 등이 있다(仁藤敦史, 2022 《東アジアからみた〈大化改新〉》東京: 吉川弘文館).

용한 결과이며, 이는 사료에서 신라가 보낸 '조'라고 표현되었다.[54] 즉 신라는 사료상에 '조'라고 나타난 선진문물을 통하여 스스로의 외교적 태도를 왜에 전달했던 것이다.

또한 G-1에서 고찰해야 하는 점은 기사 후반 부분에 보이는 왜에 귀국한 학문승 惠日의 奏上이다. 惠日은 당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당과 통교할 필요가 있음을 제창하고 있다. 惠日은 推古 16년(608) 세 번째 遣隋使로 파견되었으며, 623년에 당에서 신라를 경유하여 왜로 귀국한 인물이다. 惠日과 같이 당에서 신라를 거쳐 귀국한 인물들이 당과의 관계를 강조한 점 역시, 왜의 외교적 입장이 변화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 616년부터 신라는 왜에 불교 문물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在唐倭人留學生을 통한 문화교섭을 추진하였다. 재당왜인유학생 문제에서 고려할 점은 중부 횡단황로의 안정적인 확보 과정이다. 중부 횡단항로는 신라 조정이 기존의 북부 연안항로를 대체할 새로운 대당 항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설되었다. 이는 신라가 실행한 대중교섭과 깊은 관계가 있다.

3) 党項津를 기점으로 한 신라의 대외 정책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 진흥왕 25년(564)과 진흥왕 33년(572) 북제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진흥왕 27년(566)을 시작으로 진흥왕 28년(567), 31년(570), 32년(571), 진지왕 3년(578)에는 남조 陳에 사신을 보냈다. 이에 신라는 남북조 양면에 적극적으로 외교 교섭을 전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가 사신을 파견할 때 신라의 주요 항구로 기능한 곳은 바로 党項津이다. 이와 관련된 성은 唐城이라고도 불리는 党項城으로 현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하며, 당항진은 당항성 근처의 전곡리

54) 그 시기에 신라가 실제로 '조'라고 인식하고 해당 물건을 왜에 보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사료상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서 '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로 비정된다.[55] 먼저 통일 이전의 당항성 관련 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H-1] 唐恩郡은 본래 고구려 唐城郡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옛 이름[당성군]으로 회복되었다. 거느리는 현(領縣)은 2개이다.[56]

[H-2] 〔11년(642)〕 8월에 〔백제가〕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党項城을 빼앗아 당나라로 통하는 길을 끊으려고 하였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서 太宗에게 위급함을 알렸다.[57]

[H-3] 〔8년(668)〕 6월 12일에 遼東道安撫副大使·遼東行軍副大摠管·兼熊津道安撫大使·行軍摠管· 右相·檢校·太子左中護·上柱國·樂城縣開國男의 劉仁軌이 勅旨를 봉하여 宿衛의 沙飡 金三光과 함께 党項津에 도착하였다. 왕은 각간 金仁問으로 하여금 大禮로써 영접하게 하였다. 이에 右相이 약속을 마치고 泉岡으로 향하였다.[58]

[H-4] 본국 경계 내에 3주를 설치하였다. 왕성 동북쪽으로 唐恩浦路에 해당하는 곳을 尙州라고 부르고, 왕성 남쪽을 良州라 부르고, 서쪽을 康州라 불렀다.[59]

---

55) 김병모·배기동 외, 1998 《唐城-1차 발굴조사보고서》; 2001 《唐城-2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56)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 新羅 "唐恩郡, 本高句麗 唐城郡, 景德王改名. 今復故. 領縣二."

57)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善德王 11년(642) 8월조 "又與高句麗謀欲取党項城, 以絶歸唐之路, 王遣使, 告急於大宗."

58)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文武王 8년(668) 6월 12일조 "六月十二日, 遼東 道安撫副大使·遼東 行軍副大摠管兼 熊津 道安撫大使·行軍摠管·右相·檢校太子左中護·上柱國·樂城縣開國男 劉仁軌, 奉皇帝勅旨, 與宿衛沙飡 金三光, 到党項津. 王使角干金仁問 , 廷迎之以大禮. 於是, 右相約束訖, 向泉岡."

59) 《三國史記》 卷35 雜志3 地理1 新羅 "本國界內, 置三州. 王城東北當唐恩浦路曰尙州, 王城南曰良州, 西曰康州."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당항성은 본래 백제 영역이었는데, 고구려의 長壽王이 남진했을 때 점령하여 당항군이라 하였으며 이후 신라 景德王대 당성군으로 지명을 개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잃은 시기는 진흥왕 12년(551)으로, 그 이전 고구려 영역이었을 시기에는 당항군이었다. 그리고 H-2의 성덕왕 11년 기사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와 당나라가 통하는 길을 끊고자 당항성을 빼앗자 신라가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는 당항성이 신라와 당을 연결하는 중요한 바닷가의 요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H-3 기사에서 문무왕 8년(668) 당나라에서 온 군단이 宿衛의 沙飡 金三光과 함께 '党項津'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당항성은 이 시기에 당항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당과 신라의 왕래 항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당성에서 바라본 서해 (2020년 6월 필자 촬영)

한편 H-4의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신라와 당나라를 연결하는 길을 신라에서는 '唐恩浦路'라고 불렀다. 이 경로는 신라 왕경의 경주에서 출발하여 당은포까지 이동하고 바다에 나아가는 교통로이다. 경주에서 육로로 이동했을 때 중요한 중간 거점은 尙州였다.[60] 선행연구에서는

경주에서 상주를 경유하고 당은포로 가는 방법으로 2개의 경로가 있다고 한다.[61] 또한 신라와 당을 연결하는 '당은포로'의 존재는 일본 측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5] (白雉 5년, 654) 2월 唐에 보낸 押使 大錦上 高向史 玄理[어떤 책에는 "여름 5월에 당나라에 押使 大花下 高向 玄理를 보냈다"고 하였다,] 大使 小錦下 河邊臣麻呂, 副使 大山下 藥師 惠日, 判官 大乙上 書直麻呂·宮首阿彌陀[어떤 책에는 "判官 小山下 書直麻呂"라 하였다]·小乙上 岡君宣·置始連大伯, 小乙下 中臣間人連老[老는 우리나라에서는 於喩(오유)라 한다] ·田邊史鳥 등이 2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여러 달 머물다가 新羅道를 통해 萊州에 이르렀다. 드디어 長安에 이르러 天子를 뵈었다. 東宮監門 郭丈擧가 日本國의 地里(지방)와 國初의 神의 이름을 자세히 물으므로, 물음에 따라 모두 답하였다. 押使 高向玄理가 당나라에서 죽었다[伊吉博得은 "學問僧 惠妙가 당나라에서 죽었다. 知聰은 바다에서 죽었고, 智國도 바다에서 죽었다. 智宗은 庚寅年에 신라의 배를 따라 돌아왔다. 覺勝은 당나라에서 죽었고, 義通은 바다에서 죽었다."고 하였다].[62]

H-5 사료에 의하면 신라와 당을 연결하는 길을 일본에서 '新羅道'라고 부르고 있다. 승려들이 신라의 배를 따라 돌아왔다는 기사의 내용에서 황해 중부 횡단항로가 신라도라고 인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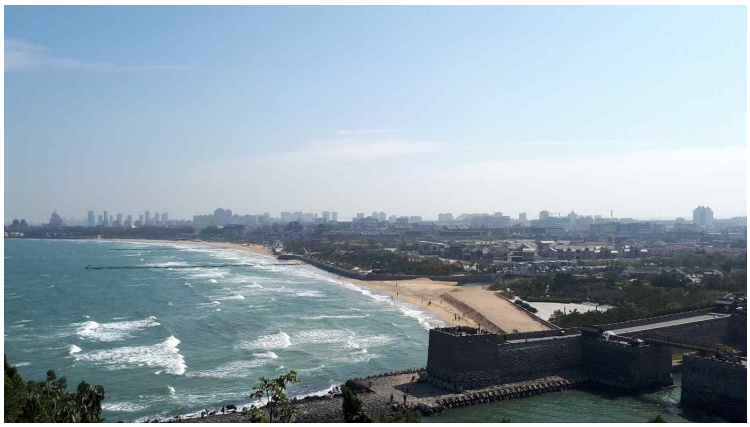
---

60) 전덕재, 2013 〈新羅의 對中·日 交通路와 그 變遷〉 《역사와 담론》 65, 163쪽.

61) 두 개의 경로에 대하여 1) 경주-영천-의성-상주-계립령-충주－여주-이천-용인-수원-화성-당은포, 2) 경주-영천-의성-상주-화령재-청주-천안시 직산면-평택-안중-화성이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서영일, 1999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전덕재, 2013 앞의 논문).

62) 《日本書紀》 卷25 白雉 5년(654) 2월조 "遣大唐押使大錦上高向史玄理[或本云 夏五月 遣大唐押使大花下高向 玄理]大使小錦下河邊臣麻呂 副使大山下藥師 惠日 判官大乙上書直麻呂·宮首阿彌陀[或本云,判官小山下書直麻呂]小乙上岡君宣·置始連大伯·小乙下中臣間人連老[老此云於喩] 田邊史鳥等, 分乘二船, 留連數月, 取新羅道泊于萊州, 遂到于京 奉覲天子, 於是東宮監門郭丈擧, 悉問日本之地里及國初之神名, 皆隨問而答, 押使高向玄理, 卒於大唐[伊吉博得言, 學問僧惠妙於唐死, 知聰於海死, 智宗 以庚寅年付新羅船歸, 覺勝於唐死, 義通於海死]"

황해 중부 횡단항로는 신라의 당항진을 출발하며 登州에 이르는 경로이다. 등주(현재 蓬萊)는 당이 7세기 고구려와 전쟁할 때 등주를 기지로 하여 수륙 양면으로 공격할 정도로 해상교통로에서 요충지였다.



[그림 13] 현재 登州의 해안
(2019년 10월 필자 촬영)

당항진(당은포)에서 출항하여 등주에 이르는 항로는 〈道理記〉를 참고로 할 수 있다.[63] 이에 따르면 등주에 이르는 항로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長口鎭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 北部 沿岸航路이다. 두 번째는 唐恩浦에서 출발하여 得物島, 古寺島, 麻田島를 경유하고 산동반도의 秦王石橋를 거쳐 등주에 이르는 항로이다. '신라도'에 해당하는 黃海 中部 橫斷航路는 두 번째 항로에 해당한다.

63) 《新唐書》 卷43下 志 第33下 地理 登州 〈道理記〉 "**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 龜歊島, 末島, 烏湖島三百里. 北渡烏湖海, 至馬石山東之都里鎭二百里. 東傍海壖, 過靑泥浦, 桃花浦, 杏花浦, 石人汪, 橐駝灣, 烏骨江八百里. 乃南傍海壖, 過烏牧島, 貝江口,椒島, 得新羅西北之長口鎭. 又過**秦王石橋**, **麻田島**, **古寺島**, **得物島**, 千里至鴨淥江**唐恩浦口**. 乃東南陸行, 七百里至**新羅王城**."

[그림 14] 황해 중부 횡단항로와 고대의 침몰선 (필자 작성)

〈도리기〉에서 확인되는 得物島는 현재 덕적도에 해당한다. 古寺島, 麻田島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황해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64] 한편 해로 상에 위치한 인천 옹진군 섬업별해역에서 최근 영흥도선이 발굴되어 참조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친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난파선 1척과 유물 900여 점이 발굴되었다. 목재에 대한 탄소연대측정 결과 연대가 일관되게 8세기경으로 밝혀졌으며, 배에서 출수된 파도무늬 도기병은 그 형태와 문양으로 볼 때 제작시기가 8~9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65] 이에 대당 교통로 상에 남아있는 통일신라시기 고고 자료로서 주목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平度古船, 萊州古船, 昌邑古船이 실물자료로 확인된 바 있다. 平度古船에서는 銅五銖白錢과 靑磁 등이 출토되어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 출토 청자가 濟南 지역의 隋 開皇 10년 父子墓所 출토품과 유사하므로 수대 말 시기의 것으로 파악된다.[66] 또한 萊州古船,[67] 昌

64) 지도상에 제시한 古寺島, 麻田島의 위치는 榎一雄, 1936〈賈耽の地理書と道里記の稱とに就いて〉《歷史學硏究》. 6-7; 1994《榎一雄著作集》7, 東京: 汲古書院, 197~200에 재수록; 윤재운, 2021 〈한국 고대 해상 교통로 연구의 성과와 과제〉《해양문화재》14, 12~13쪽을 참고를 한다.

6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편, 2014 《인천 옹진군 영흥도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7쪽.

6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편, 2014 위의 책, 24쪽.

邑古船도 연대가 수당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 3개의 古船이 매우 근접한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은 萊州의 수군 거점이자 항구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수당시기 대고구려 토벌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68] 이러한 고고자료를 참조하여 당의 해상 교통로를 생각한다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부 연안항로의 당의 거점일 가능성이 높다. 북부 연안항로에서 당의 거점과 황해 중부 횡단항로에서 당의 거점이 달랐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금은 판단하기는 어렵다.

신라의 황해 중부 횡단항로는 신라가 대당 사신을 적극적으로 파견하면서 더욱 활발히 이용되었을 것이다. 신라는 620년대를 계기로 하여 당에 자주 사신을 파견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대당 신라 사신 파견의 흐름을 고려하여 재당왜인유학생이 신라를 경유하여 당으로 가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료에서 신라가 620년대 이후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음이 확인되지만, 당시에 사신 파견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삼국사기》에서는 "진평왕 47년(625) 겨울 11월 大唐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아울러 고구려가 길을 막고서 조공하지 못하게 하며, 또 자주 침입한다고 호소하였다."[69]라는 내용이 보이므로, 이 시기에 고구려의 방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신라에 재당왜인유학생을 보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I-1] 4년 가을 8월에 大唐이 高表仁을 파견하여 三田耜를 귀국시켰다. 함께 대마에서 머물렀다. 이때 학문승 靈雲과 僧旻, 勝鳥養, 신라의 송사들이 따라왔다.[70]

[I-2] 5년 봄 정월 기묘삭 갑진(26일)에 大唐의 고표인 등이 귀국하였

67) 崔天勇, 2004 〈山東萊州發現陌唐獨木船〉 《中國文物報》第 2 版.
68) 山東省水下考古研究中心 編, 2019 《海岱遺珍》, 北京: 文物出版社, 27쪽.
69)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平王 47년(625) 冬11월조 "遣使大唐朝貢. 因訟高句麗塞路, 使不得朝, 且數侵入."
70) 《日本書紀》 卷25 舒明 4년(632) 8월조 "四年 秋八月, 大唐遣 高表仁, 送三田耜. 共泊于 對馬. 是時, 學問僧 靈雲·僧旻及勝鳥養, 新羅送使等從之."

다. 송사 吉士雄摩呂와 黑麻呂등이 대마까지 배웅하고 돌아왔다.[71]

[I-3] 가을 9월에 大唐의 학문승 惠隱과 惠雲이 신라의 송사를 따라 입경하였다.[72]

[I-4] 겨울 10월 을축삭 을해(11일)에 大唐에서 학문승 淸安과 학생 高向漢人玄理가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조공사가 함께 따라왔다. 각각 爵 1급을 주었다.[73]

[I-5] 이 해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승려 智達, 間人連御廐, 依網連稚子 등을 너희 나라에서 파견되는 사신에 딸려서 당에 보내고자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신라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 때문에 승려 지달 등은 돌아왔다.[74]

[I-6] 이 달에 승려 智通과 지달이 명을 받들어 신라의 배를 타고 당에 가서 無性衆生義를 玄奘法師에게 배웠다.[75]

[I-7] 가을 7월 병자삭 무인(3일)에 小錦下 坂合部連石布, 大仙下 津守連吉祥을 사신으로 당에 파견하였다. 道奧의 하이 남녀 두 명을 당의 천자에게 보였다. [伊吉連博德書에는 이 천황시대에 小錦下 坂合部石布連

---

71) 《日本書紀》 卷25 舒明 5년(633) 正月 甲辰(26일)조 "五年 春正月己卯朔甲辰, 大唐客高表仁等歸國. 送使吉士雄摩呂 ·黑麻呂等, 到對馬而還之."

72) 《日本書紀》 卷25 舒明 11년(639) 9월 "秋九月, 大唐學問僧 惠隱·惠雲, 從新羅送使入京."

73) 《日本書紀》 卷25 舒明 12년(640) 10월 乙亥(11일)조 "冬十月乙丑朔乙亥, 大唐學問僧 淸安 ·學生 高向漢人玄理, 傳新羅而至之. 仍百濟·新羅朝貢之使, 共從來之. 則各賜爵一級."

74) 《日本書紀》 卷26 齊明 3년(657) 是歲조 "是歲, 使使於新羅曰, 欲將沙門 智達 ·間人連御廐 ·依網連稚子 等, 付汝國使, 令送到大唐. 新羅不肯聽送. 由是, 沙門 智達 等還歸."

75) 《日本書紀》 卷26 齊明 4년(658) 是月조 "是月, 沙門 智通·智達, 奉勅, 乘新羅船, 往大唐國, 受無性衆生義, 於 玄奘法師所."

과 大山下 津守吉祥連 등이 탄 두 척의 배가 吳唐路로 가는 사신으로 파견되었다….][76]

4) 재당왜인유학생과 신라의 불교를 통한 교섭

재당왜인유학생이 신라를 거쳐 당으로 간 사례는 630년대부터 높은 빈도로 확인된다. 즉, 620년대 신라는 황해 중부 횡단항로를 이용하여 자주 당에 사신을 보냈지만, 고구려의 방해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항로를 사용하기 어려웠고, 재당왜인유학생을 당에 데려다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630년대 이전 시기인 620년 전후 신라의 대일 외교 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바로 불상을 보내는 형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다. 교섭 차원에서 불교 관련 자원이 한반도 삼국에서 왜로 이동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왜와 삼국의 불교를 통한 대외 교섭

《일본서기》 출전/신라 연도	국가	내용	비고
欽明13년10월/眞興王13년(552)	백제	金銅像, 幡蓋, 經論	
欽明15년2월/眞興王15년(554)	백제	雲惠 등 9인	
敏達6년9월/眞智王2년(577)	백제	經論, 律師, 禪師, 比丘尼	
敏達8년10월/眞平王원년(579)	신라	불상	
敏達13년9월/眞平王6년(584)	백제	弥勒石像, 불상	
崇峻卽位前期/眞平王10년(588)	백제	백제에 受戒로 감	崇峻 3년(591) 귀국

76) 《日本書紀》 卷26 齊明 5년(659) 秋7月 戊寅조 "秋七月丙子朔戊寅, 遣小錦下 坂合部連石布 ·大仙下 津守連吉祥, 使於唐國. 仍以道奧蝦夷男女二人, 示唐天子[伊吉連博德書曰, 同天皇之世, 小錦下 坂合部石布連 ·大山下 津守吉祥連 等二船, 奉使吳唐之路 ….]"

崇峻원년/眞平王10년(588)	백제	惠總, 令斤, 惠寔(佛舍利), 聆照律師, 令威, 惠衆, 惠宿, 道嚴, 令開(佛舍利)	
推古3년/眞平王17년(595)	백제	惠總	
推古3년5월/眞平王17년(595)	고구려	惠慈	
推古10년10월/眞平王24년(602)	백제	弥勒	
推古10년閏10월/眞平王24년(602)	고구려	僧隆, 雲聰	
推古13년4월/眞平王27년(605)	고구려	飛鳥寺 건립의 황금 300兩	
推古17년4월/眞平王31년(609)	백제	道斤, 惠弥	표착
推古18년3월/眞平王32년(610)	고구려	曇微, 法定	
推古20년/眞平王34년(612)	백제	須弥山과 吳橋의 공인	표착
推古24년7월/眞平王38년(616)	신라	불상	
推古30년7월/眞平王44년(622)	신라	불상	
推古31년정월/眞平王45년(623)	고구려	惠灌	

[표 4]에서 보이듯이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보다 일찍부터 왜와 불교 관련 교섭을 실시했다. 반면 신라의 경우 敏達 8년(579) 10월 처음 왜에 불상을 보냈지만, 그 이후 推古 24년(616) 7월 이전까지는 불교 관련 교섭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 관련 용품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승려를 파견하여 인적 교류를 실시했다. 推古 3년(595)과 推古 10년(602) 10월 고구려와 백제에서 온 惠總와 惠慈는 廐戶皇子의 스승이고 왜 왕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 인물에 해당한다. 또한 불교 전래 이후 일본에 파견된 고구려와 백제의 승려들은 고구려와 백제의 지원으로 건립된 飛鳥寺에서 모여서 거주했다. 飛鳥寺는 왕경의 飛鳥京과 가깝고 당시 왜의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찰로서, 백제나 고구려의 승려가 체류한 곳이었다.

한편 신라의 경우 불상을 보내는 물질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승려를 파견하는 인적 교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신라가 불교 용품에서 제일 귀중한 불상을 통해 교류하는 외교 방침을 지

속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신라의 불교 관련 인적 교류는 없었을까.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적 교류를 실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신라는 일본의 재당왜인유학생과 대당학문승이 신라도를 거쳐 당에 가도록 데려다주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라의 행위를 '送迎 외교' 혹은 '中継 외교'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신라가 왜를 당나라 중심의 세계에 참여하도록 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하고 당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라의 대당 관계를 위한 외교적 조치에 해당한다.

620년 이후 신라는 빈번하게 중부 횡단항로를 이용하여 대당 사신을 보내고 있다. 앞에 사료에 보았듯이 고구려가 항로 이용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지만,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사실 자체는《삼국사기》의 기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신라가 일본의 대당학문승을 당에 데려다준 행위는 신라가 당까지의 육로와 해로를 포함한 교통로를 확보했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신라는 왜, 당나라와 연결되는 교통로를 각각 확보함으로써 대당학문승이 신라를 거쳐 당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고구려, 백제와 달리 신라만이 실행할 수 있었던 특유의 외교정책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 방법을 통해 신라는 백제, 고구려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5) 김춘추의 외교와 왜의 외교 태도 변화

(1) 신라의 위기와 김춘추의 다방면 외교

7세기 신라와 왜의 관계에서 김춘추의 왜 방문 역시 언급할 만한 사건이다. 김춘추는 백제와의 대립 상황에서 642년 먼저 고구려에 군사를 청하였다.[77] 그러나 고구려가 오히려 舊고구려 영토인 죽령 서북부 반환을

77)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善德王 11년(642)조 "冬, 王將伐百濟, 以報大耶之役, 乃遣伊湌金春秋於高句麗, 以請師."

요구하면서 신라의 요청은 무산되었다. 김춘추는 유폐되었으나, 김유신의 군사적인 움직임으로 신라에 귀국할 수 있었다. 고구려는 당시 백제와 외교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데다가, 당과 대립 노선을 모색 중이었던 연개소문 정권이 성립된 직후라 신라의 군사적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와 군사적 외교에 실패한 신라는 당에 가기 직전인 647년에 왜에 방문하였다.[78] 당시 신라의 국내 상황을 고려해보면, 647년 정월 이후 김춘추가 왜에 체류하고 있었던 시기는 상대등 비담이 여왕을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던 시점이다.[79] 김춘추가 비담의 난 직후에 왜에 왔다는 견해도 있지만, 난을 전하는 《삼국사기》를 보면 기록에서 김춘추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80]

또한 사료를 보면 642년에 백제가 합천 지역의 大耶城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大耶城都督인 金品釋과 김춘추의 딸이 사망하였으며,[81] 이후 백제는 소백산맥을 돌파하여 함양으로 들어가 速含城 등 6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백제는 남강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산청, 진주와 남해도까지 장악하였다. 결과적으로 백제는 642년 義慈王때 신라의 대야성과 주변 40개의 성을 빼앗고 낙동강 서안 가야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82] 백제의 낙동강 서안 지역 진출은 전선이 경주와 가까워지면서 왕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가 이용하는 낙동강 교통로도 단절되는 등 교통로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신라가 진주 지역을 안정적으로 영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舊

78) 김춘추의 대왜 정책에 관하여, 김춘추가 대고구려 외교의 실패를 만회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여 신라 왕위계승을 위한 조건에 들고자 한 의도가 있다고 본 연구도 있다. 이는 김춘추의 대왜 정책을 신라의 왕위계승과 연결시켜 이해한 것이다(沈京美, 2000 〈신라 중대 대일관계에 관한 연구〉 《통일신라의 외교관계와 사상연구》, 백산자료원, 122쪽).

79)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東京: 塙書房, 392쪽.

80) 주보돈, 1993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內政〉 《韓國學論集》20, 41쪽.

81) 《三國史記》 卷41 列傳 金庾信 上 “善德大王十一年壬寅, 百濟敗大梁州,春秋公女子古陁炤娘, 從夫品釋死焉.春秋恨之, 欲請高句麗兵, 以報百濟之怨, 王許之.”

82) 서영교, 2016 〈百濟의 남강유역 再진출과 倭〉 《서강인문논총》46, 169쪽.

대가야 지역을 지나 낙동강을 경유하여 바다로 나가는 낙동강 루트 역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신라의 교통로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문제였다. 즉, 이 당시의 신라는 백제와의 관계 변화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수세에 몰린 시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김춘추의 왜 방문과 乙巳의 變 직후의 친신라·친당 시기

반면에 김춘추의 방문 시기를 왜의 국내 상황과 연관시켜 검토한 견해도 있다. 왜에서는 645년에 乙巳의 變이 일어났으며 나카노오오에노황자[中大兄皇子]와 나카토미노카마타리[中臣鎌足]들이 소카노이루카[蘇我入鹿]를 암살하여 蘇我씨(蘇我宗家)를 몰락시켰다. 그 이후 체제를 쇄신했는데, 김춘추가 이러한 왜의 정치개혁에 관심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83] 최근에는 645년에 일어난 을사의 변은 단순한 蘇我씨의 권력 집중을 원인으로 한 쿠테타가 아니라, 왜 국내에서 외교 정책의 대립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평가한 견해도 제기되어 주목된다.[84] 이런 면을 고려한다면 김춘추가 당시 왜의 신체제가 표방하는 외교 태도에 관심을 두었다는 추론은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김춘추가 왜를 방문했을 때 신라는 백제와 전쟁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왜가 다시 백제의 편에 서서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전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왜의 신정권이 원하는 점을 파악하여 우호를 약속할 필요가 있었고,[85] 왜가 반신라적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였다고 여겨진다.[86] 그러므로 김춘추의 왜 방문은 신라를 둘러싼 한반도 내의 국제정세가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왜의 향후 외교적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 大化 연간(645~649)은 그 이전까지 蘇我씨가 추진해 온 친백제 외교 노선에 비교해 친당·친신라 노선이 강화된 시대이다. 앞에서 언급

83) 서영교, 2019 〈金春秋의 渡日路程과 外交〉 《항도부산》29, 89쪽.
84) 仁藤敦史, 2022 앞의 책.
85) 서영교, 2019, 앞의 논문, 109쪽.
86) 주보돈, 2018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지식산업사, 103쪽.

하였듯이 舒明 연간에는 등용되지 않았던 당에서 귀국한 재당왜인유학생들이 등용되기 시작하고 國博士·十師로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87] 대신라 사신을 파견하는 등 신라와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었다.[88] 한편 大化 연간 직전의 皇極 연간(642~645)에는 백제에 사신을 파견했지만, 大化 연간에는 파견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국내의 세력구조도 변화가 있었다. 左大臣의 아베노우치마로[阿部內麻呂]는 大化 4년(648)에 四天王寺에 적극적으로 寄進하고 있는데,[89] 阿部씨는 신라의 '吉士'를 가바네[カバネ]로 한 씨족이고, 신라와 당 외교에서 활약한 나니와노키시[難波吉士]씨와 동족이다.[90] 이뿐만 아니라 阿部內麻呂만큼 명확하진 않지만, 좌대신 소카노쿠라야마다이시카와마로[蘇我倉山田石川麻呂]의 외교적 입장 역시 이전과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藤氏家傳》에 따르면 그는 蘇我入鹿와는 대립하는 입장이며, 中大兄皇子에게 모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大化 연간에 右大臣으로 활약한 인물이라서 친당·친신라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大化 연간은 皇極 연간과 비교해 친당·친신라적 입장이 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왜의 정치적 분위기에 힘입어 김춘추가 왜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친당·친신라의 입장이 고조되는 시기였다고 해도 결국 왜 내부에는 여전히 친백제 세력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김춘추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신라에 귀국한다. 그때 김춘추가 군사동맹을 맺지 못하였음에도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서기》 기사에서 확인할

87) 《日本書紀》 卷25 孝德卽位前紀 "以沙門旻法師·高向史玄理, 爲國博士.";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원년 8월 癸卯(8일)조 "朕更復思崇正敎, 光啓大猷. 故以沙門狛大法師·福亮·惠雲·常安·靈雲·惠至[寺主]·僧旻·道登·惠隣·惠妙, 而爲十師. 別以惠妙法師, 爲百濟寺寺主. 此十師等, 宜能敎導衆僧, 修行釋敎, 要使如法.

88) 金鉉球,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384쪽.

89)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4년(648) 2월 己未(8일)조 "己未,阿倍大臣, 請四衆於四天王寺, 迎佛像四軀, 使坐于塔內. 造靈鷲山像. 累積鼓爲之."

90) 志田諄一, 1974 《阿部氏とその傳承》, 東京: 雄山閣出版.

수 있는 것처럼, 왜가 김춘추의 외교관으로서의 소질과 인간성을 높게 샀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김춘추가 왜를 방문한 시기가 전후와 비교해 왜의 친당·친신라의 입장이 강해졌던 大化 연간이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고구려뿐만 아니라 왜와의 군사동맹도 실패한 신라는 마지막으로 648년에 당을 방문했다. 즉, 신라는 당과 羅唐同盟을 맺은 것이다. 648년 가을 김춘추는 배를 타고 장안에 도착해서 648년 12월에 당 태종과 만났다.[91] 그 직후에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기 위한 둘 사이의 밀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649년에 신라로의 귀국길에 오른 김춘추는 고구려 수군을 만나서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부지했고, 군사동맹을 약속했던 당 태종이 사망한 소식을 들었다. 뒤이어 즉위한 당 고종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중단시켰다.[92]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나당동맹을 맺은 후 당과의 외교 강화를 추진하였다. 김춘추의 아들인 文王은 당 長安에서 宿衛가 되었으며,[93] 649년에서는 唐制 衣冠을 도입하였다.[94] 다음 해인 650년에는 牙笏 규정 정비를 실행하였는데,[95]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관료체제가 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太平頌을 제작하고 永徽年號를 사용한 것은[96] 단순한 事大가 아니라 형식적 의례를 통하여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신라의 실리주의 외교였다.[97] 그 결과 당의 옷을 입은 신라 사신이 나타났을 때 왜는 충격을 받

91) 《資治通鑑》 권199, 唐太宗 貞觀 22년(648) 12월 7일조: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眞德王 2년(648)조 “遣伊湌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92) 서영교, 2016 〈신라의 통일전쟁과 倭〉 《신라사학보》38, 122쪽.
93) 진덕왕 2년(648)에 김춘추의 아들 문왕이 처음 宿衛로 임명된 이후, 경문왕 16년(876) 金因에 이르기까지 총 16명의 신라 숙위가 확인되는데(申瀅植, 1984 〈新羅의 宿衛外交〉 《韓國古代史의 新硏究》, 一潮閣, 359~379쪽), 宿衛는 현지에 체류하면서 요즘의 외국 주재 대사와 같은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체재 중에 국학에서 수학하거나 신라의 학생들을 인솔해가서 당 조정에 국학 입학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김창석, 2016 〈신라 문화의 국제성〉 《신라의 대외관계와 문화교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88~289쪽).
94)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眞德王 3년(649) 春正月조“始服中朝衣冠.”
95)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眞德王 4년(650) 夏四月조 “下敎, 以眞骨在位者, 執牙笏.”
96)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眞德王 4년(650) 是歲조 “是歲, 始行中國永徽年號.”

았다.

(3) 왜의 白雉 연간 이후의 친백제 외교 시기

그런데 여기서 주시해야 하는 점은 친신라·친당의 입장이었던 阿部內麻呂가 大化 5년(649) 3월 17일에 사망하고,[98] 직후인 3월 24일에 '蘇我倉山田石川麻呂의 變'이 일어나서 친신라·친당의 입장의 大臣들이 일소됐다는 점이다.[99] 신라가 唐服을 입고 나타난 白雉 2년(651) 시점의 左大臣은 거세노토코타[巨勢德太]였는데, 그는 이때 신라 사신을 되돌리고 신라를 토벌하자고 건의하고 있다.[100] 물론 신라가 당복을 입고 나타난 것은 왜에 큰 충격이었다고 생각되었지만, 신라토벌이 제기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大化 연간에서 白雉 연간 사이에 왜 왕권 중추부의 외교 노선이 다시 친백제파 대신이 복귀하고 있던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이후 白雉 4년(653)에는 中大兄皇子가 孝德天皇과 대립하면서 中大兄皇子는 飛鳥로 귀환한다.[101] 孝德天皇은 다음 해인 白雉 5년(654) 10월

---

97) 한준수, 2010 〈新羅 眞德王代 唐制의 受容과 체제정비〉 《한국학논총》32.

98)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5년(649) 3월 乙巳朔辛酉(17일)조 "三月乙巳朔辛酉,阿倍大臣薨."

99) 《日本書紀》 卷25 孝德 大化 5년(649) 3월 戊辰(24일)조 "戊辰, 蘇我臣日向[日向, 字身刺.], 讒倉山田大臣於皇太子曰, 僕之異母兄麻呂, 伺皇太子遊於海浜, 而將害之. 將反其不久. 皇太子信之. 天皇使大伴狛連·三國麻呂公·穗積噛臣於蘇我倉山田麻呂大臣所, 而問反之虛實. 大臣答曰, 被問之報, 僕面當陳天皇之所. 天皇更遣三國麻呂公·穗積噛臣, 審其反狀.麻呂大臣, 亦如前答. 天皇乃將興軍, 圍大臣宅. 大臣乃將二子法師與赤猪[更名秦.], 自茅渟道, 逃向於倭國境. 大臣長子興志, 先是在倭[謂在山田之家.], 營造其寺. 今忽聞父逃來之事, 迎於今來大槻, 近就前行入寺. 顧謂大臣曰,興志請, 自直進, 逆拒來軍. 大臣不許焉. 是夜, 興志意欲燒宮. 猶聚士卒[宮謂小墾田宮.]."

100) 《日本書紀》卷25 孝德 白雉 2년(651) 是歲조 "是歲, 新羅貢調使知萬沙飡等, 着唐國服, 泊于筑紫. 朝庭惡恣移俗, 訶嘖追還. 于時, 巨勢大臣, 奏請之曰, 方今不伐新羅, 於後必當有悔. 其伐之狀, 不須擧力. 自難波津, 至于筑紫海裏, 相接浮盈艫舳, 徵召新羅, 問其罪者, 可易得焉."

101) 《日本書紀》卷25 孝德 白雉 4년(653) 是歲조 "是歲, 太子奏請曰, 欲冀遷于倭京. 天皇不許焉. 皇太子乃奉皇祖母尊間人皇后, 幷率皇弟等, 往居于倭飛鳥河邊行宮. 于時, 公卿大夫百官人等, 皆隨而遷."

에 사망하지만, 외교를 중점으로 하는 궁인 難波를 버리고 飛鳥로 돌아간 것은 적극적인 외교노선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飛鳥 지역은 蘇我宗家의 본거지로 주변에 백제계 도래인 집단 지역이 존재하는 등 백제와의 관계가 깊은 지역이다. 물론 難波보다 내륙에 위치하다는 점에서 방위에 적합하여 신라의 불온한 움직임을 보고 飛鳥로 귀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飛鳥의 궁에 귀환한 皇極 연간 및 齊明 연간 시기 飛鳥의 조영은 왕권의 새로운 불교 세계관에 의한 莊嚴化와 대외적인 방어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102] 그러나 白雉 연간(650~654)에는 신라 사신의 발길이 끊어지고 白雉 2년(651)부터 백제 사신이 오면서 백제와의 외교가 부활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大化 연간과는 반대의 외교양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7세기 한반도에서 각국 간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왜와의 관계는 한반도 각국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해된다. 백제나 고구려에 비교하면 원래 신라와 왜의 관계는 소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7세기 이후 신라는 대왜 교섭의 방침으로서 불상이라는 불교 관련 물품을 보냈다. 그러나 630년대 이후 대당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왜의 대당학문승들을 당에 데려다줌으로써 물적과 인적 두 개 차원에서의 교섭을 실행하였고 신라는 이를 대왜 외교의 강점으로 삼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6세기 말부터 7세기 전반에 보이는 신라의 대왜 사신은 한반도에서 변화하는 정세를 배경으로 파견된 경우도 있지만, 신라가 왜에 보낸 '調'는 신라가 철 자원이나 불교 문물 등 선진문물을 외부로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진 것으로 신라의 대왜 외교 수단의 하나였다. 즉, 신라의 대외정책 방침을 고려하면 사료상의 '調'에는 신라의 선진적 문화 의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라의 의식은 이후에도 계승되어 신라 사신에 의해 전래되는 품목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신라 진평왕대이자 일본 推古 시기에 신라의 대왜 정책은 정치적인 성격

102) 仁藤敦史, 2011《都はなぜ移るのか一遷都の古代史一》, 東京: 吉川弘文館.

이 강했으며, 이는 신라 외교 방침의 특징 중 하나였다.

2. 羅唐戰爭 이후 신라의 대외정책

1) 대당관계 긴장 시기에 보이는 대일 교섭과 別獻物

신라에서 일본으로 보내진 貢物로서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調와는 다른 형식으로 보내졌던 別獻物이다. 별헌물은 천황·황후·황태자 등을 대상으로 조와는 다른 형식으로 공헌된 물건을 가리킨다. 별헌물과 관련된 연구로는 ①收藏機關의 문제, ②조와 별헌물의 관계를 논한 것이 있다. 조와 별헌물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 조는 大藏省에, 별헌물은 內藏寮에 수납되었다고 보며, 이는 각각 '백관을 위한 외정적인 창고'와 '천황을 위한 내정적 창고'에 따라 나누었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03] 그러나 신라의 신물과 관련된 '조'와 '별헌물'의 二重構造는 7세기 말에만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헌물의 역사적 의미나 '별헌물' 자체의 성격에 대해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기에 검토할 여지가 있다.[104] 따라서 별헌물을 검토하기 위해 조와 별헌물이 수납된 大藏과 內藏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1) '조'와 '별헌물'의 二重構造에 대한 이해

'조-大藏省', '별헌물-內藏寮'라는 분화 상황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창고의 의미를 띤 한자이다. 《일본

---

103) 石上英一, 1974 〈古代における日本の税制と新羅の税制〉·〈大藏省成立考〉 《古代朝鮮と日本》, 東京: 龍溪書舍.

104) 별헌물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新川登龜男, 1999 〈調(物産)の意味〉 《日本古代の對外交涉と佛敎—アジアの中の政治文化—》, 東京: 吉川弘文館; 古尾谷知浩, 2006 《律令國家と天皇家産機構》, 東京: 塙書房 ; 채미하, 2020 〈문무왕·신문왕대의 대일본관계－調物과 別獻物을 중심으로－〉 《사총》99; 강은영, 2022 〈7세기 신라·왜의 대외교섭과 贈物－'미츠키(調)'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40 등이 있다.

서기》는 실제 연대와 편찬 시점에 시기 차이가 있으므로 당시에 사용한 한자 표기를 사서 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에서 창고를 의미하는 한자가 처음 보이는 예는 天壽國繡帳銘에 있는 《上宮聖德法王帝說》 내용 중 "椋部秦久麻"라는 표현에서 확인된다. 이를 통해 7세기 전반에는 椋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관련 직업에는 도래계 씨족인 秦氏가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05]

일본에서의 椋자 용례와 관련하여, 藤原京 도랑 하층에서 출토된 藤原京 초기의 '藤原宮出土木簡 FG—26—C지구 목간94'가 주목된다. 이 목간은 皇子宮이나 大椋에게 仕丁하는 내용이나 舍人 등의 배분을 기록한 것으로, 아스카키요미하라령[飛鳥淨御原令] 제도 하에 大藏과 관련되어 '大椋' 표기가 일상적으로 사용된 예이다.[106] 그러나 飛鳥淨御原令 및 大寶令 제정 이후 몇 년 사이에는 '椋'자뿐만 아니라 '倉', '藏'의 글자도 목간에서 사용된다. 또 7세기 말~8세기 초에는 大椋을 大藏이라고 하는 표기도 남아 있으므로 大藏과 內藏의 '藏'자 표기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새로 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107]

처음 大藏이 문헌사료에서 보이는 것은 《일본서기》 齊明 2년(656) 9월조의 "小乘官大藏衣縫造麻呂"로, 大藏이 인물명에 붙어 있는데 이는 職掌을 표현한 씨족 관직명으로 확인된다. 또한 《일본서기》 齊明 4년(658) 10월 甲子조에서도 "秦大藏造萬里"라는 인물의 이름에 붙은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大藏의 출현 시기는 齊明 시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기사는 大藏의 실태를 기술한 기사가 아니므로 사료를 통해 大藏의 존재를 어느 시점까지 올려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고고학적 관점에서 大藏을 검토한 연구이다. 大藏은 近江宮뿐만 아니라 難波宮에서도 궁내나 궁실에 접하여 설

105) 石上英一, 1974 앞의 책.
106) 佐藤信, 1997 〈古代の〈大臣外交〉についての一考察〉 佐藤信 · 村井章介編, 《境界の日本史》, 東京: 吉川弘文館.
107) 石上英一, 1974 앞의 책.

치되어 있었으므로,[108] 중앙의 창고임은 분명하다. 물론 일본에서 '大'자를 붙이는 개념은 大舍人 등의 존재를 생각하면 天武 전기까지 내려가는 것이 가능하고, 한편 大君 등의 존재를 생각하면 雄略 시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낡은 형식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大藏의 경우는 문헌·고고학 양자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齊明 시기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內藏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內藏이 처음에 보이는 기사는 《일본서기》 天武 13년(684) 정월 庚子條의 "內藏衣縫造"이다. 內藏은 大藏과 달리 天武 시기까지 내려야 하며 天武 이전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외적 창고인 大藏과 내적 창고인 內藏의 분립은 7세기 후반에서 올라갈 수 없다. 한편 官의 조 시스템의 변용이 보이는 시기가 天武 시기라는 견해도 있다.[109] 별헌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신라 사신의 사료가 나타나는 시기 역시 7세기 후반이다. 별헌물의 품목 내용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천무기 이후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天智 시기에서도 조뿐만 아니라 별헌물이 포함된 신라 헌상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천황의 창고인 內藏도, 천황의 家産 경제적 기반을 가지는 창고에 수납되는 물품에 '別'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서 분화했다고 여겨진다.

이제 7세기 말에 신라에서 보낸 별헌물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별헌물이 조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별헌물의 품목 내용은 조 이상의, 신라의 문화적 우위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110] 사료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별헌물은 다음과 같다.

[J-1] 이 달에 粟隈王을 筑紫率로 임명하였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108) 角林文雄, 1989 《日本古代の政治と經濟》, 東京: 吉川弘文館.
109) 石上英一, 1974 앞의 책.
110) 新川登龜男, 1999 〈調(物産)の意味〉 《日本古代の對外交涉と佛敎—アジアの中の政治文化—》, 東京: 吉川弘文館.

조를 올렸다. 따로 水牛 한 두, 山鷄 한 마리를 바쳤다.[111]

[J-2] 신라가 阿飡 金項那와 沙飡 薩蘗生을 보내 조공하였다. 조공물은 금, 은, 철, 鼎, 錦, 絹, 布, 皮, 말, 개, 노새, 낙타 따위의 10여 종이었다. 또 따로 물건을 바쳤다. 천황, 황후, 태자에게 금, 은, 刀, 旗 따위를 바쳤는데 각각 다수였다.[112]

[J-3] 을유(20일)에 신라가 沙喙 一吉飡 金忠平과 大奈末 金壹世를 보내 조를 올렸다. 금, 은, 동, 철, 비단, 명주, 사슴가죽, 고운 베의 종류가 각각 많이 있었다. 따로 천황, 황후, 태자에게 바치는 금, 은, 霞錦, 깃발과 가죽의 종류가 각각 많이 있었다.[113]

[J-4] 무자(19일)에 신라가 바친 물건을 筑紫에서 보내왔다. 細馬 한 필, 노새 한 두, 개 두 마리, 鏤金器 및 금, 은, 霞錦, 綾羅, 虎豹皮, 약물 등 모두 1백여 종이었다. 또 智祥, 健勳 등이 따로 바친 물건은 금, 은, 하금, 능라, 金器, 병풍, 鞍皮, 絹, 布, 약물 따위로 각각 60여 종이었다. 따로 황후, 황태자 및 여러 친왕 등에게 바치는 물건이 각각 다수였다.[114]

[J-5] 2월 경인삭 신묘(2일)에 大宰가 신라의 조인 금과 은, 비단, 삼

---

111) 《日本書紀》 卷28 天智 10년(671) 6월 是月조 “是月, 以栗隈王, 爲筑紫率. 新羅遣使進調. 別獻水牛一頭. 山鷄一隻.”

112) 《日本書紀》 卷29 天武 8년(679) 冬10월 甲子(17일)조 “甲子, 新羅遣阿飡金項那‧沙飡薩飡生朝貢也. 調物, 金·銀·鐵·鼎·綿·絹·布·皮·馬狗·騾·駱駝之類十餘種亦別獻物. 天皇, 皇后, 太子貢金, 銀, 刀, 旗之類各有數.”

113) 《日本書紀》 卷29 天武 10년(681) 10월 乙酉(20일)조 “乙酉, 新羅遣沙㖨一吉飡金忠平‧大奈末金壹世貢調. 金·銀·銅·鐵·綿·絹·鹿皮·細布之類, 各有數. 別獻天皇·々后·太子金·銀·霞錦·幡·皮之類, 各有數.”

114) 《日本書紀》 卷29 朱鳥 元年(686) 4월 戊子(19일)조 “戊子, 新羅進調從筑紫貢上. 細馬一疋, 騾一頭, 犬二狗, 鏤金器, 及金銀, 霞錦, 綾羅, 虎豹皮, 及藥物之類, 幷百餘種. 亦智祥, 健勳等別獻物, 金銀, 霞錦, 綾羅, 金器, 屛風, 鞍皮, 絹布, 藥物之類, 各六十餘種. 別獻皇后, 皇太子, 及諸親王等之物, 各有數.”

베, 가죽, 동, 철 등 10여 종과 아울러 별도로 헌상한 불상, 각종 채견, 새, 말 등 10여 종, 또 霜林 등이 바친 금, 은, 彩色 각종 진품 등 모두 80여 종을 바쳤다.[115]

이상의 별헌물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7세기 말 신라의 別獻物

출전	대상	내용
天智10年(671) 6月 是月	別獻物: 內藏	別獻: 水牛1, 山鷄1
天武8年(679) 冬10月 甲子	別獻物: 內藏 別獻物: 天皇, 皇后, 太子	別獻物: 金·銀·鐵·鼎·綿·絹·布·皮·馬狗·騾·駱駝之類十餘種 別獻物: 金, 銀, 刀, 旗, 각종
天武10年(681) 冬10月 乙酉	別獻物: 內藏 別獻物: 天皇, 々后, 太子	別獻物: 金, 銀, 霞錦, 幡, 皮 각종
朱鳥元年(686) 4月 戊子	別獻物: 內藏(智祥, 健勳의 이름으로 別獻함) 別獻物: 皇后, 皇太子, 諸親王	別獻物 : 金銀, 霞錦, 綾羅, 金器, 屛風, 鞍皮, 絹布, 藥物 각 60종 別獻物: 각종
持統2年(688) 2月 辛卯	別獻物: 內藏 別獻物: 불명	別獻物: 佛像, 彩絹, 鳥馬之類十餘種 別獻物: 金銀, 彩色, 珍異의 물건 각 80종

별헌물 품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는 일본이 가지고 싶어 하는 물건을 보내고 있다. 둘째, 별헌물 중 신라의 특별한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생각되는 품목이 많다. 실제로 신라가 당나라에 보내는 품목과 일본에 보내는 품목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신라는 당나라와 일본을

115) 《日本書紀》 卷30 持統 2년(688) 2월 辛卯(2일)조 "二月庚寅朔辛卯, 大宰獻新羅調賦.金銀, 絹布, 皮銅鐵之類十餘物. 幷別所獻佛像. 種々彩絹, 鳥馬之類十餘種. 及霜林所獻金銀, 彩色, 種々珍異之物, 幷八十餘物."

상대로 동일한 품목을 보내지 않았다. 金, 銀, 銅, 馬, 狗, 布, 絹 등이 공통 품목이고, 일부 약물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는 보내지만 당나라에는 보내지 않은 물품으로는, 불상, 幡, 旗, 금속제 기물, 병풍, 면, 綾, 羅, 그리고 孔雀, 鸚鵡, 駱駝 등의 동물류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方産之物' 이외의 계열에 속하고 있다.[116] 이처럼 외교의 장소에서 물건을 보내는 것은 신라의 외교 방식으로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더욱 특징적인 것은 天武 8年 冬10월 甲子조의 '旗'와 天武 10년 10월 乙酉조의 '幡'. 그리고 推古 24년(616) 7월조, 推古 31년(623) 7월조, 持統 2년(688) 2월 辛卯조, 持統 3 년(689) 4월 壬寅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불교 관련 물품이다. 旗와 幡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善德王 12년(643) 9월조의 "我又能給爾數千朱袍丹幟. 二國兵至建而陳之. 彼見者以爲我兵. 必皆奔走. 此二策."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적 성격을 지닌 물건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도 《令義解》 軍防令 私家鼓鉦條를 보면 軍幡의 기술이 보인다.[117] 실제로 《일본서기》 孝德天皇 大化 2년 春正月 甲子朔조와[118] 8세기 후반의 사례이긴 하지만 《延曆交替式》 軍防令에서 軍幡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119] 즉, 일본 또한 旗와 幡에 군사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旗, 幡은 군사적인 장소 이외에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본에 남아 있는 旗, 幡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에 남아 있는 깃발은 和銅 7년(714) 호류지[法隆寺] 遺品의 깃발, 正倉院 소장 天平勝寶 4년(752) 東大寺大仏開眼會와 聖武天皇의 일주기

116) 新川登龜男, 1999 앞의 책, 16쪽.
117) 《令義解》 軍防令 私家鼓鉦條 "凡私家. 不得有鼓, 鉦, 弩, 牟, 矟, 具裝, 大角, 小角及軍幡.(中略)[幡者, 旌旗惣名也.]"
118) 《日本書紀》 卷25 大化 2년(646) 春正月 甲子朔조 "二年春正月甲子朔, 賀正礼畢, 卽宣改新之詔曰 (中略) 凡兵者人身輸刀·甲·弓·矢·幡·鼓."
119) 《延曆交替式》 寶龜 4년(773) 正月 23일 "軍防令. 凡在庫器仗有不任. 当處長官驗實具狀申官. 隨狀處分除毁. 其讚, 刃, 袍, 幡, 麻之類, 卽充当處修理軍器用. 在京庫者. 送兵部任充公用. 若奔掌不如法致有損壞者. 隨狀推徵.(下略)"

齋會의 깃발 등이 남아 있다. 敦煌에서 발견된 開元 13년(725)의 것과 유사하게, 당나라의 양식을 계승한 불교적 깃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군사적 요소의 깃발뿐만 아니라 불교적 요소를 내포한 깃발도 일본에 보내졌다.

(2) 7세기 말 신라학문승의 움직임

7세기 말 이전인 推古 31년(623) 秋7월조를 통해서, 신라가 이미 불교 문물에 포함된 문화적 우위성을 일본에 보여주었고 이는 신라의 외교 정책 방침의 하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는 백강 전투의 패배 이후 당나라와의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신라를 통하여 정보 혹은 선진 물품을 입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불교 물품은 일본이 갖고 싶은 물건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 불상과 깃발이 별헌물에 포함된 것으로 신라의 문화적 우위 의식을 제시한 외교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별헌물이 사료에서 확인되는 시기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본이 신라에 사신을 파견할 때 학문승을 같이 파견했다는 것이다. 학문승을 파견하여 신라 불교를 배워오게 하였으므로 이 시기는 신라학문승의 시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와 같은 표이다.

[표 6] 《일본서기》에 보이는 7세기 말의 신라학문승의 움직임[120]

연대	인물	기타
天武14년(686) 5월 신미일	신라의 대일 사신과 같이 유학 학문승 觀常, 靈觀 귀국	觀常, 靈觀에 관하여 다른 기사에 없음
持統원년(688) 7월 병자일(20일)	신라의 대일 사신과 같이 신라 학문승 智隆 귀국	智隆에 관하여 다른 기사에 없음
3년(689) 여름	신라의 대일 사신과 같이 신라	觀智는 和銅 5년 9월에

120) 김영태 엮음, 2015 《동아시아 한국불교사료 : 일본문헌 편》, 동국대학교출판부; 小島憲之 外 譯, 1998《日本書紀》,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3, 東京: 小學館을 참고로 하여 작성했다.

4월 임인일(20일)	학문승 明聰, 觀智들이	律師에 임명됨
6년(692)10월 임신일(11일)	신라 학문승의 山田史御形이 還俗함	
7년(693) 3월 을사일(16일)	일본의 대신라 사신에 따라가 신라학문승 弁通, 神叡들이 유학함	弁通은 和銅5년에 少僧都로 보임

[표 6]에서는 신라학문승이 신라의 대일 사신을 따라 귀국한 경우, 일본의 대신라 사신을 따라서 신라에 유학한 경우가 확인된다. 즉, 별헌물이라는 물건을 통한 교섭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를 같이 실행했던 신라의 외교 정책은 나당전쟁 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하다. 즉 이 시기 신라의 대왜 교섭·교류는 선진문물 등 물건을 통한 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도 같이 실행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7세기 말 신라의 대일 외교교섭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경우, 신라와 당의 관계 악화라는 배경과 《일본서기》 등의 사료를 근거로 신라가 일본에 대해 조공의식을 가지고 외교교섭을 실시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별헌물이 천황, 황후, 황태자를 대상으로 한 물품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별헌물의 품목을 고려하면, 신라의 조공의식과는 대조되는 정치적 의도나 문화적 우월적 의식이 존재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나당전쟁이 끝난 후 처음 일본에 파견된 신라 사신의 존재는 天武 8년 冬10월 甲子조에서 확인되는데, 여기서 별헌물의 품목으로 깃발이 처음 등장한다.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긴장 상황 가운데 신라에서 파견된 사신이 깃발을 첫 별헌물로 가져온 의미는 크다.

(3) 신라 별헌물의 의미

별헌물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더욱 주목되는 기사는 《일본서기》 권29 朱鳥 원년(686) 4월 戊子조와 《일본서기》 持統 2년(688) 2월 辛卯조이다. 이전 시기까지의 조와 별헌물이라는 단순한 이중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별헌물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먼저 朱鳥 원년(686) 4

월 戊子조에서는 신라 사신 智祥과 健勳의 이름으로 별헌물이 확인되며 “금, 은, 하금, 능라, 金器, 병풍, 鞍皮, 絹, 布, 약물 따위로 각각 60여 종”이라고 하여 자세하고 다양한 종류가 확인된다. 이 ‘60여 종’이라는 수는 그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방대한 종류에 해당한다.

한편 朱鳥 원년 이전에는 ‘조’와 천황·황후·황태자 등 특정 인물을 지정한 ‘별헌물’의 이중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朱鳥 원년이 되면 신라 사신의 이름으로 확인되는 별헌물이 사료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황후, 황태자, 친왕들이 대상이 되고 천황은 대상에서 빠지는 다른 형태의 별헌물이 보인다. 위의 사료를 해석할 때, 신라 사신의 이름과 함께 나타나는 60여 종의 별헌물 속에 황후, 황태자, 친왕을 대상으로 한 별헌물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천황이 대상에서 빠지고 그 대상이 친왕까지 확대된 것을 고려한다면, 해당 사료에서의 별헌물이 이전까지의 별헌물과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라가 가져온 60여 종의 별헌물은 천황에게 보내져 內藏에 수납되는 별헌물이 아니라, 內藏과는 다른 황후, 황태자, 친왕의 家産機關에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단계의 모습에 해당한다. 이러한 천황 이외의 존재와 물건을 교환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8세기 초 신라와 일본의 교섭 속에서 한정적으로 보이지만, 외교의 전제인 교섭 형태의 초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持統 2년(688) 2월 辛卯조에 의하면 천황의 별헌물로 불상, 다양한 彩絹, 鳥馬 등 10여 종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라가 천황에 대한 별헌물로서 불상을 보냈는데 이 역시 불교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朱鳥 원년과 마찬가지로 신라 사신 霜林의 이름으로 보낸 “금, 은, 彩色 각종 진품 등 모두 80여 종”의 별헌물이 확인된다. 즉, 持統 2년에는 朱鳥 원년보다 더 많은 별헌물이 확인되는 것이다. 다만 사료에서 ‘80여 종의’ 별헌물은 받는 대상이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누구에게 바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천황에게 보내진 별헌물은 따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80여 종의 별헌물 역시 천황을 제외한 황태자나 친왕

을 대상으로 한 별헌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상대국 군주 이외의 존재에게 물품을 보내는 외교형식을 이해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사료에서 나타난 '私覿'이다. 唐대의 私覿은 당나라와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인데, 당나라 이전 시기의 사료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禮記》郊特牲에서의 정의에 의하면 私覿은 私見으로 해석된다. 私覿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121] 우선 당 이전의 사료에서 볼 수 있는 私覿의 경우, '私'자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라는 의미로, '覿'자는 '만나다', '면회하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禮記》에서는 신하가 군주와 동행하여 외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상대국의 군주를 개인적으로 면회하면 안 된다고 서술하고 있기에 이 경우 私覿 외교는 人臣의 길에서 일탈한 것이 된다. 그러나 신하가 군주를 대리하여 사신으로 갔을 때는 상대국의 군주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122] 《論語》 鄕党編에서도 군주의 선물을 헌상하며 私覿하는 장소에서 사신은 愉愉하는 상태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당나라 이전 시기 私覿의 본래 의미는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자국 군주의 대리로서 공적 의례를 참석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상대국의 군주와 신하를 만나는 것이다. 물론 그 면회에는 사적으로 물건을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즉, 군주를 방문한 사신이 공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군주, 신하와 면회·교제하고 물품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남북조의 문헌에도 동일한 용례로 사용된다.[123] 그러나 당나라의 외교 형식은 國書와 國信物의 이중 항목으로 구성된 외교의례가 기본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군주, 신하와 면회하고 교제하고 물품을 주는 행위'는

121) 章羣, 2000 〈出使與私覿〉 《唐史札記》第二冊, 臺北: 學海出版社; 石見清裕, 2012 〈唐朝外交における私覿について〉 鈴木靖民編, 《日本古代の王權と東アジア》, 東京: 吉川弘文館.
122) 石見清裕, 2012 앞의 책, 299쪽.
123) 石見清裕, 2012 위의 책, 300~301쪽.

당나라의 외교의례에 위치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며 당나라 시기에 등장하는 '私覿' 관련 사료에 대해 살펴보겠다.《舊唐書》卷112 列傳62 李暠傳의 開元 21년(733) 正月조에 의하면 私覿物의 존재가 확인된다.[124] 이 사료는 工部尙書인 李暠를 吐蕃에 사신으로 파견한 기사이다. 사료에 의하면 私覿物 2000匹은 國信物과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다. 마찬가지로《冊府元龜》卷974, 外臣部 褒異 1, 開元 6년(718) 正月 壬寅조에도 '私覿'의 존재가 보인다. 이 사료는 당시의 契丹王이었던 奚王 李失活과 관련된 기사이다. 奚王 李失活은 開元 5년(717) 11월에 당나라에 입조하고 東平王의 外孫인 楊氏, 곧 永樂公主를 부인으로 취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기사는 다음 해 귀국할 때의 기사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기사의 私覿은 玄宗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玄宗의 私覿物 2000필은 國信物과 세트를 이루고 있으며 공적인 사신 파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私覿物 2000필은 國信物과는 다른 吐蕃 王族·高官을 위한 물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라가 일본에 조와는 별개로 보낸 별헌물은 앞서 언급한 당대의《구당서》와《책부원구》에서 확인되는 기사 내용과 공통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다만 신라의 별헌물이 당의 私覿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별헌물이 '조'와 달리 외교의례의 틀에서 벗어난 물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私覿과 같은 성격을 가진 외교형식의 하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私覿의 용례는 당대 이전에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당나라 시기에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사료에서 확인했다. 당대의 私覿은 당 이전 시기 私覿 용례의 字義와 큰 틀을 계승하면서도, 그 실상은 남북조 시대까지의 사적으로 면회한다는 의미와 함께, 中華 외교의례의 바깥에 위치하고 國信物의 개요에서 벗어난 물건을 보낸다는 의미, 즉 私覿物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

124)《舊唐書》 卷112 列傳62 李暠伝 開元 21년(733) 正月조 "開元二十一年正月, (中略) 以國信物一萬匹, 私覿物二千匹, 皆雜以五綵遣之."

나 사료를 살펴보았을 때 이는 항상 존재하였던 외교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정치 외교적으로 고도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정적으로 나타난 외교 형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7세기 말은 나당전쟁 종결 이후부터 신라와 당 간의 통상적인 교섭이 재개될 때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 신라는 대외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사신 파견의 양상이다. 일본은 신라처럼 지속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일본에 계속해서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시 당나라는 서방의 突厥 문제가 있어서 신라에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여력은 없었다고 해도, 신라의 배후에는 여전히 당나라가 존재했으며 양국 간의 긴장 관계는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이 당시 신라에는 유민 문제도 있었다. 670년 安勝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들을 金馬渚에 정착시켜 자치를 행하게 하였던 고구려국의 경우, 대당전쟁이 종결된 이후 683년에는 안승을 왕실의 여인과 결혼시킨 뒤 김씨 성을 사여하고 진골로 편입시켜 수도로 이주하게 하였다.

신라는 금마저의 고구려 유민과 장군 大文 등이 일으킨 報德國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주민을 각지에 분산 이주시키고, 보덕국을 해체하여 금마군으로 편제하였다. 686년에는 보덕국인으로 9서당의 일원인 벽금서당과 적금서당을 조직하였다. 이 시기 신라는 9주 5소경제를 정비하여 전국이 주, 군, 현으로 편제되었으며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각 지역을 통치하였다. 또한 신문왕 9년(689)에는 민에게 지배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녹읍을 혁파하고, 관인들에 대한 보수로 곡식(租)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는 통일전쟁의 결과로 옛 백제 지역과 같은 새로운 조세 수입원 확충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대외적 긴장 관계라는 외적 요소가 일정하게 작용하였다.[125] 계속된 당과의 대립과 그로 인한 위기의식은 왕실 주도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체제 정비 작업과 개혁

125) 노태돈, 2009, 앞의 책, 278쪽.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126] 이렇게 신라가 유민 문제와 당과의 대립 관계 및 위기의식을 대면하고 있는 시기에 별헌물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신라가 녹읍을 혁파한 신문왕 8년(688)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별헌물은 사료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 역시 신라 신문왕대의 중앙집권체제 확립과 당과의 전쟁의 여지가 사라진 시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라의 국내외 상황과 연동되어, 대일 교섭의 태도와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가 일본으로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하는 단계가 나타났고 동시에 별헌물이 발생하는 상황이 보이는 것이다. 신라와 일본 사이의 교섭은 7세기 말 이외에도 나타나지만, 7세기 말 이외의 시기에는 신라가 일본에 별헌물을 보내는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신라와 당나라 간의 교섭이 중단될 때 별헌물의 존재를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동시에 신라가 일본에 보낸 별헌물은 '조'가 아니므로 공적 기관의 大藏으로 수납되지 않고 內藏이나 그 이외의 가산 기관에 수납되었다. 그러므로 별헌물을 받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별헌물은 사적 요소가 강한 외교 의례 형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었다. 일본은 백강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급히 율령 체제를 기반으로 국내 정치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천황의 가산 기관인 大藏省과 內藏寮가 분화되었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러한 일본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신라가 별헌물을 보냈다고 가정하면, 이는 신라가 특정한 정치 의도를 띠고 새로운 외교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라의 사신이 별헌물을 외교의례로서 조와 세트로 보냄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일본이 원하는 외교형식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7세기 말, 신라가 일본에 별헌물을 보낸 행위는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신라가 전개한 대일 외교 방침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126) 서영교, 2006 《나당전쟁사 연구 - 약자가 선택한 전쟁-》, 아세아문화사, 344~347쪽.

2) 신라의 浿江 以南 지역 소유 인정과 대일 교섭의 변화

(1) 신라의 浿江 以南 지역 소유 인정

8세기 초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나당전쟁 종결 이후부터 신라에게는 당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러한 신라와 당나라의 상황이 크게 변화했던 것이 733년의 신라의 전쟁 참여,[127] 그리고 그 이후 패강 이남 지역의 소유를 당로부터 인정받은 사건이다.[128] 733년부터 신라가 국제분쟁에 참여한 결과, 나당전쟁 때 신라가 해결하지 못했던 큰 현안인 패강 이남의 영역 지배를 735년 성덕왕대 당나라에서 공인받았던 것이다. 성덕왕은 나당전쟁처럼 직접 당나라와 맞서 싸우지 않더라도 당의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신라가 대당관계에서 친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대당 외교 방침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129] 733년 이후 신라의 전쟁 참여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K-1] 32년(733) 가을 7월에 당나라 玄宗이 渤海靺鞨이 바다를 건너 登州로 들어와 침범하였으므로, 太僕員外卿 金思蘭을 귀국시켜, ［왕에게］ 관작을 올려주어 開府儀同三司 寧海軍使로 삼고, 군사를 일으켜 靺鞨 남쪽 변방을 치게 하였다. 때마침 눈이 많이 내려 한 길[丈] 남짓 쌓여 산길이 막히고, 군사 가운데 죽는 자가 절반이 넘어 아무런 공도 없이 돌아왔다. 김사란은 본래 왕족으로, 앞서 당나라에 들어가 朝會하였을 때에 공손하고 예의가 발랐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宿衛하였다. 이때

---

127) 721년에 무왕의 정복 활동과 그에 따른 남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니하(금야강)의 남쪽인 천정군 경내에 長城을 쌓아 신라의 방어선을 比列忽(안변)에 북상시켰다. 그런데, 733년에 이 장성을 넘어서 신라가 발해를 공격했다(송기호, 2019 〈남북국의 전쟁, 경쟁과 교류〉 《신라사학보》45, 18쪽; 2020 《발해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1쪽에 재수록).

128) 李基東, 1984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 일조각, 211쪽.

129) 古畑徹, 1986 〈唐渤紛爭の展開と國際情勢〉 《集刊東洋學》55; 2021 《渤海國と東アジア》, 東京: 汲古書院, 343~345쪽에 재수록; 小宮秀隆, 2014 〈新羅 渤海의 對唐藩鎭交涉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2쪽.

이르러 〔당나라 현종의 명을 받아〕 외국〔신라〕으로 가는 사신의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130]

[K-2] 당나라에 들어가 宿衛하던 左領軍衛員外將軍 金忠信이 표문을 올려 아뢰기를, “臣이 받은 분부는 신으로 하여금 〔폐하의〕 信節을 가지고 본국에서 군사와 말을 징발하여 말갈〔발해〕을 쳐서 없애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보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황제의 명령을 받고부터 장차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마침 이러한 때에 교대하러 온 金孝方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머물러 宿衛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본국 왕은 신이 오랫동안 황제의 조정에 머무르며 모셨다 하여 왕의 조카[從姪] 金志廉을 사신으로 보내 신과 교대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그가〕 이미 도착하였으므로 신은 곧바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에 받은 황제의 분부를 매양 생각하며 밤낮으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폐하께서 앞서 詔勅을 내리시어, 본국 왕 興光〔성덕왕〕에게 寧海軍大使의 관작을 더해주고 旌節을 내려주셔서 흉악한 도적〔발해〕을 토벌하게 하였으니, 황제의 위엄이 닿는 곳은 비록 먼 곳이라도 가까운 것과 다를 바 없고, 임금의 명령이 있으면, 신이 어찌 감히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지하고 하찮은 오랑캐는 이미 재난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뉘우쳤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힘써야 하고, 나라의 법령을 반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내는 데에 의리가 세 번의 승리보다 더 귀중하나, 적을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우환이 몇 대까지 끼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회에 신을 副使로 삼아 황제의 뜻을 모두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이역의 오랑캐에게 선포

130)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聖德王 32년(733) 7월조 “三十二年, 秋七月, 玄宗, 以渤海·靺鞨·越海, 入寇登州, 遣太僕員外卿金思蘭歸国, 仍加授王爲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發兵擊靺鞨南鄙. 會大雪丈餘,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 金思蘭, 李王族, 先因入朝, 恭而有禮, 因留宿衛. 及是, 委以出疆之任.”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찌 황제의 위세를 더욱 떨치는 것일 뿐이겠습니까? 진실로 또한 군사들도 기운을 내어 반드시 적들의 소굴을 둘러 엎고 이 궁벽한 변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동쪽 신라의 신하인 신의 작은 정성이 국가의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신 등은 다시 푸른 바다에 배를 띄워 황제의 대궐에 승전보를 올릴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공적이나마 드러내 비와 이슬과 같이 내리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신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폐하께서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131]

[K-3] 당나라에 金義忠을 보내어 새해를 축하하였다.[132]

[K-4] 義忠이 돌아올 때, 〔당나라 玄宗이〕 詔勅을 내려 浿江 이남의 땅을 내려주었다.[133]

[K-5] 金義忠은 성덕왕 34년(735)에 새해를 축하하는 賀正使로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현종이 浿江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준다는 조칙을 가지고 돌아왔다.

[K-6] 근래에 또한 (김)思蘭이 올린 表文에서 卿[聖德王]이 浿江에 수

131)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聖德王 33년(734) 정월조 "入唐, 宿衛左領軍衛員外將軍金忠信, 上表曰, '臣所奉進止, 令臣執節, 牟國發兵馬, 討除 靺鞨, 有事續奏者. 臣自奉聖旨, 誓將致命. 當此之時, 爲替人 金孝方 身亡, 便留臣宿衛. 臣本國王, 以臣久侍天庭, 遣使從姪 志廉 代臣. 今已到訖, 臣卽合還. 每思前所奉進止, 無忘夙夜. 陛下先有制, 加牟國王 興光 寧海軍大使, 錫之旌節, 以討凶殘, 皇威載臨, 雖遠猶近, 君則有命, 臣敢不祇. 蠢爾夷俘, 計己悔禍, 然除惡務牟, 布憲惟新. 故出師義貴乎三捷, 縱敵患貽於數代. 伏望陛下因臣還國, 以副使假臣, 盡將天旨, 再宣殊裔. 豈稚斯怒益振. 固亦武夫作氣, 必傾其巢穴, 靜此荒隅. 遂夷臣之小誠, 爲國家之大利, 臣等復乘桴滄海, 獻捷丹闈. 効毛髮之功, 荅雨露之施, 臣所望也. 伏惟陛下圖之.' 帝許焉."

132)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聖德王 34년(735) 정월조 "遣金義忠入唐賀正."

133)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聖德王 34년(735) 2월음조 "義忠迴, 勅賜浿江以南地."

자리를 두고자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래 발해에 접한 요충지이다. 또한 祿山(지명)과 서로 살피는 곳이고, 이어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면, 진실로 좋은 계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조그마한 발해는 오래전에 이미 〔당의〕 토벌을 면하였고, 거듭해서 군사를 피로하게 하였지만, 아직 쳐서 없애지 못하였다. 경이 매양 〔발해를〕 미워하니, 심히 가상할 만하도다. 도적을 경계하고 변방을 안정시키는 데에 어찌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을 다 처리하고 마치면, 사신에게 보내어 보고하게 알리라.[134]

사료에 의하면 먼저 開元 20년(732) 9월 乙巳일 직전에 감행된 발해의 등주 공격으로 당은 신라에 군대를 요청하였다. 게다가 《삼국사기》 733년 7월 기사에 의하면 金思蘭이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본국에 발해에 대한 출병 명령을 전달한다. 그때 당은 성덕왕에게 開府儀同三司 寧海軍使라는 관작을 더하여 올려주고 있다. 또한 신라는 당나라에 金思蘭을 통해 패강에 수자리를 두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당의 허락이 있은 후 패강에서의 수자리 설치가 매우 계획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나라에 들어가 宿衛하던 左領軍衛員外將軍 金忠信이 표문을 올렸던 내용 역시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35년 정월에 성덕왕은 金義忠을 당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는데, 이때 김사란이 김의충과 함께 당나라에 들어가 성덕왕이 패강에 수자리를 두고자 하는 뜻을 알렸다고 생각된다.[135] 이러한 과정 끝에 결국 성덕왕 34년(735) 2월 패강 이남의 땅을 당으로부터 공인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정사 김의충을 통하여 패강 유역에 대한 권리를 추인받고, 다시 수자리 설치 의사를 밝힌 이후 같은 해 늦봄과 초

134) 《文苑英華》 卷471 翰林制詔 蕃書4 〈勅新羅金興光書〉 三首二 "近又得思蘭表稱, 知卿欲於浿江置戍, 既當渤海衝要, 又與祿山相望, 仍有遠圖, 固是長策. 且蕞爾渤海人已逋誅, 重勞師徒, 未能撲滅, 卿每嫉惡, 深用嘉之. 警冠安邊, 有何不可, 處置訖因使以聞."

135) 古畑徹, 1986 앞의 논문; 2021 앞의 책에 재수록.

여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 인준을 받았던 것이다. 당 현종은 이에 대해 허락한다는 뜻을 담은 조칙을 735년 3월 중·하순경에 내렸으며, 김의충이 이것을 가지고 신라에 귀국하였던 것인데, 신라에서는 패강 지역에 군사를 두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조칙을 근거로 하여 당나라 현종이 패강 이남의 땅을 주었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136] 그 이후 신라가 성덕왕 34년(736) 6월 謝恩使를 보내어 표문을 전한 것은 패강유역에 수자리 설치까지 완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과 다름없었다. 정리하자면 신라가 735년에 당나라로부터 패강 이남의 영역을 공인받은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신라는 패강에 수자리를 설치하여 발해를 경계하였으나 훗날 발해가 이 방면으로 진출하기 전까지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신라로서는 큰 상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신라 스스로 발해에 대해서 김충신의 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적대감을 실제로 가졌는지는 의문이며, 양국 사이에 아직 노골적으로 적대 의식을 드러낼 만큼 큰 사건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137]

나아가 전쟁 종결 이후 평양 이남을 자신의 영역으로 보았던 신라의 영토 의식은 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8세기 초에는 일면 정체되었지만, 신라가 730년대 이후 당과 발해의 관계에 관여함으로써 신라의 북진정책이 간신히 성공하였고 이에 신라에게 남았던 과제가 해결되었던 것이다. 즉, 730년 초 당과 발해 간의 분쟁은 당의 입장에서 발해를 완전히 격퇴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남았지만, 신라는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땅을 인정받았던, 큰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 때를 기점으로 신라의 당과의 관계가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패강유역을 장악하는 것은 교통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782

136) 전덕재, 2019 〈통일신라의 외교〉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 고대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동북아역사재단, 343~345쪽.
137) 송기호, 2019, 앞의 논문, 6쪽; 2020, 앞의 책, 19쪽에 재수록.

년 浿江鎭 설치 이후 신라 정부는 浿江鎭典의 大監이나 少監을 패강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여러 軍鎭의 지휘관으로 파견하였고, 大谷城에 위치한 패강진의 頭上大監으로 하여금 여러 군진을 통괄하게 하였다. 이때 이들 군진의 위치는 신라와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기점 또는 요지에 해당했다고 한다.[138] 다시 말해, 신라가 패강 이남의 영유권을 당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신라, 당, 발해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안정화 되어 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王城國 문제와 신라의 대일 사신

그런데 이 시기에는 신라와 일본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성덕왕 34년(735) 일본에 파견된 사신이 王城國 문제가 생겨 귀국한 사건이 있었다. 성덕왕 34년 이전부터도 양국 간 관계 변화의 단초가 보이는데, 성덕왕 30년(731) 4월조에서는 “일본국의 兵船 300척이 바다를 건너 우리 동쪽 변경을 습격하므로, 왕이 將帥에게 명해 군사를 내어 크게 깨뜨렸다.”라는 기사가 보이고,[139] 그 이전인 성덕왕 21년(722)에도 일본에 대한 대응으로 “毛火郡에 關門을 쌓았고, 일본의 賊路를 막았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140] 이는 일본에 대한 신라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들이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긴장 속에서 735년 신라의 대일 사신이 파견되었는데, 관련 사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L-1] 癸丑, 中納言 正三位 多治比眞人縣守를 兵部의 曹司에 보내서

---

138) 전덕재, 2013 〈新羅下代 浿江鎭의 設置와 그 性格〉 《대구사학》, 113.

139)《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聖德王 30년(731) 4월조 “日本國 兵船三百艘, 越海襲我東過 王命將出兵, 大破之.”

140)《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聖德王 21년(722) “築毛伐郡城, 以遮日本賊路.” ; 《三國遺事》 卷2 紀異2, 孝成王 “開元十年壬戌十月, 始築關門於 毛火郡. 今 毛火村 屬 慶州 東南境, 乃防 日本 塞垣也. 周迴六千七百九十二步五尺, 役徒三万九千二百六十二人, 掌員 元眞 角干. 開元二十一年癸酉, 唐 人欲征北狄, 請兵新羅客使六百四人來還國.”

신라사가 入朝한 뜻을 묻게 했다. 신라국이 함부로 본래의 호칭을 바꾸어 王城國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그 사신을 돌려보냈다.[141]

신라 사신인 金相貞 등은 전년도 12월에 大宰府에 도착하였다. 2월에 入京한 신라사가 자신들의 국호를 갑자기 王城國이라고 바꾸어 칭하자, 일본 조정은 이에 반발하여 신라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신라의 대일 외교 정책에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金順貞의 친일적인 외교정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142] 즉 김순정이 725년에 사망하여 신라 내에서 대일 외교상에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실제로 8세기 초 이후의 김순정 시기의 대일 정책을 보면 후지와라노후히토[藤原不比等], 나카야왕[長屋王], 후지와라노나카마로[藤原仲麻呂] 등 천황의 범위 외에 고위 귀족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점이 사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그 당시는 율령 체제 하에서 외교를 담당한 관사에 적용된 '律'의 규정이 확인된다. 《律令》 職員令16, 治部省條에 의하면 "卿一人. 掌, 本姓, 継嗣, 婚姻, 祥瑞, 喪葬, 贈賻, 國忌, 諱, 及諸蕃朝聘事." 라고 되어 있다. 외교를 담당하는 곳은 治部省이었다. 그리고 《律令》 職員令18 玄蕃寮條를 보면 "頭一人. 掌, 仏寺, 僧尼名籍, 供齋, 蕃客辭見, 讌饗, 送迎. 及在京夷狄, 監当館舍事." 라고 되어 있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외교 업무는 玄蕃寮가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令集解》 職員令16, 治部省條와 《令集解》 職員令18, 玄蕃寮條 중 후자의 경우 '古記'의 注釋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大寶令에서는 太政官의 左大臣이 외교사무인 '朝聘'을 소관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141) 《續日本紀》 卷12 天平 7년(735) 2월 癸丑조 "遣中納言正三位多治比眞人縣守於兵部曹司, 問新羅使入朝之旨. 而新羅國, 輒改本號, 曰王城國. 因茲返却其使."

142) 濱田耕策, 1979 〈新羅聖德王代の政治と外交〉 《旗田巍先生古希記念 朝鮮歷史論集》 上; 2002 《新羅國史の硏究》, 東京: 吉川弘文館에 재수록; 全德在, 1997 〈新羅 中代 對日外交의 推移와 眞骨貴族의 動向 -聖德王~惠恭王代를 중심으로-〉 《韓國史論》37, 21~25쪽.

《令集解》 養老職員令2, 太政官條에서 左大臣의 職掌을 확인해보면, “掌, 統理衆務, 擧持網目, 惣判庶事. 彈正糾不當者, 兼得彈之.”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즉, 大寶官員令에서는 職掌 중에 朝聘도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養老令 편찬의 시기에 太政官이 소관한 외교사무를 治部省에 이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143] 또한 당시 외교사무는 左大臣이 관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藤原不比等의 경우 《속일본기》 和銅 2년(709) 5월 壬午조를 보면 그때의 신라 사신 金福信 등을 弁官廳 내에서 회견했다는 내용이 있다. 천황이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외국 사신과 회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주목되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長屋王의 사례 역시도 외국 사신과의 회견이 확인되는 사례이다.

《懷風藻》에서는 사신의 귀국 때 읽은 한시가 10수정도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長屋王邸에서 신라 사신을 초대하고 향연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회풍조》에 담긴 한시의 작자는 대부분은 도래계 관인과 大學博士로, 長屋王이 도래계의 사람들과 밀접한 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다. 長屋王邸에서는 ‘발해’와 ‘교역’이라는 글자가 함께 쓰인 연습용 목간이 발굴되고 있어 長屋王의 경제 활동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들 목간은 神龜 4년(727)에 일본에 처음 온 발해 사신들을 長屋王의 저택에 초대했을 때의 목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신라인’이라고 표기가 된 목간도 있으며 신라인에게 식료 공급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장부 목간도 발견되었다. 즉, 당시의 長屋王邸에서는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이다. 상기한 정황을 고려하면 8세기 전반 시기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다른 시기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김순정의 외교적 활동이 《속일본기》에서만 확인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당과의 외교에서 활동했으므로 上宰職이 신라에서 외교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점과 725년 김순정의 사망이 신라의 대

143) 佐藤信, 1997 앞의 논문.

일 외교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는 당시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144]

신라가 王城國이라고 자칭하였던 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王城'은 중국에서 천하의 중심 소재지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신라에서도 신라 9州의 영역권과 합쳐서 규정했다는 전덕재의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덕재에 의하면, 중국인의 동심원적인 세계관에서 왕성은 천하의 중심 소재지이고 왕성 밖의 천하는 크게 3대 권역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첫 번째 권역이 바로 甸服, 즉 王畿이고, 두 번째 권역이 侯服과 綏服, 즉 大·小諸侯가 소재하는 곳으로서 中國의 범위에 해당하며, 세 번째 권역이 蠻夷要服과 戎狄荒服, 즉 蠻, 夷, 戎, 狄 등 이른바 오랑캐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한다. 신라 사신이 일본에 가서 자신들의 나라 이름을 왕성국이라고 자칭하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734년 무렵에 신라인들이 이와 같은 중국인의 동심원적인 세계관을 차용하여 신라가 천하의 중심인 왕성의 위상을 지닌 국가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에 따라 자신들의 천하를 9주로 구분하여 통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9주의 영역은 侯服과 綏服에 비견되고, 일본은 9주의 바깥에 존재하므로 세 번째 권역인 蠻夷要服과 戎狄荒服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145]

이는 신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활용된 외교적 관념이다. 당시 동북아시아에서는 율령 체제의 완성 혹은 《당례》의 도입을 통해 중국적 관념으로 자신을 천하의 중심으로 규정하여 주변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외교 관념이 보이고 있었다. 즉 신라와 일본 양자 모두 중화 의식을 자국식으로 변용하는 모습이 8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8세기 중반 이후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양국이 자신을 중심으로 형성하였던 외교 관념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교섭을 계속하

144) 朴南守, 2012 〈新羅 聖德王代 '上宰' 金順貞과 對日交涉〉 《新羅史學報》25, 153~162쪽.
145) 전덕재, 2015 〈8세기 신라의 대일외교와 동아시아 인식〉 《日本學硏究》44, 40~41쪽.

는 시기로 들어섰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상황을 생각하면 신라가 735년에 왕성국이라고 자칭하고 일본이 이에 대응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한 배경으로, 역시 앞에서 언급한 신라가 당나라로부터 패강 이남의 땅을 정식으로 인정받았던 735년의 사건이 크다고 여겨진다. 732년 당나라와 발해의 전쟁을 계기로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지면서 일본의 전략적인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견해가 있는데,[146] 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735년의 신라의 대일 사신에 관한 사료를 살펴보면 이때의 신라 사신이 일단 입경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 사신이 입경한 후 放還되었던 경우는 거의 없고 입경하기 전에 일본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의 경우 兵部曹司에서 中納言 다치히노아카타모리[多治比縣守]가 회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속일본기》 和銅 2년(709) 등의 회견 사건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미 외교의례가 시작되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 당시의 中納言多治比縣守는 도래니친왕[舍人親王]과 후지와라노무지마로[藤原武智麻呂] 다음 가는 위치에 있는 고위 귀족이었고 遣唐押使의 경력이 있기에 고위귀족 내에도 당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 兵部曹司에서의 회견 중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中納言多治比縣守이었기에 신라가 왕성국이라고 자칭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왕성국의 함의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소나 인물 사이에서 양국 간의 외교 문제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라가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땅을 정식으로 인정받았던 735년을 계기로 신라에서는 대일 외교의 전략적인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신라는 602년의 아막성 전투 이후 혼란한 정세 속에서 주변 국가와의 충돌을 반복하고 있었기에, 무엇보다 당나라와의 관계 유지가 큰 과제였다. 아울러 신라는 610년 이후로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 관계를 맺었는

146) 전덕재, 2004 〈신라의 대외인식과 천하관〉 《역사문화연구》 20, 210~213쪽.

데, 이를 통해 이 시기 신라에게 일본은 외교적으로 유의미한 상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당전쟁이 끝난 후 신라와 당 사이의 관계와 유민 문제, 그리고 고구려·백제 고지의 지배 문제 등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 신라는 일본에 사신을 빈번하게 파견하였고, 별헌물이라는 이전에 없었던 교섭 형태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당나라의 존재가 있었으며 그 속에서 신라는 일본에 대한 교섭 정책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732년 당과 발해의 전쟁에 신라가 참여하면서, 당과의 관계가 새롭게 진전되고 그로 인해 대일 외교의 전략적인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결정적이었던 계기는 735년 당이 신라에게 패강 이남의 영유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신라가 대일 교섭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한 시기는 602년의 아막성 전투 이후 신라가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 관계를 맺게 된 610년부터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영유를 정식으로 인정받는 735년까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三. 동아시아 사회의 동요와 교섭 형식의 복잡화

1. 景德王代 신라의 대일본 사신과 무역품의 이동

본 절에서는 7세기와 달리 급변하는 8세기의 상황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특히 경덕왕대(742~765) 신라와 일본의 대외관계를 다양한 사료를 통해 살펴보겠다. 8세기 중엽이 되면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료는 《속일본기》의 신라 사신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天平勝寶 4년(752) 신라 왕자 金泰廉 일행이 일본에 조공하였다고 전한다.[1] 김태렴 일행은 9년 만에 일본에 파견된 신라 사신이자, 18년 만에 入京이 허락된 이들이었다. 당시 김태렴 일행이 일본에 증여하였던 물품의 품목을 정창원문서 〈買新羅物解〉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문서에 적힌 날짜는 《속일본기》에서 김태

1) 天平勝寶 4년(752)의 신라 사신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학계에서는 윤선태, 1997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쯔게(買新羅物解)〉, 《역사와 현실》24; 박남수, 2011 〈752년 金泰廉의 對日本과 〈매신라물해〉의 香藥〉, 《한국 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 주류성; 金志垠, 2007 〈경덕왕대의 대일외교－752년 교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신라문화》30; 강은영, 2010 〈8세기 중후반 일본의 內政과 對新羅關係의 추이－752년 金泰廉 使行團의 來日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31; 김창석, 2013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남수, 2016 《한국 고대, 목면과 향료의 바닷길》, 景仁文化社, 신카이사키코, 2020 〈8세기 중반 신 라의 대일 관계 동향과 〈買新羅物解〉〉, 《한일관계사연구》67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학계에서는 東野治之, 1977 〈鳥毛立女屛風下貼文書の研究－買新羅物解の基礎的考察－〉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東京: 塙書房; 鈴木靖民, 1985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石井正敏著(鈴木靖民·赤羽目匡由·浜田久美子編), 2017 〈八·九世紀の日羅關係〉 《古代の日本列島と東アジア石井正敏著作集1》, 東京: 勉誠出版; 田村圓澄, 1999 〈新羅王子金泰廉の東大寺參拜〉 《古代日本の國家と佛教 -東大寺創建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石井正敏, 2001 〈天平勝寶四年の新羅王子金泰廉來日の事情をめぐっ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濱田耕策, 2002 〈中代·下代の內政と對日外交 －外交形式と交易をめぐって－〉 《新羅國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皆川雅樹, 2017 〈〈買新羅物解〉と天平勝寶四年來朝の新羅使についての再檢討〉 《專修史學》63 등의 연구가 있다.

렴 일행이 입경한 날짜와 일치하여 주목된다. 〈매신라물해〉는 官司에 교관을 신청한 것으로, 일본 관료가 구입하고자 한 품목과 그것의 구매 희망가를 제시한 문서로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이 문서에는 당시 양국 간 이루어진 교역 물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8세기 중반 신라와 일본의 교역 양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속일본기》와 〈매신라물해〉의 내용을 통해 혹자는 김태렴 일행의 사신을 계기로 신라 사신의 성격이 정치적 측면인 공적 사신에서 무역적 측면인 사적 사신으로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752년 사신의 목적은 '通商貿易'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2] 그러나 752년을 계기로 사신 파견의 성격이 변화했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이뿐만아니라 경덕왕대 신라의 사신을 공적, 사적이라는 관념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752년 金泰廉 일행의 신라 사신에 주목하면서 경덕왕대 신라와 일본의 교섭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752년 신라 金泰廉 일행 사신 관련 사료 해석

752년의 신라 사신은 18년 만에 입경이 허락되었다는 특이성 때문에 일찍이 주목받아 왔다. 특히 과거 일본에 왔던 사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있어 이 시기를 하나의 획기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3] 종래 752년 사신 파견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4개의 학설이 제기된 바 있다.

첫 번째 〈매신라물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전 《속일본기》의

---

2) 교역의 측면을 중시한 '通商貿易論'을 비판한 대표적인 입장으로는 (李成市, 1997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正倉院寶物が來たもうひとつの道-》, 東京: 青木書店, 107~113쪽)이 있다.

3) 〈매신라물해〉에 기록된 물건은 舶來品으로 냉각되었던 신라-일본의 외교 관계가 8세기에 융성한 교역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 견해(東野治之, 1977 앞의 책, 298~326쪽), 외교의 형식을 고집하던 일본에 왕자를 파견하여 放還문제가 해결된 이후 오랜만에 대외교섭이 실시되었다고 본 견해(濱田耕策, 2002 앞의 책, 344~352쪽), 처음부터 국가적인 규모로 대일무역의 목적으로 편성된 경제적인 사절이라고 본 견해(石井正敏, 2001 앞의 책, 132~148쪽) 등이 있다.

내용을 중심으로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살펴본 견해가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752년에는 양국 간 賓禮가 실행되고 있으므로 외교상으로 문제가 없는 일종의 관계 회복기로 이해하였다.[4] 두 번째, 〈매신라물해〉를 중심으로 신라 사신의 상업적인 면모를 강조한 견해가 있다.[5] 이는 8세기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냉각화로 이해하는 대신, 무역이 융성한 시기로 본 것이다. 세 번째는 신라와 일본 양국의 의도를 발해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견해다.[6] 마지막 네 번째는 일본 동대사의 開眼供養과 관련하여 신라 사신이 파견되었다고 본 견해이다.[7] 이처럼 752년 신라 사신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들 견해는 모두 그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에, 하나의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752년 신라 사신에 대한 기본사료로서 《속일본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M-1] (閏 3월) 己巳 大宰府에서 新羅王子인 韓阿湌 金泰廉과 貢調使의 大使인 金暄 그리고 送王子使인 金弼言 등 700여 인이 7척의 배를 타고 와서 머물고 있음을 알렸다.[8]

[M-2] 6월 己丑 신라 왕자인 金泰廉 등이 조정에 배알하고 아울러 調를 바쳤다. 그리고 아뢰기를 ①“신라국왕이 일본 照臨天皇(孝謙天皇)의

---

4) 鈴木靖民, 1969 〈奈良時代における對外意識ー《續日本紀》關係記事の檢討〉;1985 앞의 책에 재수록; 森克己, 2009《新編森克己著作集二續日宋貿易の研究》, 東京: 勉誠出版.
5) 東野治之, 1977 앞의 책.
6)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日本》, 校倉書房; 李成市, 1998 〈正倉院所藏新羅氈貼布記の研究ー新羅·日本間交易の性格をめぐって〉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東京: 岩波書店; 李成市, 1997 앞의 책.
7) 田村圓澄, 1999 앞의 책; 金志垠, 2007 앞의 논문에도 신라와 일본 사이에서 전개된 華嚴宗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교류와 관련시켜 파악하고 있다.
8) 《續日本紀》 天平勝寶 4년(752) 閏 3월 己巳(22일)조, “己巳大宰府奏. 新羅王子韓阿湌金泰廉, 貢調使大使金暄及送王子使金弼言等七百餘人, 乘船七艘來泊.”

朝庭에 말씀드립니다. 신라국은 옛날 왕 시대부터 대대로 끊이지 않고 배와 노를 나란히 하여 가서 나라를 받들었습니다. 이번에 국왕이 직접 내조하고 몸소 調를 바치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하루라도 군주가 없으면 국정이 문란해질까 염려됩니다. 이 때문에 왕자인 韓阿飡 泰廉을 왕을 대신하여 우두머리로 하여 370여 인을 거느리고 가서 入朝하게 하고 겸하여 여러 가지 조를 바칩니다"라고 삼가 아뢰게 하였다. 조를 내리기를 ②"신라국은 옛날 왕시대부터 늘 끊이지 않고 국가를 받들어 왔다. 이제 다시 왕자 泰廉을 파견해 겸하여 조를 바치니. 왕의 정성에 朕은 기쁠 뿐이다. 지금부터 후세에 오래도록 마땅히 위로하고 보살피겠다"라 하였다. 泰廉이 또 아뢰기를"하늘이 두루 덮고 있는 밑에 王土 아님이 없고, 바다에 이르는 땅의 끝까지 왕의 신하 아님이 없습니다. 泰廉은 다행히 聖世를 만나 조정에 와서 받드니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몸소 갖추어온 국토의 미미한 물건을 삼가 바칩니다"라 하였다. 조를 내려 ③"泰廉이 아뢴 바는 들었다"라 하였다.[9)]

* ①=奏, ②=反詔1, ③=反詔2

[M-3] (前略) 이날 신라 사신에게 朝堂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조를 내리기를 ④"신라국이 와서 朝庭을 받든 것은 氣長足媛皇太后(神功皇后)가 그 나라를 평정하고부터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蕃屛이 되어 왔다. 전에 왕인 承慶(孝成王)과 大夫 思恭 등은 말과 행동이 게으르며 지켜야 할 禮를 잃었다. 이 때문에 사신을 보내어 죄를 물으려고 하는 사이에 지금 신라의 왕 軒英(景德王)이 예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몸소 朝庭에 오려고

9) 《續日本紀》 天平勝寶 4년(752) 6월 己丑(14일)조, "六月己丑. 新羅王子金泰廉等拜朝, 幷貢調. 因奏曰, ①新羅國王言日本照臨天皇朝庭. 新羅國者, 始自遠朝, 世世不絶, 舟楫並連, 來奉國家. 今欲國王親來朝貢進御調, 而顧念一日无主國政弛亂. 是以, 遣王子韓阿飡泰廉, 代王爲首, 率使下三百七十餘人入朝 兼令貢種種御調. 謹以申聞. 詔報曰, ②新羅國始自遠朝, 世世不絶, 供奉國家. 今復遣王子泰廉兼貢御調. 王之勤誠, 朕有嘉焉. 自今長遠, 當加撫存. 泰廉又奏言, 普天之下, 無匪王土, 率土之濱, 無匪王臣. 泰廉幸逢聖世, 來朝供奉, 不勝歡慶. 私自所備國土微物, 謹以奉進. 詔報, ③泰廉所奏聞之."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국정을 돌보아야 하므로 왕자 泰廉 등을 파견하여 대신 入朝하고 겸하여 調를 바쳤다. 짐은 그 정성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 官位를 올려 주고 물건을 내린다"라 하였다. 또 조를 내려 ⑤ "지금 이후로는 국왕이 직접 와서 마땅히 말로 아뢰도록 하라. 만약 다른 사람을 보내어 入朝할 때에는 반드시 表文을 가지고 오도록 하라"고 하였다.[10]

* ④=詔1, ⑤=詔2

먼저 M-1은 다자이후[大宰府]가 신라 사신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奏上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貢調使와 별개로 "新羅王子韓阿飡金泰廉"이 파견되었다는 점이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의하면 韓阿飡 즉, 大阿飡이라는 관등은 오직 진골귀족에 한해 임명되었으므로[11] 김태렴의 신분은 진골이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752년 사절단의 규모는 700명에 이르러, 종전의 사절 규모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물론 700명의 규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과거 신라 사신단에서 확인되지 않던 韓阿飡의 존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였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M-1에서는 김태렴을 '新羅王子'라고 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료에서 왕자 김태렴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라 조정이 사신의 파견을 위해 세운 임시직이라는 견해가 있다.[12] 하대의 예이지만 신라의 '假王子'는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애장왕 3년(802) 기사에

---

10) 《續日本紀》 天平勝寶 4년(752) 6월 己丑(14일)조, "六月己丑. 新羅王子金泰廉等拜朝, 幷貢調. 因奏曰, ①新羅國王言日本照臨天皇朝庭. 新羅國者, 始自遠朝, 世世不絶, 舟楫並連, 來奉國家. 今欲國王親來朝貢進御調, 而顧念一日无主國政弛亂. 是以, 遣王子韓阿飡泰廉, 代王爲首, 率使下三百七十餘人入朝 兼令貢種種御調. 謹以申聞. 詔報曰, ②新羅國始自遠朝, 世世不絶, 供奉國家. 今復遣王子泰廉兼貢御調. 王之勤誠, 朕有嘉焉. 自今長遠, 當加撫存. 泰廉又奏言, 普天之下, 無匪王土, 率土之濱, 無匪王臣. 泰廉幸逢聖世, 來朝供奉, 不勝歡慶. 私自所備國土微物, 謹以奉進. 詔報, ③泰廉所奏聞之"

11) 《三國史記》 職官志上, "大阿飡. 從此至伊伐飡, 唯眞骨受之. 他宗則否."

12) 濱田耕策, 2002, 앞의 책, 334쪽.

서도 보인다. 이에 따르면 신라 조정은 均貞에게 대아찬을 제수하고 '가왕자'로 삼아 왜국에 인질로 보내려 하였으나 균정이 사양하였다고 전한다.[13] 752년 사행 당시 신라 국왕이었던 경덕왕에게 왕자가 없었던 것은 《삼국유사》 권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김태렴도 애장왕 3년의 사례와 같이 '가왕자'로서, 일본 측이 요구하는 외교 형식에 맞추어 대일외교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의 '가왕자'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표 7] 哀莊王代 假王子 관련 사료

년 · 월 · 일, 출전	내용
哀莊王 3년(802) 12월, 《三國史記》	균정을 假王子로 만들어 일본에 볼모로 보내려고 했지만 균정이 거부함.
年歷 22년(803) 3월 《日本後紀》	당나라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하여 일본은 신라에 견신라사 齋部宿禰浜成을 파견함.
年歷 22년(803) 4월 23일 《日本後紀》	16일에 첫 번째 도행하지만, 비바람 때문에 배가 파손됨.
哀莊王 4년(803) 7월 《三國史記》	交聘結好
哀莊王 5년(804) 5월 《三國史記》	일본이 사신을 파견하여 금 300량을 헌상함.
年歷 23년(804) 7월 6일 《日本後紀》	견당사 파견. 4척의 배를 출행.
年歷 23년(804) 9월 18일 《日本後紀》	大伴宿禰岑麻呂을 견신라사로 삼아 보냄. 수색원을 요청함.

13)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哀莊王 3년(802)조, "冬十二月, 授均貞 大阿湌爲假王子, 欲以質倭國, 均貞辭之."

우선 확인하여야 할 기사는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애장왕 3년(802) 12월조 기사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애장왕은 김균정에게 대아찬을 수여하고 '가왕자'로 삼아 일본에 볼모로 보내려 했으나, 균정은 이를 거부하였다. 당시 애장왕이 '가왕자'를 제수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본이 요구해온 신라 사신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견해가 있다.[14] 이외에도 《삼국사기》 애장왕 10년(809) 7월조에 의할 때 애장왕에게는 태자는 물론 왕자도 없었으므로, '가왕자'는 신라에 왕자가 없을 경우 일본의 외교 형식에 응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 수단이었다는 견해도 있다.[15]

이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간 대외관계 기사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802년 '가왕자' 기사 이전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일본후기》 연력 18년(799) 기사들에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은 4월 庚寅(16일)에 '遣新羅使'를 임명했다가, 5월 壬申(29일)에 "견신라사 파견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때 견신라사로 임명되었던 오오토모노미네마로[大伴宿禰岑麻呂]는 훗날 연력 23년(804) 9월 18일에 신라에 파견되었다. 결국 799년의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일본 조정은 추후 신라에 사신을 보낼 여지를 두었던 것이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이 시기 견당사와 연동되어 나타나는 견신라사의 움직임을 보아도 분명하다.

802년 '가왕자' 기사 이후 신라와 일본이 "交聘結好", 즉 서로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맺었던 사실은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애장왕 4년(803) 7월조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속일본기》에서 전하는 혜공왕 15년(779)의 일본 사신 파견 이후 오랜만에 확인되는 신라 조정의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혜공왕 15년 이후 일본 내에서 신라인의 동향은 주로 '歸化', '流來', '漂流' 등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그

14) 濱田耕策, 2002 앞의 책, 334~348쪽.
15) 石井正敏, 2001 앞의 책.

러면 802년 등장하는 ‘교빙결호’의 의미를 검토해보자.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애장왕 5년(804) 5월조에 의하면 ‘교빙결호’가 이루어진 바로 이듬해 일본이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황금 300냥을 바쳤다고 전한다. 또한 《일본후기》 권12 桓武紀 연력 23년(804) 9월 己丑일조에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交聘을 닦는 상황을 지난해 大宰府로 하여금 이미 그 사실을 전해 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순풍이 불지 않고 마침내 날씨가 서늘해져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4척의 배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2척은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되돌아오고 나머지 2척은 도착한 곳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 만약 그곳에 표착했다면 마땅히 事案에 따라서 物資를 공급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착하지 않았으면 사신을 당나라에 들여보내어 찾아보고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803년에도 신라에 사신을 보내려 했지만 풍향의 문제로 실패하였고, 대신 804년에 견당사선의 표류 문제와 관련하여 신라에 다시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사료를 통해 803년 일본이 신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견당사의 파견과 관련하여 신라로부터 해로의 안전을 보장받는 한편, 견당사가 표착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라 및 신라를 통한 당나라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일본의 견당사가 도해 중 난파하거나 표류하는 상황이 빈번하였으므로 신라의 도움 없이 견당사를 파견하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견당사로 임명되었음에도 병을 이유로 사퇴하거나 도망치는 이들이 많았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애장왕대 신라 내부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견해도 있다. 즉 일본 사신이 신라에 오기 전부터 신라는 이미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하려 했기에 애장왕 4년(803) 일본과 교빙하여 일본의 견당사 파견에 관한 제반 사항에 협조했다는 것이다.[16] 이 견해에 의하면 애장왕 섭

16) 채미하, 2018 〈애장왕 헌강왕대의 대일 외교와 그 활용〉 《신라사학보》 44, 165쪽.

정기에서 친정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신라는 당 중심의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일본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 시기 신라의 대일본 외교는 대외적으로는 당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반발이며, 대내적으로는 친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애장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례를 적극 활용했는데, 특히 섭정기의 閱兵과 당나라 및 일본 사신을 맞이하는 빈례가 그러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일면 타당하지만, 이 시기 신라의 대일본 정책은 신라가 주도하였다기보다는 일본의 요청에 신라가 대응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었다.

결국 애장왕대 '가왕자'는 신라에 왕자가 없거나 모종의 문제로 외교사신단의 준비가 불충분할 때, 일종의 외교수단으로 제수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752년 김태렴의 경우도 사신의 규모가 이례적이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일종의 외교수단으로서 '가왕자'를 제수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식 사신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왕자' 세운 것이 아니라 신라의 일종의 외교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M-2는 김태렴 일행이 입경하여 拜朝하자 이에 대해 返詔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대보율령 제정 이후 신라 사신이 拜朝할 때에는 上奏의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정작 신라 사신이 표문을 가져온 사례는 보이지 않으므로, 당시에도 신라 사신들은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였을 것이다. 한편 사료에서는 詔와 관련해 '對蕃使詔'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17]

"率使下三百七十餘人入朝"라는 부분 역시 주목된다. 당시 신라 사신단의 규모는 700명이었으므로, 입경한 사람이 370명을 제외한 230명은 筑前에 남아 있었던 것이 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입경한 인물 중 金暄이 貢調使로서 大使의 관등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는 '新羅王子韓阿飡金

17) 이는 상대 국가가 외교문서를 가져오지 않았어도 사신을 통하여 구두로 의사 전달이 이루어질 경우, 외교문서로서의 기능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中野高行, 2008 《日本古代の外交制度史》, 東京: 岩田書院, 117~126쪽).

泰廉'의 역할이 신라 사신의 본래 역할과는 달랐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18] 실제로 사신 중에는 별도로 送王子使가 확인되고 있다.

752년 김태렴을 포함한 신라 사신단에는 送王子使 즉, 送使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라의 송사는 당나라의 送唐客使과 발해의 送渤海客使과 다르다. 즉 일본이 보낸 일본인 송사가 아니라 신라 사신단에 속한 신라인 송사인 것이다. 이러한 송사의 예는 《일본서기》 天武 2년(673) 閏 6월 己亥조, 4년(675) 2월조, 5년(676) 11월 丁卯條, 7년(678) 是年조, 《속일본기》 神護景雲 3년(769)조에서 확인된다. 특히 《속일본기》 神護景雲 3년(769)조에는 "導送者"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여기서 '도송자'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라 송사의 역할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송사는 신라의 사신을 筑紫까지 보내고, 임무가 끝나면 筑紫에서 귀국하는 것이 관례이다. 송사는 사신의 배가 아니라 송사의 배로 일본을 오갔던 것이다.[19] 그런데 당시 신라는 당과의 석문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일련의 조처를 취하고 있었다.[20] 서형산성 등을 증축하여 수도 방어를 꾀하였고, 지방의 주요 산성을 쌓거나 증축했다. 또한 《삼국사기》 문무왕 13년(673) 조에 의하면 신라는 외사정제를 시행하여 지방에 파견된 관리와 지방 세력가의 동태를 파악하고 전쟁을 도모하기 위해 戍兵을 재차 두었다. 즉 이 시기에 신라 사신에 送使가 속한 이유는 당나라 수군에 대한 위기심이라고 볼 수 있다.[21] 문무왕 15년(675) 왕자를 보낸 것은, 일본의 동정을 살피면서도 신라에 대한 일본의 변함없는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고 여겨진다.[22]

752년 送使의 경우, 물론 7세기의 상황과 동일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당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 일본을 의식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신라가 자국의 사신을 위해 送使를 둔 것은 신라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행

18) 河內春人, 2011 〈古代國際交通における送使〉 鈴木靖民·荒井秀規 編, 《古代東アジアの道路と交通》, 東京: 勉誠出版, 291~292쪽.
19) 田村圓澄, 1979 〈新羅送使考〉 《朝鮮學報》90, 90쪽.
20)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61쪽.
21) 田村圓澄, 1979 앞의 논문, 91쪽.
22) 노태돈, 2009 앞의 책, 262쪽.

위로 특별한 것이었다. 아마도 이 시기 신라는 발해와 신라의 긴장 관계라는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송사를 파견하였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M-3은 김태렴 일행이 입경하여 朝堂에서 詔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중 M-3-⑤에서는 일본이 신라에게 表文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52년 당시 신라 사신의 입경이 허락되었지만, 일본 조정 내에서는 여전히 표문의 소유 여부가 외교 의례상 문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덕왕 4년(735) 吉備眞備 등이 일본에 唐禮를 수입하면서, 외교형식 또는 외교의례가 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당례 수입 2년 후인 성덕왕 6년(737)에는 일본 외교무대에서 처음으로 '無禮'라는 표현이 등장하였고, 경덕왕 2년(743)에도 일본 조정은 신라 사신이 가지고 온 외교문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표문 지참 요구는 《大唐開元禮》 賓禮의 蕃主와 蕃使의 의례를 참고한 것이라 여겨진다.[23] 즉 종래 외교문서 혹은 국서가 필요하지 않았던 신라와의 외교형식을 당례에 바탕을 둔 빈례로 바꾼 것이다.[24] 특히 752년 사행은 일본이 신라에게 표문(국서)를 요구하는 계기가 된 해로,[25] 이후 일본은 신라 사신에게 집요하게 표문 지참 여부를 확인한다. 사료상으로 볼 때 신라 사신은 779년까지 입경하지 못했다. 물론 779년의 경우 표문 없이 입경하였으나, 이는 이전 견당사선이 난파되어 耽羅에 억류되자 그것을 풀기 위해 일본이 신라에 사신을 보낸 것에 대응하여 파견된 사례였다.

2) 752년 사신의 성격과 경덕왕대의 대당 관계

그렇다면 이때 파견된 사신의 성격에 대해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752년의 대일본 사신에 대해 경덕왕과 그 중심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23) 《大唐開元禮》 〈蕃王奉見〉, 〈受蕃國使表及幣〉.
24) 鄭淳一, 2015 《九世紀の來航新羅人と日本列島》, 東京: 勉誠出版, 45~47쪽.
25) 河內春人, 2000 〈新羅使迎接の歷史的展開〉 《ヒストリア》170, 3~4쪽.

파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견해가 있다.[26] 그보다는 경덕왕이 추진한 대당 세력에 대항하여 대일외교를 추진하였던 세력을 파견 주체로 보았다. 그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聖德大王 神鐘' 및 '皇龍寺鍾' 등을 주조한 풍부한 재력을 기반으로 한 진골귀족세력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신라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며, 하물며 신라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도 752년의 사신의 파견 주체를 경덕왕 이외의 세력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당시 성덕왕 대의 정세를 보다 상세히 고찰하여, 신라 입장에서의 752년 대일본 사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시기 대당외교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을 다루었는데, 특히 당시 최고위직에 있었던 上大等 金思仁에 주목했다.[27] 김사인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해서는 중대 정권과 대립적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대당 정책을 추진하여 왕권강화를 주도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사인의 정치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덕왕 15년 2월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28] 이에 따르면 김사인은 근년에 재이가 자주 발생하자 왕에게 글을 올려 정치의 득실을 극론하였고, 이를 경덕왕이 기뻐하며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사인이 극론한 정치 문제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그러므로 사료상으로 김사인의 정치 관념은 물론이거니와, 752년 행해진 대일외교에 대한 김사인의 입장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한화정책을 추진한 경덕왕대 사료에 나타난 신라와 당의 관계는 어떠한가. 신라는 안사의 난 발발 직후 당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고, 이듬해인 경덕왕 15년(756) 여름 4월에 이르러서야 玄宗이 蜀에 있다는

---

26) 近藤浩一, 2012 〈景德王代 · 王子金泰廉の日本派遣と新羅國內政治 -派遣事情を中心に-〉 《京都産業大學論集》45, 258~260쪽.

27) 김사인의 성격에 대한 연구로는 신정훈의 연구(신정훈, 2000 〈新羅 景德王代 王權强化策의 性格〉 《동서사학》6 · 7 합집; 2010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55~56쪽에 재수록)가 있다.

28)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景德王 15년(756) 2월조, "十五年春二月, 上大等金思仁, 以比年災異屢見, 上疏極論時政得失. 王嘉納之."

것을 알게 되어 成都로 사신을 보냈다고 한다. 당시 신라 사신의 임무는 유교적 명분·의리에 입각하여 피난 간 현종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29] 756년 사행은 안사의 난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황제에게 신라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이는 한편, 안사의 난으로 인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난이 발발한 이후의 상황에서도 신라는 당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다음 [표 7]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8] 景德王代 對唐 관계 기사

연도[경덕왕] · 사료	파견인물	파견목적	내용
2년(743) 春3월 《三國史記》新羅本紀, 《舊唐書》新羅傳, 《冊府元龜》外臣部冊封,《全唐文》권24命金憲英襲封新羅王制	唐→新羅 贊善大夫魏曜	先王葬儀 冊封	전왕의 관직을 계승하고 신라왕의 책봉을 받았음. 황제의 詔書를 받음. 황제가 스스로 주석을 붙인 《孝經》을 하사받았음
2년(743) 冬12월 《三國史記》新羅本紀, 《冊府元龜》外臣部褒異	新羅→唐 王弟	新年祝賀	당조는 '左淸道率府員外長史'의 관직을 수여하고 綠袍, 銀帶를 하사했음.
3년(744) 閏2월 《三國史記》新羅本紀, 《冊府元龜》外臣部朝貢	新羅→唐 使者	新年祝賀	方物 헌상
3년(744) 夏4월 《三國史記》新羅本紀, 《冊府元龜》外臣部朝貢	新羅→唐 使者		馬 헌상
4년 (745) 4월 《冊府元龜》外臣部	新羅→唐 使者	(朝貢)	

29) 조이옥, 2001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硏究 8세기를 中心으로》, 서경문화사, 143~144쪽.

朝貢			
5년(746) 春2월 《三國史記》新羅本紀, 《冊府元龜》外臣部朝貢	新羅→唐 使者	新年祝賀	方物 헌상
6년(747) 春정월 《三國史記》新羅本紀, 《冊府元龜》外臣部朝貢	新羅→唐 使者	新年祝賀	方物 헌상
7년 (748) 《舊唐書》 권199上, 列傳 東夷 新羅國	新羅→唐		
12년(753) 《續日本紀》 권17	新羅→唐	新年祝賀	일본 사신과 爭長 사건
14년(755) 夏4월[30] 《三國史記》新羅本紀, 《冊府元龜》外臣部朝貢	新羅→唐 使者	新年祝賀	
15년(756) 夏4월 《三國史記》新羅本紀	新羅→唐 使者	朝貢	玄宗이 蜀에 있다고 들어 사신을 파견함. 揚子江을 따라 成都에 들어가 조공함. 玄宗이 직접 지은 五言十韻詩를 하사함.
17년(758) 8월 《三國史記》新羅本紀, 《冊府元龜》外臣部褒異	新羅→唐 使者	朝貢	肅宋은 사신을 紫宸殿에서 대접함.
20년(761)2월 《資治通鑑》권 222	新羅→唐 金嶷	宿衛	
21년(762) 秋9월 《三國史記》新羅本紀, 《冊府元龜》外臣部朝貢	新羅→唐 使者	朝貢	
22년(763) 夏4월 《三國史記》新羅本紀,	新羅→唐 使者	朝貢	

23년(764) 《續日本記》 권25	唐→渤海(경유)→新羅		執事省牒를 통하여 入唐僧戒融의 일본귀국의 여부를 묻음.
24년(765) 夏4월 《三國史記》 新羅本紀, 《冊府元龜》 外臣部褒異[31]	新羅→唐 使者	朝貢	肅宋은 사신에 '檢校·禮部尙書'의 관직을 수여함.

즉, 신라는 안사의 난 중에도 '조공'의 명목으로 당나라에 변함없이 사신을 파견했다. 안사의 난 이전 경덕왕 3년(744) 閏 2월 조 및 경덕왕 3년(744) 夏4월 그리고 4년(745) 4월에 이루어진 사신 파견 역시 《冊府元龜》 外臣部 朝貢의 조에 기록이 있다. 특히 4년(745) 4월 및 20년(761) 2월의 사신 파견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중국사서에만 보이는 내용이다. 이러한 누락에 대해서는, 대응되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였거나 아니면 실수로 빠뜨렸을 가능성 들 수 있다.[32] 중국 측 사료를 함께 검토하면 [표 7]에 보이듯, 신라는 안사의 난 와중에도 격차를 두지 않고 사신을 파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경덕왕이 왕위에 오르자 당나라 현종은 찬선대부 魏曜을 보내 조서를 내리고 '蕃長'을 계승하게 하는 한편 전왕의 관작을 授與하는 동시에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33] 이는 신라에 대한 당의 대우를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기왕에도 신라의 新王은 先王의 관작을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34] 경덕왕대에 해당하는 8세기 중엽은 신라 국내의 상황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신라가 대당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30) 사료에 의하면 夏4월로 春의 기사가 아니지만, "新年祝賀"라고 되어 있다.
31) 《冊府元龜》 外臣部 褒異의 경우 永泰 2년(766) 4월 임자에 신라 사신이 검교예부상서를 수여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찬자가 연도를 착각하여 경덕왕 24년(765) 조에 중국 사서의 기록을 인용하여 서술한 것으로 추정한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전덕재, 2018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160쪽).
32) 전덕재, 2018 위의 책, 161쪽.
33)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경덕왕 2년(743) 春3월조.
34) 이현주, 2020 〈신라 중대 冊封號 授受의 배경과 의미〉 《신라문화》 55, 162~163쪽.

시기였다.[35] 즉, 신라 중대는 대외정책과 대응에 있어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신라의 모습은 당나라의 신라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경덕왕이 당과의 관계에 있어 탄력적 대응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36]

신라는 경덕왕 8년(749)부터 12년(753)까지 당나라로 사신 파견을 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안사의 난 직전의 시기이고, 특히 경덕왕 10년(751) 4월, 7월, 8월에는 당이 각각 南詔, 大食, 契丹에게 대패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사신의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것처럼 얼마 동안 신라와 당의 교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과 南詔, 大食, 契丹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신라가 적극적으로 당과 관계를 끊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신라가 안사의 난이 발발했을 때도 사신의 파견을 정지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역시 신라는 경덕왕대 당과의 관계를 일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752년 신라 사신 파견은 경덕왕과 무관한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경덕왕 대는 당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던 반면 성덕왕 대와 비교하였을 때, 대일관계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덕왕대의 대일외교를 대당정책에 대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필요에 따라 대일 정책을 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

35) 조이옥, 2001 앞의 책, 140쪽.

36) 조범환, 2019 〈新羅中代의 동아시아 政策과 對應〉 《신라사학보》45, 218쪽; 2022 《신라 중대 혼인 정치사》, 일조각에 재수록. 그러나 이에 대하여, 동아시아의 국가 간의 다양한 관계를 단순화하여 책봉체제 일원론으로 설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김한규, 1999 〈7-8世紀 東아시아 世界秩序의 構造的 特性과 그 運營體制의 機能〉 《진단학보》88, 399~402쪽; 여호규, 2000 〈6~8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연구의 진전을 기대하며〉 《역사와 현실》61, 19~30쪽; 廣瀨憲雄, 2011 〈古代東アジア地域對關係の研究動向〉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古代日本》, 東京: 吉川弘文館; 鈴木靖民, 2016 〈東部ユーラシア世界と東アジア世界 構造と展開〉 《古代日本の東アジア交流史》, 東京: 勉誠出版), 양자를 둘러싼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매신라물해〉와 향약류의 수납·판납문서

〈買新羅物解〉는 752년 신라 사신이 입경했을 때 증여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과 가치를 기록한 문서이다.[37] 문서에서 확인되는 날짜는 김태렴 일행이 입경한 시기와 일치한다. 품목은 향약류, 금속류, 기물, 조도품 등 다종다양하다. 특히 일본은 품목의 가치를 면, 견, 실 등의 '直物'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신라에서 증여된 품목과 일본의 '직물' 사이에 교환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L-1]
金　蘇芳　小鏡
　　合三種
直物　綿六百十斤
天平勝寶四年六月十五日知家事資人大初位上栗前首□[38]

또 주목해야할 부분은 〈매신라물해〉에서 '新羅物'이라는 표현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L-2]

---

37) 〈買新羅物解下貼文書〉에 대해, 正倉院文書〈續修後集〉卷43에 포함된 문서(宮內廳正倉院事務所編, 1996 《正倉院古文書影印集成10》, 東京: 八木書店)를 底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東京大學史料 編纂所, 1999 《大日本古文書25 (補遺2)》, 東京: 東京大學出版會을 對抗本으로 사용하였다. 前田家尊經閣文庫藏에 있는 문서에 관해서는, 《大日本古文書》에 수록된 〈尊經閣文庫藏影印〉을 참고하였다. 지금까지 총 26건의 문서가 소개되었다. 또한, 東京大學史料編纂所架藏의 影寫本인 並木文書 〈千古遺響〉의 4점도 〈買新羅物解〉라고 소개된 바 있다(皆川完一, 2012 《正倉院文書と古代中世史料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그리고 東野治之, 앞에 책, 1977; 池田溫, 2002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東京: 吉川弘文館도 함께 참고하였다.

38) 《續修後集卷》43, 〈香藥等雜物買物注文斷簡〉

合貳拾參種

鏡三面徑六寸已下五寸以上　　迺羅五重鋺參帖□徑五寸已下

白銅五重鋺貳帖□徑五寸已下　　白銅盤壹拾伍□□徑五六寸

□羅盤伍□□徑五六寸　　白銅匙箸貳具

白銅香□壹具　　白銅錫杖壹箇

黃金伍兩　　麝香參臍

朱沙壹斤　　同黃壹斤

薰陸壹拾伍斤　　人參肆斤

呵梨勒貳伯顆　　松子壹斛伍斗

木槵子壹仟貳伯玖拾六顆　　蜜汁貳□

牙鏤梳壹拾箇　　牙鏤子貳拾□

口脂壹箇長一尺　　鐵精壹斤

蘇芳貳伯肆拾斤

儲価物　綿伍伯斤　　糸參拾斤

以前可買新羅物幷儲価等如前謹解

天平勝寶四年六月廿三日[39]

이러한 표현은 관련 품목들 역시 752년 신라 사신이 증여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매신라물해〉에서 '신라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氏名闕買新羅物解〉 하나뿐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는 '念物'이라는 표현도 확인된다.

[L-3]

念物五六寸鏡　丁香　□□□

華撥　　木槵子　　□□　　如意　　蠅拂

蘇芳　　紫根

直綿貳伯屯

39) 《大日本古文書》〈尊經閣文庫藏影印〉25 〈氏名闕買新羅物解〉

右件念物幷直數如前以解
天平勝寶四年六月廿日[40]

‘염물’에 대해서는 《鷄林類事》의 “乞物曰念受勢”이라는 표현을 참고할 수 있다. 즉 고려시대의 ‘乞物’은 ‘원하는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41] 또한 〈天平勝寶四年六月廿日〉 문서의 마지막에는 ‘右件念物幷直數如前以解’이라고 하였으므로, ‘염물’을 상급관청에 상신한 이후에야 신라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염물’이라는 표현은 〈매신라물해〉 이외에 正倉院 소장의 毛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창원 소장 毛氈의 帖布記 즉, 〈花氈〉 殘欠 혹은 〈色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L-4]
「行巻　價花氈一
念物得追丟　　」[42]

[L-5]
「紫草娘宅紫稱毛一
念物糸乃綿乃得
追丟　今綿十五斤小
長七尺　廣三尺四寸」[43]

이들 사료를 보면 당시 ‘염물’이라는 표현이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원하는 물건[念物]을 얻어 오라는 구절을 적은 꼬리표가 매우 흔해서 공문서에까지도 ‘염물’이라는 표현이 자

40) 《大日本古文書》 〈尊經閣文庫藏影印〉 25 〈天平勝寶四年六月廿日〉
41) 李成市, 1997 앞의 책, 46~54쪽.
42) 〈花氈〉 殘欠, (中倉202), 第74號.
43) 〈色氈〉, (北倉151), 第6號.

연스럽게 사용되었던 것이다.[44] '염물' 못지않게 주목해야할 단어는 〈色氈〉으로 이는 '紫草娘宅'과 같은 진골귀족의 공방에서 제조된 제품이 당시 일본에 수출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45] 진골 귀족은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일외교를 통해 자신의 공방에서 제조된 수공업제품을 교역하고자 했다. 752년 김태렴 일행의 사신 파견은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交關이라는 실질적인 방법을 추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일본의 賓禮 가운데로 실행한 무역활동이다. 이는 그 이후에 보이는 大宰府에의 교관이나, 9세기에 보이는 신라상인의 무역활동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서 〈매신라물해〉를 근거로 하여 752년 당시의 무역활동을 교관으로 이해하였다. 당시 일본에는 신라의 품목을 담당하는 관리가 존재했다. 즉 아무리 교관이라 하더라도 자유무역의 형태는 아니었던 것이다. '交關'의 의미에 대해서는 《唐律疏議》를 참고할 수 있다.[46] 여기에서는 '교역' 및 '매매' 혹은 '取引'등을 의미했다고 한다. 특히 〈越度緣辺關塞〉에서는 금지행위로 '교관'을 언급하였다.[47] 무역 혹은 매매라는 뜻을 강하게 포함하였으므로 '거래[取人]'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48]

그렇다면 일본에서 '교관'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을까? 〈매신라물해〉의 "取人"을 '교관'으로 처음 이해한 인물은 東野治之였다. 그는 신라가 보낸 무역품은 《續日本紀》 神護景雲 2년(768) 10월 甲子 조에서

---

44) 윤선태, 1997 앞의 논문, 56쪽.
45) 위의 논문, 50쪽.
46) 《唐律疏議》 卷8 衛禁·越度緣辺關塞條 疏議所引 〈唐主客式〉, "疏議曰, 越度緣辺關塞, 將禁兵器, 私与化外人者絞, 共爲婚姻者, 流二千里, 其化外人, 越度入境, 与化內交易, 得罪, 並与化內人越度交易同, 仍奏聽勅, 出入國境, 非公使者不合, 故但云越度, 不言私度, 若私度交易, 得罪皆同. … 因使者, 謂因公使入審, 蕃人図使入國, 私有交易者, 謂市買博易, 各計贓準盜論,罪止流三千監 … 又準主客式, 蕃客入朝,於在路不得与客交雜, 亦不得令客与人言語, 州縣官人, 若無事, 亦不得与客相見, 卽是國內宮人百姓, 不得与客交關, 私作婚姻同上法.…"
47) 《唐律疏議》 名例律 〈以贓入罪〉條, 《唐律疏議》 雜律 〈負債强牽掣畜産〉條.
48) 石見淸裕, 1998 〈交雜の禁止－朝貢使節の入京途上規定－〉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349쪽.

“新羅交關物”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매신라물해〉의 ‘신라물’은 그 줄임말이라고 보았다. 이외에도 ‘교관’이라는 예는 《延喜式》에서도 보이는데, 단 해당 시기의 사료에는 외국의 물건을 거래 의미로 ‘교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다.[49]

그런데 〈매신라물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물들의 신분은 5위 이상의 귀족이었다. 〈매신라물해〉 중 계급이 적시된 문서를 보면 ‘知家事資人’ 및 ‘事業’ 등의 인물이 확인된다. 율령 규정상 4품 이상의 친왕 혹은 3위 이상의 臣에 家令 이하의 직원이 허용되었으며, ‘資人’ 및 ‘事業’의 경우는 5위 이상의 臣과 中納言 이상에 소속한 인물들이다. 〈매신라물해〉에 位署書가 있는 ‘知家事資人’ 및 ‘事業’ 그리고 ‘家令’들은 높은 신분의 인물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신청자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들을 고용한 상위 귀족들이 〈매신라물해〉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매신라물해〉의 교관에 관여한 사람은 5위 이상 신분의 관료귀족이었다.

[L-6]

念物黃金　　(參カ)

價絲壹伯斤　　綿□伯□拾斤

天平勝寶四年六月廿六日從□位上行少書吏丹比武連□□

---

49) 일본의 사료에서 보이는 교관의 예는 《類聚三代格》 卷8 延曆 2년(783) 3월 22일 太政官符 〈大宰府貢上調綿一十萬屯事〉, 卷14 天平 9년(737) 9월 21일 勅(《續日本紀》 제12에도 있음), 卷18 天長 8년(831) 9월 7일 太政官符 〈應檢領新羅人交關物事〉, 天長 5년(828) 正月 2일 太政官符 〈應禁交關事〉, 卷19 延曆 6년(787) 正月 21일 太政官符 〈應陸奧按察使禁斷王臣百姓與夷俘交關事〉, 《續日本紀》 卷4 和銅 2년(709) 3월 甲申條에 보이고 여기에서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類聚三代格》 卷14 天平 9년(737) 9월 21일 勅이다. 이는 외국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勅. 如聞. 臣家之稻貯蓄諸國. 賞與百姓求利交關”이라고 되어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일 이른 시기에 보이는 교관의 예는 국내상황과 관련된 교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752년의 〈매신라물해〉 역시 직접적으로 교관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당율에 있는 교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무역일 가능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正六位上行家令大田連「廣人」　　正六位下行□從秦伊美吉□□[50]

이름이 확인되는 인물 중 家令으로 나타난 大田廣人은 天平勝寶 6년(754) 2월 그리고 8년(756) 5월의 北家牒에서 '正六位'로 등장한다. 그리고 天平 12(740)년 7월의 啓에는 北家의 資人인 石村布勢麻呂과 連署하고 있으므로, 752년 당시에서는 이미 北家의 家令이었다고 볼 수 있다.[51] 당시 藤原北家의 대표자는 藤原永手이고 藤原永手는 '授四位上'이라서 少書吏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그는 아버지인 藤原房前의 가산 기구를 계승하였다고 여겨진다. 藤原房前이 사망한 天平 9년(737)에는 아들에게 가산이 계승되었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52] 그러므로 藤原永手는 관위가 낮지만 가산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752년 당시 교관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교관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들은 고위 귀족이었다. 이는 신라 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던 直物의 수량이 적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속일본기》에서는 신라의 품목을 구입할 때 "爲買新羅交關物也"하였다고 한다.[53] 이

---

50) 〈鳥毛立女屛風下貼文書〉 〈屛風〉 이 문서에 관하여 1989년의 鳥毛立女屛風의 수리에 따라서 실행하는 裏面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나 문서이다. 판독 글자와 사진은 (杉本一樹, 1990 〈鳥毛立女屛風本紙裏面の調査〉 《正倉院年報》12)에서 공개되었다. 〈鳥毛立女屛風下貼文書〉 〈屛風〉에 대하여 杉本一樹씨의 사진과 판독문을 참고로 했다.

51) 東野治之, 1997 앞의 책, 307쪽.

52) 藤原氏의 가산형태는 藤原鎌足의 '乙巳年功' 및 藤原不比等의 '修律令功'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받은 功臣의 '五千戶'로 대표되는 경제기반이 있었다고 생각된다(三上喜孝, 2003 〈出擧に關する二, 三の考察〉 笹山晴生 編, 《日本律令制の構造》, 東京: 吉川弘文館). 이러한 가산의 계승은 長屋王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인 高市皇子가 사망한 持統 10년(696)에는 '無位無官'이었던 데 반해, 壬申년 최고 功臣인 高市皇子의 장남으로서 香具山宮을 계승하여 '北宮'의 주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仁藤敦史, 2004 〈'長屋王家'の家産と家政機關について〉, 《國立歷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133, 220~221쪽). 즉, 律令 시대에는 '功臣子孫'으로서 국가적으로 승인을 받았던 家産의 계승이 이루어졌다고 이해된다.

53) 《續日本紀》 神護景雲 2년(768) 10월 甲子條, "賜左右大臣大宰綿各二万屯. 大納言諱. 弓削御淨朝臣淸人各一万屯. 從二位文室眞人淨三六千屯. 中務卿從三位文室眞人大市, 式部卿從三位石上朝臣宅嗣四千屯. 正四位下伊福部女王一千屯. 爲買新羅交

는 교관용 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大宰府의 면이 지급되었음을 말한다. 이처럼 교관은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는 〈飯高嶋足買物解〉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L-7]

合壹拾肆種

鋺五疊	石香爐	鏡□□寸	□□□
麝香	蘇芳	呵梨勒	丁字香
帶二條	烟子	朱沙	銅黃
匙箸二具	雜香		

價直物　　絹壹拾參匹〈一匹白　十二匹赤〉　糸壹伯貳拾斤　綿壹伯□

拾斤

以前應買物色幷價直物等數申送如件以解

天平勝寶四年六月廿三日文奉飯高嶋□[54]

〈飯高嶋足買物解〉에는 "以前應買物色幷價直物等數申送如件以解"라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문서의 내용 중 품목을 적은 "天平勝寶四年六月廿三日文奉飯高嶋□"와 감정을 적은 "以六月廿四日勘定"의 부분의 필적이 다르다. 아마도 해당 문서가 관사에 제출된 바로 다음 날, 별도의 인물에 의해 감정이 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감정이 즉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당시 관사에 제출된 문서가 아주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매신라물해〉가 작성되던 시기의 무역 역시 한정된 신분 내에서,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외에도 고려해야할

關物也." 박남수는 神護景雲 2년 10월 甲子條에 내린 면이 70,000돈(17,500근)이고, 〈매신라물해〉에 보이는 면이 18,120~20,640근(72,480~82,560돈)이라고 계산하고, 神護景雲 2년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일본 조정의 지원 하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박남수, 2011 앞의 책, 185~219쪽).

54) 《大日本古文書》 〈尊經閣文庫藏影印〉 25, 〈飯高嶋足買物解〉.

부분은 문서를 제출한 곳이다. 이 문서는 상신문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수신처는 관사였다고 여겨진다. 《延喜式》 권30 大藏省 蕃客來朝조에 의하면[55] 번객이 일본에 와서 교관을 할 때는 객관에서 內藏寮와 함께 교관을 한다고 하였다. 객관에 대한 자세한 사료가 없으나, 〈매신라물해〉의 일자에 주목할 경우 筑紫의 鴻臚館이 아니라 難波館이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번객의 교관은 내장료에서 담당하였다고 여겨진다. 내장료의 職掌은 《養老令》 職員令에서 확인 가능하다.[56] 내장료는 "諸蕃貢獻奇瑋之物"이라 하여 여러 나라의 사신이 보냈던 進調物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57] 앞서 언급했다시피 〈매신라물해〉는 '解'라는 형식의 상신문서이다. 그런데 이들 문서에는 그 작성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매신라물해〉라는 문서의 성격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때, 《연희식》 권30 大藏省 蕃客來朝 조와 養老令 內藏寮 職員令의 규정을 참고하여 〈매신라물해〉를 대장성 혹은 내장료에 제출한 문서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58] 특히 문서의 하달이 같은 관사 내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內藏寮는 中務省의 被官官司로서 鳥下立女屛風을 제작한 곳이기도 한 內匠寮와 같은 관부에 소속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서에 작성 목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서가 내장료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매신라물해〉의 작성자는 각각의 家를 대표한 家令이었다. 가령은 원래 式部省의 소관이었다. 하지만 〈매신라물해〉는 굳이 동급의 관청 사이의 평행문서인 '移', '牒'이 아니라 '解'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

55) 《延喜式》 卷30 大藏省 蕃客來朝條, "凡蕃客來朝応交關者, 丞錄史生率藏部価長等赴客館, 与內藏寮共交關, 訖錄色目申官, 其価物. 東絁一百疋, 調綿一千屯, 錢卅貫文, 若有殘者同申返上."

56) 《養老令》 職員令 大藏卿, "掌出納, 諸國調及錢, 金·銀·珠·玉·銅·鐵·骨·角·齒·羽·毛·漆·帳幕, 權衡度量, 賣価估価, 諸方貢獻物. (下略)"

57) 《養老令》 職員令 內藏頭, "掌金·銀·珠·玉·寶器·綿·綾·雜綵·氈褥, 諸蕃貢獻奇瑋之物, 年料供進御服, 及別勅用物事."

58) 東野治之, 1997 앞의 책, 307~308쪽.

정창원문서 중 작성 목적[宛所]이 없는 형태로 발행된 '解' 문서는 가산기관 특히 불교 관계 문서가 많다.[59] 여기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가산기관과 내장료의 관계이다. 내장료에 물건을 수납한 것은 천황의 특별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60] 천황이 외교권을 독점하여 太政官조차도 입수하기 어려운 무역품을 내장료에 수납하고, 다시 이를 관료들에게 분배하면서 천황의 지배 이념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물건'을 통하여 권력의 재분배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위신재적 권력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한 점에서 內藏은 律令 체제 이전의 정치 형태를 어느 정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율령 체제 이전의 왕권 지배 구조 체제를 일정 부분 답습한 것이다. 그런데 천황이 외교권을 독점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신라와 일본의 관계 중에는 일본 중앙에서 장악하지 못한 씨족을 통한 다양한 외교 루트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매신라물해〉에서 볼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9] 〈매신라물해〉에 보이는 품목

香類	藥類[61]	顔料	染料	金屬類	기타	그 이외
麝香8	呵梨勒8	同黃9	蘇芳11	金4	鏡37	木槵子2
薰陸香9	人參4	烟子1	紫根1	金椀2	多羅8	松子2
丁香10	桂心6	朱沙10	茱芳1	金筯4	香爐6	熟布1
沈香8	太黃6	胡粉2	紫1	白銅水甁1	鋺27	靑胎1
藿香1	牛黃3	黃丹1	蘇方木1	白銅楊杖2	盤5	漆子1
零陵香2	畢拔4	雌黃4		白銅火爐1	匙14	牙量1

59) 宛所를 명기한 경우는 문서를 하달한 대상이 복수로 존재한 경우이며, 명기하지 않은 것은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율령의 규정에 보이는 '解'의 형식은 원래 직접 상하 관계에 있는 하급관사가 상급관사에 제출한 문서 형식이다. 그러나 실제 남아 있는 '解'의 형식 문서를 검토해보면 서로 관계가 없는 관사나 권문이 고서 혹은 하문으로 하달하고, '解'의 형식 문서로 답장하는 율령 규정 외의 예도 보인다(渡辺滋, 2014 《日本古代文書研究》, 東京: 思文閣出版, 346~354쪽).

60) 古尾谷知浩, 2006 〈內藏寮の出納體制〉 《律令國家と天皇家産機構》, 東京: 塙書房, 38쪽.

甘松香2	甘草4	白靑1		白銅五重椀2	箸5	□草1
龍腦香2	宍縱容2	烟紫1		白銅盤1	鉢3	□脂1
安息香2	臘蜜1	曾靑1		白銅酒壺1	水精念數1	□布1
衣香1	芒消1	金靑 1		白銅香爐2	誦數1	□骨1
薰衣香3	犀角1			□羅盤1	燭台1	□消1
薰香1	石腦5			迺羅五重銕3	黑作鞍具1	
裹衣香2	蜜汁1			鉾石香爐3	韉面1	
雜香2	蜜1			鐵精1	勒鞦1	
和香1	羊膏1			鐵靑1	梳3	
香油1	人心1				笊子2	
白檀1	口脂1				髮刺1	
鷄舌香1	石1				牙笏1	
鬱金香1	遠志1				如意1	
靑木香6					蠅拂1	
					氈3	
					屛風2	
					帶1	
					風爐1	
					壺2	
64	52	31	15	29	129	13
						333

〈매신라물해〉를 보면 신라로부터 매매된 품목의 다수는 향약류였다. 특히 여기에는 품명뿐 아니라 수량까지 적혀 있다. 아마도 문서가 작성되기 전에 일본 관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신라 사절의 물품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62] 일반적으로 고대 일본에서 향약은 사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입수되었다. 향약은 法隆寺獻納寶物에서 3점(沈香 1점, 白檀 2점)이 확인되며, 白檀 2점에는 刻印 및 燒印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法隆寺資財帳》에는 沈香이 총 884량 확인된다.[63] 이외에도 正倉院文書 東大寺獻物帳 〈種々藥帳〉(北倉 158)이 주목된다. 이 문서는 〈天平勝寶八歲六月二一日獻物帳〉이라고 칭해지는 것인데, 고급 종이에 〈國家珍寶帳〉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는 獻納된 약물

61) 藥類는 正倉院文書 〈東大寺獻物帳〉(北倉158) 〈種々藥帳〉에 기록이 있는 것을 편의상 藥類로 분석했다.
62) 김창석, 2013 앞의 책, 192쪽.
63) 東野治之, 1988 《正倉院》 岩波新書42, 東京: 岩波書店, 90쪽.

60여 종의 목록이 적혀있다. “奉盧舍那仏種々藥”이라는 구절을 시작으로, 약물의 명칭·수량·중량·용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願文이 기록된다.[64] 하지만 〈국가진보장〉과 달리 聖武天皇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종종약장〉과 〈매신라물해〉의 품목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약재가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종약장〉의 발원문을 살펴보면 이들 약재는 施藥院을 설치하고 병에 결린 사람들을 구제한 光明皇后의 헌납이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願文뿐만 아니라 位署書에서도 헌납과 관련된 내용이 전해진다. 고대 일본에서는 약물을 출납한 경우 기본적으로 현물로 반납해야 했다. 그러므로 출납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약물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대체품의 입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대체품의 반납은 특히 弘仁(810-824) 연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65] 그리고 〈曝涼帳〉인 〈弘仁二年九月二十五日勘物使解〉를 보면 영구 저장용의 ‘資財’가 아니라 ‘官物’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해당 시기에 향약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6] 즉 이 시기에는 향약류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용이해지면서 정창원 내에서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다음 4장에서 검토할 일본에 온 신라 상인이 사료상에 빈번하게 보이는 시기와 중복된다. 즉, 그 때까지 일본은 안정적으로 약물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정창원의 부족한 분량을 신라가 가져온 품목에서 구입하여 반납한 것이다. 아울러 정창원 약물의 출납과 반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天平勝寶 8歲(756)의 헌납 후에 작성되었다고 여겨지는 北倉 出納文書가 참고된다.

---

64) 願文의 내용은 “以前, 安置堂內, 供養盧舍那仏, 若有緣病苦可用者, 並知僧綱後, 聽充用. 伏願, 服此藥者, 萬病悉除, 千苦皆救, 諸善成就, 諸惡斷却, 自非業道, 長無夭折, 遂使命終之後, 往生花藏世界, 面奉盧舍那仏, 必欲證得遍法界位.”라고 되어 있다.

65) 이와 관련하여 〈雜物出入帳〉 (北倉172)을 보면, 弘仁 5년(815) 7월29일에 麝香을 반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6) 杉本一樹, 2008 《正倉院》, 東京: 中央公論新社, 82쪽.

[O-1]

桂心五百六十斤 并俗[67]
（中略）

天平勝寶八歲六月廿一日

[O-2]

施藥院請物

桂心壹伯斤　東大寺所收者

右件．爲用所盡．既

無院裏．今欲買用亦無

賣人．仍請如件．

天平寶字三年三月十九日

宣　　葛城戶主[68]

[O-3]

桂心壹伯斤小

右依 御製充施藥院付藥園司尾張大海

天平寶字三年三月廿五日主典阿刀連「酒主」

造寺司次官高麗朝臣「大山」

判官河內惠師「祖足」[69]

[O-4]

施藥院解 申請藥事

桂心小壹伯伍拾斤仮令十箇月料

右，件藥既盡，覓買亦无，因此，雜藥合作

67) 〈東大寺獻物帳〉（北倉158）〈種々藥帳〉中部
68) 〈沙金桂心請文〉（北倉168）〈桂心請文〉
69) 〈出入帳〉（北倉170）〈雙倉北雜物出用帳〉

既停, 望且請件藥欲作施, 今具狀, 謹請處
分, 謹解,
天平寶字八年七月廿五日內竪无位秦忌寸牛養

知院事外從五位下行大外記兼內藏助高丘連「比良麻呂」
(自署, 下同ジ)
知院事僧「慈瓊」
(比良麻呂筆) 大
蚊屋采女宣, 宜請東寺所收充用
之者,
廿七日
高丘比良麻呂 奉」
(以下異筆)
以同日, 依數下充 付秦牛養(하략)[70]

O-1은 〈東大寺獻物帳〉〈種々藥帳〉中部에 보이는 桂心의 수량이다. 이를 보면 처음 天平勝寶八歲(756)에 桂心이 560斤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창원의 獻物과 관리에 관한 문서는〈雜物出入継文〉(北倉167),〈沙金桂心請文〉(北倉168),〈出入帳〉(北倉170) 등이 있으며, 문서에는 약류의 이름도 보이는데 그 중 물품의 이동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東大寺獻物帳〉〈種々藥帳〉의 39번의 桂心이다.

O-2은 桂心을 출고하기 전에 시약원이 출고를 신청한 문서이다. 이에 의하면 시약원 원내에 桂心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판되는 물품을 찾았는데, 결국 입수하지 못하고 정창원에 출납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문서에는 墨書로 크게 '宣'자가 쓰여 있으므로 천황, 상황, 황태후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71] O-2〈桂心請

70)〈雜物出入継文〉(北倉167) 〈施藥院解 申請藥事〉
71) 米田雄介, 2018 《正倉院寶物と東大寺獻物帳》, 東京: 吉川弘文館, 60쪽.

文〉의 출고허가서가 나온 후 天平寶字 3년(759) 3월 25일에 桂心 100斤을 시약원에 출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바로 P-3이다. 해당 문서에 의하면 이미 100斤이 출고되었는데, 처음에 있었던 수량이 560斤임을 고려하면 天平寶字 3년(759) 桂心의 1/5이 출납된 것이다.[72]

이외에도 5년 후인 天平寶字 8년(764) 7월 25일에 작성된〈雜物出入継文〉(北倉176) 〈天平寶字八年七月廿五日施藥院解〉도 주목된다. 이 문서는 O-4에 해당하는데, 약재로 사용할 桂心이 모두 소모되어 조달할 수 없게 되자 雜藥의 合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東大寺에서 桂心 150斤을 구하려 한 '解' 문서이다. 27일조를 보면 東大寺의 창고에서 桂心 150斤을 출고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향약류는 국내에서 산출되는 품목이 아니기에 일본이 신라 혹은 당으로부터 구하고 싶었던 품목이었음이 분명하다. 즉, 당시 일본은 국가에서 사용할 약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고, 신라와 당으로부터 안정적으로 향약류를 구입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신라로부터 도착한 향약류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활용되었다.

향약과 창고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당시 일본 光明子의 가산 기관이었던 宮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皇后宮職은 中務省에 소속된 관사였다. 光明子의 皇后宮은 원래 부친의 邸宅이었다는 기사가 존재하며,[73] 藤原不比等가 사망한 후 食封·資人도 몰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正倉院文書 〈處處雜物出充帳〉에는 장고의 출납·수납에 관한 기술이 있다.[74] 즉 광명황후의 가산기관에는 창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매신라물해〉에는 향약류, 불교용품이 많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매신라물해〉와 皇后宮職의 관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창원 내에 전해지는 약재에 대해서는 몇 차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외국산으로 판정된 바 있다.[75] 약물의 산지는 〈매신라물해〉와 마찬가지로 동남아

72) 米田該典, 2015 《正倉院の香藥 材質調査から保存へ》, 東京: 思文閣出版. 29쪽.
73) 《續日本紀》 天平神護 2년(766) 10월 20일조.
74) 鷺森浩幸, 1996 〈藤原光明子家に關する一史料〉 《續日本紀研究》305, 1~5쪽.
75) 정창원에 전해지는 약물의 산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시아, 서아시아의 여러 국가였다.

결론적으로 〈매신라물해〉에서 볼 수 있는 품목을 통해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에서는 6, 7세기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불교 의례를 위한 향약류의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76] 당시 일본은 東大寺大佛開眼으로 알 수 있다시피 국가차원에서 불교 진흥을 추진한 시대였다. 그 중에서도 향약류는 誓願과 같은 의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품목이었다.[77] 일본에서 불상 앞에서 서원하는 행위는 天智 시기(688~672)부터 확인되는데, 중국의 경우는 육조시대 이전부터 확인된다. 아마도 서원의 과정에서 향약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교의 전래 과정과 함께 일본에 유입되었을 것이다.[78]

동아시아 각국의 향약 소비의 성행은 당에서 서아시아, 동아프리카를 잇는 무역권의 형성에 일조하였다. 당시 중국으로의 향약 유입은 대개 남해무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향약은 많지 않았으므로, 당시 일본은 향약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품에 의존해야 했다. 자연히 여기에는 중국이 확보한 南海産 향약이 다수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남해산 향약이 일본에까지 공급되는 데에는 〈매신라물해〉의 내용처럼 신라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이다.

1948년부터 49년의 조사[제1차 (약물) 조사], 1950년, 1951년의 보충조사가 있었다. 그 이후 1994년부터 1995년에 실시한 조사[제2차 (약물) 조사]가 있으며 관련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제1차 (약물) 조사에 대하여 朝比奈泰彦編修, 《正倉院藥物》 植物文獻刊行會, 제2차 (약물) 조사에 대하여 柴田承二監修, 2000 《圖說正倉院藥物》, 東京: 中央公論社를 참고하였다.

76) 《日本書紀》 卷29 天智天皇 10년(671) 10월 是月條, "是月, 天皇遣使奉袈裟, 金鉢, 象牙, 沈水香, 栴檀香. 及諸珍財於法興寺佛." 이 사료는 天智天皇가 이들을 獻上하기에 의하여 받았을 수 있는 病平癒를 원하는 목적이고 헌상품 중에 향료가 보이는 예이다.

77) 《日本書紀》 卷29 天智天皇 10년(671) 11월 丙辰條, "丙辰. 大友皇子在內裏西殿織佛像前. 左大臣蘇我赤兄臣, 右大臣中臣金連, 蘇我果安臣, 巨勢人臣, 紀大人臣侍焉. 大友皇子手執香鑪先起誓盟曰, 六人同心奉天皇詔. 若有違者, 必被天罰. 云々. 於是左大臣蘇我赤兄臣等手執香鑪, 隨次而起.…"

78) 永正美嘉, 2005 앞의 논문, 10쪽.

2. 惠恭王代 신라 대일본 사신의 성격과 특징

안사의 난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일본에서 등장한 신라토벌계획이다. 8세기 중엽의 신라정토계획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외교와 내정 중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에 따라 그 이해가 다르다.[79] 그러나 분명히 사료에서 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의 신라정토계획과는 다른 원인과 목적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생각된다. 후지와라나카마로[藤原仲麻呂]는 안사의 난 소식을 들은 후 당이 한반도에 군사적인 개입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발해와 일본이 밀접했던 것을 발판삼아 신라정토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료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는 먼저 759년 9월 오카치성[雄勝城]과 모노우성[桃生城]이 축조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같은 해 759년 6월에는 行軍式을 따르는 계획을 세우고, 9월에서는 3년 이내에 배 500석을 조선할 것을 결정하는 등 신라토벌계획을 구체화하였던 모습이 보인다. 759년은 일본이 군사적 과제로써 동북 경영과 신라토벌계획을 이행하였던 시기였다.[80] 결국 이 신라정토계획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경덕왕대 말기의 758년부터 763년, 신라와 일본 양국의 긴장은 극도에 달했다.

일본은 이 시기 토벌 준비뿐만 아니라 방어 시설 구축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다. 756년 6월에는 기비마키비[吉備眞備]의 주도 아래 이토성[怡土城]이 축조된다. 怡土城은 일반적으로 신라정토계획의 입안에 따라 福岡縣 이토시마시[糸島市]에 756년부터 768년의 기간에 걸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료상에서 怡土城의 축성을 담당했다고 하는 吉備眞備와 사에키노이마에미시[佐伯今毛人]들이 肥前守에 임명되었던 배경에

79) 河內春人, 1995 〈東アジアにおける安史の亂の影響と新羅征討計畫〉 《日本歷史》 561; 趙二玉, 2015 〈신라 경덕왕대 국내외정세에서 본 일본의 '신라정토계획'〉 《신라문화》42.

80) 仁藤敦史, 2021 《藤原仲麻呂-古代王權を動かした異能の政治家》 , 東京: 中央公論新社, 198쪽.

는 일본과 신라의 관계 악화에 수반하는 肥前 지방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지적된 바가 있다.[81]

또한 경덕왕 대와 혜공왕 대 다른 신라의 일본 사신파견과 비교하였을 때, 규모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752년의 사신파견을 주목한 연구가 많다. 그 시기 입경 못하고 放還된 신라 사신이 많았는데, 이 때의 신라는 한화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라가 일본보다 당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하였다고 본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그러나 752년 이후 경덕왕대 말기에 이르러 사신은 입경을 하지 못하고 放還되었음에도, 신라는 지속적으로 대일본 사신을 파견하고 있었다. 다음은 752년의 신라 대일 사신의 파견 이후에 파견된 경덕왕대 말기의 放還 조치를 받았던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 경덕왕대 말기 신라의 대일 사신

신라연호	일본연호	입경여부	내용
景德王19 (760)	天平宝字4	放還	級飡 金貞卷 들(인원 불명)이 왔음. 사신이“輕微“이므로 ”빈례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방환조치.
景德王22 (763)	天平宝字7	放還	級飡 金體言 들이 211인이 왔음. 760년에 金貞卷에 전달한 사신의 조건 4개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방환조치.
景德王23 (764)	天平宝字8	放還	大奈麻金才伯들이 91인 왔으며 執事省牒로 입당승려 戒融가 일본에 귀국하였는지 소식을 묻는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太政官牒로 戒融의 발해 경유 귀국를 보고함.

즉, 경덕왕 대와 혜공왕 대 신라의 대일본 사신에 대해 일본에서는 放還라는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만, 파견한 신라의 입장에서는 경덕왕대와

81) 向井一雄, 2017 《よみがえる古代山城　國際戰爭と防衛ライン》 歷史文化ライブラリー440, 東京: 吉川弘文館; 瓜生秀文, 2018 〈怡土城に關する諸問題　ー怡土城築城担当者と‘肥前守’についてー〉 大宰府史跡發掘50周年記念論文集刊行會, 《大宰府の研究》 , 東京: 高志書院.

혜공왕대의 국내 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사신이 파견된 정세도 똑같지 않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먼저 혜공왕대(765~780) 국내 상황과 함께, 신라의 대당관계를 검토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혜공왕대 신라의 대일본 사신에 대해 살펴보겠다.

1) 惠恭王代 신라의 국내 상황과 대당관계

그렇다면 신라 혜공왕대는 어떠한 시기였을까. 《삼국사기》에 의하면 혜공왕은 8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처음에는 태후 만월부인의[82] 섭정을 받았다고 전한다.[83] 그런데 섭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성덕대왕종명〉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된다.[84] 해당 명문에서는 혜공왕의 탄생과 즉위를 상서로 수식한 뒤에, 太后의 은혜를 칭송하는 한편, 섭정에 대해서는 '元舅之賢'과 '忠臣之輔'를 언급하였다.[85] 元舅는 만월부인의 형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사료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조의 책임자였던 김옹이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성덕대왕종명〉에 의하면 김옹은 당시 7개 관사의 장관을 겸임했고, 上相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86] 《속일본기》 권32 宝龜 5년(774) 3월조 기사에 전하는 문답

82) 滿月夫人의 정치적인 성격에 관한 연구로는 金壽泰, 2011 〈신라 혜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 《新羅史學報》22 ; 이현주, 2017a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 -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硏究》85를 참조할 수 있다.

83)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惠恭王원년 夏6월조 "惠恭王立. 諱乾運, 景德王之嫡子. 母金氏滿月夫人, 舒弗邯義忠之女. 王卽位時年八歲, 大后攝政."

84) 聖德大王鐘銘에 대해서는 南東信, 1992 〈聖德大王鐘銘〉 韓國古代社會硏究所編,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소; 濱田耕策, 2012 〈聖德大王神鐘と中代の王室〉, 앞의 책 ; 濱田耕策, 2013 〈日本現代語譯 《新羅聖德大王神鐘之銘》〉 《朝鮮古代史料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 이현주, 2017b 〈신라 중대 만월태후의 자기인식과 '성덕대왕신종'〉 《여성과역사》27를 참조했다.

85) 《三國遺事》卷2 紀異, 惠恭王條.

86) 鈴木靖民, 1967 〈金順貞·金邕論－新羅政治史の一考察－〉 《朝鮮學報》45, 190쪽. 그 이후에도 鈴木靖民의 견해를 계승하여 金順貞과 金邕은 祖孫 관계라고 이해한 연구가 존재한다(朴海鉉, 2003 앞의 책, 124쪽; 이영호, 2014 앞의 책, 93쪽). 그러나 鈴木은 金邕을 혜공왕의 외삼촌이 아닌, 경덕왕의 계보에 연결된 사람으로 파악하였다.

중에는 金三玄이 金順貞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今其孫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87] 즉 김옹은 김순정의 손자로서, 김순정의 정치적 기반을 계승한 인물인 것이다.[88]

이렇게 볼 경우 김옹은 혜공왕의 元舅이며, 만월부인의 형제이자, 김의충의 아들이라 이해할 수 있다. 물론 “今其孫邕”의 孫을 子孫의 의미로 이해하고, 김순정과 김옹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89] 김순정은 경덕왕 대에 대일외교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인물이고, 성덕왕 대의 권력자였다.[90] 아울러 만월부인은 김순정의 아들인 김의충의 딸인데, 김의충은 성덕왕 대 대당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 알려져 있다. 혹자는 이러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김옹을 중대 왕실과 가까운 인물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김옹의 혈연관계와 그 계보의 복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91] 그럼에도 혜공왕 대 김옹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데에는 이론은 없다.

혜공왕 대에는 즉위 4년(768) 大恭의 난을 비롯하여 반란이 빈번한 시기였다. 이를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혜공왕 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0]와 같다.

---

87) 《續日本紀》 卷32 寶龜 5년(774)3월조 “對曰. 本國上宰金順貞之時. 舟楫相尋. 常脩職貢. 今其孫邕. 繼位執政.”

88) 최홍조, 2004 〈신라 애장왕대의 정치변동과 김언승〉 《韓國古代史硏究》34, 335~337쪽.

89) 李昊榮, 1975 〈聖王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가지 문제〉 《考古美術》125, 13쪽,

90) 박남수, 2012 〈신라 성덕왕대 상제 김순정과 대일교섭〉 《新羅史學報》25.

91) 金順貞와 金邕이 경덕왕의 왕비의 가문이고 그들을 外戚으로 보는 대표적인 견해는 朴海鉉, 2003《新羅中代政治史硏究》, 國學資料院, 122~123쪽 ; 이영호 2014 앞의 책, 80~81쪽 등이다. 그러나 신라의 왕실은 族內婚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외척 관계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보는 것에는 유의가 필요하며, 사료상의 한계로 양자의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전덕재, 2007 〈신라중대〉 《한국고대사연구의 새동향》서경문화사, 142쪽).

[표 11] 惠恭王代에 일어난 亂

연대	명칭	사료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혜공왕조)
4년(768)7월[92]	大恭의 亂	秋七月,一吉飡大恭與弟阿飡大廉叛. 集衆圍王宮三十三日, 王軍討平之, 誅九族.
6년(770)8월	金融의 亂	秋八月,大阿飡金融叛, 伏誅.
11년(775)6월	金隱居의 亂	伊飡金隱居叛,伏誅.
11년(775)8월	廉相·正門의 謀叛	秋八月, 伊飡廉相與侍中正門謀叛,伏誅.
16년(780)2월	金志貞의 亂	伊飡志貞叛,聚衆圍犯宮闕.
16년(780)4월	良相·敬信의 擧兵	夏四月, 上大等金良相與伊飡敬信擧兵,誅志貞等, 王與后妃,爲亂兵所害.良相等謚王爲惠恭. 王元妃新寶王后, 伊飡維誠之女. 次妃伊飡金璋之女. 史失入宮歲月.

우선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사료에 의하면 혜공왕 4년(768) 7월 大恭과 그의 형제인 대렴이 반란을 일으켰고, 즉위 6년(770) 8월에는 金融이 난을 일으켰다. 11년(775)에는 두 번의 난이 일어났는데, 6월에는 金隱居가, 8월에는 廉相과 正門이 그것을 주도했다. 특히 16년(780) 2월 金志貞의 반란과 그에 대한 4월 良相·敬信의 거병 중에는 혜공왕 자신과 왕비가 살해되었다. 이처럼 혜공왕 대에는 상대적으로 내란이 빈번했다. 특히 대공의 난에 대하여 《삼국유사》 권2 기이 혜공왕 조에서는 "대공 각간의 집안이 망하였고, 그의 재산과 보물·비단 등은 왕궁으로 옮겼다. 新城의 長倉이 불에 타므로 沙梁·牟梁 등의 마을 안에 있던 역당들의 재물과 곡식들을 역시 왕궁으로 운반해 들였다. 난리는 석 달 만에 그쳤는데, 상 받은 사람도 자못 많고 목 베어 죽은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았다"라는 서술이 있어, 난의 규모가 광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공의 난이 신라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하다. 〈聖德大王鐘

92) 《三國遺事》 卷2 紀異 惠恭王條에서는 "惠恭王二年丁未"라고 되어 있다.

銘〉의 주조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93] 즉 정치·사회적 병폐를 물리치고 국가를 鎭護한다는 의미에서 주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종명의 말미에는 "大曆六年歲次辛亥十二月十四日"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바, [94] 대력 6년은 771년으로 김융의 난이 일어난 바로 이듬해였다. 더구나 이를 전후로 한 시기는 《삼국사기》 혜공왕 조에서 재이·괴이 관련기사가 빈발하고 있었던 시기이다.[95]

다음으로 혜공왕대 신라의 대외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안사의 난 이후 당과 신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안사의 난이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그 여파가 동아시아 諸國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였다. 신라의 경우 안사의 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당의 대서방(吐蕃) 정책과 동방(藩鎭) 정책이었는데 실제로 당은 안사의 난 발발 이후 동에서 서, 서에서 동의 방면으로 군사 대응을 한 바 있다.[96] 토번은 靈州 · 邠州 등 당나라 서북방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였는데, 이에 代宗은 大曆 2년(767)에 토번과 회맹하였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97]. 다만 대력회맹의 결과는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大曆 2년(767) 9월 토번이 영주를 포위하였고,[98] 다음 해에는 다시 영주 및 빈주,[99] 大曆 8년(773)에는 다시 영주,[100] 大曆 10년(775)에는 隴州를

93) 朴海鉉, 2003 앞의 책, 160~161쪽.
94) 《三國遺事》 卷3 皇龍寺鐘·芳皇寺藥師, 奉德寺鐘에는 "大曆庚戌十二月"이라고 되어있다.
95)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惠恭王 5년 3월조 ; 같은 해 5월조 ; 惠恭王 6년(770) 正月조.
96) 菅沼愛語, 2013 앞의 책, 274~279쪽.
97) 《冊府元龜》 卷81 外臣部盟誓, 大曆 2년(767) 4월조; 《資治通監》 卷24 大曆2년(767) 4월조.
98) 《舊唐書》 卷20 大曆 2년(767) 9월조 "甲寅, 吐蕃寇靈州, 進寇邠州."
99) 《舊唐書》 卷20 大曆 3년768) 8월조 "丁卯, 吐蕃寇邠州, 京師戒嚴. 戊辰, 邠寧節度使馬璘破吐蕃二萬於邠州."; 大曆 3년(768) 9월조 "壬午, 吐蕃寇靈州."
100) 《新唐書》 卷10 大曆 8년(773) 8월조 "八月己未, 吐蕃寇靈州, 郭子儀敗之于七級渠."

습격하였기 때문이다.[101] 더구나 양국은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서로 파견한 사신을 억류하기도 했다.[102]

이처럼 안사의 난 직후 당은 서방 정책에 집중하였다. 토번의 움직임은 그치지 않고 계속 이루어졌다. 따라서 會盟의 교섭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여겨진다. 즉, 당은 그 당시 토번에 대한 군사적 상황 등, 서방 지역에 의식이 집중되고 있었다.

한편 안사의 난 이후 당의 군사 대응이 동에서 서, 서에서 동의 방면으로 변화하였다는 측면에서 동의 당 河朔三鎭에 대한 대책이 주목된다. 河朔三鎭은 魏博節度使 田承嗣, 盧龍節度使 李懷仙, 成德節度使 李寶臣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들은 강북에서 반독립 상태로 존재하였으니 反則藩鎭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번진은 順地藩鎭과 反則藩鎭으로 구분되는데 그 지표는 독립성의 여부이다.[103] 順地와 反則이라는 藩鎭의 성격 차이는 신라·발해가 藩鎭과 교섭하는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104] 大曆 10년(775) 田承嗣와 李寶臣이 대립하자 대종은 하삭삼진의 세력 삭감을 꾀하고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당의 무력함을 국내외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당은 이후 주변 국가와의 외교정책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는 대외정책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국내 사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혜공왕 후반대의 대외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신라는 혜공왕 13년(777) 12월을 마지막으로 말년(780)까지 당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105] 혜공왕 재위 초년에는 안사의 난 도중임에도 불

101) 《舊唐書》 卷20 大曆 10년(775) 9월조 "癸丑, 吐蕃寇隴州, 鳳翔李抱玉擊退之."; 《新唐書》 吐蕃傳; 《資治通監》 卷5 大曆 10년(775) 9월조.

102) 《資治通監》 卷26, 大曆 14년(779) 8월조에 의하면 代宗은 토번의 사신 전원을 구속하였다. 토번 역시 당의 사신 吳損을 억류하였다(《資治通監》 卷24, 大曆 6년(771) 4월조; 《資治通監》 卷25, 大曆 9년(774) 2월조).

103) 辻正博, 1987 〈唐朝の對藩鎭政策について: 河南〈順地〉化のプロセス〉 《東洋史研究》46-2. 그리고 河朔三鎭에 대한 논고로 谷川道雄, 1978 〈河朔三鎭における節度使權力の性格〉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74를 참고할 수 있다.

104) 小宮秀陵, 2014 앞의 논문, 35쪽.

105) 《冊府元龜》 卷72, 外臣部 朝貢5; 舊唐書 卷99, 列傳 東夷 新羅傳.

구하고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일본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혜공왕 대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재위 5년(769), 10년(774), 15년(779) 세 번이지만, 마지막에 파견된 사신은 그 이전의 사신과 성격을 달리한다. 이 사신은 억류되어 있었던 일본의 견당사를 호송할 목적으로 신라가 일본에 파견한 사신이기 때문이다.[106] 이 시기는 신라에 재이가 만연한 시기였던 만큼 국내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2) 혜공왕 5년·神護景雲 3년(769)의 신라 대일본 사신

신라는 경덕왕 19년(760)부터 혜공왕 10년(774)까지 일본에 다섯 번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일본의 朝廷은 사신을 모두 '放還' 하였다. 이에 대서는 일본이 요구한 賓禮 형식을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 사신이 방환되었다고 보면서 경덕왕과 혜공왕 대의 대일 사신 파견을 동일시하여 검토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107] 그러나 경덕왕 대와 혜공왕 대에는 국내의 권력구조와 사회상황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에 '방환'이라는 성격만 중시하여 대일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신라 정치사 입장을 포함한 연구에서도 혜공왕 15년·宝龜 10년(779) 사신이 마지막 공식 사신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사신 파견의 斷絶 혹은 중단이라는 의의를 설명할 뿐이다.[108] 즉, 이러한 연구들은 신라의 국내 정치 동향과 대외정책의 연동이라는 관점으로 고찰하지 않았다. 특히 혜공왕 대의 경우 같은 放還의 조치를 받았던 사신이라도 파견 주체인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변동한 정세에 대응하여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先例에 따른 파견이라기보다는 다른 성격이나 의도를

106) 《續日本紀》 卷5, 寶龜 10년(779) 2월 甲申조.
107) 河內春人, 2000 〈新羅使迎接の歷史的展開〉 《ヒストリア》170, 大阪歷史學會, 5~14쪽.
108) 酒寄雅志, 1984 〈日羅交涉終焉をめぐる事情〉 《朝鮮史硏究會會報》74, 朝鮮史硏究會; 濱田耕策, 2012 앞의 책.

가지고 파견되었던 사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혜공왕 대에 파견된 세 번의 신라의 대일본 사신의 성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혜공왕대 처음 보이는 신라사인 혜공왕 5년·神護景雲 3년(769)의 신라사의 실태이다. 사신단은 大使인 級飡 金初正을 비롯한 187인과 導送者 39인 등 총 226인이다.[109] 導送者라는 말은 신라 관계 사료에서 처음 보이는 표현으로 구체적인 성격 혹은 역할을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大使 등 187인과 구분하여 기술되어 있으며 39인이라는 규모인 점을 참고하여 新羅船의 航行과 수리 등을 담당한 水手 혹은 船工이라고 추측하는 견해나,[110] 사신단을 따라가서 무역에 從事한 민간인 수행집단이라는 견해 등이 제시한 바가 있는데[111] 사료상으로 그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112] 또한 주목할 점은 신라의 金隱居가 在唐大使 藤原清河과 學生 阿部仲麻呂로부터 寄託받은 문서를 지참한 것과 같이 최신의 당국 소식을 전달한 점이다. 神護景雲 3년(769) 12월 癸丑(19일) 조에 의하면 大宰府에서 來日한 이유를 묻고 있으며[113] 신라대사인 金初正은 “唐에 있는 大使 藤原河清과[114] 學生 朝衡 등이 宿衛王子 金隱居가 본국(신라)으로 돌아오는 편에 고향으로 보내는 서신을 부쳤으므로 국왕의 명으로 初正 등을 뽑아 河清 등의 서신을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같이 土毛를 헌상한다”고 답하였다.[115] 서신을 寄託받은 김은거는 사료에 “宿衛王子

109) 《續日本紀》 卷30 神護景雲 3년(769) 11월 丙子(12일)조 “新羅使級飡金初正等一百八十七人. 及導送者卅九人. 到着對馬嶋.”

110) 濱田耕策, 2012 앞의 책, 378쪽.

111) 田村圓澄, 1990 《大宰府探究》, 東京: 吉川弘文館.

112) 신라가 무역에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 허가받은 상인을 사신단에 포함하였다는 견해도 있다(김선숙, 2007 〈新羅惠恭王代(765~780)의 國內情勢와 對日外交〉 《精神文化硏究》 30 4, 17~18쪽). 이때의 사신단의 규모는 200명 정도로 적지 않았다. 이 견해대로 신라의 사신은 752년 이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신라의 무역 의도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료상에서 자세한 내용이 보이지 않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13) 《續日本紀》 卷30 神護景雲 3년(769) 12월 癸丑(19일)조 “癸丑.遣員外右中弁從四位下大伴宿祢伯麻呂.攝津大進外從五位下津連眞麻呂等於大宰. 問新羅使入朝之由.”

114) 사료에 의하면 “大使 藤原河清“이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在唐大使 藤原清河를 가리키는 것이다.

金隱居”라고 되어 있다. 宿衛王子는 주변 나라에서 당나라로 파견되어 황제 근처에서 임무를 맡았던 왕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라 宿衛王子는 734년의 金志廉 이후는 806년의 金獻忠까지 보이지 않는데, 그 사이에도 宿衛한 신라 귀족들은 金巖을 비롯하여 다수 확인할 수 있다.[116] 그러면 사료에 보이는 김은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삼국사기》에 의하면 김은거는 혜공왕 4년(768)에 冊封使 歸崇敬 등을 안내하고 신라에 귀국한 후 같은 해 10월에 侍中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그런데 2년 후인 혜공왕 6년(770)에서는 侍中을 그만두고[117] 혜공왕 11년(775)에 난을 일으켰다가 失脚했다. 김은거 자신이 당나라에 건너갔던 것을 생각하면 당나라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김은거가 侍中으로 재임하던 시기(768~770)에 신라사를 파견하였으니, 바로 혜공왕대에 들어 처음으로 파견한 혜공왕 5년·神護景雲 3년(769)의 사신이다. 외교정책의 결정과 上大等 혹은 侍中 등의 관련성을 들며 혜공왕 5년에 당시 上宰였던 김옹이 주도하여 신라사를 파견했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118]

하지만 이 신라사가 단순히 신라로부터 일본에 파견되었던 신라사가 아니라 김은거에게 寄託되었던 문서를 전송한 사자라는 다른 역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119] 김옹 개인의 주도로 파견되었던 사신이라는 이해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김은거가 寄託받은 문서의 전송에 관하여 책봉을 요청하려고 입당한 김은거 등이 귀국할 때에 寄託되었던

115) 《續日本紀》 卷30 寶龜 원년(770) 3월 丁卯(4일)조 “丁卯.初問新羅使來由之日. 金初正等言. 在唐大使藤原河清. 學生朝衡等. 屬宿衛王子金隱居歸鄉. 附書送於鄉親. 是以. 國王差初正等. 令送河清等書. 又因使次. 便貢土毛.”

116) 申瀅植, 1981 《三國史記硏究》, 一潮閣, 278~282쪽.

117)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惠恭王 6년(770) 冬12월조 “十二月侍中隱居退,伊湌正門爲侍中.”

118) 平澤加奈子, 2006 〈八世紀後半の日羅關係 -寶龜10年新羅使を中心に-〉 《白山史學》42, 東洋大學白山史學會, 51쪽.

119) 사신을 통해 문서를 일본에 전달한 예로는 759년에 藤原清河가 발해의 관인에게 맡겼던 사례에 확인할 수 있다(《續日本紀》 卷22 天平宝字 3년 10월 辛亥조, 4년 正月 丁卯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조의 冊封使들의 중개도 상정할 수 있다.[120] 이에 관하여 《文苑英華》 권297 錢起에 보이는 〈送陸珽待御使新羅〉, 〈重送陸侍御使日本〉의 詩에 의하면 錢起는 副使 陸珽에게 送別詩를 보내기도 하였고, 또한 책봉사 歸崇敬과 함께 이미 장안을 출발할 때에 신라로 건너간 이후 일본에도 갈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문서의 전송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121] 이러한 점을 중시한다면 혜공왕 5년의 신라사 파견에는 당이라는 존재가 그 배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혜공왕 즉위 5년 후인 769년에 신라가 사신을 파견한 점에 대하여 국내의 상황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본고는 혜공왕 4년(768) 7월 大恭의 亂 다음 해에 파견되었던 사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769년은 768년에 일어난 대공의 난이 진압된 이후이며 金融의 난(770)이 일어나기 이전이라고 해도 국내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대공의 난 勃發에 따른 대규모 국내의 혼란 상황을 계기로 혜공왕 5년에 薦擧가 시행되었다는 지적을 참고할 수 있다.[122] 《삼국사기》 혜공왕 5년 5월에 보이는 薦擧者는 百官이지만, 사료상에 보이는 百官은 官의 집단을 가리키고 推薦者는 일정의 官等 이상의 인사 담당 관청의 官員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123] 薦擧는 혜공왕 5년 이외에 고구려 본기나 신라의 이사금·마립간 시기에도 확인되지만,[124] 통일 이후 사료에 보이는 薦擧는 혜공왕 5년뿐이고, 또한 관료가 개별적으로 국왕에 薦擧한 사례는 있지만, 국왕의 명령으로 薦擧가 실행된 것은 혜공왕 5년 5월조가 유일하다.[125] 또한 고려

120) 濱田耕策, 2012 앞의 책, 381쪽.
121) 錢起는 新羅에 남아 일본에 가지 않았으므로, 신라왕이 金初正에게 명하여 일본에 전달하였다고 본다(濱田耕策, 2012 앞의 책, 382~383쪽).
122)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惠恭王 5년(769) 5월조 "夏五月 (中略) 命百官各擧所知."
123) 이기봉, 2018 〈신라 혜공왕대의 薦擧와 災異〉 《新羅文化》51, 154쪽.
124) 《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 太祖王 66년조; 卷16 高句麗本紀 故國川王 13년조; 卷17 高句麗本紀 西川王 11년조; 卷17 高句麗本紀 烽上王5년조; 卷1 新羅本紀 逸聖尼師今 14년조; 卷3 新羅本紀 炤知麻立干 19년조.
125) 이기봉, 2018 앞의 논문, 155쪽.

해야 하는 것은 《삼국사기》 혜공왕대에 보이는 災異·怪異 기사인데 이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다음 [표 11]이다.

[표 12] 惠恭王代 초기의 《三國史記》 災異·怪異 기사

년	월	《三國史記》의 사료 내용
2년(766)	春정월	두 개의 해가 함께 솟았기에 크게 사면함.
	2월	암소가 다리가 다섯인 송아지를 낳았음. 땅이 꺼져 못이 되었고 물빛은 검푸른색.
	冬10월	하늘에서 소리가 났음.
3년(767)	夏6월	王都 地震함
	秋7월	별 세 개가 왕궁 뜰에 떨어져 서로 맞부딪쳤는데, 그 빛이 불꽃처럼 솟았다가 흩어졌음.
	9월	金浦縣의 벼이삭이 모두 쌀로 변함.
4년(768)	春	혜성이 동북쪽에 나타났음
	6월	서울에서 천둥이 치고 우박이 떨어져, 풀과 나무를 해쳤음.큰 별이 황룡사 남쪽에 떨어졌는데, 땅이 울리는 소리가 천둥소리와 같음. 샘과 우물이 모두 말랐고, 호랑이가 궁궐에 들어왔음.
5년(769)	夏5월	누리의 재해가 있고 가뭄이 들었음.
	冬11월	雉岳縣에서 쥐 80여 마리가 平壤을 향해 갔음. 눈이 안 내렸음.

[표 11]에 보이듯이 혜공왕대에는 재이 관계 기사가 頻出하였다. 따라서 혜공왕 5년 때는 신라 국내의 불안정한 사회 정세에 의하여 국내에서 薦擧를 비롯한 정치 개혁이 시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적극적인 정치정책을 내세웠던 혜공왕 5년은, 앞서 언급했듯이 신라가 당나라의 의지를 반영하여 일본에 신라사를 파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또 일본의 대신라 사신 등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라가 당나라라는 존재를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이 외교 방침의 하나였고, 혜공왕 5년의 신라사 파견은 혼란기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은 신라에서 사용한 '土毛'라는 표현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라는 '토모'가 아니라 '調'를 헌상해야 한다."[126] 라고 말하고 이번에 신라사가 '조'가 아니라 '토모'라고 개칭한 의도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신라는 "이전에는 서간을 傳送한 사신에 부여하고 헌상한 産物이라고 '조'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토모'이고 '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 이 사신은 752년 이래 오랜만에 賜物을 받았던 신라사이고, 일본의 신라에 대한 賜物受給이라는 대응은 그 전에 방환되었던 세 번의 신라사(760년, 763년, 764년)에는 없었으므로, 같은 방환이라고 해도 이전의 신라사와는 크게 다르다. 일본은 그때 신라사에 대하여 來朝한 사신단뿐만 아니라 신라 국왕에게도 絁를 지급한 것이다. 즉, 입경 여부라는 관점으로 보면 '방환'으로 일본의 대응은 이전과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방환되었던 신라사와는 차이가 보이는 대응이다.

결국 일본은 天平寶字 4년(760)에 金貞巻에게 전달한 사신의 네 개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하여 방환 조치를 한다. 하지만, 이때 신라사가 大宰府에 安置되어 饗應을 받았으며[127] 즉시 방환 조치 되지 않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사신의 네 개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饗을 하고 安置하지 않으며 방환한다. 이때는 大宰府에 安置되었으니 사신이 얼마 동안 太宰府에 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神護景雲 2년(768) 10월 기사에 의하면 大宰府에 신라 교관용의 綿이 지급되었다.[128] 이 신라사는 입경하지 않지만, 大宰府에서 饗을 받기 위해 체류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일본은 신라 교관용의 綿을 사용하고 大宰府에서 交關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신라와 일본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賓禮 중 무역의 실행 여부이다. 요컨대 752년의 신라사는 입경 기간 즉, 빈례 형식의 무역을 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6) 《續日本紀》 卷30, 寶龜 원년(770) 3월 丁卯(4日)조 "又問. 新羅貢調. 其來久矣. 改稱土毛. 其義安在. 對言. 便以附貢. 故不稱調."

127) 《續日本紀》 卷30 寶龜 원년(770) 3월 丁卯(4일)조 "但進唐國消息. 幷在唐我使藤原朝臣河淸等書. 嘉其勤勞. 仰大宰府安置饗賜. 宜知之. 賜國王祿絁廿五疋. 絲一百絇, 綿二百五十屯. 大使金初正已下各有差."

128) 《續日本紀》 卷29 神護景雲 2년(768) 10월 甲子조.

大宰府에서 교관을 실행하였을 경우, 입경하지 않고 빈례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752년의 무역 양상과 큰 차이가 있다. 이 경우는 일본에서 신라가 가져온 물품을 현실적으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교관을 실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신라사는 신라와 일본 간의 관계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신이다. 신라가 당나라를 배경에 두고 파견한 사신이라고 생각한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라사 파견 직전에 일본의 견당사, 일본의 대신라 사신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혜공왕 5년·神護景雲 3년(769)의 신라사는 일본의 주체적인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고 파견한 사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당나라의 관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첫째로 書簡을 傳送하고 '唐國消息'을 전달하기 위한 사신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태도를 누그러뜨려 大宰府로부터 饗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129] 그때 일본은 서간 전송뿐만 아니라 동시에 唐國消息도 받았기 때문에 신라사를 통하여 당나라의 최신 정보를 받은 루트는 일본 입장에서 정보 수집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였다.

이러한 당나라와 일본의 외교를 仲介한 신라의 국제적인 역할은 '大國自認'이나,[130] 당나라에의 '外臣의 禮'에 의거함이라는 견해도 있지만,[131] 무엇보다 안사의 난을 계기로 하여 신라사에게 이러한 성격 변화가 보이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신라는 안사의 난에 대하여 발해와 달리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으로 대응했다.[132] 신라는 안사의 난 직후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지만, 안사의 난 기간에도 계속 사신을 파견하며 玄宗이 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成都로 조공의 사신을 파견했다.[133] 또한 그때까지

---

129) 濱田耕策, 2012 앞의 책, 380쪽.
130) 山崎雅稔, 2007 〈新羅國執事省牒からみた紀三津《失使旨》事件〉 木村茂光 編, 《日本中世の權力と地域社會》, 東京: 吉川弘文館.
131) 濱田耕策, 2012 앞의 책.
132) 菅沼愛語, 2013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唐·吐蕃·突厥の外交關係を中心に—》, 廣島: 溪水社, 249쪽.
133)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景德王 15년(756) 夏4월조.

일본은 발해 루트를 통하여 당나라의 정보를 받았다.[134] 이러한 발해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 天平寶字 2년(758)의 견발해사 小野田守의 파견을 중시하면서 신라정토를 위하여 일본이 발해와 연대를 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135] 이는 신라토벌 계획 시기에 발해와 일본의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지면서 긴박해진 신라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혜공왕 5년·神護景雲 3년의 신라사 단계에서는 신라가 일본에 당나라의 정보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정보 전달 루트가 발해 루트부터 신라 루트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天平宝字 6년(762)에 來日한 발해사 王新福 등으로부터 안사의 난의 영향 때문에 당나라와 발해 간의 교통이 쉽지 않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해당 시기에도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일본은 발해를 경유한 전보 수집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신라사는 일본에 파견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소유한 신라사가 來日했다는 수동적인 정보 수집이며 더욱이 일본의 대신라 사신을 파견한 시기와 다르다.[136] 즉, 견발해사의 파견 후에 발해사의 來日이라는 일본의 사신 파견에 대응하여 來日한 신라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혜공왕 10년의 신라사와 같이 고찰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혜공왕 5년·神護景雲 3년(769)의 신라사는 신라 쪽의 적극적인 외교교섭의 일면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

134) 일본이 발해를 통하여 당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안사의 난이다. 안사의 난에 대한 정보는 일본의 대발해 사신 小野田守가 귀국하면서 처음으로 가져왔다(《續日本紀》 卷21, 天平宝字 2년(758) 12월 戊申조). 또한 759년에 藤原清河는 발해의 관인에게 문서를 맡기기도 하였다(《續日本紀》 卷22, 天平寶字 3년 10월 辛亥조 ; 同 4년 正月 丁卯조). 이때는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문서 전달 경로도 기본적으로는 신라가 아니라 발해를 경유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135) 石井正敏, 2001 〈初期日本ㆍ渤海交涉における一問題〉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 酒寄雅志, 2001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渤海との關係を中心として-〉 《渤海と古代の日本》, 東京: 校倉書房 ; 河内春人, 1995 〈東アジアにおける安史の亂の影響と新羅征討計畫〉 《日本歷史》 561.

136) 浜田久美子, 2015 앞의 논문.

3) 惠恭王 10년·宝龜 5년(774)의 신라 대일본 사신

다음은 혜공왕 10년·宝龜 5년(774)의 신라사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사신의 新羅大使 金三玄은 禮府 次官인 第八位 沙飡이며 다른 신라사보다 비교적 높은 관직이다. 그리고 사신단도 235인으로 이전과 같은 규모이다.[137] 大宰府에서 來日의 목적을 묻자 金三玄은 “우리나라 王의 敎를 받들어 옛날의 우호를 닦고 서로의 사신 방문을 청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信物과 在唐大使 藤原河淸의 글을 가지고 來朝하였다.”[138]라고 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대저 옛날의 우호를 닦고 서로의 사신 방문을 청하는 일은 대등한 이웃이어야만 하며 職貢을 바치는 나라로서는 옳지 않다. 또한 ‘貢調’를 ‘國信’이라고 고쳐 칭한 것도 옛것을 바꾸고 常例를 고친 것이니 그 뜻이 무엇인가″의 뜻을 담아 답하였다.[139] 또 金三玄은 “본래 調를 바치는 사신이 아닌데, 본국에서 문득 임시로 파견되어 오로지 土毛를 올리게 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御調라 칭하지 않고 감히 편의대로 진술한 것이며, 나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며 신라의 외교 자세를 전달하였다.[140]

그러면 신라의 입장에서 이번 사신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번에 신라사는 종래보다 관위가 높은 禮府 次官 金三玄을 파견했다. 이에 관하여 신라가 일본을 “亢禮之隣”으로 여겨 聘問하는 대등한 외교 관계를 갖겠다는 ‘新意’를 鮮明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禮府 次官 金三玄을 파견했다는 지적이 있다.[141] 물론 신라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비교적

---

137) 《續日本紀》 卷33 寶龜 5년(774) 3월 癸卯庚子朔(4일)조 “是日. 新羅國使禮府卿沙飡金三玄已下二百卅五人. 到泊大宰府. 遣河內守從五位上紀朝臣廣純. 大外記外從五位下內藏忌寸全成等.”

138) 《續日本紀》 卷33 寶龜 5년(774) 3월 癸卯庚子朔(4일)조 “問其來朝之由. 三玄言曰. 奉本國王敎.請修舊好每相聘問. 幷將國信物及在唐大使藤原河淸書來朝.”

139) 《續日本紀》 卷33 寶龜 5년(774) 3월 癸卯庚子朔(4일)조 “問曰. 夫請修舊好每相聘問. 乃似亢礼之隣. 非是供職之國. 且改貢調稱爲國信. 變古改常.其義如何.”

140) 《續日本紀》 卷33 寶龜 5년(774) 3월 癸卯庚子朔(4일)조 “又三玄本非貢調之使. 本國便因使次. 聊進土毛. 故不稱御調.”

141) 濱田耕策, 2012 앞의 책, 385쪽.

인 높은 관위인 禮府 次官을 파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신라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일본에 사신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신라의 국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사가 파견된 해인 혜공왕 10년(774) 9월에 金良相이 上大等에 취임하였다. 김양상의 상대등 취임을 하대적 성격이 표출되는 하나의 계기로 생각하고, 이후를 새로운 정권이 드러나는 국면의 하나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142]

또 김양상뿐만 아니라 김옹도 김양상과 같은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며 김옹이 경덕왕 19년(760)에 집사부 侍中에 취임함으로써 중대 왕권이 부정되고 하대적 성격의 정권교체기가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서[143] 정치적으로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혜공왕 10/宝龜 5년(774)의 신라사 파견 기사는 3월이며 김양상의 상대등 취임 이전이다. 그러나 신라는 혜공왕 9년(773)부터 혜공왕 12년(776)까지 그 이전과 비교하여 높은 빈도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활발한 대당 정책을 전개하였다.[144] 사료상에 보이는 이러한 신라의 대당 정책의 동향에 대해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12]이다.

[표 13] 惠恭王 9~12년 신라의 對唐 사신 기사

연대	월	내용(사료 출전)
9년 (773)	夏4月	사신 파견함. 新年祝賀에서 金·銀·牛黃·魚牙紬·朝霞[紬]등의 토산물을 헌상함. (三/冊朝)
	6月	사신을 파견하고 恩寵에 감사함. 代宗은 사신과 延英殿에서 引見함. (三/冊朝)
10년 (774)	夏4月	사신 파견, 조공함. (三/冊朝/冊褒)
	冬10月	사신을 파견하고 新年祝賀함. 代宗은 사신과 延英殿에서 引見하여 外衛尉卿을 수여하여 귀국을 허락함. (三/冊朝/冊褒)

142) 李基白, 1974 앞의 책. 236쪽.
143) 金壽泰, 1996 앞의 책, 115쪽.
144) 《舊唐書》 卷199 上, 新羅傳;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惠恭王조; 《冊府元龜》 卷 970 外臣部, 朝貢;《冊府元龜》 卷975 外臣部, 褒異.

11년 (775)	春正月	사신 파견, 조공함. (三/冊朝)
	夏6月	사신 파견, 조공함. (三/冊朝)
12년 (776)	秋7月	사신 파견, 토산물을 헌상함. (三/冊朝)
	冬10月	사신 파견, 조공함. (三/冊朝)

* 凡例 三: 《三國史記》新羅本紀 /冊朝:《冊府元龜》外臣部 朝貢 /冊褒:《冊府元龜》外臣部, 褒異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는 혜공왕 9년부터 頻繁한 견사를 전개하였지만, 혜공왕 12년 이후 그 활동을 멈추고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신라의 대외정책은 소극적으로 변한다. [표 9]에 보이는 적극적인 대당정책에 관해서는 김양상이 취임하여 자신의 세력기반을 강고하게 하려는 정책이었거나, 아니면 혜공왕 일파가 그때까지도 친당적인 정책을 실행하였으므로 활발한 친당 정책에 의한 자신의 세력 회복을 목적으로 사신을 파견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사료에서는 사신 파견 의도에 관한 기술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내정을 파악·논증할 수 없다.

혜공왕 9년(773) 이후 신라의 대당정책은 그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데, 대일정책에 대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김양상이 상대등에 취임하는 혜공왕 10년(774) 단계에는 혜공왕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집단과의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여 대당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참고할 때, 대일정책 역시 이 시점에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4) 惠恭王 15年·宝龜 10年(779)의 신라 대일본 사신

마지막으로 혜공왕 15년·宝龜 10년(779)의 신라사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때의 사신은 공식적으로 중대의 마지막 신라사일 뿐만 아니라 752년 이래로 오랜만에 입경이 허락되었던 신라사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이전의 사신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P-1] (11월) 壬子(10일) 遣唐使의 제4船이 薩摩國 甑嶋郡에 다다랐다. 그 判官 海上眞人三狩 등은 표류하다가 耽羅嶋에 도착하여 섬사람에게 노략질당하고 억류되었다. 다만 錄事 韓國連原 등이 몰래 밧줄을 풀고 도망갈 것을 모의하여 남은 무리 40여 명을 거느리고 돌아왔다.[145]

[P-2] 甲申 大宰少監 正6位上 下道朝臣長人을 遣新羅使로 삼았다. 遣唐判官 海上三狩 등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146]

[P-3] (가을 7월) 丁丑 大宰府에서 "遣新羅使 下道朝臣長人 등이 遣唐判官 海上眞人三狩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고 말하였다.[147]

[P-4] 겨울 10월 乙巳 大宰府에 勅을 내려, "新羅 사신 金蘭孫 등이 멀리서 바다를 건너와 새해를 축하하고 調를 바쳤다. 여러 蕃國이 入朝하는 데에는 나라의 恒例가 있다. 비록 通狀이 있더라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마땅하니, 府에서는 마땅히 받들어 알아서 來朝한 이유를 묻고 表函을 요구하도록 하라. 만약 표가 있으면 渤海國의 例에 준거하여 내용을 베껴서 올리고, 그 원본은 사신에게 돌려주어라. 무릇 알고 있는 소식은 驛馬로 전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다.[148]

[P-5] (11월) 己巳 勅旨少輔 正5位下 內藏忌寸全成을 大宰府에 보내

---

145) 《續日本紀》 卷33 寶龜 9년(778) 11월 壬子(10일)조 "壬子 遣唐第四船來泊薩摩國甑嶋郡 其判官海上眞人三狩等漂着 耽羅 嶋 被嶋人略留 但錄事韓國連源等 陰謀解纜而去 率遺衆卌餘人而來歸"

146) 《續日本紀》 卷33 寶龜 10년(779) 2월 甲申(13일)조 "甲申 以大宰少監正六位上 下道朝臣長人 爲遣 新羅使 爲迎遣唐判官海上·三狩等也."

147) 《續日本紀》 卷33, 寶龜 10년(779) 7월 丁丑(10일)조 "丁丑 大宰府言 遣 新羅使 下道朝臣長人 等 率遣唐判官海上眞人三狩等來歸."

148) 《續日本紀》 卷33 寶龜 10년(779) 10월 乙巳(9일)조 "冬十月乙巳 勅大宰府 新羅使 金蘭孫等 遠涉滄波 賀正貢調 其諸蕃入朝 國有恒例 雖有通狀 便宜反復 府宜承知研問來朝之由 幷責表函 如有表者 準渤海蕃例 寫案進上 其本者却付使人 凡所有消息 驛傳奏上."

어 新羅國 사신 薩湌 金蘭蓀에게 입조한 까닭을 물었다.[149]

[P-6] (寶龜 11년(780) 봄 정월) 己巳 天皇이 大極殿에서 朝會를 받았다. 唐의 사신 判官 高鶴林과 新羅 사신 薩湌 金蘭蓀 등이 각각 의례에 따라 삼가 새해를 축하하였다.[150]

[P-7] 辛未 新羅 사신이 方物을 바치고 이어, “新羅 國王께서 ‘무릇 新羅는 개국 이래로 聖朝의 역대 천황의 은혜와 교화를 우러러 의지하며 배와 노가 마르지 않게 계속하여 調를 바친 年數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나라 안에 도둑 떼의 침입이 있어 入朝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삼가 薩湌 金蘭蓀과 級湌 金巖 등을 보내어 調를 바치고 겸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遣唐判官 海上三狩 등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사신에 딸려 보내고, 또한 常例에 따라 學語生을 보냅니다’고 하셨습니다”하고 아뢰었다. 參議左大弁 正4位下 大伴宿禰伯麻呂가 勅을 선포하여, “대저 新羅國은 대대로 배와 노를 이어서 우리나라에 供奉을 해온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泰廉 등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常貢을 닦지 않고 매번 일마다 무례하였다. 때문에 최근에는 그 사신을 물리쳐 돌려보내고 손님으로 접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朕의 때에 사신을 보내어 朝貢을 하고 겸하여 새해 인사를 올리며, 또한 海上三狩 등을 찾아오는 사신 편에 딸려 보냈으니 이 수고로움을 朕은 가상히 여긴다. 이제부터 이후로 이와 같이 供奉하면 은혜로 대우함을 더욱 두터이 할 것이며 常禮로 대접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너희 國王에게 말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날 朝堂에서 唐 및 新羅의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祿을 내렸는데 차이가 있었다.[151]

---

149) 《續日本紀》 卷33 寶龜 10년(779) 11월 己巳(3일)조 “己巳 遣勅旨少輔正五位下 內藏忌寸全成 於大宰府 問新羅國使薩湌金蘭蓀 入朝之由.”

150) 《續日本紀》 卷33 寶龜 11년(780) 정월 己巳(2일)조 “己巳 天皇御大極殿受朝 唐使判官高鶴林 新羅使 薩湌 金蘭蓀等 各依儀拜賀.”

151) 《續日本紀》 卷33 寶龜 11년(780) 正月 辛未(5일)조 “辛未 新羅使 獻方物 仍奏曰 新羅國王言 夫新羅者 開國以降 仰賴聖朝世世天皇恩化 不乾舟楫 貢奉御調年

[P-8] 壬申 新羅 사신 薩飡 金蘭蓀에게 正5品上, 副使 級飡 金巖에게 正5品下, 大判官 韓奈麻 薩仲業과 少判官 奈麻 金貞樂, 그리고 大通事 韓奈麻 金蘇忠 3人에게 각각 從5品下를 주었다. 그 밖의 사람에게도 6品 이하의 관품을 각각 차등이 있게 주었다. 아울러 (품계에) 해당하는 色의 옷과 신발을 내려 주었다.[152]

[P-9] 癸酉 5位 이상 및 唐과 新羅의 사신에게 朝堂에서 잔치를 베풀고 祿을 내려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153]

[P-10] 壬午 唐 및 新羅의 사신에게 활쏘기 대회와 踏歌를 베풀었다.[154]

[P-11] 新羅 사신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璽書를 내려 "天皇은 삼가 新羅 國王에게 문안한다. 朕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업을 계승하고 왕위에 올라 백성을 다스리고 국내외를 편안히 막아 주었다. 왕은 먼 조상 때부터 항상 멀리서 직분을 지키며 表를 올리고 調를 바친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蕃國의 예를 어기고 오랫동안 朝貢을 하지 않았다. 비록 미천한 사신을 보낸 적은 있지만 表를 가지고

紀久矣 然近代以來 境內姦寇 不獲入朝 是以謹遣 薩飡 金蘭蓀 級飡 金巖 等 貢御調兼賀元正 又訪得遣唐判官海上三狩等 隨使進之 又依常例進學語生 參議左大弁正四位下大伴宿禰伯麻呂宣勅曰 夫新羅國 世連舟楫供奉國家 其來久矣 而泰廉等還國之後 不修常貢 每事無禮 所以頃年返却彼使 不加接遇 但今朕時 遣使修貢兼賀元正 又搜求海上三狩等 隨來使送來 此之勤勞 朕有嘉焉 自今以後 如是供奉 厚加恩遇 待以常禮 宜以茲狀 語汝國王是日 宴唐及 新羅使 於朝堂 賜祿有差."

152) 《續日本紀》 卷33, 寶龜 11년(780) 정월 壬申(6일)조 "壬申 授 新羅使 薩飡 金蘭蓀 正五品上 副使級飡 金巖 正五品下 大判官 韓奈麻 薩仲業 少判官 奈麻 金貞樂 大通事 韓奈麻 金蘇忠 三人 各從五品下 自外六品已下各有差 竝賜當色幷履."

153) 《續日本紀》 卷33, 寶龜 11년(780) 정월 癸酉(7일)조 "癸酉 宴五位已上 及唐新羅使 於朝堂 賜祿有差."

154) 《續日本紀》 卷33, 寶龜 11년(780) 정월 壬午(16일)조 "壬午 賜唐及 新羅使 射及踏歌."

아뢴 일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泰廉이 돌아가던 날에 이미 약속을 하였고, 貞卷이 왔을 때 다시 또 타이르고 훈계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사신들이 거듭 (명한 것을) 받들어 행하지 않았고, 지금 (金)蘭蓀도 오히려 말로 아뢰고 있다. (따라서) 이치로는 모름지기 例에 따라 국경에서부터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다만 三狩 등을 보내온 일이 가볍지 않으므로 손님의 禮로써 온 뜻에 보답하고자 한다. 왕은 마땅히 그것을 살펴 이후의 사신은 반드시 모름지기 表函을 가지고 와서 禮로써 나아가고 물러가게 하라. 이제 筑紫府 및 對馬 등의 병사에게 勅을 내려, 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신은 입국시키지 말도록 할 것이다. 마땅히 그것을 알도록 하라. 봄빛이 화창하니 왕은 즐겁게 지내기를 바란다. 이제 돌아가는 사신 편에 보답하는 물건을 부친다. 글을 보내니 뜻하는 말을 적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155]

이번 신라사는 이전 신라사와 동일한 八位의 薩飡 金蘭蓀이 大使이며 이하 副使, 大判官, 少判官, 大通事 등으로 구성되었데, 전체 인원은 알 수 없다. 또한 이번 파견 목적에는 抑留되었던 遣唐判官 海上眞人三狩를 護送하는 역할이 있었다(P-1·2·3). 그 사건은 宝龜 8년(777) 6월에 파견되었던 견당사의 귀국 배가 宝龜 9년(778) 11월에 薩摩國 甑嶋郡에 표착한 것부터 시작한다. 778년에 遣唐副使 小野石根 등이 唐送使 趙寶英 등과 같이 네 척의 배를 타고 귀국을 시도했지만, 耽羅에 표착하였으며 遣唐判官 海上眞人三狩 등은 아직 억류되었다는 소식이 탈출하여 일본으로 귀국한 錄事 韓國連源으로부터 보고되었다(P-1). 보고를 받은 일본은 당시 耽羅가 종속되어 있었던 신라에 대하여, 혜공왕 15년(779) 2월에 太

155) 《續日本紀》 卷33 寶龜 11년(780) 2월 庚戌(15일)조 "新羅使 還蕃 賜璽書曰 天皇敬問新羅國王 朕以寡薄 纂業承基 理育蒼生 寧隔中外 王自遠祖 恒守海服 上表貢調 其來尙矣 日者虧違蕃禮 積歲不朝 雖有輕使 而無表奏 由是泰廉還日 已具約束 貞卷來時 更加諭告 其後類使曾不承行 今此蘭蓀猶陳口奏 理須依例從境放還 但送三狩等來 事旣不輕 故修賓禮以答來意 王宜察之 後使必須令齎表函 以禮進退 今勅筑紫府及對馬等戍 不將表使莫令入境 宜知之 春景韶和 想王佳也 今因還使附答信物 遣書指不多及."

宰少監 下道朝臣長人을 일본의 대신라 사신으로 임명하여 파견하기로 하였다(P-2). 이전에 보이는 일본의 대신라 사신 파견은 752년으로 이후 25년 만의 파견이었다.[156]

보통 일본의 대신라 사신은 중앙에서 파견되었지만, 이번에는 大宰府에서 직접 파견하였다. 이는 억류라는 긴급사태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진다. 그때는 唐使判官인 高鶴林 이외 5인의 당인이 있었는데 견당사를 일본에 데려다주기 위해 귀국하는 네 척의 배에 나누어 탔으며 遣唐判官인 海上眞人三狩 등은 제4船에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157] P-3에 의하면 같은 해 7월에는 遣唐判官 海上眞人三狩을 거느리고 太宰少監 下道朝臣長人 등이 귀국했다고 한다. P-3의 기사에서는 신라사와 당사에 대한 기술이 없으므로 과연 P-7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158] 그래서 P-3의 7월 단계에서는 이미 大宰府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도 제시한 바가 있지만,[159] 그 이상의 정보는 사료에서 읽을 수 없다.

더 주목해야 할 요소는 신라의 외교정책 변화이다. 신라는 혜공왕 12년까지 당나라에 자주 사신을 파견했지만, 그 이후는 한 번도 파견하지 않는다. 신라-당 간의 사신 파견은 신라의 주체적인 파견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혜공왕 13년 이후 신라의 대외정책은 소극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이에 대해서는 친당파가 아닌 김양상이 대두하여 실행한 대외정책이기 때문에 당나라가 아닌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견해도 있다.[160] 하지만 과연 신라가 적극적인 의지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할 이유가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신라사는 P-1의 朝貢使 성격을 잇는 '進調', '貢調' 등의 調의 貢納 및 請政, 言語習得·學語生의 進上을 목적으로 하여 파견한 신라사와 P-2의

156) 《續日本紀》 天平勝寶 4년(752) 正月조.
157) 森公章, 1988 〈古代日本における對唐觀の研究 - "對等外交"と國書問題を中心に-〉 《國史研究》84.
158) 森公章, 1998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東京: 吉川弘文館.
159) 平澤加奈子, 2006 앞의 논문, 55쪽.
160) 이기백,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送使적인 역할이 있는 신라사로 성격을 나눠 볼 수 있는데, 파견된 사신의 관위는 P-2보다 P-1의 경우가 비교적 높다. 8세기에는 입당한 후 약 1년 동안 귀국하지 못한 견당사가 있으면 일본 견당사 復路의 보호, 遭難의 소식을 목적으로 일본의 대신라 사신이 파견되었다.[161] 그리하여 신라가 일본의 견당사 보호의 요청을 받았던 일본의 대신라 사신의 파견에 따라 送使의 성격을 소유한 사신을 파견한 것은 신라와 일본의 관계에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번에는 후자의 견당사 遭難 문의를 발단으로 파견한 신라사이다. 중대 말기는 신라의 무역적 성격의 성장과 확대가 보이는 시기지만, 신라 상인의 항로를 의지하여 귀국한 9세기와 다르다. 즉,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하지 않았던 신라가 일본에 신라사를 파견하였던 것은 대당정책의 대안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기보다 送使의 역할이 강한 신라사를 파견한 것으로 혜공왕 대에 보이는 이전 2번의 신라사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또한 혜공왕 15년·宝龜 10년(779) 당시 신라 쪽이 적극적으로 입경을 원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하다시피 혜공왕 5년에 大宰府에서 교관을 실행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혜공왕 15년(779)은 김양상이 上大等에 취임한 5년 후이며 다음 해 16년(780) 4월에는 김양상 · 김경신이 擧兵하여 중대 왕실이 끝나는 때이다. 특히 P-11은 김양상 · 김경신이 거병하기 2달 전이며 같은 해 2월에는 金志貞의 난이 일어난다. 이것은 경덕왕대에 추진한 한화정책의 하나였던 唐式의 관제개혁을 혜공왕 12년에 舊式으로 복고하는 것과 상통한다. 이에 따라 신라사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즉, 혜공왕 10년과 이번 신라사를 비교하였을 때,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역시 크게 변화를 보인다. 또 외교의례를 준수하는 형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신라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P-4와 같이, 일본은 大宰府에 來日한 신라사에 대해 입경 이유와 表函 소지 여부, 표문의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1월에는

161) 浜田久美子, 2014 앞의 논문.

중앙에서 大宰府로 內藏忌寸全成을 파견하여 신라사에게 입조 이유를 묻는 것을 P-5에서 파악할 수 있다. 두 차례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때에 표문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大宰府로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며, 이에 대하여 일본 쪽이 신라사의 대처에 관하여 신중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신라는 일관되게 표문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752년에는 표문이 없어도 입경이 인정되었던 예가 있다. 신라사뿐만 아니라 唐使判官 高鶴林 등 5명에 대해도 입경을 인정한 勅을 내렸다(P-6). 그리고 P-6부터 P-11까지는 元日朝賀에 관한 내용인데 이 신라사는 표문이 없더라도 賓禮를 適用하였으며 宝龜 11년(780)의 元日朝賀에 唐使와 같이 참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P-8,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敍位·當色衣服의 賜餘가 있었으며 綠도 하사하였다. 그리고 P-8에서 보이는 元日朝賀에 참여한 大判官 韓奈麻 薩仲業은 《삼국사기》 설총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효를 기리는 경주 高仙寺 誓幢和上碑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162] 이는 신라의 일본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 중에서도 신라측 자료에서 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예이다. 먼저 경주 高仙寺 誓幢和上碑에 보이는 "頌文"이라는 표현은 일본 '上宰'가 설중업에게 지어준 원효대사에 대한 예찬문인 것으로 추정된다.[163] 誓幢和上碑에는 "頌文"이라는 표현이 두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삼국사기》 薛聰傳에서 언급한 頌詩일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다.[164]

또한 《삼국사기》 설총전에 의하면 "세상에 전하기는 일본국 眞人이 신라 사신 薛判官에게 준 시의 서문에 이르길, "일찍이 원효거사가 지은 《金剛三昧論》을 읽고 그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것을 매우 한탄하였는

162) 誓幢和上碑 "大曆之春, 大師之孫, 翰林 字仲業 □使滄溟□□日本, 彼國上宰因□語知如是 大師賢孫 相歡之甚傾 (中略) 諸人□□期淨刹頂戴大師靈章, 曾無□捨, 及見□孫□瞻□□論, 三昨來造得頌文, 已經一紀, 雖不躬申頂禮親奉 (中略) 行遇聖人 攀旆靡絶, 追戀無從, 尤見□人頌文, 據尋□寺□覺幾焉, 寧知日□更有千叔哉." (南東信, 1992 〈高仙寺 誓幢和上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3를 참조함)

163) 김상현, 1988 〈新羅 誓幢和上碑의 再檢討〉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 477~479쪽.

164) 이기동, 1992 〈薛仲業과 淡海三船과의 交歡〉 《歷史學報》134·135, 310쪽.

데, 신라국의 사신 설〔판관〕이 곧 거사의 손자라는 것을 듣고, 비록 그 할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그 손자를 만난 것을 기뻐하여서 이에 시를 지어 드린다.”라고 하였다. 그 시가 지금[고려]도 남아 있는데, 단 그 자손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165)라고 되어있다.

원효의 후손 중업이 일본에 사신으로 건너가서 만난 이를 ‘上宰’라고 기록하고 있고, 詞의 ‘淡海之□ 溟東相府’ 구절의 淡海가 바로 오오미노마히토 미부네[淡海眞人三船]이며, 해당 구절은 설중업이 일본[溟東]의 相府에 출입한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설중업이 만난 사람은 재상으로 眞人은 淡海眞人三船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166)

이상에서 이번 신라사는 신라의 의도에 따라 파견했다기보다는 抑留된 唐使의 護送이라는 일본의 큰 목적이 있었음을 살폈다. 즉 먼저 일본이 신라에 일본의 대신라 사신을 파견하고 이에 대응한 결과로 신라가 일본에 파견한 신라사였다. 이번 신라사의 움직임을 정리하면 (1) 宝龜 6년(775)에 견당사를 임명→(2) 宝龜 8년(777) 4월 辭見→(3) 10월 判官小野滋野가 당사와 같이 귀국→(4) 11월 判事韓國源은 귀국하지만, 遣唐判官海上眞人三狩은 耽羅에 抑留되었던 사실이 判明됨→(5) 일본의 대신라 사신 太宰少監 下道朝臣長人의 任命 혹은 派遣→(6) 宝龜 10년(779) 10월 신라사 來朝로 나타낼 수 있다. 견당사 파견의 전후에 일본의 대신라 사신이 파견된 사례는 8세기에 확인할 수 있는데,167) 이번에는 일본의 대신라 사신에 응하여 신라사가 파견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라 쪽에 적극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파견한 사례인지 보다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신라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이전 두 차례의 신라사와 동일한 의도로

---

165) 《三國史記》 卷43 列傳 薛聰傳 "世傳, 日本國眞人, 贈新羅使 薛判官詩序云, “嘗覽元曉居士所眞著 金剛三昧論 , 深恨不見其人, 聞新羅國使薛, 卽是居士之抱孫, 雖不見其祖, 而喜遇其孫, 乃作詩贈之.” 其詩至今存焉, 但不知其子孫名字耳.

166) 이기동, 1992, 앞의 논문, 311~313쪽. 한편 강은영은 眞人을 당시 藤原씨의 수장이고 불교계의 비호세력이었던 藤原魚名[후지와라노 우오나]로 추정하였다.(강은영, 2011 〈779년 신라의 遣日本使 파견과 ‘彼國 上宰’에 관한 검토〉 《日本歷史硏究》 34~35쪽).

167) 浜田久美子, 2014 위의 논문.

파견된 사신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 사신의 경우 일본의 대신라 사신이 요청하자 護送의 送使로서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P-11에 의하면 이 사신에 대하여《속일본기》에서는 賀正貢調의 사신이라고 판단하고 海上眞人三狩을 護送하였지만, 외교형식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나고 强硬한 태도를 나타낸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삼국사기》에서는 《속일본기》와 달리 金巖의 지식을 높게 평가하고 일본에 체류하기를 원한다는 기사가 보인다.[168] 이는 신라사가 소유한 문화지식 등을 평가한 것이다.[169] 또한 送使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파견된 사신에 대해 일본이 元日朝賀를 위한 賀正貢使라는 인식을 부여하여 율령체제 하의 賓禮에 대응했다고 여겨진다.

景德王 23년(764) 이후의 일본의 신라 사신은 留唐學僧의 소식 혹은 서간 전달, 漂着한 견당사의 護送 등 당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轉換한다. 즉, 신라가 단독으로 파견한 신라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는 그 이전의 신라사 성격과 비교하면 큰 차이점으로, 안사의 난이 종결되자 동아시아의 정세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직전의 경덕왕 23년· 天平寶字 8년(764) 신라사의 경우 일정한 年紀에 來日하는 정례 사신의 파견이었다.

그러나 764년의 신라사는 1년 간격으로 來日한다. 그때 귀국의 소식을 물었던 入唐僧 戒融은 발해-일본 경로로 귀국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부를 당나라가 신라와 일본 경로를 통하여 물었다.[170] 즉, 이때 신라사부터는 이전과 달리 당, 발해, 일본을 포함한 정보의 전달과 교환을 위한 사신이고, 일본이 요청한 외교형식의 교섭과 종래 많이 지적된 신라의 교역면을 중시한 사신과는 상이한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전 단계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여겨진다.

---

168) 《三國史記》 卷43 列傳3, 金庾信 下.
169) 濱田耕策, 2012 앞의 책.
170) 《續日本紀》 卷25 天平宝字 8년(764) 7월 甲寅(19일)조.

3. 8세기 말 신라에 대한 일본의 외교조치

일본의 宝龜 연간(770～780)부터는 일본의 緣海警固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宝龜 연간은 앞에서 언급한 혜공왕 대 국내가 혼란한 시기에 해당한다. 緣海警固 문제에 대하여 군사사의 입장에서 고찰한 연구와 天平 4년의 節度使를 함께 언급한 연구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天平期에 집중하여, 權限의 範圍, 임무의 내용, 所管國의 問題 등을 다루었다.[171] 하지만, 天平 연간(729～748)뿐만 아니라 宝龜 연간에도 警固命令을 내리고 있다. 이때 渤海使에 대하여 大宰府의 입항을 강하게 要請한 기사가 보이므로 大宰府의 비중이 높은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은 宝龜 연간 초기부터 緣海警固命令를 내리기 직전인 宝龜 11년(780)까지 渤海使에 대하여 北路來朝의 禁止를 要求하고[172] 大宰府의 입항을 要請했다.[173] 大宰府 입경 경로의 요구에 대해서는 발해에 대한 원칙상 문제와 신라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조치라는 양방의 현실적인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宝龜연간에서의 '流來新羅人' 등장을 주목할 수 있다. 아래는 신라인의 來着과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기사이다.

---

171) 北啓太, 1984 〈天平四年の節度使〉 《奈良平安時代史論集》上卷, 吉川弘文館; 下向井龍彦, 1992 〈捕亡令〈臨時發兵〉規定について一國衛軍政の法的源泉—〉 《續日本紀研究》279; 中尾浩康, 2010 〈天平期の節度使に關する一考察〉 《續日本紀研究》388.

172) '北路'에 대한 대표적인 다음의 네 가지로 나뉜다. ① 北陸道 諸國을 경유하여 왕경으로 향하는 경로(新妻利久, 1969 《渤海國史及び日本との國交史の研究》, 東京: 東京電機大學出版局; 石井正敏, 2001 앞의 책), ② 出羽國을 포함한 北陸道以北의 범위를 경유하는 경로(赤羽目匡由, 2015 〈渤海使の大宰府航路 (朝鮮半島東岸航路) をめぐって〉 《人文學報 歷史學編》43) ③ 일본 북쪽의 出羽 혹은 北陸道의 나라들로 이루어진 경로(鄭淳一, 2015 앞의 책) ④ 연해주부터 北海道 서해안을 경유하고 小鹿半島를 거치는 경로(浜田久美子, 2017 〈日本渤海關係史—寶龜年間の北路來朝問題への展望〉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石井正敏の歷史學》, 東京: 勉誠出版).

173) 《續日本紀》 卷32, 寶龜 4년(773) 6월 戊辰(24일)조; 《續日本紀》 卷34, 寶龜 8년(777) 정월 癸酉(20일)조; 《續日本紀》 卷35, 寶龜1 0년(779) 11월 乙亥(9일)조.

[Q-1] 乙卯 大宰府에 勅을 내려, “근년에 新羅 사람들이 자주 와서 도착하는데 그 연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投化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풍파로 표류하다가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돌아갈 방도가 없어 머물러 우리 백성이 된 것이니 본국의 王이 무엇이라 하겠는가. 이제부터 이후로는 이와 같은 부류는 마땅히 모두 돌려보내어 큰 관대함을 보이고, 만약 배가 부서지거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있으면 官衙에서 일을 헤아려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였다.[174]

위 기사는 《類聚三代格》 권18 宝龜 5년(778) 5월 17일 官符에 보이는 大宰府의 勅으로서 신라인의 來着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드러나 있다. ‘新羅蕃人’이라는 표현을 통해 일본이 신라를 〈蕃國〉으로 인식하는 의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175] 이에 의하면 당시 일본에 머물러 있는 신라인은 귀화가 아니라 표착이 많았다. Q-1는 신라인 ‘流來’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이다. 이러한 ‘유래’ 신라인에 대하여 일본은 필요한 배나 식료를 지급해 귀국시켜야 한다고 대응하였다. '유래'의 해석에 대해서 유래를 본의가 아닌 표류민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나,[176] 단순한 표류민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목적을 가지고 일본에 온 신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선박의 수리, 식량 지급이 필요 없는 사람들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77] 이처럼 사료상의 ‘유래’라는 용어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신라인의 유래라는 형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항 형태라는 것은 확실하다.

---

174) 《續日本紀》 卷35, 寶龜 5년(774) 5월 乙卯(17일)조 “乙卯 勅大宰府曰 比年新羅蕃人 頻有來着 尋其緣由 多非投化 忽被風漂 無由引還 留爲我民 謂本主何 自今以後 如此之色 宜皆放還以示弘恕 如有船破及絶糧者 所司量事 令得歸計.”

175) 三上喜孝, 2007 〈光仁·桓武朝の國土意識〉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34.

176) 山內晋次, 2003 《奈良平安時代の日本とアジア》, 東京: 吉川弘文館.

177) 田中史生, 1997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東京: 校倉書房.

이에 관하여 일본은 율령규정을 준수하여 신라인에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類聚三代格》권18 宝龜 5년(774) 5월 17일 기사를 보면 일본에 온 신라인을 '歸化'와 '流來'로 구분하고 양자에 대한 대응을 명확히 구분하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료를 살펴보면 '流來者'의 경우 신라로 귀국할 사람이라고 인식했으며 반면 귀화자의 경우는 戶禮沒落外蕃條에 의거해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禮'의 규정을 살펴보면 귀화에 관한 것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유래'한 신라인들이 사료에 보이기 시작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조치는 '귀화'로 분류되지 않은 신라인을 '유래'라고 규정한 것으로 '귀화'와 '蕃客'으로 구분하던 그 이전의 형식과 다른 새로운 규정이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유래'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했지만, 그 안에는 '귀화'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목적을 파악할 수 없는 '유래자'가 증가하자 일본 당국이 위기감을 품은 결과로 나타난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178]

결국은 신라인을 규정하는 '유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이유는 신라와 일본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신라인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사료는 없지만, 《속일본기》권33 寶龜 5년(774) 5월 乙卯(17일)조에 따르면 신라 사람이 많이 늘어났으며 특히 太宰府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신라인들에 대한 대응에서 혼란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Q-1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신라인의 내착이 빈번하게 보인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일본의 조치 하나로서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제시된 것으로 생각된다. 宝龜 연간에 신라인의 내착이 빈번해지고 일본이 그 대책을 나타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외정세 가운데에서 宝龜 연간에 大宰府 및 규슈의 중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신라인에 대한 일본의 정책 조치로 사료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178) 山內晋次, 2003 앞의 책, 74~75쪽.

것이 宝龜 연간 두 번의 緣海警固命令이다. 이를 통하여 西海道를 포함한 서쪽 지역에 대한 경고가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宝龜 11년(780) 7월에 이루어졌으며[179] 두 번째는 戊子(26일) 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180]

첫 번째의 경고 명령인 宝龜 11년(780) 7월 丁丑(15일) 조에 따르면 因幡, 伯耆, 出雲, 石見, 安藝, 周防, 長門 그리고 大宰(서해도)가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續日本紀》 天平 4년(732) 8월 丁亥條의 내용을 고찰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할 사료가 天平 4년(732) 8월의 東海·東山二道節度使(藤原房前), 山陰道節度使(多治比縣守), 西海道節度使(藤原宇合)가 임명되는 기사이다.[181] 이 절도사의 임무는 天平 6년(734) 4월에 시작된다.[182] 山陰道節度使와 西海道節度使의 임무는 신라를 의식한 방위 체제의 정비였음이 밝혀지고 있는 반면, 東海·東山二道節度使의 임무는 서방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지원 체제를 정비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183] 天平 4년(732) 8월에 보이는 견당사

---

179) 《續日本紀》 卷36 寶龜 11년(780) 7월 丁丑(15일)조 "丁丑. 勅, **安不忘危, 古今通典.** 宜仰緣海諸國, 勤令警固. 其因幡, 伯耆, 出雲, 石見, 安藝, 周防, 長門等國, 一依天平四年節度使從三位多治比眞人縣守等時式, 勤以警固焉. 又大宰, 宜依同年節度使從三位藤原朝臣宇合時式."

180) 《續日本紀》 卷36 寶龜 11년(780) 7월 戊子(26일)조 "戊子, 勅曰, 筑紫大宰僻居西海, 諸蕃朝貢, 舟楫相望. 由是, 簡練士馬, 精銳甲兵, 以示威武, 以備非常. 今北陸道, 亦供蕃客, 所有軍兵, 未曾教習, 屬事徵發, 全無堪用. 安必思危, 豈合如此. 宜准大宰依式警虞. 事須緣海村邑見賊來過者, 當卽差使, 速申於國. 國知賊船者, 長官以下急向國衙, 應事集議, 令管內警虞且行且奏.[其一]. 賊船卒來着…我邊岸者, 當界百姓, 執隨身兵, 幷齎私糧走赴要處, 致死相戰, 必待救兵. 勿作逗留令賊乘間.[其二]. 軍所集處, 預立標榜. 宜量地勢, 務得便宜. 兵士已上及百姓便弓馬者, 量程遠近, 結隊分配. 不得臨事彼此雜亂.[其三]. 戰士已上明知賊來者, 執隨身兵, 兼佩飯袋, 發所在處, 直赴本軍, 各作軍名, 排比隊伍, 以靜待動, 乘逸擊勞.[其四]. 應機赴軍, 國司已上皆乘私馬. 若不足者, 卽以驛傳馬充之.[其五]. 兵士白丁赴軍, 及待進止. 應給公粮者, 計自起家五日乃給. 其閑處者給米, 要處者給糒.[其六]."

181) 《續日本紀》 天平 4년(732) 8월 丁亥조 "正三位藤原朝臣房前爲東海東山道節度使. 從三位多治比眞人縣守爲土山陰道節度使. 從三位藤原朝臣宇合爲西海道節度使. 道別判官四人. 主典四人. 医師一人. 陰陽師一人." 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182) 《續日本紀》 天平 6년(734) 4월 壬子조 "諸道節度使事旣花. 於是, 令三國國主典已上掌知其事."

183) 五十嵐基善, 2014 〈新羅征討計畫における軍事力動員の特質〉 《駿台史學》152,

및 절도사 임명기사에는 山陽道의 절도사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山陽道의 경고를 전담하는 절도사가 부재하였는데 780년의 시점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山陽道 지역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나타난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대외 방위는 西海道만 정면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사료 6]을 계기로 山陽道도 새롭게 편입된 것은 유의해야 할 점이다.[184]

또한 戊子(26일)조는 두 번째 경고 명령으로, 어떻게 경고해야 하는지 그 내용과 규정을 기록한 기사이다. 이것은 寶龜 11년(780) 7월 戊子(26일)조의 내용에 부여되는 형태로 나온 것이지만, 기사 중에서 6조의 규정을 들어 참고가 된다. 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①賊船이 내항하면 연해촌 사람들이 보고할 의무 ②적선이 착안한 경우 주민의 대응에 관한 규정 ③군대의 집합 장소와 편성 방법 ④전사 이상 사람의 집합 및 전투 방법에 대한 규정 ⑤國司 이상 사람이 전투에 갈 경우의 말 규정 ⑥병사, 白丁이 전투에 참가할 때의 식량 지급의 규정 사항 등이다. 이 육조에 관해서는 《속일본기》 卷36, 宝龜 11년(780) 7월 丁丑(15일)조의 勅에 “安不忘危, 古今通典”이나 《속일본기》 卷36, 宝龜 11년(780) 7월 戊子(26일)조의 勅에 “安必思危, 豈合如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상시에야말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시 말하면 연해 제국에 엄중한 경계 태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강한 의지가 표명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185] 이것은 宝龜 연간의 대외 방위 의식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왜냐하면 大宰府 내에서는 엄중한 내항자격 심사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일본의 조치가 요구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것이 宝龜 11년의 연해 경고 명령이며, 경고 명령과 신라 사절의 내항 상황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186]

明治大學史學地理學會.

184) 五十嵐基善, 2014 앞의 논문; 鄭淳一, 2015 앞의 책.

185) 鄭淳一, 2015 위의 책.

186) 鄭淳一, 2015 위의 책.

8세기 말, 일본의 방어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 大宰府 시오우지[四王寺/四天王寺]이다. 四王寺 創建은 사료에서 알 수 있듯 宝龜 5년(774)인데,[187] 사천왕사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8세기 후반경 유물은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다.[188] 大宰府의 四王寺의 창건은 신라, 신라인과의 긴장 관계에서 국가를 진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생각된다. 大宰府 四天王法에 대한 자세한 사료로《類聚三代格》 권18 宝龜 5년(774) 3월 3일 官符를 들 수 있다.[189]

이 사료는 大宰府에서 구체적인 四天王法의 내용을 제시한 太政官의 勅이다. 그곳에서 실행한 四天王法은 스님 4명이 四天王의 各像 앞에서《最勝王經》〈四天王護國品〉에 의해 낮에는 경권을 읽고 밤에는 神究하는 것이다. 또 春秋에 사천왕 수법을 실시해야 하며, 공양의 布施는 大宰府의 창고 및 정세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 등 그에 대한 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 大宰府 四王寺는 大宰府政廳跡 뒤에 자리잡은 四王寺山에 위치한다. 大野城 내의 높은 장소로서 四王寺山 북서의 가장 높은 鼓峯이 선택되어, 四王寺가 건립되었으며, 당내에는 四天王像이 안치되었다. 또한 大野城 내 북서의 가장 높은 곳에 毘沙門天, 동쪽에 持國天, 남쪽에 增長天, 남서쪽에 廣目天의 지명이 남은 지역이 있음에도 鼓峯이

187)《扶桑略紀》 寶龜 5년(774) 是歲조 "大宰府起四王院."
188) 山村信榮, 2005 〈大宰府における八・九世紀の變容 (第Ⅲ部 交通と周邊論)〉《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34.
189)《類聚三代格》 권18 寶龜 5년(774) 3월3일官符
太政官符
応奉造四天王寺捻像四軀事〈各高六尺〉

右被內大臣從二位藤原朝臣宣偁, 奉勅, 如聞新羅兇醜不顧恩義, **早懷毒心常爲叩几咀**, 仏神難証慮或報応. 宜令大宰府直新羅國高顯淨地奉造件像**攘却其災**. 仍請淨行僧四口, 各当像前, 一事以上依最勝王経四天王護國品, 日讀・経王, 夜請神兄. 但春秋二時別一七日, 弥益精進依法修行. 仍監已上一人專〉当其事. 其僧別法服, 麻袈裟蔭脊各一領,麻裳施綿袴各一腰, 施綿襖子杉各一領, 機非各一兩, 布施絶一疋,綿三屯, 布二端, 供養布施並用庫物及正稅. 自今以後, 永爲恒例.

宝龜五年三月三日

더 방어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에, 처음부터 鼓峯의 한 곳에 사천왕 동상이 안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類聚三代格》 권18 宝龜 5년(774) 3월 3일 太政官符에 보이는 "早懷毒心常爲叩几咀", "撰却其災"이 신라인으로부터 전염된 역병을 가리킨다는 지적이 있다.[190] 이에 따르면 宝龜 연간에서도 특히 四天王寺가 창건된 宝龜 5년은 잦은 역병에 시달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大宰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속일본기》 宝龜 5년 4월 己卯(11일) 조에 천하 제국에서 질병 제재를 위해서 '摩訶般若波羅密多經'을 念請하라는 勅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大宰府의 四王院과 동일한 시기라는 점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四王院과 관련해, 신라에서는 보다 빠른 7세기의 단계에 四天王寺를 조영하고 四天王法을 실행하였다는 것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Q-2] 당나라의 高宗이 인문 등을 불러서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 군사를 청해 고구려를 멸하고도 우리를 해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라고 하고, 곧 圓扉에 가두고 군사 50만 명을 조련하여 薛邦을 장수로 삼아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때 義湘師가 서쪽 당나라로 가서 유학하고 있다가 인문을 찾아보았는데, 仁問이 그 사실을 알렸다. 義湘師가 곧 귀국하여 왕에게 아뢰니, 왕이 매우 염려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방어책을 물었다. 角干 金天尊이 아뢰기를, "근래에 明朗法師가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수해왔으니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라고 하였다. 明朗法師가 아뢰기를, "狼山 남쪽의 神遊林이 있으니, 그곳에 四天王寺를 세우고 도량을 개설함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貞州에서 사자가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당나라 군사들이 수없이 우리 국경에 이르러 바다 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明朗法師를 불러서 말하기를, "일이 이미 급박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라고 하였다. 明朗法師가 말하기를, "채색 비단으로 [절을] 임시로

190) 三上喜孝, 2007 앞의 논문.

지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채색 비단으로 절을 짓고, 풀로 五方神像을 만들고, 瑜伽名僧 12명이 明朗法師를 우두머리로 하여 文豆婁秘密法을 지으니, 그때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가 싸우기도 전에 풍랑이 크게 일어 당나라의 배가 모두 물에 침몰하였다. 그 후 절을 고쳐 짓고 사천왕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壇席이 끊어지지 않았다.[191]

신라의 대외정책과 四天王寺의 조영은 《삼국유사》 권2, 文虎王法敏條가 참고된다. 물론 Q-2기사는 설화로써 가공의 이름이나 과장된 당군의 숫자 등을 유의해야 하지만, 당시 신라인이 文豆婁法을 제시하면서 四天王寺를 건립하여 당군이 패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신라인들이 四天王寺의 조영을 나당전쟁의 승리를 이끈 최고의 정신적인 귀의처로 인식한 것은 분명하다.[192] 따라서 신라의 사천왕법은 매우 반당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四天王寺를 건립은 당의 침입을 佛力에 의해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문무왕의 이러한 의도는 당시의 신라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침투했을 것이다.[193]

또한 이 〈四天王護國品〉이란, 〈隣國怨敵〉이 사병을 갖고 경계를 침범해서 여러 곳의 재변 또는 역병이 발생할 때 경전의 힘으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大宰府에 건립된 四王寺 역시 사천왕이 국토의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신이라는 《金光明最勝王經》의

191) 《三國遺事》 卷2, 文虎王法敏조 “高宗 使召 仁問 等讓之曰, ‘爾請我兵以滅 麗害之何耶.’ 乃下圓扉, 鍊兵五十万以 薛邦 爲帥欲伐新羅. 時 義相 師西學入 唐 來見仁問 , 仁問 以事諭之. 相 乃東還上聞, 王甚憚之, 會群臣問防禦策. 角干 金天尊奏曰 ‘近有 明朗法師 入龍宮傳秘法以來, 請詔問之.’ 朗 奏曰 ‘狼山 之南有 神遊林, 創四天王寺於其地, 開設道場則可矣.’ 時有 貞州 使走報曰, ‘唐兵無數至我境迴槎海上.’ 王召 明朗 曰 ‘事已逼至如何.’ 朗 曰 ‘以彩帛假搆宜矣,’ 乃以彩帛營寺, 草搆五方神像, 以瑜珈明僧十二員 明朗 爲上首, 作文豆婁秘密之法, 時唐羅兵未交接風濤怒起, 唐舡皆沒於水. 後改刱寺名四天王寺, 至今不墜壇席.”

192) 尹善泰, 2015 〈新羅中代成典寺院과 密敎- 중대 國家儀禮의 視覺化와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44.

193) 尹善泰, 2015 위의 논문.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4] 이러한 이해는 즉, 신라의 사천왕사도 《金光明經》의 〈四天王護國品〉을 기초로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신라의 사천왕상과 호국신앙에 관련하여 왕경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왕실 관계의 성전사원이 '사천왕상'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195] 즉, 이러한 신라의 사천왕상은 사천왕사를 시작으로 왕경 사방에 위치한 성전사원에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천왕사의 조영이 왕경뿐만 아니라 신라 전역을 지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흥미로운 견해이다.[196]

이와 함께《삼국사기》 직관지에 사천왕사가 7개의 성전 가운데 가장 먼저 서술된 점을, 사천왕사가 중대에 국가로부터 제일 좋은 대우를 받은 사찰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97] 이와 함께, 신라 중대에는 國統도 사천왕사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처럼 신라는 대외적으로는 당나라, 일본의 경우는 신라를 의식하고 있었고신라 및 일본 모두 사방을 의식하고 수비한다는 호국 신앙이 기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大宰府의 四王寺 조영 역시 동아시아 관점에서 對自的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비교 검토 사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宝龜 연간 大宰府에서는 四王寺의 창건을 배경으로 국가를 진호하는 대외 방위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요컨대, 770년대에서는 사료상에 '유래신라인'이라는 새로운 표현의 신라인이 보인다. 당시 신라는 혜공왕대로, 내란이 일어났었다. 일본은 증가한 신라인에 대하여 율령을 준수하여 대응하려고 노력하였고, 제도적인 조치로 緣海警固命令을 내렸다. 또한 太宰府에서는 진호국가의 목적으로 四王寺를 건립했다.

---

194) 三上喜孝, 2017 〈古代日本の境界意識〉 《日本古代交流史入門》, 東京: 勉誠出版.
195) 임영애, 2011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상과 불교 경전〉 《강좌미술사》37.
196) 임영애, 2011 위의 논문.
197) 金在庚, 1992 〈新羅中代 華嚴信仰의 社會的 役割〉 《震檀學報》73.

[그림 15] 8세기 중반 신라와 주변 국가의 관계 (필자 작성)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혜공왕 재위 말기인 770년대에는 신라 사신이 왕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신라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大宰府 주변으로 교역활동을 목적으로 건너간 신라인들이 체류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태도는 일관되게 율령체제에 근거하여 관사에 우선권을 주는 관리교역의 형태였으며 직접 무역이 아니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大宰府의 상황에 대해서는 《유취삼대격》 延曆 2년(783) 3월 22일자 기사를 통해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官船임에도 불구하고 '사물(私物)'을 적재하는 경우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이 시기에는 大宰府의 교역을 국가가 파악, 관리, 조직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인들에 대한 규정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이 시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율령체제 아래에서 대외관계의 형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9세기 초까지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경덕왕대 752년의 신라 사신파견이 신라의 대일 교섭의 성격을 정치적(공적)에서 경제적(사적)이라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752년의 신라 사신단의 규모가 크다는 점, 〈매신라물해〉를 보면 다양한 물품이 보이지만, 무역 참가자와 장소가 한정되는 관사전매제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뿐만 아니라 正倉院文書의 향약류 반납문서를 보면 향약의 현물 반납이 증가한 것은 9세기 때이며 8세기의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향약류의 확보가 보이지 않는다. 즉, 신라 상인의 등장을 기다려야 했으며, 9세기 동아시아 국제 무역의 확대에 따른 신라 상인의 활동을 752년의 대일 교섭과 연관시켜 성격 변화의 계기로 보기 어렵다. 또한 752년의 사신인 金泰廉이 '가왕자'이며 한화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에 다양한 물품을 가지고 대규모의 구성으로 온 사신이었기 때문에 752년의 파견 주체를 경덕왕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아닌 진골 귀족 세력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 '가왕자'를 세우는 대일 외교 정책은 이때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경덕왕대의 대일 교섭을 대당교섭과 대립하는 二項對立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신라 중대 경덕왕대의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경덕왕대의 세력을 무시하고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의 신라의 대일 사신에 대해 일본의 '放還'이라는 같은 조치를 받았던 사신이라는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경덕왕대와 혜공왕대는 한화정책의 추진이나 신라 국내 개혁이 실행되었던 시기로, 735년 이전의 시기와 달리 대일 교섭의 중요도가 떨어졌던 때에다. 이뿐만 아니라 경덕왕 대와 혜공왕 대의 신라 국내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에 신라의 대일 사신의 성격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 경덕왕 23년(764) 이후의 사신부터는 留唐學僧의 소식 書簡전달하거나, 漂着한 견당사의 護送이라 당을 배경으로 한 사신이 파견된다.

특히 혜공왕대에 파견되었던 세 번의 사신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파견되었다. 한편으로 마지막 신라의 대일 사신은 혜공왕 15년(779)이지만, 이전에 이미 당을 포함한 신라의 대외정책은 혜공왕 12년 이후 소극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779년의 대일 사신의 성격은 送使적인 역할이 강한 것으로, 파견 주체인 신라가 적극적인 대일 사신 파견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혜공왕대에는 신라에서 내란이 빈발했다. 당시 사료상으로 새로 등장하는 표현이 '유래신라인'이다. '유래신라인'에는 혼란한 신라의 상황 때문에 온 사람,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신라인을 포함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율령을 바탕으로 하여 신라인에 대응했기 때문에 율령 규정에 따르지 않는 신라인을 '유래신라인'라고 규정하고 대응하고자 했다.

또한 일본은 신라인에 대한 조치로 율령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官符를 내리고, 緣海警固의 명령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조치로써 太宰府에 국가진호의 목적으로 신라의 관념을 인용한 四王寺를 건립하였다. 즉, 일본은 증가하는 신라인에 대하여 율령 규정을 통해 대응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여 고심한 시기이다.

결국 경덕왕대 혜공왕대의 신라와 일본은 당례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변용하여 외교 교섭을 추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용 과정에서 발생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신라와 일본 사이에는 외교 마찰이 발생하였다. 다만 신라가 정세에 따라 대일 교섭을 추진함에 따라 양국은 이 시기에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四. 9세기 신라 국제 무역 활동의 확대

신라와 일본의 교섭은 9세기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9세기에 들어서 新羅商人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에 주목하여, 9세기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신라상인의 모습을 통해 신라 대외교섭의 성격을 밝히려고 했다. 반면에 이 시기 신라가 사용했던 대외교섭 항구와 관련된 연구는 사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아직 미진한 편이다. 신라의 국제 교섭항구는 동남해안, 서남해안의 각지에 있었다고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 그런데 같은 對日 항구라 하더라도 신라의 국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9세기 전반 신라의 대일교섭 지점으로 이름이 보이는 菁州·康州(현재 진주), 良州(현재 울산) 그리고 완도가 있는 서남해안 지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항구, 재지 세력, 그리고 중앙 사회라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들이 지닌 항구로서의 면모, 항구의 형성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재지 세력의 양태, 그리고 신라 중앙과 재지 세력과의 관계성에 보이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신라 대일교섭의 다층적인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신라가 대일교섭에 활용한 항구를 대상으로 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는 많이 축적되지 않았고, 신라 중앙사회와 재지세력의 연대 관계 또한 제대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지세력이 항구에 미치는 영향

1) 신라의 국제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울산만, 낙동강구의 김해지방, 섬진강의 河東지방이라는 견해(이문기, 1999 〈통일신라 및 후삼국시대의 경상도〉 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慶尙道七百年史 - 통사편》, 慶尙北道; 2015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김해, 진주 지역이라는 견해(윤재운, 2004 〈신라하대 무역관련 기구와 정책〉 《선사와 고대》 20). 울산, 진주 지역으로 보는 견해(김창석, 2005 〈菁州의 祿邑과 香徒-신라 하대 지방사회 변동의 일례-〉 《신라문화》 26; 2013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에 재수록)가 있다.

은 적지 않았으며, 신라의 대일정책 역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고학적인 성과와 함께 중앙사회-항구-재지세력의 관계를 검토하여, 신라의 대일 교섭이 갖는 다원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의 대일 교섭에 관하여 한일 양국에서 많은 연구가 제시된 바가 있으며, 통일신라 시기의 대일 항구로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울산, 진주, 서남해안 지역 등이 상정되어 왔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전하는 사료의 대부분이 일본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신라 쪽의 실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더욱이 항구의 비교를 통하여 신라와 일본 교섭의 다원성을 검토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즉, 신라 각지에 존재한 항구의 기능적인 차이, 각 항구와 지방세력 간 관계성의 차이, 경주지역과 각 항구에 보이는 상호관계의 다양한 층위라는 세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사회와 항구 그리고 지방세력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역행정단위인 州마다 항구가 분포하였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항구가 존재한 울산, 진주, 서남해안이 서로 같은 수준으로 중앙사회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력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이에 중앙사회와 항구의 연결성에서 확인되는 지역적인 차이가 각 지방세력에 주었던 영향, 지방세력의 동향이 항구 경영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외교섭의 관점에서 항구가 국제적으로 대두한 과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중앙사회와 항구 그리고 지방세력의 관계에 주목하며 지역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신라의 중앙사회와 일본과의 관계에 중점에 두고 파악해 온 대일교섭의 실태를 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각 지역의 대외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사료와 고고학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9세기 전반에 신라의 대일항구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3개의 지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울산은 사료상으로 9세기 이전부터 항구의 역할을 수행했던 지역

이다. 다만 9세기 대외교섭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헌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울산 반구동유적은 신라의 '海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적이고, 8~9세기의 실태를 고려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많아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문헌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은 바로 菁州이다. 菁州가 대일 항구로 활용된 사실은 《續日本後紀》 承和紀에 수록된 두 개의 '新羅執事省牒' 형식 문서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외교문서가 보이지 않는 신라상인과는 다른, 신라와 일본 간의 관계를 제시하려고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마지막은 9세기 전반 신라 대외 무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장보고의 완도 청해진이 있는 서남해안 지역이다. 이 지역도 9세기 전반의 대외교섭을 고찰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신라 대외 무역의 일대 거점이 되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항구가 있는 각 지역의 성격이나 재지 세력의 존재양태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중앙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들을 살펴보겠다. 특히 菁州 지역의 경우 혜공왕 대 전후인 〈泗川 船津里新羅碑〉, 9세기인 〈菁州 蓮池寺鐘銘〉 등의 금석문을 검토하여 이 지역의 성격이나 특징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신라 대외항구로서 이름이 보이는 지역의 지역성을 파악하는 것은 각 지역에 설치되었던 항구의 성립 과정과 의의를 살펴보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9세기 초에 지방에서 일어났지만, 중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인 金憲昌의 亂 시기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를 고찰하겠다.

1. 신라의 外港, 재지세력, 중앙의 관계

1) 울산 지역

통일신라시기의 대외항구 중 먼저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바로 울산이

다. 이른 단계부터 사료상에 신라의 항구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포구가 3곳(栗浦, 絲浦,[2] 開雲浦[3]) 존재한다. 이러한 항구는 于尸山國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우시산국은 현재의 울산 지역에 있던 소국으로 신라는 이를 복속함으로써 우시산국의 위협을 제거함은 물론 본격적인 外港을 확보할 수 있었다.[4] 이때 가장 대표적인 외항이 '栗浦'라고 생각된다. 율포는 《三國史記》 地理志를 통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5] 원래 栗浦縣이었던 東津縣과, '屈歇'과 통하는 '屈阿火村'에 설치한 河曲縣은 모두 고려의 蔚州 소속이었다. 따라서 율포와 굴헐역은 모두 현재의 울산만 일대에 있었다고 추정된다.[6] 이곳은 신라가 중요시했던 지역이었다.

율포와 굴헐역으로 구성된 울산 지역은 박제상이 왕명을 받아 출항한 곳이며 일종의 영접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사료상 확인되는 최초의 신라 외항이라고 할 수 있다.[7] 울산 지역이 항구의 성격을 갖게 되는 시기는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굴아화촌을 현으로 삼았다"고 기록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비록 그 연대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나, 파사

---

2) 《三國遺事》 第4 塔像, 皇龍寺丈六條 "未幾海南有一巨舫來泊於 河曲縣之絲浦, 今蔚州谷浦也."

3) 《三國遺事》 第2 紀異, 處容郎 望海寺條 "於是大王遊開雲浦, 在鶴城西南, 今蔚州."

4) 김창석은 外港을 외부 정치체—고대국가 성립 후에는 외국—의 사절과 교역상 등이 입국하거나 자국의 사절과 교역인이 출국할 때 활용된 항구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대비되는 內港이라는 개념도 제시하였는데, 內港은 어민들이 배를 정박하는 漁港, 수취한 조세를 왕도로 운송하는 중간 기착지 등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았다. 외항이 외교교섭이나 대외교역과 같은 대외적 기능을 담당했다면, 내항은 권역 내의 생산, 유통 등 대내적 기능을 맡고 있었다(김창석, 2015 〈삼국시기 신라 外港의 변천과 그 배경〉 《島嶼文化》 45, 12~13쪽). 본 논문에서는 외국과 집적 연결할 수 있는 신라의 항구를 '외항'으로, 외국의 물건을 통하지만, 국내의 경유 기항지로써 사용된 항구를 '내항'으로 규정한다.

5)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臨關郡, 本毛火一作蚊代. 郡, 聖德王築城, 以遮日本賊路, 景德王改名. 今合屬慶州. 領縣二. 東津縣, 本栗浦縣, 景德王改名. 今合屬蔚州. 河曲一作西. 縣, 婆娑王時, 取 屈阿火村置縣, 景德王改名. 今蔚州."

6)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4~5쪽.

7) 외항의 성립 시기는 《三國史記》에 탈해-파사니사금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연대는 사로국이 주변 소국을 병합하면서 진한연맹체의 맹주로 등장한 3세기 후반이라고 생각된다(김창석, 2015 앞의 논문, 17쪽).

대보다 앞선 시기에 굴아화 지역을 장악하고 이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이곳을 중시한 이유는 울산만 지역이 가진 외항이라는 기능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이곳에서 출입국 수속과 같은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8)]

율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강동지역으로 보는 견해와 반구동 일원에 주목하는 견해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산하동 일대의 화암고분군과 산음고분군이 율포를 운영하였던 토착세력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본다. 6세기 경이 되면 반구동 일원에 위치한 울산항이 정비되면서 포구의 기능이 율포에서 울산항으로 대부분 이동하였고, 율포의 토착세력도 점차 약화되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즉,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힘이 강해지면서 산하동이나 율포의 토착세력은 쇠퇴하였다는 것이다.[9)]

사포 또한 문헌상에 보이는 울산 지역의 항구로서 유의해야할 대상이다. '사포'라는 지명은 《三國遺事》 第4 塔像 皇龍寺丈六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료는 황룡사장육존상을 조성하면서 만든 창건연기설화인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西天竺의 阿育王이 黃鐵 57,000근과 황금 30,000푼을 모아서 釋迦三尊像을 주조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황철, 황금과 부처상 1구, 보살상 2구를 함께 배에 실어 보냈는데, 이 배는 울산 지역인 河曲縣 絲浦에 도착하였다. 이에 신라 진흥왕이 사람을 보내 배에 실린 부처와 보살상은 東竺寺에 안치하였고, 황철과 황금은 大建 6년(574) 甲午 3월 황룡사장육존상을 주조하는 데에 사용하였다.[10)]

한편 신라는 진덕여왕대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皇龍寺, 皇福寺, 芬皇寺를 黃龍寺, 王福寺, 王芬寺로 표기하였다. 당시 울산 태화교 아래에 위치한 사포는 신라 왕경과 해상을 연결하는 주요 關門港으로, 삼국통일 이전까지

8)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18쪽.
9) 박초아, 2015 〈통일신라시대 울산 강동지역의 정치사회적 위상〉 《울산사학》 19, 139쪽.
10) 《三國遺事》 第4 塔像 皇龍寺丈六條.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11] 사포는 고려시대에서는 '谷浦'로 불렸으며, 곡포가 위치한 하곡현은 본래 굴아화촌으로 지금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로 비장된다.[12]

또한《新增東國輿地勝覽》卷22 慶尙道 蔚山郡 樓亭 大和樓條에서 "慈藏國師가 643년에 絲浦를 거쳐 신라 왕경으로 나아갔다"는 내용과 함께 사찰 연기설화가 있어 참조된다. 물론 이 기사가 사실을 그대로 기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언급한 황룡사 장육존상 창건연기설화와 大和樓 관련 기록에서 모두 사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포가 당시 신라 해상교통로의 종착지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13]

문헌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의 울산항 일대 양상은 근래 발굴된 울산 반구동 유적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14] 반구동 유적은 8, 9세기 울산 지역의 포구 상황을 보여준다.[15] 이 유적은 구릉 정상부의 고도가 해발 12m로 낮지만 충적지 중앙에 섬처럼 위치하고 있어 주변을 관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태화강과 동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현재는 해안에서 떨어져 있으나 주변의 패각 퇴적층으로 보아 당시에는 해안가에 해당하는 지형이었을 것이다. 또한, 고려부터 조선 초기까지 울산의 중심 항구로 기능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발굴조사에서는 7세기 무렵의 연화문수막새를 사용한 건물지와 통일신라 시기의 목책 시설,[16] 고려시대 토성, 조선시대 溝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고려시대의

11) 전덕재, 2020 <고대 고려 초 울산지역 변동과 蔚州의 성립> 《대구사학》141, 12쪽.
12) 한국해양사 편찬위원회, 2013 《한국해양사 1 선사 고대》, 한국해양재단, 58쪽.
13) 전덕재는 신라가 6세기 중반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전까지 해상을 통해 외국과 교통하기 위해 아진포, 율포, 그리고 울산만에 위치한 絲浦를 널리 이용하였다고 보았으며,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된 것이 사포였다고 서술하였다(전덕재, 2020 위의 논문, 14쪽).
14) 울산박물관, 2020 《신라의 해문, 울산 반구동》 울산박물관.
15) 絲浦는 통일 이전에는 양주의 외항 역할을 했음이 확실하다. 이에 울산 반구동 유적을 사포라고 규정한 견해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 비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6) 목책은 구릉과 동천의 경계에 해당하는 습지에 위치하며 동천 쪽에서 시작하여 울산 외항으로 이어진다(김재홍, 2018 〈통일신라시대 울산의 사찰과 특성〉 《신라문화》52, 124쪽).

것으로 추정되는 목간 1점이 출토되었다.[17]

[그림 16] 울산 반구동유적 Ⅰ-1호 건물지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와는 왕경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유사하고,[18] 관리의 존재를 시사하는 벼루와 인장, 도장도 확인되어 반구동 유적의 특수건물지의 성격은 관청으로 볼 수 있다.[19] Ⅰ-1호 건물지는 자연암반을 가공하여 건물의 초석을 만든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평기와를 비롯하여 연화문수막새, 당초문암막새 등이 출토되었다.[20] 통일신라 시기의 목책은 구릉과 동천의 경계에 해당하는 습지에 위치하며 방향은 동천 쪽에서 시작하여 울산항으로 진행된다.[21] 그리고 Ⅲ-1호 수혈 유구에서 출토된 중국제 청자는 내면에 금분이 입혀져 있어 고급 물품임을 알 수

17) 김현철·지윤미·김민경·윤상덕, 2009 《울산 반구동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18) 울산 지역에서는 반구동유적, 입암리유적, 방리유적에서 확인되었듯이 건축물에 수막새가 사용되어 왔다(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입암리유적》).
19) 울산박물관, 2020 앞의 책, 95~99쪽.
20) 지윤미·김현철·김민경, 2015 〈울산지역의 막새기와 연구〉 《중앙고고연구》 7, 143~146쪽.
21) 김재홍, 2018 앞의 논문, 124쪽; 울산박물관, 2020 앞의 책, 101쪽.

있으며, 이 또한 반구동 유적이 외국과 교류를 위한 1차 관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22] 일본의 사신은 반구동 유적 옆에 있는 동천을 통해 북상하여, 관문성을 통과해 왕경으로 들어가기 전 인적·물적 자원을 점검받았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울산지역의 건물지 상황을 살펴보겠다. 먼저 건물지군은 시기별로 3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울산 강동 산하지구 건물지군Ⅰ(7세기 후반)의 경우 배치 형태가 관부 건축물의 특징인 '冂'형을 띠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이 지역을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다른 지역보다 강한 중앙과의 관계를 상정한 견해가 있다. '冂'형 배치의 건물지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비롯하여 경산, 당과의 교류의 중심지였던 당진 등 국가 운영상 중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23] 한편 건물지군 Ⅱ·Ⅲ의 연대는 8~9세기경으로 비정된다. 건물지군 Ⅱ는 유적 내 저장시설이며 건물지군 Ⅲ은 공방시설이나 제의공간과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4]

통일신라시기에 보이는 울산의 항구 관련 기사로 《삼국유사》 第2 紀異 處容郎 望海寺조가 있다. 이는 憲康王이 개운포에서 동해 용을 만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보이는 처용은 울산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세력으로 볼 수 있으며 神德王의 친부계가 중앙으로 진출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용은 왕을 상징하므로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처용은 새로운 왕계인 신덕왕의 친부계를 상징하고, 신덕왕의 친부계는 곧 울산지역의 유력한 세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25] 이 기사는 울산 지역과 중앙의 깊은 관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해야 할 점은 사료에서 통일신라 시기의 대일항구

---

22) 김재홍, 2018 위의 논문, 124쪽.
23) 박초아, 2015 앞의 논문, 128쪽.
24) 박초아, 2015 위의 논문, 131쪽.
25) 盧智潤, 2011 〈신라 말 神德王의 出自와 卽位背景〉,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25쪽.

로 울산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운포의 경우 《삼국유사》 處容郎 望海寺조에 등장하지만, 대일항구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즉, 통일신라시기 이후에는 사료에서 대일항구로서 울산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대신 통일신라 시기의 대일항구로 사료상에 이름이 나타나는 곳은 菁州의 주치가 두어졌던 현재의 진주 지역이다.

2) 진주 지역

현 진주 지역을 州治로 했던 '菁州(康州)'는 9세기 신라 대일교섭의 모습이 문헌상에 나타난 지역이다. 《속일본후기》 承和 3년과 12년에 보이는 두 개의 '新羅執事省牒'이 그것이다. 먼저 《속일본후기》 承和 3년(836) 12월 乙未(3일)조는 紀三津의 '失使旨'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承和 5년(836) 閏5월 藤原常嗣을 대사로 한 견당사를 파견할 때 난파 혹은 표착 사건에 대비하여 신라에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신라 執事省에 보낸 牒을 소유하고 파견되었던 紀三津이 그 使命을 다하지 않고 귀국한 사건이다. 사료를 보면 '신라집사성첩'의 본문을 인용하여 전문을 제시한 형식으로 되어있다. 사료에 의하면 이러한 형식을 취한 이유는 신라와 일본과의 외교 인식 차이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을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사료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R-1] ①12월 乙未 초하루 丁酉(3일) 신라국에 보냈던 사신 紀三津이 복명하였다. ②三津은 자신이 사신으로 간 취지를 잃어버렸으므로 신라에서 誣告를 당하고 돌아왔다. 三津을 신라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나라에 보내는 4척의 배가 지금 바다를 건너려는데, 바람이 변하여 그쪽 땅(신라)에 표착할까봐 두려워서 이로 말미암아 예전의 예에 준하여 먼저 그 사정을 (신라에게) 알리고, 그것을 접수해주시기를 기대하

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三津이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 조정의 취지를 잃고 오로지 우호를 통하기 위하여 왔다고만 말하고, 마치 두려워 아첨하는 듯이 사사로이 스스로 말을 지어냈다. (신라)執事省에서 (일본)太政官의 牒文과 서로 어긋나는 것을 의심하여 재삼 물었는데, 三津은 더욱 횡설수설하여 분명히 판단할 수가 없었다. 이는 곧 三津이 글쓰기에 밝지 못하고 말도 잘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執事省의 牒文 가운데에 "양국이 서로 통하는 데는 반드시 속이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사신이 對面하지 않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③단지 그 牒 가운데에 "小野篁의 배는 돛을 달고 이미 멀리 갔으므로 거듭 三津을 당나라에 보내어 교빙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무릇 당나라에 交聘을 닦는 데는 이미 大使가 있고 篁은 그의 副使일 따름인데 어찌 직책이 높은 사람을 제하고 낮은 아래 사람을 거론하는가. 더욱이 그 당시에 篁 자신은 本朝(일본)에 있었고 아직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 그런데 돛을 달고 이미 멀리 갔다고 하는 말들은 모두 상인배들 사이의 뜬 소문을 들었던 것이었다. 말하는 바가 망령되어 목에 칼을 쓰고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인가. ④또 三津은 綠衫을 입는 한 명의 관리에 불과하여 한 척의 배를 타고 갔는데, 어찌 당나라에 보내는 사신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⑤異論은 이와 같고, 이것은 터무니없이 속임에 가까우니, 이 사건을 단지 대략적으로만 보존하고 앞뒤를 자세히 알지 않으면 후세에 보는 사람들이 그 得失을 변별하지 못할까 두려워 執事省의 牒 전문을 베껴서 게재한다. 26)

---

26) 《續日本後紀》 承和 3년(836) 12월 乙未(3일)條 "1①十二月乙未朔丁酉, 遣新羅國使紀三津復命. ②三津自失使旨, 被新羅誣劫歸來. 何則所以遣三津於新羅者, 遣唐四ヶ舶, 今欲渡海, 恐或風變漂着彼境, 由是, 准之故實, 先遣告喩, 期其接授. 而三津到彼, 失本朝旨, **稱專來通好**, 似畏怯媚託, 私自設辭. 執事省疑與太政官牒相違, 再三詰問, 三津逾增迷惑, 不能分疏. 是則三津不文, 而其口亦訥之所致也. 故執事省牒中云, 兩國相通, 必無詭詐, 使非專對, 不足爲憑. ③但其牒中亦云, 小野篁船帆飛已遠, 未必重遣三津聘于唐國. 夫修聘大唐, 旣有使頭, 篁其副介耳, 何除其貴, 輕擧其下. 加以當爾之時, 篁身在本朝, 未及渡海. 而謂帆飛已遠, 斯竝聞商帆浮說, 妄所言耳. 荷校滅耳, 蓋在玆歟. ④又三津一介綠衫, 孤舟是駕, 何擬爲入唐使哉. ⑤如此異論, 近于誣罔, 斯事若只存大略, 不詳首尾, 恐後之觀者莫辨得失, 因全寫執事省牒附

[R-2] “신라국 執事省이 일본국 太政官에게 牒을 보냄.

紀三津이 朝聘라고 사칭하고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 公牒[太政官牒]을 살펴보니 거짓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린 사건.

牒함. 【三津 등의 書狀을 받았고 이르기를 ‘본국의 왕[仁明천황]의 명을 받들어 오로지 우호를 통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太政官牒이 들었던) 函을 열고 牒을 읽고 보니 단지 ‘당나라에 교빙할 사신의 배가 신라의 땅에 표착한다면 도와서 통과시켜 보내 주시되 지체시키거나 길을 가로막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主司에서 거듭 사신[星使]을 보내어 재삼 간곡하게 되풀이하여 물으니, 紀三津이 말하는 것과 태정관 첩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진위를 판별할 수가 없었다. 이미 (紀三津은) 交隣의 사신이 아니라 반드시 衷心에서 우러나온 물건이 아닐 것이므로 일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으니 어찌 헛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太政官印에 篆書는 분명하겠다. 그러나 小野篁의 배는 돛을 올리고 이미 당나라로 멀리 떠났으므로, 거듭 三津을 보내어 교빙할 것이 필수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섬사람들이 동서로 이리저리 이익을 넘보아 太政官印을 몰래 모방하여 배워 가짜로 公牒[太政官牒]을 만들었고 斥候의 어려움에 대비하면서 황해의 당나라 쪽 앞바다를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다. 상대국의 형편을 엿보는 것에 대비하기 어려워 스스로 어부들의 여행을 단속합니다. 그런데 양국이 서로 통하고 반드시 속이는 것이 없어야 하며, 사신을 專對하지 않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所司는 재삼 刑章을 바르게 하여 간사한 무리들을 막아 주시라고 청하였지만, 主司는 大體를 보존하는 데 힘쓰고 허물을 버리고 功을 격려하여 소인의 거칠고 궁색하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大國의 너그러운 도리로 대처하려고 했다. 지금의 시기는 크게 태평하고 바다에는 큰 파도가 일지 않는다. 만약 옛날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서로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하물며 당나라 貞觀 연간(627~649년) 중에 高

載之.”

表仁이 일본에 도착한 이후 오직 일본은 우리(신라)에만 의지하여 입술과 이처럼 서로 필요하다고 여긴지 오래되었다. ⑥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太政官에 牒을 보내고 아울러 菁州에도 첩을 보내어 사안을 헤아려 바다를 건너는 동안의 양식을 지급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을 하시라.】라는 내용이다. 處分을 청하여 '(신라 왕의) 判을 받들고, 書狀에서 판단하여 太政官에 첩을 보내고 자세히 살피라.'라고 하였다."[27]

해당 기사는 '신라집사성첩'을 인용하고 그 일부가 아닌 전문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기존 연구를 참고할 때,[28] 사료의 내용은 크게

---

27) 《續日本後紀》 承和 3년(836) 12월 乙未(3일)條 2"**新羅國執事省牒 日本國太政官**. 紀三津詐稱朝聘兼有贄賚, 及檢公牒假僞非實者. 牒.【〈得三津等狀稱, 《奉本王命, **專來通好.**》 及開函覽牒, 但云, 《修聘巨唐, 脫有使船漂着彼界, 則扶之送過, 無俾滯遏者.》 主司再發星使, 設問丁寧, 口與牒乖, 虛實莫辨. 旣非交隣之使, 必匪由衷之賂, 事無摭實, 豈合虛受. 且太政官印, 篆跡分明. 小野篁船帆飛已遠, 未必重遣三津聘于唐國. 不知嶋嶼之人, 東西窺利, 偸學官印, 假造公牒, 用備斥候之難, 自逞白水之遊. 然兩國相通, 必無詭詐, 使非專對, 不足爲憑. 所司再三請以正刑章用阻姦類, 主司務存大體, 舍過責功, 恕小人荒迫之罪, 申大國寬弘之理. 方今時屬大和, 海不揚波. 若求尋舊好, 彼此何妨. 況貞觀中, 高表仁到彼之後, 惟我是賴, 脣齒相須, 其來久矣. ⑥事須牒太政官幷牒菁州, 量事支給過海程糧, 放還本國.】請處分者, 奉判准狀牒太政官, 請垂詳悉者."

28) '新羅執事省牒'에 대해서는 전론적으로 고찰한 논고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을 포함하면 많은 연구가 확인된다. 佐伯有淸, 1978 《最後の遣唐使》, 東京: 講談社;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東京: 校倉書房; 河內春人, 2000 〈新羅使迎接の歷史的展開〉 《ヒストリア》170, ; 노명호 외, 2000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상》 서울대학교출판부; 윤선태, 2002 〈신라의 문서행정과 목간〉 《강좌한국고대사 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편; 西別府元日, 2003 〈九世紀前半の日羅交易と紀三津〈失使旨〉事件〉 《中國地域と對外關係》, 東京: 山川出版社; 渡邊誠, 2003 〈承和‧貞觀期の貿易政策と太宰府〉, 2012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史の硏究》, 東京: 思文閣出版에 재수록; 김은숙, 2006 〈일본 최후의 遣唐使 파견과 張保皐 勢力〉《한국고대사연구》42; 山崎雅稔, 2007 〈新羅國執事省牒からみた紀三津《失使旨》事件〉 木村茂光編 《日本中世の權力と地域社會》, 東京: 吉川弘文館; 森公章, 2008 〈承和の遣唐使と九世紀の對外政策〉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 東京: 吉川弘文館; 鄭淳一, 2013 〈《속일본후기》所收 신라국 집사성첩에 보이는 '島嶼之人'〉 《일본역사연구》37, 2015 〈承和三年の新羅國執事省牒にみえる〈島嶼之人〉〉 《九世紀の來航新羅人と日本列島》, 東京: 勉誠出版에 재수록; 2022, 〈신라국 집사성첩에 보이는 해민의 이동 실태와 도해 허가 문서〉 《史叢》105. 이외에도 신라 정치사의 관점으로 집사성첩에 주목한 연구로는 이기백, 1974 〈新羅 執事部의 成立〉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이영호, 1996 〈新羅 執事部의 設置와 中侍〉 《국사관논총》 69; 이인철,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紀三津과 신라 官과의 교섭에 관한 내용과(R-1), 신라의 대응인 '신라집사성첩'의 전문(R-2)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6개로 세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R-1-①일본의 대신라 사신 紀三津의 復命 '失使旨'를 이유로 신라에서 歸來, R-1-②歸來의 상황 즉, 太政官牒의 내용과 紀三津이 주장한 통교의 차이점, R-1-③태정관첩에서 보이는 사신 파견 계획과 小野篁 등 入海와의 관련성, R-1-④견당사와 紀三津의 관계, R-1-⑤ '신라집사성첩'을 전문 게재한 이유, R-2-⑥구체적인 신라의 대처 방법이다.[29] 주목되는 것은 紀三津이 신라에게 파견의 이유를 '友好'를 목적으로 온 '專來通好'라고 밝혔지만, 태정관첩에 쓰여진 파견 이유와의 차이를 질문 받았을 때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에 신라가 사신에게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실제 紀三津이 자신의 파견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시피 紀三津은 일본의 중앙으로부터 정식으로 임명받은 사신이었다. 사신의 파견에 큰 비용이 필요함을 고려하면, 중앙에서 임명을 받은 정식 사신이 본래의 목적을 인식하지 않은 채 渡海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사료를 보면 질문에 대한 답장을 구두로 하고 있는데, 그의 신라어 구사 능력이 어떠했는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사료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신라는 紀三津의 대답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을 뿐만 아니라 견당사의 도해 사실의 진위, 견당사와 紀三津의 관계 또한 의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30] 여기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그 당시 菁州에서 신라에 온 외부인에 대해 신분과 입국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2003 〈新羅 執事省의 위상과 역할－新羅國執事省牒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18; 박수정, 2017 〈新羅 執事省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再論〉 《신라사학보》40; 전덕재 2019 〈신라의 집사성첩과 일본〉 한국목간학회편, 《문자와 고대 한국2》, 주류성; 전덕재, 2021 <통일신라 주·군·현의 기능과 운영> 《역사문화연구》79 등을 들 수 있다.

29) 鄭淳一, 2015 앞의 책, 170쪽.

30) 西別府元日, 2003 앞의 논문, 5쪽.

특히 사료에 의하면 '及開函覽牒'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라 執事省은 상대방이 가지고 온 외교문서를 열어보며 내용을 확인할 의무와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상대방이 소유한 외교문서를 확인하고 사신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료상의 "偸學官印, 假造公牒"이라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교문서를 위조하고 온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이를 경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동아시아의 정세 혹은 신라인의 활동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 외교·교역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판단이 내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 중에 보이는 '신라집사성첩'은 일본의 '태정관첩'에 대해 대답한 글이다. 기본적으로 신라집사성첩은 양국 간의 종속관계나 관사의 상하관계를 전제한 牒의 형식이 아니다.[31] 태정관첩의 심의에는 신라의 두 개 관사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보면 紀三津에 대해 엄격한 처분을 구한 '所司'와 이견을 제시하고 과실을 용인한 '主司' 두 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牒에서 양자가 어느 관청에 소속되었는지 언급이 없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때 主司는 영접에 관여한 領客府이며 所司는 禮部라고 비정한 견해가 주목된다.[32] 領客府와 禮部는 모두 신라의 외교 업무에 관여한 기관이다. 하지만, 양자에는 차이점이 있으며 최종적인 외교 판단은 領客府가 맡았다고 여겨진다.

사료를 보면 所司는 재삼 刑章을 바르게 하여 간사한 무리들을 막아줄 것을 청한 반면, 主司는 大體를 보존하는 데 힘쓰고 허물을 버리고 功을 격려하여 소인의 거칠고 궁색하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등, 大國의 너그러운 도리로 대처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신라 내부에서도 의견이 단일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집사성첩'이 태정관 뿐만 아니라 菁州(康州)에도 보내졌다

31) 酒寄雅志, 2001 앞의 책.
32) 윤선태, 2002 앞의 논문; 김은숙, 2006 앞의 논문. 한편, 山崎雅稔는 主司는 執事省이며, 所司는 領客府일 가능성이 높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山崎雅稔, 2007 앞의 논문).

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라집사성첩'의 말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신라의 대응으로 "일은 모름지기 태정관에 牒을 보내고 아울러 菁州에 첩을 내어 사안을 헤아려 바다를 건너는 동안의 양식을 지급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니 처분하십시오. 書狀에서와 같이 판단하여 太政官에 첩문을 보내니 청컨대 상세히 살피십시오. (事須牒太政官幷牒, 菁州量事支給過海程糧, 放還本國, 請處分者, 奉判准狀牒太政官, 請垂詳悉者)"라고 되어 있다. 즉, 太政官에 전달한 문서 내용이 菁州에도 전달된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菁州는 외교사절이 도착하면, 사절의 방문 목적 파악, 소유한 외교문서의 수취, 왕경으로의 문서 전달, 일시적인 영접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와 관련하여 고고학적 성과 또한 참고할만한데,[33] 왕경과 진주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정비되어 육로를 통한 접근이 용이했다고 한다. 즉, 청주는 외교문서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중앙의 대외창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속일본후기》 承和 12년(845) 12월 戊寅(5일)조에 의하면 다자이후[太宰府]에 '康州牒' 두 통이 왔다고 한다.[34] 이 845년의 牒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며, '강주가 작성한 牒'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작성하여 강주에 전달된 牒'인지 사료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 牒을 가져온 사신단이 강주에서 출발하여 太宰府에 도착했던 점을 생각하면 역시 이 시기에도 강주가 중앙의 대외창구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다음으로 이 시기 菁州와 중앙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菁州의 경우 중요한 사료로 금석문인 〈泗川 船津里新羅碑〉, 〈菁州 蓮池寺鐘銘〉 이 있다. 먼저 〈사천 선진리신라비〉는 2004년 3월 16일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진리에 위치한 船津里城 주차장

33) 박진혜, 2018 〈삼국~통일신라시대 울산지역 도로 연구〉 《고고광장》 23; 박정환, 2020 〈영남지역 통일신라시대 오통 시론〉 《중앙고고연구》 33.

34) 《續日本後紀》 承和 12년(845) 12월 戊寅(5일)조 "大宰府馳驛言, **新羅人齎康州牒二通**, 押領本國漂蕩人五十餘人來着."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던 중, 6월 7일 'C'지구 계단식 논 축대제거 제토작업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진주항에 흐른 하구의 요지이며, 해안 쪽에 위치한 곳이다. 〈사천 선진리신라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S-1]

〈泗川 船津里新羅碑〉[35]

(전면) 更得乃末(花)香徒

國王而雲大王上大等□

神述時州總官蘇干

(후면) 香徒上了言大德縣令

乃末體眞上村主岐

□□□□□

이 비석의 제작연대는 8세기 중반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國主, 곧 신라 국왕의 이름을 '天雲'이라 전하고 있다. '而'자는 '天'을 의미하는 측천문자인데, 곧 惠恭王(765~780)의 이름인 '乾運'의 다른 표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비는 혜공왕대에 건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元聖王 (785~798)의 장인인 '神述'의 이름이 확인되는 것도 시기 비정의 방증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서는 비가 당시 진골이던 金神述이 康州總官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하고자 왕이 축사한 것을 기념하거나 왕이 직접 佛事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였다.[36]

總官은 원래 중국에서 야전 지휘관에게 주는 직함으로, 北周 시기 처

35) 〈泗川 船津里新羅碑〉의 판독은 윤선태, 2005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敎信仰結社〉 《신라문화》26; 金昌謙, 2005 〈최근 발견 '泗川 船津里新羅碑' 검토〉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동북아고대사연구소; 鄭義道, 2006 〈新羅丙雲大王銘碑 硏究〉 《한국중세사연구》20; 安城賢, 2006 〈泗川 船津里土城 發掘調査槪要〉 《한국중세사연구》20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36) 金昌謙, 2005 앞의 논문, 96쪽.

음 설치되어 기존 都督諸軍事의 역할을 이임 받았지만 隋 文帝 시기에 이르러 幷州, 益州, 荊州, 揚州에 大總管府를 두고 각 州에도 上中下 總管府를 설치하여 지방 군부대의 수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였다.[37] 또한 이민족을 정벌할 때, 行軍大總管을 설치하고 "정벌하는 길목에 두어 군대를 감독"하도록 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38] 《唐六典》에 의하면 각지 주군에 총관을 설치하고 일정 수의 병력을 지휘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총관 휘하에는 5천 명을 두었고 품계는 3품으로 문관·무관 가릴 것 없이 임명되었다.[39]

하지만, 신라의 경우 삼국통일전쟁 중에 출정군, 즉 임시로 행군군단을 편성하고, 당나라의 사례를 수용하여 그 지휘관을 總官(摠管)이라고 불렀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40] 또한 주의 장관을 總官(摠管)이라고 부른 사례의 경우 전덕재의 견해가 참조되는데,[4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래 總官(摠管)은 삼국통일전쟁 중 대규모 정벌을 위해 임시로 州 단위 행군군단을 편성하고 복수의 인물을 '~州摠管' 또는 '~州行軍摠管'으로 임명하면서 전통이 생겼다. 이후 통일신라 시기에 들어서 주의 장관을 總官(摠管)이라고도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비석의 해석에 대하여 이미 여러 연구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지만, 비문 중에 보이는 '大德'이나 '香徒'라는 표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大德은 신라 금석문에서 많은 용례가 확인된다. 주로 법력이 높은 고승을 일컫는 일반명사이고 특정 승직을 의미할 수도 있다.[42] 여기

---

37) 《通典》 32卷, 職官14 "後周改都督諸軍事爲總管, 則總管爲都督之任矣. 隋文帝以幷·益·荊·揚四州置大總管. 其餘總管府置於諸州, 列爲上中下三等, 加使持節, 煬帝悉罷之."

38) 《通典》 32卷, 職官14 "復有行軍大總管者, 蓋有征伐則置於所征之道, 以督軍事."

39) 《唐六典》卷第5 尙書兵部 "凡諸軍, 鎭每五百人置押官一人…五千人置總管一人. 凡諸軍, 鎭使·副使已上皆四年一替, 總管已上六年一替…總管三品以上…."

40) 최상기, 2015 <6~7세기 신라 장군의 역할과 운용> 《역사와 현실》97, 80쪽.

41) 전덕재, 2021 <신라 중고기 말 · 중대 초 縣制의 실시와 지방관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51, 277쪽.

42) 전덕재, 2021 위의 논문, 121~122쪽. 大德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伽倻山 海

에서의 大德은 중앙불교계 출신으로 생각된다. 大德인 了言이라는 승려가 향도 구성원의 신앙 고취를 지도편달하는 '향도의 우두머리(香徒上)'로서 비석 건립에 참여하였으며,[43] 이 지역의 지방관인 縣令과 上村主, 그리고 官等을 가진 이 지역의 유력자들이 상당수 건립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44] 향도는 7세기 무렵부터 신라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45] 신라 중고기에 불교는 주로 왕실과 귀족층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중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다.[46] 향도의 사례로는 노비 郁面의 설화로 유명한 강주의 승려 八珍과 阿干 貴珍이 주도한 경덕왕 대의 彌陀結社香徒가 있다.[47] 이 중 후자는 8세기 중엽 경덕왕대 강주에 있던 彌陀寺에서 阿干 貴珍 등 수십 명이 결성한 것으로 그 계원들은 1만일을 기약하고 염불 수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사천의 향도는 시기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강주 지역의 미타결사와 가깝다는 점에서, 사천의 향도 역시 경덕왕대 지방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타결사의 일종이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견해도 있다.[48] 여기서 '아간 귀진'은 관등으로 보

印寺 善安住院壁記>의 선덕여왕 때 智嶷과 乘固가 중국유학을 다녀와 처음으로 大德에 뽑혔다는 내용을 근거로 "大德"을 50세 이상 고승이 역임하는 사찰 내 직분으로 이해했다.

43) "香徒上了言"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최근에 '了'자는 인명이라기보다는 특정 행위의 중단을 뜻하는 이두식 표기법으로, '上'자는 동사로서 신이나 국왕, 귀족에게 물건을 헌납하는 행위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여, 향도가 공물과 비슷한 성질의 무엇을 국왕 또는 신께 바쳤다고 해석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즉, 후면의 "香徒上了言"이라는 부분을 "향도가(신이나 왕에게 공물을) 바친 다음 말하길"이라고 해석한 것이다(신동성, 2022 <사천 선진리비석 측천문자의 명문 재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40-3, 63쪽).

44) 윤선태, 2005 앞의 논문, 128쪽.

45) 향도는 '香'을 사용하는 신앙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만 향도에서 '徒'가 갖는 의미도 지나칠 수 없다. 徒는 일반적으로 '무리'라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는 邑落社會 단계에서 "서로 부르기를 모두 徒라고 한다."라고 하여(《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韓), 읍락을 단위로 한 공동체를 '徒(두레)'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채웅석, 2016 〈한국 고대 香徒의 조직과 역할〉 《한국고대사연구》 81).

46) 채웅석, 2016 위의 논문, 184쪽.

47) 《三國遺事》 卷5 感通 郁面婢念佛西昇 "景德王代康州今晋州. 一作剛州, 則今順安. 善士數十人志求西方於州境創彌陁寺約万日爲契.時有阿干貴珍家一婢名郁面." 그러나 이 향도의 근거지를 강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신종원, 1982 〈삼국유사 郁面婢念佛西昇條에 대한 일고찰〉 《史叢》 26).

면 지방인이 아니라 왕경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833년의 〈청주 연지사종명〉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9세기 통일신라 시기 청주의 蓮池寺에 있었던 종으로, 지금은 일본 후쿠이현[福井縣] 쓰루가시[敦賀市] 조군신사[常宮神社]에 소장되어 있다. 이 동종의 연대는 833년인데, 9세기 중앙의 지방 통치와 지방세력의 성장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명문의 판독 결과는 다음과 같다.

[S-2]

〈菁州 蓮池寺鐘銘〉[49]

太和七年三月日, 菁州蓮池寺鐘, 成內節傳.

合入金七百十三廷, 古金四百九十八廷, 加入金百十廷.

成典和上, 惠門法師·□惠法師,

上坐, 則忠法師, 都乃, 法勝法師.

鄕村主, 三長及干·朱雀大朶,

作韓舍, 寶淸軍師·龍年軍師.

史六□, 三忠舍知·行道舍知,

成博士, 安海哀大舍·哀□大舍.

節州統, 皇龍寺覺明和上.

명문에 의하면 이 종의 주조에는 成典和上·上坐·都乃·成博士·節州統 등의 승려들과 鄕主·作韓舍 등과 같은 재지세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종의 주조에 참여한 鄕村主의 관등은 三長及干(9등)과 朱雀大朶(10등)으로 확인되는데, 9등 及干은 6두품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관등이었다. 興德王

48) 윤선태, 2005 앞의 논문, 128쪽.

49) 〈菁州 蓮池寺鐘銘〉의 판독은 南東信, 1992 〈菁州 蓮池寺鐘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Ⅲ》,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을 底本으로 하여 濱田耕策, 1992 〈新羅鐘銘の再檢討〉 《史淵》129, 2013 《朝鮮古代史料硏究》에 재수록; 박용국, 2010 〈신라 蓮池寺 鑄鐘佛事의 배경과 그 성격〉 《新羅史學報》 20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9년(834)의 하교에는 “眞村主 5두품, 次村主는 4두품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50]고 하였으나 이미 그 전에 菁州 지역에서는 상위의 村主가 6두품 이상에 해당하는 관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51] 三重沙干의 경우 村主는 沙飡까지 수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成典’이나 ‘節州統 皇龍寺 覺明和上’의 존재를 볼 때 중앙에서 종의 주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천 선진리신라비〉의 사례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9세기 전반까지 중앙권력이 이 지역의 불사에 관여하였음을 보여주며, 菁州와 왕경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 이후 향도와 관련된 사료는 8개가 확인되는데, 〈청주 연지사종명〉의 사례처럼 중앙권력이 불사에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컨대 시기는 다르지만, 673년 〈癸酉銘三尊千佛碑像〉의 명문에 등장하는 연기 지역의 향도는 중앙권력이 향도에 개입하지 않고 대신 지방유력자가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749년 경덕왕대 해남 美黃寺의 향도, 799년 昭聖王대 홍성 龍鳳寺의 ‘徒’도 마찬가지다. 또한, 810년 〈昌寧 仁陽寺碑〉의 경우는 인근 사원의 불사까지 재정지원을 하는 지방유력자들의 재력과 위상을 보여준다.[52] 그러한 면을 고려한다면 역시 청주(강주)는 중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지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통일신라 때 菁州(康州)의 외항은 사천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菁州(康州)의 경우 통일 이전에 백제나 대가야가 사용한 경남 하동의 多沙津(帶沙津)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 혹은 거제도와 김해 등 일본을 연결하는 관문항의 존재를 고려해볼 수 있다.[53] 그러나 사천의 경우 약 1km떨어진 선진리성에서 〈사천 선진리

50) 《三國史記》 卷33 雜志2 屋舍.
51) 김창석, 2005 앞의 논문, 17쪽.
52) 하일식, 1996 〈창녕 인양사비문의 연구 -8세기 말~9세기 초 신라 지방사회의 단면-〉 《한국사연구》 95.
53) 전덕재, 2021 앞의 논문, 132쪽.

신라비〉가 발견된 바 있다. 그리고 조영시기가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왜계 석실인 사천 선진리 고분이 사천만과 400m 거리를 두고 위치한다. 선진리 고분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지만, 요석에 비할 수 있는 장대석을 벽석 상위에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왜계 석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54] 또한《高麗史》에는 “이전 호칭은 末潮浦로 泗州 通陽倉이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55] 조세창인 通陽倉이 사천만에 위치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56]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천은 선사시대의 사천 늑도 유적 단계부터 선진리성 단계까지 왜(일본)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흔적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그림 17] 선진리 석실 (필자 제작)

7세기 중반에 백제가 합천 대야성을 함락시키면서 남강유역에 본격적

54) 김규운, 김준식, 2009 <泗川 船津里 石室墳> 《영남고고학보》48, 86~91쪽.
55) 《高麗史》 권79, 志卷第33, 食貨2 “成宗十一年(992) 定漕船輸京價. 運五石, 價一石, 通潮浦【前號末潮浦, 泗州通陽倉, 在焉】”라고 되어 있다.
56) 문경호, 2014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혜안, 212쪽.

으로 진출하였다. 그 범위는 산청, 진주와 남해도까지 이르렀으며 낙동강 서안 가야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신라는 대가야의 멸망 후에도 통일 이전까지 사천 지역을 항구로서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가 통일 후 사천만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원래부터 왜 교섭의 항구로 이용되었던 지리적 성격을 기반으로 청주(강주)의 외항을 사천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3) 西南海岸 지역

그렇다면 9세기 전반 이후 눈에 띄는 해상활동의 양상이 확인되는 서남해안 지역의 움직임은 어떨까. 먼저 앞에서 검토한 香徒의 측면에서 서남해안 지역을 살펴보겠다. 786년 건립된 영암 구림리에서 발견된 〈靈岩 貞元銘 石碑〉가 주목된다.[57] 이 비석은 埋香結社와 관련하여 건립되었는데, 埋香의 주체가 관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은 일반 지방인이었다. '香'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매향결사는 불교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상당한 재력을 필요로 하는 매향 의식을 수행할 정도로 영암 지역 지방민들의 경제 수준이 높았음도 유추할 수 있다. 영암 일대가 신라 하대 중국과의 주요 교역 창구였음을 생각할 때 〈영암 정원명 석비〉는 대외교역 과정에서 성장한 지방민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는 하대 이전부터 남해무역 등 중국을 통하여 향을 구입하였으므로, 대일 교섭 항로와 관련된 지역보다 대중 교섭이 활발한 지역에서 이러한 집단의 성장이나 전개가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사회, 항구 그리고 재지 지방사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현재 《東文選》에 수록된 〈天冠山記〉가 있다. 여기에는 신라 神

57) 〈靈岩 貞元銘 石碑〉
貞元二年丙寅, 五月十日. 渚坪外, 谷藏內. 不忘.
立□有卅二人□山乙卯巾, 合香十束. 入□□人名力知焉生右. 仁開.

武王이 완도로 들어갔다는 내용과 華嚴 승려인 洪震에 관한 내용이 남아 있다. 이미 〈천관산기〉를 바탕으로 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58] 〈천관산기〉를 언제 찬술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삼국사기》 등 사료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보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료는 장보고를 포함한 서남해안 해상 세력의 실태를 고려할 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주목된다.

[T-1] 신라 神虎(武)王이 태자가 되었을 때 마침 임금의 譴責을 당하여 산 남쪽 莞島로 귀양갔는데, 華嚴 洪震 大師가 본래 태자와는 좋아하는 사이라서 東宮[태자]의 일이 급함을 달려가서 이 절[天冠寺]에 의지하여 밤낮으로 예를 하고 정진하면서 華嚴을 불렀으며 神衆이 감응하였다. 곧 여러 神衆을 감동시켜 부름에 응하여 절의 남쪽 봉우리에 죽 늘어섰으니, 지금의 神衆岩이 그것이다.[59]

위의 사료에 의하면 먼저 신라 신무왕이 태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를 보면 신무왕이 태자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천관산기〉에서는 신무왕이 완도로 귀양갔다고 기술하지만, 신무왕이 달아난 일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가 아니라 5개월 후인 僖康王 2년(837)의 일이고, 《삼국사기》에서는 黃山津口에서 배를 타고 청해진 대사 弓福에게 가 몸을 의탁하였다고 한다.[60] 이런

58) 〈天冠山記〉을 언급하거나, 이를 장보고의 해상 세력과 연결지어 해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呂聖九, 1993 〈원표의 生涯와 天冠菩薩信仰硏究〉 《國史館論叢》48; 김주성, 1997 〈장보고세력의 흥망과 그 배경〉 《한국상고사학보》24; 邊東明, 2002 〈長興 天冠山 地域의 土着勢力과 佛敎信仰〉 《韓國中世의 地域社會硏究》, 학연문화사; 장일규, 2007 〈신라 하대 서남해안 일대 천태 관련 사찰과 장보고 선단〉 《신라사학보》10, 조범환, 2008 〈張保皐의 海上勢力과 華嚴神衆信仰- 天因의 〈天冠山記〉 분석을 중심으로-〉 《신라문화》32; 2018 《중세로 가는 길목 신라 하대사》, 새문사에 재수록) 등이 있다.

59) 《東文選》 卷68 〈天冠山記〉 "新羅神虎王爲太子時 適遭天譴流山西莞島 華嚴洪震 師素善太子 聞東宮事急 走依是寺 夜精勤 禮唱華嚴 神衆因感 諸神衆隨唱而應 遍列寺南峯. 今神衆岩是也."

60) 《三國史記》 卷10 僖康王 2년(837) 5월조 "祐徵懼禍及, 與妻子奔黃山津口, 乘舟

점을 감안하면 이 〈천관산기〉의 기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 후 洪震이 金祐徵을 위하여 天冠寺에서 밤낮으로 화엄 神衆을 예찬하였으며, 그 결과로 신중이 감응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조범환은 김우징이 신무왕으로 등극하였음을 암시하고, 천관사를 대상으로 왕실의 지원과 배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홍진이 김우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천관사로 달려간 것을 통해 적어도 홍진이 천관사에 주석하고 있던 승려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홍진은 천관사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사찰에서 김우징과 관련된 일을 전해 들었다고 생각된다. 천관사에 도착하여 밤낮으로 화엄을 염하자 신중이 감응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홍진은 천관사가 華嚴神衆信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석되며, 이에 그를 화엄승으로서 중앙에서 활동하던 승려로 보아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화엄 승려인 홍진이 경주 중앙사회와 연관되었을 근거는 미약하지만, 김우징을 통하여 중앙사회와 관계가 있었다고 파악하였다.[61] 홍진과 신무왕은 사료상 사이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홍진이 어느 정도 중앙사회와의 연관성을 가졌음은 인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아주 주요한 지적이며, 화엄 승려인 홍진의 광범위한 활동의 모습을 시사한다. 여기서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장보고의 무역 활동과 연관성이 깊은 산동반도 登州에 있었던 赤山法花院의 존재이다. 불교세력과의 관계라는 측면에 주목하였을 때, 바로 무역 활동과 관련이 깊은 재당신라인과 적산법화원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 開成 5년(839) 6월 7일조에 의하면 등주에 창건된 적산법화원은 동아시아 무역을 주도하는 존재였으며, 무역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이곳은 당으로 들어가는 현관과 같이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

往依於淸海鎭大使弓福."

61) 홍진이 경주에서 활동하면서 일찍부터 김우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다(조범환, 2018 앞의 책, 180쪽).

고 이곳에서 재당신라인을 관리하는 주체도 재당신라인이었다는 점에서,[62] 당나라에 존재하지만 재당신라인 사회와 아주 관계가 깊은 사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적산법화원이라는 이름은 《法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을 의식한 이름이고,[63]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보면 開成 4년(838) 11월부터 開成 5년 정월까지 실행하였던 법화경의 講話와 의례가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조석 예배의 경우는 당나라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이외는 모두가 신라어를 쓴 신라식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여름의 8월 15일부터 3일간 신라의 對발해 전쟁 승리와 중추절을 연결시킨 신라 독자적 행사도 실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적산법화원은 신라 풍속의 영향이 강했던 사원임을 알 수 있다. 즉, 적산법화원은 재당 신라인을 중심으로 경영되었던 사원이며 신라를 중요한 축으로 삼아 운영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산법화원은 장보고를 통하여 9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을 매개한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李信惠의 사건이 주목된다. 즉, 적산법화원은 교역 활동에 관여한 신라인을 받아들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남해안은 8세기 중반부터 9세기 전반에 이르러 적산법화원을 중심으로 한 교역망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적산법화원의 불교 신앙은 敦煌莫高窟 45窟 혹은 그 후의 시대로 볼 수 있는 강남지방의 明州 및 舟山의 觀音信仰 등을 다양한 출자를 가지고 무역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 주도한 것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64] 즉, 신라라는 국가 의식을 핵심으로 교역망을 만들었던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오늘날 제주지역에 해당하는 탐라국의 상황이다. [65] 통일 이전 삼국시대 탐라국의 대외교섭은 주로 백제와 고

62)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4년(838) 6월 7일조.
63) 金文經, 2001 〈在唐新羅人社會と佛教〉 《アジア遊學》26.
64) 田中史生, 2018 〈古代東アジアの佛教と民間の國際交易〉 佐藤長門編, 《古代東アジアの佛教交流》, 東京: 勉誠出版, 104～105쪽.
65) 탐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森公章, 1985 〈耽羅方脯考－8世紀, 日本と耽羅の 〈通交〉－〉, 《續日本紀研究》239; 1986, 〈古代耽羅の歷史と日本〉, 《朝鮮

구려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476년 백제와의 첫 교섭을 계기로,[66] 탐라는 백제에 공납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을 것이라 파악된다.[67] 물론 탐라는 5세기 후반 백제가 고구려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南遷하자 급변하는 각국 정세를 재빨리 인지하고 행동하였던 것 같다. 《삼국사기》 동성왕 본기에 498년 탐라가 백제에 貢賦를 바치지 않자, 동성왕이 친정을 행하고자 하였다는 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68]

이후 탐라는 660년 백제가 멸망하자 이듬해인 661년에는 당과 일본에 접촉하고,[69] 다시 662년에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항복하고 속국이 되었다.[70] 그리고 《신당서》 卷220 列傳145 東夷 流鬼조에서는 儋羅[탐라]의 왕인 儒李都羅가 당에 입조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71] 이처럼

學報》 118, 1998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東京: 吉川弘文館에 재수록; 진영일, 1994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 《제주도사연구》 3; 이청규, 1996 〈耽羅上古社會 變遷過程 硏究〉, 《성곡논총》 27; 진영일, 2000, 〈《三國志》 東夷傳 韓條 〈州胡〉, 《三國史記》 〈耽羅國〉 硏究〉, 《인문학연구》 ; 진영일, 2007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김경주, 2018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호남고고학보》 58; 국립제주박물관 편, 2018 《탐라》 국립제주박물관; 小宮秀陵, 2019 〈고대 탐라와 일본〉, 한국목간학회편 《문자와 고대 한국2 교류와 생활》 주보돈교수 정년기념논총, 주류성; 채미하 외, 2019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이승호, 2021 〈5~8세기 耽羅國의 대외교류와 진상·조공 품목〉, 《동국사학》70 등이 있다.

66)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文周王 2년(476) 夏4월조, "夏四月, 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67) 장창은, 2019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21~123쪽.

68)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20년(498) 8월조,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羅卽牟羅.]"

69)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7년(661) 5월 丁巳조, "丁巳,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 伊吉連博得書云, 辛酉年正月廿五日, 還到越州. 四月一日, 從越州上路, 東歸. 七日, 行到檉岸山明. 以八日鷄鳴之時, 順西南風, 放船大海. 海中迷途, 漂蕩辛苦. 九日八夜, 僅到耽羅之嶋. 便卽招慰嶋人王子阿波伎等九人, 同載客船, 擬獻帝朝. 五月廿三日, 奉進朝倉之朝. 耽羅入朝, 始於此時. 又, 爲智興傔人東漢草直足嶋, 所讒, 使人等不蒙寵命. 使人等怨, 徹于上天之神, 震死足嶋. 時人稱曰, 大倭天報之近."

70)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2년(662) 2월조, " 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 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71) 《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流鬼조, "龍朔初, 有儋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大豕皮, 夏居革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唐會要》

탐라는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고려하는 한편, 다각적인 교섭을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탐라는 주변국과 교섭할 때 '獻方物' 혹은 '貢獻'의 방식을 활용하였다.[72] 7세기에 걸친 시기에 탐라가 일본과의 교섭에 적극적이었음은 문헌에서 확인되는데, 7세기 말 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문헌 외에도 이 시기 탐라와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가 있으니, 바로 正倉院 中倉15 正集 第36卷〈周防國天平十年正稅帳〉이다. 〈周防國天平十年正稅帳〉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U-1] 〈周防國天平十年正稅帳〉[제1, 2紙]

交易御履料牛皮貳領 價稻壹伯柒拾束 一領九十束
一領八十束
交易鹿皮壹拾伍張 價稻陸拾壹束 五張別五束 七張別四束
二張別三束 一張二束
耽羅方脯肆具 價稻陸拾束 具別十五束

[U-2] 〈周防國天平十年正稅帳〉[제15, 16紙]

(十月)廿一日向京 耽羅嶋人廿一人, 四日食稻卄三束六把,
酒六斗七升二合, 塩一升六合八勺
部領使 長門國豊浦郡擬大領
正八位下額田部直廣麻呂將從一人合二人往
來八日食稻五束六把
酒八升塩三合二勺[73]

위의 사료는 오늘날의 山口縣에 해당하는 周防國에서 天平 10년(738)에 작성한 正稅帳으로, 탐라와 일본의 교류 양상 및 교역 품목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다. U-2에 따르면 천평 10년 10월 21일 '耽羅島人' 21명

卷100, 耽羅國;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15 朝貢.

72)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7년(1053) 2월조, "耽羅國王子殊雲那, 遣其子陪戎校尉古物等來, 獻牛黃·牛角·牛皮·螺肉·榧子·海藻·龜甲等物, 王授王子中虎將軍, 賜公服·銀帶·彩段·藥物."

73) 中倉15 正集 第36卷 〈周防國天平十年正稅帳〉은 宮內廳 공개한 正倉院文書 사진본을 底本으로 하여, 宮內廳正倉院事務所編, 1990 ≪正倉院古文書影印集成2 正集 表(卷22~45)≫, 東京: 八木書店; 東京大學史料編纂所, 1998 《大日本古文書 編年文書 2 覆刻版》, 東京: 東京大學出版會을 참고로 하였다.

이 周防國을 지나 平城京으로 입경하게 되자, 주방국에서 식료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특히 같은 시기의 문서인 U-1에서는 당시 주방국이 '耽羅方脯' 4具를 벼 60束으로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耽羅方脯는 일종의 전복이었을 것이다. 즉 《延喜式》 主計上式에서 등장하는 肥後國의 "耽羅鰒" 39斤과 豊後國의 "耽羅鰒" 18斤을 동일한 실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脯'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볼 때 耽羅方脯는 일정 수준의 가공이 이루어진 상품이었다고 판단된다. 일본에 전해진 耽羅方脯는 탐라식으로 가공된 전복이었던 것이다.[74]

또한 〈周防國天平十年正稅帳〉에서 교역물로 보이는 牛皮와 鹿皮도 탐라의 특상품인데 이것을 周防國 공헌물로서 일본 중앙으로 공납한 것으로 생각하고,[75] 당시 탐라와 일본의 공식적인 통교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사료에서 보이는 耽羅島人은 외교사절이 아니라 표류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한 견해가 있다.[76] 한편, 신선도의 유지 측면에서 耽羅方脯를 배에 싣고 다녔을 리 없다고 보고, 이들 耽羅島人을 일본과 평소 무역 거래를 하던 민간 상인이었다고 이해하며 耽羅方脯의 '方'이 국가를 뜻한다고 보아, 이것이 "탐라국에서 일본 조정에 貢上한 말린 고기(脯)"라는 의미로 풀이한 견해도 있다.[77] 실제로 신선도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선원이 전복을 배에 싣고 다녔을 가능성은 적다. 이들 '耽羅島人'은 일본과 평소 무역을 하던 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U-2 사료를 통해 볼 때 이들을 다루는 일본의 대응은 표류민 등을 다루는 조치와 유사하여 단순한 민간 상인 집단이었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

74) 小宮秀陵, 2019 앞의 논문, 193쪽.

75) 738년 정월에 大宰府에 도착한 金想純 등 147명의 신라 사신단을 주목한 견해도 있다. 즉, 이들이 대재부에 머물다가 같은 해 6월 24일 대재부의 향응을 받고 放還되었는데 신라 사신단이 체류하면서 "耽羅方脯"를 교역했다고 보아, 신라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박남수, 2018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탐라문화》 58, 54~55쪽; 2019 《고대 동아시 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79~182쪽에 재수록).

76) 森公章, 1985, 앞의 논문, 1998 앞의 책에 재수록.

77) 진영일, 1994, 앞의 논문, 31~32쪽.

한편 직접적으로 탐라의 전복, 즉 '耽羅鰒'을 언급한 자료도 있다. 平城京에서 출토된 天平 17년(745)의 平城京木簡 344호에는 志摩國이 耽羅鰒 6斤을 공상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志摩國은 태평양쪽에 위치하는 현재 三重縣의 바닷가이기 때문에 지리적 조건상 耽羅鰒를 입수할 수 없다. 사실 志摩國의 전복 관련 목간은 150점이나 있지만, '탐라복'이라는 표현이 보이는 목간은 平城京목간 344호 1개에 불과하다. 이에 天平 17년 志摩國이 조정의 移宮을 기념하기 위해 자기 지역의 전복을 특별히 '탐라복'이라는 호칭으로 공진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78]

앞서 살펴봤듯이 《연희식》에는 탐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항로상에 위치하였던 豊後國 등의 공진물로 '탐라복'이 언급되고 있다. 아마도 당시 일본에서는 탐라의 전복이 일반 전복과 다르다는 의식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지마국 역시 이를 좇아 '탐라복'이라는 이름으로 전복을 공진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남해안 지역의 지방세력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남지역의 지방세력으로 사료상에 보이는 것은 長興 任氏이다.[79]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장보고 휘하에서 활동하던 장흥 임씨는 천관산 일대의 호족 세력으로 파악된다.[80] 즉, 군사 해상 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토착세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선행연구에서는 華嚴 神衆과 장보고의 해상 세력을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가 있어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사료에서 화엄 신중과 장보고의 해상 세력의 기반으로 보이는 장흥 임씨 세력의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였다.[81] 사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천관산기〉에 의하면 홍진이 화엄 신

78) 국립제주박물관편, 2018 《탐라》 국립제주박물관, 256쪽.
79) 長興 任氏는 후대에 나타난 씨족으로, 9세기 단계와 연결시키는 것에는 유의해야 하는 면도 있다.
80) 長興 任氏에 대해서는 邊東明, 2002 앞의 책, 13~33쪽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81) 조범환은 이 지역의 華嚴神衆信仰에 대하여 홍진이 화엄 신중을 불러 감응을 받았던 것을 볼 때, 해상 세력이 이에 부응한 것은 물론 장보고의 영향 아래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던 군사 무역상들이 장보고의 해상 세력이 마치 화엄 신중과 같

중을 불러 감응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화엄 신중을 현실 무력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무력 세력의 실체로 장흥 임씨 세력이나 천관산 일대의 호족을 들기도 한다.[8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장보고의 군사 세력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호족 세력인 장흥 임씨 세력 역시 결국 장보고의 세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장보고의 군사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83]

완도 청해진에 인접한 해남 지역의 지리적인 조건을 감안하면, 장흥 임씨 세력이 장보고의 존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활동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금 늦은 시기의 자료이지만 9세기 중엽 聖住寺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신라 하대에는 중앙의 진골 귀족들이 화엄종이나 선종사찰에 토지 혹은 租稻 등을 기진하는 일이 잦았다. 해상 세력이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힘을 키우고 있었던 상황에서, 진골귀족들 역시 해안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성주사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었다.[84]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이미 9세기 전반의 장보고가 활약했던 시기부터 지방 호족의 하나인 장흥 임씨 세력도 장보고를 통해 중앙과 매개되고, 해남지역의 항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중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방사회의 상황을 확인하고자한다. 9세기 전반 국내의 상황은 金憲昌의 亂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난의 배경과 관련하여 菁州와 울산 지역의 사회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85] 김헌창의 난과 관련된 움직임은 《삼국사기》 新羅本

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흥덕왕 3년(828)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 화엄신중신앙은 더욱 널리 퍼져 나갔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고 결국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이 신앙이 널리 퍼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조범환, 2018 앞의 책, 183~1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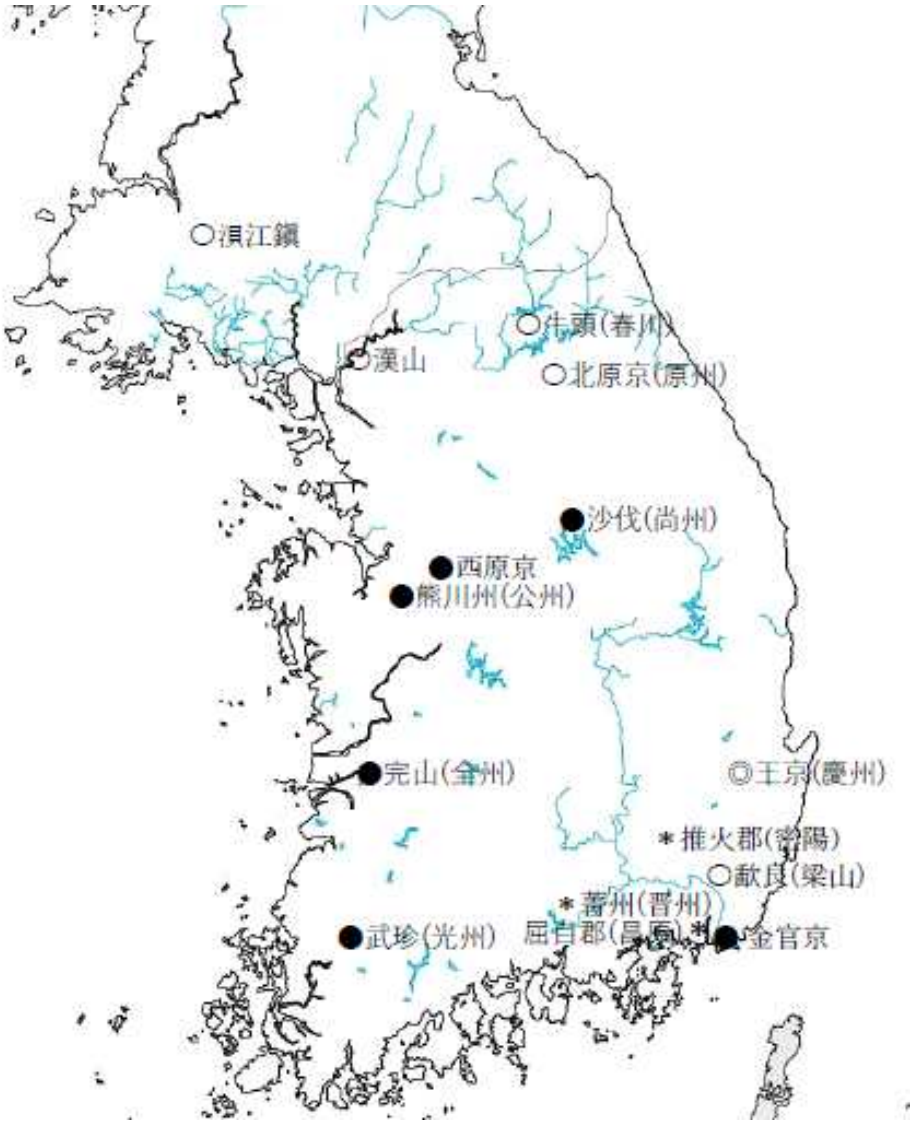
82) 최성락 외, 2003 《장보고관련 유물 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198~200쪽.

83) 조범환, 2018 앞의 책, 189쪽.

84) 近藤浩一, 2006 〈9세기 중엽 聖住寺와 신라 王京人의 서해안 진출-장보고 교역 활동의 영향과 관련하여-〉 《신라사학보》 8, 125쪽.

紀 憲德王조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사료상에 드러난 김헌창의 난 과정에서의 움직임을 지도로 정리한 것이다. ●는 사료에서 州의 이름이 확인되어 김헌창의 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반면에 ○는 사료에서 주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서 난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편 ※는 난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9세기 초에 일어난 김헌창의 난에서는 주 단위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85) 金憲昌의 亂에 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 언급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基東, 1980 〈新羅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85, 1984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에 재수록; 金東洙, 1989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韓國史硏究》39, 39쪽; 李明植, 1984 〈新羅 下代 金周元系의 政治的 立場〉 《大邱史學》26, 71~72쪽; 金貞淑, 1984 〈金周元世系의 成立과 그 變遷〉 《白山學報》28, 174쪽; 金昌謙, 1995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金周元系의 動向〉 《阜村申延澈敎授停年退任史學論集》 일월서각, 467쪽, 2003 《신라 하대 왕위계승연구》, 경인문화사에 재수록; 황선영, 1998 〈신라하대 金憲昌의 亂의 성격〉 《釜山史學》35, 2002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에 재수록; 주보돈, 2008 〈신라 하대 金憲昌의 亂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51.



[그림 18] 金憲昌의 亂 때 사료에 보이는 지방의 상황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내용을 정리하여 필자 작성)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菁州의 도독이었던 向榮이 推火郡으로 도망했다는 내용이다. 推火郡은 현재 경상남도 밀양 지역이다. 향영의 청주 도독 취임 기사는 사료상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김헌창이 熊川州 都督으로 부임한지 1년이 안 되어 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향영은 김헌창 다음에 청주 도독에 취임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 菁州에

는 주의 장관인 도독 한 명, 보좌관인 州助 한 명과 長史 그리고 外司正 두 명이 파견되었으며, 외사정이 지방관을 감찰하는 형태였다.[86] 따라서 도망한 도독 외에도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미리 난이 일어날 것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한산주 등이 난을 인지하고 미리 수비한 것에 비해 菁州는 도독이 부재했기 때문에 '擧兵自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다.[87] 이러한 향영의 움직임은 후대의 사료인 《晋楊誌》 卷3 名官條나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尙道 晋州牧 名官조에도 보인다. 菁州 지역의 여러 하급 지방관들도 재지세력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을 것으로 본 견해가 있지만,[88] 이렇게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菁州의 도독인 향영과 재지 세력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 견해도 있다.[89] 이 견해에서는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자 멀리 있는 完山州의 長史 崔雄과 州助인 令忠은 왕경에 가는데,[90] 이와 달리 향영은 왕경으로 향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향영이 菁州 내 반란 가담세력의 동향과 중앙 진압군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스스로 유보했으며 菁州세력이 동남방향에서 왕경으로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추화군에 머물렀다고 해석하였다. 물론 菁州에서 이러한 대립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난이 일어났을 때 菁州에서 특이한 행동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고, 이는 청주라는 지역 특성을 생각했을 때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이다.

난의 대응책으로서 난이 일어난 곳과는 별도로 蚊火關門·黃山·施彌知

86) 《三國史記》 卷40 職官志下, 外官조.
87)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憲德王 14년(822) 3월조 "三月, 熊川州 都督憲昌, 以父 周元不得爲王反叛, 國號 長安, 建元慶雲元年. 脅武珍·完山·菁·沙伐四州都督, 國原·西原·金官 仕臣及諸郡縣守令, 以爲己屬. 菁州都督向榮, 脫身走推火郡, 漢山·牛頭·歃良·浿江·北原等, 先知 憲昌 逆謀, 擧兵自守."
88) 박용국, 2005 〈신라 憲德王代 金憲昌의 亂과 晉州地域〉 《퇴계학과 유교문화》 37, 265쪽.
89) 박용국, 2005 위의 논문, 267쪽.
90)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憲德王 14년(822) 3월 18일조 "完山長史崔雄 · 助阿湌正連之子令忠等、遁走王京告之.."

鎭·道冬峴에 군이 파견된 점도 주목된다. 이 지역들은 단순히 왕경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水路로 연결된 지점에 위치하였다. 특히 문화관문의 경우는 월성군 외동면 모화리에 있었던 왕경을 수비하는 관문이다.[91] 문화관문은 성덕왕 21년(722)에 축조된 毛伐郡城을 시초로 하는데,[92] 울산만 방면에서 왕경으로 향하는 경로를 의식하여 축성하였던 성이다. 따라서 이곳에 군사를 파견한 것은 중앙에서 亂軍의 해로를 통한 공격을 우려하였음을 말해준다.[93] 해로뿐만 아니라 육로를 생각했을 때도 이곳은 왕경 남쪽 관문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하였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9세기 전반에 신라의 대일교섭 지역으로 이름이 보이는 장소에 주목하며, 대외 항구로서 각 지역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청주의 경우 문헌사료 뿐만 아니라 금석문을 통해 중앙과 관계가 깊은 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헌창의 난 때 확인되는 향영의 움직임은 중앙과 지방의 대립 관계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료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

9세기 전반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후, 장보고가 등장하여 청해진이 설치되고 이를 중심으로 무역 활동이 실시되었다.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서남해안 지역은 중국과의 주요 교역 창구이기도 했지만, 앞의 〈영암 정원명 석비〉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지방세력과의 관련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중국 산동반도의 적산법화원의 역할을 통해, 장보고가 불교 집단을 매개로 하여 무역 활동을 실행하였음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長興 任氏 세력은 호족세력이지만, 이 지역에서 장보고의 영향력 없이 활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남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

---

91) 하일식, 2003 〈新羅 統一期의 貴族私領과 郡縣制 - 關門城 築造時의 力役編成 事例 分析-〉 《동방학지》122, 121~130쪽; 강종훈 2006 〈신라 왕경의 방어체제 - 경주 지역 성곽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7, 4~13쪽.

92)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聖德王 21년(722)조; 《三國遺事》卷2 紀異2 孝成王조.

93) 주보돈, 2008 앞의 논문, 250쪽.

리적으로 장보고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호족세력의 독립적인 활동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천관산기〉를 통해서는 서남해안 지역이 어느 정도 중앙과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남해안 지역은 진주와는 다른 성격과 강도로 중앙사회와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남의 지방세력인 長興 任氏의 경우 장보고와 중앙에 양속하는 성향이 강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남해안 지역의 경우 지방세력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상황에서 해양 활동이 실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진주 지역의 경우 사료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앙과 면밀하게 연결되어 중앙의 항구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9세기가 되면 그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일본으로 출항하기가 쉽다는 점이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청주 지방사회의 상황, 혹은 경주와의 거리 등도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 반구동 유적은 통일신라 시기에도 대일 교섭에서 그 이전까지와 동일한 위상을 유지했는지 의문이 있다. 외항이나 내항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면, 울산의 경우 경주와 거리상으로 제일 가깝고 왕경의 것과 같은 기와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내항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통일신라시기에 사용된 항구들은 각각 중앙사회와 연결되는 한편, 지방에서 성장·존재하였던 재지세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대외교섭 항구는 중앙의 영향력 없이 운영될 수는 없었지만, 각 지역마다 중앙 간 관계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 항구와 주변의 지방 재지 세력과의 연계 양상에서도 차별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의 대일교섭 항구들은 그 성격과 역할에서 다원성을 보인다.

2. 9세기 이후 신라 국제 무역의 확대

9세기 이후 국제 무역의 출현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장보고와[94] 재당신라인의 활동 양상이다. 9세기 초에 신라로 귀국한 장보고는 해적을 단속하는 등의 역할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완도에[95] 淸海鎭을 설치하고,[96] 淸海大使로 임명받아[97] 당나라·신라·일본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장보고가 세운 완도의 청해진은 당나라·신라·일본 삼국 간의 교역을 매개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장보고는 재당신라인이 포함된 상인들을 조직화했는데, 이 점은 신라와 일본의 교역을 고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이다. 장보고는 당·신라·일본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

94) 장보고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초기의 연구까지 포함하면 많이 있다. 최근에 발표된 장보고의 대표적인 논고로는 金暘玉외, 1985 《張保皐의 新硏究 - 淸海鎭活動을 中心으로-》, 莞島文化院; 金文經, 1997 《張保皐硏究》, 연경문화사; 高慶錫, 2005 〈淸海鎭 張保皐勢力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근식, 2005 《신라해양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최덕수 외, 2006 《장보고와 한국 해양 네트워크의 역사》,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보고 연구의 흐름과 한계에 대해 언급한 연구로 정운영, 2015 〈淸海鎭 張保皐 勢力의 政治的 限界〉 《한국사학보》59 등이 있다.

95) 莞島에 다다르면 耽鎭, 康津으로 들어가는 가줄기를 타고 장보고기지인 청해진으로 들어간다(박남수 외 지음, 2022《신라인의 기록과 신라사 복원》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63쪽).

96) 지금의 완도군을 이루고 있는 여러 섬들은 지리적·역사적·행정적으로 강진·해남·장흥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청해진이 설치될 때 본부는 지금의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의 장도 일대에 있었다. 이러한 장좌리 청해진성의 지리적 문제나 장도의 木柵등에 대한 서술은 완도 청해진의 발굴 성과를 발표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趙由典·金聖範, 1993 〈莞島淸海鎭遺蹟에 관한 一考 -發掘進行遺構를 中心으로-〉 김문경 외, 1993 《張保皐 해양경영사연구》, 도서출판이진, 214~230쪽,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將島淸海鎭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가 있다. 하지만, 그 관할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는 지금의 완도군 전체와 강진·해남·장흥 등 부근의 남해안 지역을 그 관할 구역으로 하였을 것이라고 본 견해도 제시한 바가 있다(강봉룡, 2002 〈장보고의 '청해진 체제'건설과 성공 비결〉, 최영호 외, 2002《장보고와 미래 대화》,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140쪽).

97) 《三國史記》 興德王 3년(828) 夏4월조 "夏四月, 淸海大使弓福 , 姓張氏一名保皐., 入唐徐州爲軍中小將, 後歸國謁王, 以卒萬人, 鎭淸海 [淸海今之莞島]."

물로, 종래의 선행연구에서는 그의 무역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청해진을 포함한 鎭이 신라 하대의 공적 군사 기구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98]

《삼국사기》 흥덕왕 3년(828) 여름 4월조에 의하면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軍中小將까지 지낸 후 신라로 귀국하였는데, 그 후 흥덕왕을 알현하고 士卒 일만 명으로 청해진을 세웠다. 군중소장은 다른 기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구당서》 지리지에 武寧軍節度使는 徐·泗·濠·宿의 四州를 관장하였다고 했으므로 장보고는 당시 무령군절도사 아래에서 활동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李氏討伐에서 활약한 무령군절도사의 牙軍에 소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구당서》卷124, 李正己傳付師道傳과《구당서》卷156, 王智興傳[99]에 전하는 군중소장은 이씨토벌의 성과를 인정받아 맡을 수 있었던 관직으로 보인다. 장보고는 무령군의 감군 정책 때문에 군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00] 반면 822년 무령군절도사로 집권하고 나서 그의 좁은 도량과 유능한 사람을 질투하는 성격 때문이었다는 의견도 있다.[101] 아무튼 장보고는 821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 무령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보고는 청해진 설치 이전에 당나라에서 활동하였음이 사료상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물론 장보고의 이러한 군사적인 경력은 대외 항구로서의 청해진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중요한 측면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828년 청해진 설치를 전후하여 보이는 교류 양상의 변화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장보고는 흥덕왕 3년(828)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당-신라-일본을 잇는 교역망을 구축하였으며[102] 자신의 무역선단을 교관선으로 지칭하며 遣唐

98) 최상기, 2020 《新羅 將軍制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0쪽.
99) 《舊唐書》 卷124 李正己傳付師道傳; 《舊唐書》 卷156 王智興傳.
100) 蒲生京子, 1979 〈新羅末期の張保皐の擡頭と反亂〉,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6, 50쪽.
101) 허일 외 공저, 2001 《張保皐와 황해 해상무역》, 국학자료원, 62~63쪽.
102) 이러한 신라의 교역망에 대하여, 신라 당은포에서 중국 산동반도 등주 적산포를 거점으로 하여 중국 하남도의 밀주와 해주, 회남도의 초주, 사주, 연수, 양주

賣物使[당]와 廻易使[일본]를 운용하였다. 아울러 '장보고 선단'이라는 명칭으로 미루어 볼 때 장보고의 교역 활동은 신라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사서에서 보이지 않지만, 일본에게 당으로 건너간 승려 圓仁의 일기인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103] 《입당구법순례행기》 卷2 開成 4년(839) 6월 27일 기록에 의하면 "듣기로는 張大使의 交關船 2척이 旦山浦에 도착했다고 한다."라고 하였으며,[104] 같은 해 8월 13일 기사에서는 "듣기로는 '相公 이하가 탄 9척의 배가 지금 靑山浦에 있으며, 또한 발해의 교관선도 함께 그 포구에 정박해 있다. 그곳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현 관아에 보고하러 갔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자세하지 않다. 그 까닭은 9척의 배가 이곳 赤山浦로부터 출발한 후 서북풍이 연일 계속 불어서 지금까지 불고 있다. 어떤 장애가 있어 떠나지 못했다는 것인가. 다만 이것은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일 뿐이다."[105] 라고 되어 있다. 《입당구법순례행기》 내에서 '張大使'라고 지칭하는 인물은 장보고와 張詠 두 명이 있지만, 무역 목적의 교관선을 소유한 것을 고려하면 6월 27일 기사의 張大使는 장보고라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위의 기사에서는 교관

등지에 분산되어있는 신라의 무역상들을 하나의 교역망에 편제함으로써 삼국의 교역을 지배 내지 영향력 하에 두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이기동, 1997 《新羅社會史硏究》, 일조각, 215쪽).

103) 圓仁은 일본의 求法僧으로 《입당구법순례행기》의 내용을 통해 838년 7월부터 847년 9월까지 당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揚州, 楚州, 海州, 登州 文登縣의 赤山村[赤山法華院]을 거쳐 오대산 순례를 마치고 장안에서 2년 여간 머물렀다. 그러나 당 무종의 會昌廢佛을 계기로 845년 귀국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 당의 국내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귀국은 쉽지 않았고, 洛陽, 揚州, 楚州, 登州 文登縣의 적산법화원을 거쳐 楚州로 갔다가 결국은 乳山에서 드디어 일본행 배를 탈 수 있었다. 乳山에서 배를 타서 적산포와 신라 청해진을 거쳐 博多으로 귀국하였다.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이러한 일련의 求法부터 일본 귀국까지의 내용을 일기로 쓴 사료이다.

104)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 4년(839) 6월 27일 "廿七日. 聞, 張大使交關船二隻到旦山浦."

105)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 4년(839) 8월 13일 "八月十三日. 聞, "相公已下九隻船在靑山浦, 更有渤海交關船同泊彼浦. 從彼有人來報縣家去." 未詳虛實. 所以然者九隻船從此赤山浦發後, 西北風連日常吹于今猶有. 更有何所障不發去. 但應是人虛傳."

선이 정박한 포의 이름이 보인다. 먼저 6월 27일 기사에서 보이는 旦山浦는 다른 기사에도 확인할 수 없으며, 어디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張大使의 交關船”이라는 내용을 고려한다면 旦山浦는 장보고가 건립한 赤山法花院이 존재하는 산동반도 登州 赤山浦의 誤記로 생각된다.[106]

또한 8월 13일 기사에서 보이는 靑山浦는 文登縣 동북쪽 150리에 위치한 成山 해변의 成山島이고, 지금은 山東省 寧城縣의 관내에 속한 곳이다. 특히 8월 13일 기사에서 보이는 교관선은 단순한 무역 활동뿐만 아니라 사신선과도 관계가 있다. 遼東半島의 都里鎭과 산동의 등주를 연결하는 항로가 있었으며,[107] 장보고와 재당신라인들이 소유하는 항로가 사신의 왕래에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장보고 선단의 배와 발해의 사신선을 모두 ‘교관선’이라 일컫고 있다. 사료상에 교관선이라고 보이는 배의 실태를 살펴보면, 장보고 선단이 단순히 사무역을 하던 집단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08] 이러한 장보고의 교역 활동 배경에는 재당신라인의 존재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對일본 교역을 실행하였음이 사료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 일본 항로의 이용 또한 마찬가지로 무역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圓仁이 일본의 견당사선을 타고 당에 건너간 후 장보고의 지배하에 있었던 항로나 재당신라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106) 小野勝年, 1961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61쪽.
107) 小野勝年, 1961 위의 책, 60~61쪽.
108) 박남수, 2011 《한국 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 주류성, 296쪽.

[그림 19] 4월 5일조에 등장하는 재당신라인의 宿城村 비정지
[현재 連雲港市 連雲區] (2019년 10월 필자 촬영)

《입당구법순례행기》 개성 4년(839) 3월 기록을 보면 圓仁이 합류했던 일본의 견당사 사신단이 당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성 4년(839) 4월 1일 기록을 보면 圓仁이 탄 견당사선에서 고용한 신라인의 의견이 제시되는데, “신라인 수수가 말하기를 ‘여기서 북쪽으로 하루를 가면 밀주 관내의 동쪽 연안에 大珠山이 있다. 지금 남풍을 얻는다면 곧 그 산에 도착해 배를 수리하고 즉시 그 산으로부터 바다를 건너면 반드시 무사할 것이다.’라 하였다. 대사는 그 방법에 따르고자 했으나 여러 관인들은 수긍하지 않았다.”[109]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견당사가 사용한 배는 신라상인과 관련된 배였을 가능성이 크고, 大珠山의 배를 수리하는 시설의 정보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또한 재당신라인들이 운영했던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월 1일의 결과는 4일 후인 개성 4년(839) 4월 5일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V-1] 제1선에서 보내온 첩문에 이르기를 “제1, 4, 6, 8선 등의 배는

109)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 4년(839) 4월 1일조 “新羅水手申云, “自此北行一日於密州管東岸有大珠山. 今得南風更到彼山修理船, 卽從彼山渡海甚可平善.””

배의 조절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먼저 밀주 땅에 가서 배를 수리하여 그곳에서 바다를 건너고자 하였다. 청익승은 앞서 초주에 있을 때 신라어 통역 김정남과 더불어 모의하기를, 밀주 땅에 도착하면 민가에 머물러 있다가 조공선이 출발하고 나면 산속에 숨어 있다가 천태로 향하고 아울러 장안으로 갈 생각이었다. 대사는 이 계획에 반대하지 않았다. 지금 여러 배가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기로 하고, 대사가 밀주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의론을 따르지 않았다. (중략) 언덕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니 흰 돛이 연이어 바다에 떠가고 있었다. 청익승 등 4명은 바닷가의 산 언덕에 머물러 있다가 재를 들 시간이 되어 물을 찾아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오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놀랍고 괴이하여 바라보니 배 한 척이 정박지에 도착했다. 사람은 모두 10여 명인데 그곳에 닻을 내리고 머물러 정박했다. 그들이 배가 정박한 곳으로부터 와서 승려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를 물었다.

청익승 등이 대답하기를 “저희 승려들은 본래 신라인입니다. 일찍이 초주에 살았는데, 밀주에 가서 의논할 일이 있어 잠시 일본 조공사의 배를 타고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조공사의 배가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갔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고 운운하였다. 뱃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밀주에서 왔습니다. 배에 석탄을 싣고 초주로 향해 가는 중입니다. 우리도 본래 신라 사람인데, 사람의 수는 10여 명입니다. 스님 등이 있는 이 깊은 산에는 민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지금 밀주로 가는 배도 응당 없을 것입니다.” (중략)

뱃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남쪽으로 가서 산 하나를 넘어 20여 리를 가면 곧 마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을 딸려 보내 그대들을 데려다 주겠습니다.” 하였다. 곧 한 사람이 인솔하고 우리는 그를 따라갔다. (중략) 오후 4시경에 宿城村의 신라인의 집에 도착해 잠시 휴식했다.[110]

---

110)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 4년(839) 4월 5일 “第一四·六·八亦船爲換作船調度, 先擬往 窎州界修理船從彼過海. 今信風吹仁從此過海. 轉報諸船者.” 請益 僧先

위 기록을 통해 圓仁은 재당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아 움직였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20일 기사를 보면 “이른 아침에 신라인이 작은 배를 타고 왔다. 문득 듣건대 ‘장보고가 신라 왕자와 합심하여 신라국을 징벌하고 곧 그 왕자를 신라국의 왕자로 삼았다.’고 하였다.”[111]라는 내용이 보이며, 이 배를 타고 온 신라인은 839년 정월 19일 기사의 소식을 전하며 신라 혹은 장보고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건으로 관심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개성 4년(839) 4월 26일 기사에서는 “오후 2시경에 신라인 30여 명이 말과 나귀를 타고 와서 말하기를 ‘押衙는 潮水가 빠지면 와서 만나보려고 한다. 그래서 마중하기 위해 미리 와서 기다린다.’고 했다. 그중에 한 백성이 말하기를 ‘어제 廬山으로부터 왔는데, 일본국 조공선 9척이 모두 여산에 도착한 것을 보았다. 사람이나 물건은 상한 것이 없었다. 그 배의 관인 등은 모두 육지에 올라가 천막집을 짓고 조용히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다.”[112]는 내용이 보인다. 이는 신라인들이 일본 견당사가 장보고의 당-신라-일본의 무역 항로를 이용한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在 楚州 与新羅譯語金正南共謀, 到密州 界留住人家朝貢船發隱居山裏, 便向天台兼泩長安. 節下不逆斯謀. 今諸船從此過海, 不隨節下泩 密州 界之議. 加以信風連日不變, 所以第一船只隨從此過海之說解纜擬發. 仍所求得法門一篦·兩部曼荼羅·壇樣寺盛皮大箱一合, 寄付第八船頭 伴宿祢 兼付隨身物. 請益僧 惟正 · 惟曉 ·水手 丁雄滿四人下船留住岸上. 節下賜金廿大兩. (중략) 登岸望見白帆綿連行在海裏. 僧亦四人留住山岸, 爲齊時尋水入深澗. 不久之間有聞多人聲. 驚怪望見有一船到泊船處.登岸望見白帆綿連行在海裏. 僧亦四人留住山岸, 爲齊時尋水入深澗. 不久之間有聞多人聲. 驚怪望見有一船到泊船處.有餘人下矴停住. 從船處來問僧亦在此之由. 僧亦答云, “僧亦卒是新羅人. 先住楚州, 爲泩密州有相議之由暫駕朝使船隨相來. 朝貢使船今日過海所以下船留此.” 云々. 船人亦云, “吾亦從 密州 來. 船裏載炭向楚州去. 卒是新羅人, 々數十有餘. 和尙 亦今在此深山絶无人家. 亦當今无船泩 密州. (중략) “從此南行踰一重山廿餘里方到村里. 今交一人送去.” 便將一人相從進行.(중략)船人亦語云從云,申時到宿城村新羅人宅暫憩息.”

111)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 4년(839) 4월 20일 “廿日. 早朝新羅人乘小舡來. 便聞, “張寶高与新羅王子同心罰得新羅國, 便令其王子作新羅國王子旣了.”

112)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 4년(839) 4월 26일 “未時新羅人卅餘騎馬乘驢來云, ‘押衙潮落擬來相看. 先來候迎.’ 就中有一百姓云, ‘昨日從廬山來, 見本國朝貢船九隻俱到廬山. 人物無損. 其官人亦惣上陸地作幕屋在從容候風.’”

그렇다면 장보고 사망 이전 시기까지 이와 같은 신라인과 신라 관련 인물들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신라와 일본의 교류 관계를 담은 사료를 살펴보겠다. 아래의 [표 13]은 9세기대 '신라상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이후부터 장보고가 사망한 전 830년대까지 신라의 대일 교역과 관련된 사료들을 모은 것이다.

[표 14] 신라인과 신라 관련 인물의 대일 교섭 기사
(장보고 사망 이전)

연 · 월 · 일, 출전	사료상의 표현 · 인물명	도착지 /人數(명)	내용
弘仁5년(814) 10.13 《日本後紀》	신라상인	長門國豊浦郡/31	'신라상인' 등장 기사
弘仁5년(814) 10.27 《日本後紀》	신라인, 辛波古知等	博多津/26	표착
弘仁6년(815) 《入唐求法巡禮行記》	新羅僧, 李信惠	太宰府	환속한 후 圓仁의 통역사
弘仁7년(816) 10.13 《日本紀略》	신라인, 淸右珍等	太宰府/180	귀화, 이후 입경
弘仁8년(817) 2.15 《日本紀略》	신라인, 金男昌等	太宰府/43	귀화
弘仁8년(817) 4.22 《日本紀略》	신라인, 遠山知等	太宰府/144	귀화
弘仁9년(818) 1.13 《日本紀略》	신라인, 張春等	14	당나귀[驢] 네 마리 가져옴

113) 여기서의 張大使를 장보고라고 보는 견해와 장영이라고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권덕영, 2005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일조각, 121~127쪽).

弘仁10년(819) 《日本紀略》	新羅人船		당월주인 周光翰, 言升則이 신라인 배에 동행함. 일본의 요청에 따라 당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다음해 정월에 발해 사신의 배를 타고 귀국함
弘仁10년(819) 4.27 《入唐求法巡禮行記》	신라인, 王請等	出羽	무역 때문에 당인 張覺濟 형제가 동행함. 양주를 떠나 항해하던 도중 악풍을 만남
弘仁11년(820) 4.27 《日本紀略》	신라인/당인, 李少貞	出羽/20	표착
弘仁11년(820) 5.4 《日本紀略》	신라인, 李長行等		양, 흰양, 산양, 거위 등을 진상함
弘仁13년(822) 7.17 《日本紀略》	신라인	40	귀화
天長원년(824) 3.28 《類聚國史》	신라인	165	구분전을 지급함
天長원년(824) 5.11 《類聚國史》	신라인, 辛良金責賀良水白等	54	陸奧國에 安置함. 구분전을 지급함
天長원년(824) 《入唐求法巡禮行記》	신라인, 張大使[113]		張大使는 장보고 혹은 張詠. 귀국할 때 李信惠를 데리고 감
天長10년(833) 4.8 《續日本後紀》	신라인, 金禮眞等 남여	10	投化, 左京五城에 배치함

天長10년(833) 《平安遺文》 《入唐五家傳》 〈安祥寺資財帳〉	新羅商客		惠運이 신라상객에게 銅鋺, 疊子 등을 구입하고 安祥寺에 시납함
838년 《日本文德天皇實錄》	당인		
839년 10월 《入唐求法巡禮行記》 《續日本後紀》	신라인	60여 명	재당 신라인 60여 명이 9척의 배에 승선하며 견당사절단을 태움

《日本後紀》弘仁 5년(814) 10월 13일조는, 사료에서 '신라 상인'이 처음 등장하는 기사다. [표 13]에서는 歸化라고 표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流來'에 준하는 대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辛波古知의 경우, 처음에는 표착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일본으로 온 이유를 묻자 "풍속과 교화에 의탁하고자 멀리서 왔다"고 대답하여 결국 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淸右珍도 大宰府에 귀화 의사를 뚜렷이 밝힌 후 時服 및 船糧을 지급받았으며, 제공받은 선박으로 입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金禮眞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귀화 의사를 표명한 후 좌경오성에 배치되었다. 8세기에 일본이 신라인 입경을 허락한 예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9세기 대의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귀화 의사를 표명한 신라인들은 나쁘지 않은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아울러 방환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張春은 종래의 조공품을 본뜬 헌상품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는 신라 상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으로부터 방환당하지 않고 교역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귀화가 빈발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李信惠에 관한 내용이다.

[표 13]에서 확인되듯이 弘仁 6년(815)에 大宰府로 와서 8년까지 체류했던 이신혜는 須井宮에서 각별한 보호를 받았다. 그 후 天長 원년(824)

에 張大使를 따라가 赤山法花院으로 들어갔다는 기사가 보인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에 의해 처음 세워진 것이지만,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114] 다만 이신혜의 기사를 통해 적어도 천장 원년 이전에 적산법화원이 창건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신혜가 당나라로 건너간 계기로는, 일본이 824년 8월에 大宰府 관내에 체류하던 귀화인들을 동북지역의 陸奥로 이주시키려는 조치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大宰府 관내에 거주하며 신라와의 중개를 담당하던 신라인들에게 일본이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신혜는 동북으로의 이주를 피하기 위해 장대사의 권유를 받고 적산법화원으로 건너간 것이다.[115]

또한 弘仁 10년(819)에 당 월주인 周光翰, 言升則은 일본의 요청에 따라 당나라 소식을 전달했으나 귀국 시에는 발해 사신의 배를 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일본이 신라 상인들의 교역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소식 등 국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신라 상인에게 의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견당사 파견이 어려워 당나라 소식을 듣지 못하던 상황에서 신라 상인 혹은 재당신라인들의 정보망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신라 선박에 의존하지 않는 당나라 상인의 독자적인 왕래는 承和 9년(842)의 李處人이나 承和 14년(847)의 張友信 사례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다. 즉, 당나라 상인은 빈번히 왕래하는 신라 선박을 이용하거나 신라 선박을 이용한 일본의 사적인 渡唐者의 귀국에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116]

[표 13] 에서 잘 드러나듯, 동북으로의 이주 조치가 시행된 824년 이

114) 적산법화원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① 820년대 초 혹은 820년 전후라고 보는 견해(김문경, 近藤浩一), ②청해진 설치(828) 이전이라고 보는 견해(이영택, 이기동, 서륜희), ③청해진 설치 전후 시기라고 보는 견해(권덕영), ④청해진 설치 이후라고 보는 견해(이종훈), ⑤825년 무렵으로 보는 견해(조범환) 등이 있다. 적산법화원의 건립 시기에 관한 연구사는 조범환, 2002 앞의 논문, 144쪽, 각주 4(조범환, 2018 앞의 책에 재수록)를 참고했다.

115) 田中史生, 2016 《國際交易の古代列島》, 東京: KADOKAWA, 119～122쪽.

116) 森公章, 1998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東京: 吉川弘文館, 142～143쪽.

전 신라인들의 귀화는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율령에 따르면 호적에 등록되기 전의 귀화인들은 현지의 국사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했다. 따라서 이신혜를 포함한 大宰府 관내에 체류하고 있던 귀화한 신라인들도 국사의 보호를 받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이신혜가 장보고에게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824년 8월 이전까지는 신라와의 교역에 종사한 사람들이 현지의 관료들과 유착하여 무역활동을 전개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장보고의 대일교역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文室宮田麻呂의 사건이다. 이는 承和 9년(842) 정월에 장보고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전 筑前國의 國守 文室宮田麻呂가 지난해 장보고의 廻易使 李忠·楊圓 등이 가지고 온 교역품을 압수한 사건이 일어났다.[117] ≪속일본후기≫ 承和 7년(840) 12월 己巳(27일)條를 보면 그 사건 이전에 장보고 사신이 일본을 방문하여 말안장 등 방물을 헌상하였으며, 841년에는 장보고가 보낸 '회역사' 이충과 양원의 다자이후 방문도 보이고, 文室宮田麻呂와 장보고의 '唐國貨物' 조달을 둘러싼 거래 양상까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본적인 사료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일본 중앙 이외 지역과 장보고 간 국제 교역의 존재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속일본후기≫ 承和 9년(842) 정월 10일 기사 내용이 주목되는데, 내용상 전반부(a)와 후반부(b)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반부(a)의 내용이다. (a)는 장보고를 토벌한 閻丈이 筑前國에 李少貞 등을 보냈는데, 이소정 등이 牒狀을 가지고 와서 장보고의 죽음을 전하며 도망한 장보고 일파의 인도를 일본에 요구했다는 내용의 '公卿議'를 기록한 것이다.[118]

---

117) ≪續日本後紀≫ 卷11, 承和 10년(843) 12월조 "散位從五位上文室朝臣麻兄兄之從者陽侯氏雄, 告官宮田麻呂將謀反…於京及難波宅, 搜求反具…癸未謀反文室宮田麻呂罪當斬刑, 育降一等配流於伊豆國…告者陽侯氏雄特援大初位上, 任筑前權少國 以耳告有端也"

118) ≪續日本後紀≫ 卷11, 承和 9년(842) 정월 乙巳(10일)조 "(a)新羅人李少貞等卌人到着筑紫大津. 大宰府遣使問來由. 頭首少貞云.張宝高死. 其副將李昌珍等欲叛亂, 武珍州列賀閻丈与兵討平, 今已無虞. 但恐賊徒漏網, 忽到貴邦, 擾亂黎庶. 若有舟船

그 다음 후반부(b)는 전 筑前國守 文室朝臣宮田麻呂가 장보고 하의 신라인으로부터 '雜物'을 압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발각되어서 이에 대한 '公卿議'를 기록한 것이다. (b)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文室宮田麻呂는 장보고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장보고에게 絁를 '付贈'하고 '唐國貨物'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보고가 사망하여 약속한 화물을 얻을 수 없게 되자, 承和 8년(841) 말 장보고의 죽음의 이후 다시 온 장보고 회역사 李忠 등이 가지고 온 '雜物'을 차압한 것이다.[119]

즉, 일본 중앙정부는 신라인의 호소가 있을 때까지 사건의 경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얻을 물건인 '당국화물'의 '수량이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文室宮田麻呂의 말을 통해 장보고와의 사이에 상당수의 물품 교역을 약속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장보고의 교역은 일본 중앙뿐만 아니라 筑前國守와 직접 상거래를 할 만큼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 朝廷은 장보고선단에 상당히 동정적이어서, 文室이 회역사의 상품을 탈취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대재부 관리들을 질책한 뒤 화물을 되돌려 주게 하였다. 이는 장보고의 죽음 때문에 우연히 표출된 사건이지만, 일본에서 화물을 매각하는 무역 방식뿐 아니라 계약을 맺고 미리 대가를 선납하여 화물 수입을 보장받는 방식이 성립했다고 해석하고, 새롭게 형성된 유통 교통로 시스템을 상정한 견해도 있다. 즉, 조정

到彼不執文符者, 並請切命所在推勘收捉. 又去年廻易使李忠揚円等所齎貨物, 乃是部下官吏及故張宝高子弟所遺. 請速發遣. 仍齎閻丈上筑前國牒狀參來者. 公卿議曰. 少貞曾是高之臣, 今則閻丈之使.彼新羅人,其情不遜, 所通消息, 彼此不定. 定知商人欲許交通, 巧言攸俛.今覆解狀云.李少貞齎閻丈上筑前國牒狀參來者. 而其牒狀無進上宰府之詞. 無乃可謂合例. 宜彼牒狀早速進上, 如牒旨無道. 附少貞可返却者.…"

119) ≪續日本後紀≫ 卷11, 承和 9년(842) 정월 乙巳(10일)조 "(b)又曰. 李忠等廻易事畢, 歸向本鄕, 逢彼國亂, 不得平着. 更來筑前大津. 其後於呂系等化來云. 己等張宝高所攝嶋民也. 宝高去年十一月中死去, 不得寧居. 仍參着貴邦. 是日, 前筑前國守文室朝臣宮田麻呂, 取李忠等所齎雜物. 其詞云. 宝高存日, 爲買唐國貨物, 以絁付贈. 可報獲物, 其數不尠. 正今宝高死, 不由得物實. 因取宝高使所齎物者. 縱境外之人, 爲愛土毛, 到來我境, 須欣彼情令得其所. 而奪廻易之便, 絶商賈之權, 府司不加勘發. 肆令幷兼, 非失賈客之資, 深表無王憲之制. 仍命府吏, 所取雜物, 細碎勘錄, 且給且言. 兼又支給粮食, 放歸本鄕."

이 관리하는 루트를 피하여 외부에서 가져온 화물을 확보하고, 조정의 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본 국내의 유통 교통로를 장악하는 시스템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120] 한편 이 사건을 통해 당시 장보고 선단이 일본에 미친 영향력이 강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한편 시각을 확장하면, 이러한 무역활동의 상황은 이전 시기부터의 남해무역 양상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른 단계부터 동남아시아 각지에는 항구가 위치하였으며 각 항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림 20] 동남아시아의 주요 항구 [1세기 이후]
(John N. Miksic, 2013, SHINGAPORE& THE SILK ROAD OF THE SEA, NUS press, 71쪽)

120) 李成市, 1997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正倉院寶物が來たもうひとつの道-》, 東京: 青木書店, 170쪽.

동남아시아의 향약은 인기 교역 품목으로서 주로 해로를 통해 廣州로 집결되었다. 당시 외국에 개방된 항만도시로는 廣州, 福州, 泉州, 臨安, 交州, 龍編, 楊州가 있었는데, 그중 광주나 복주가 가장 번성하였다. 특히 복주의 경우 元和 8년(813)《球場山亭記》의 碑刻殘文에서는 福建監察官이 "海夷日窟, 風俗時不恒"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보이는데, 당시 福州城 안에서 많은 외국 '夷人'이 거주하였고 이들이 市井의 풍속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121] 당시 복주성에서는 물산이 풍부하고 무역이 발달하였으며 시장도 번영하였다.[122] 그리고 開成 3년(838) 일본의 견당사가 중단되면서, 明州를 기항지로 삼고 있는 당의 민간선과 일본 사이의 왕래가 더욱 빈번해졌으며 명주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명주의 주요 무역품은 越窯의 靑磁지만, 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는 서아시아와 大食과도 적극적으로 무역하며 향약, 象牙 등의 진품을 취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명주의 변화 양상과 함께 9세기 중엽부터 越窯의 靑磁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123]

아울러 《책부원구》에는 페르시아 등의 생산지에서 황제에게 향약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기술도 있다.[124] 영리를 추구하는 외국 상인들의 활발한 공급으로 향약이 중국 남해무역의 주요 무역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송나라 시대에도 향약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졌고, 남송은 그것을 專賣하기에 이르렀다.[125] 正倉院 내에 현전하는 약물을 대상으로 과학적 산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향약의 생산, 유통 경로를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948년부터 49년의 조사[제1차 (약물) 조사], 그리고 1950년, 1951년의 보충조사가 실시되었고, 비교적 최근인 1994년부터 1995년에도 조사[제2차 (약물) 조사]가 진행되

121) 謝必震主 編, 2020《中國海域史 東海卷》, 上海: 上海出版社, 68쪽.
122) 戶美松, 2012 《船到城添外國人—唐代福州的對外交流》, 福建: 福建美術出版社, 6쪽.
123) 謝必震主 編, 2020 앞의 책, 70쪽.
124) 《冊府元龜》 卷971 外臣部16 朝貢4, 開元 12년 (724) 3월條.
125) 永正美嘉, 2005 〈新羅의 對日 香藥貿易〉 《韓國史論》51, 17쪽.

어 보고서가 공간되었다.[126] 조사 결과 약물의 산지는 동남아시아·서아시아 등의 여러 나라로 보고되었다.[127] 이상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2015년에 공개된 것이 다음 [표 14]에 해당한다.

[표 15] 正倉院 소장 향약 대상 산지 분석 결과

이름	향약의 산출지	별칭
沈香	말라카 (Malacca),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중국	
青木香	인도 북부 카슈미르 (Kashmir)지방	＝木香
丁香	인도네시아 몰루카 (Molucca) 제도	=Cloves
薫陸香	아랍산 乳香을 가리킴	
麝香	인도, 네팔, 중국 서남부	
犀角	인도	
桂心	중국 남부 광남, 베트남	=계피 (Cinnamon)
太黃	중국 서방 고산지역에서 채집 혹은 가공한 후 동방의 항구로 이동	
臘蜜	중국 서북지방, 甘肅省, 青海省	동양 꿀벌의 벌집
甘草	동북아시아, 중앙 · 서아시아의 사막지방	

[표 14]에 의하면 향약류 중에는 신라에서 산출되지 않는 남해산 물품도 포함되어 있어, 남해무역을 통한 후 당, 신라를 거쳐 마지막에 일본으로 보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당과 신라를 거친 중개무역의 모습이 보인다. 특히 중국 내륙에서 생산된 향약은 남해무역을 통해 수입되어 동아시아에서 불교 의례의 焚香料로 사용되었다. 동아시아에서 향약이

126) 1차 (약물) 조사에 대해서는 朝比奈泰彦 編修, 1955 《正倉院藥物》 植物文獻刊行會를 통하여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 제2차 (약물) 조사에 대해서는 柴田承二 監修, 2000 《圖說 正倉院藥物》, 中央公論社를 참고할 수 있다.
127) 米田該典, 2015 《正倉院の香藥 材質調査から保存へ》, 東京: 思文閣出版.

주목받은 것은 7세기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불교의 보급에 따라 神佛의 祭儀, 佛具, 건축 용품이나 도시의 일상생활용품으로서 향약 소비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128]

그리고 신라는 중국 내륙에서 생산되지 않는 향약을 동남아시아와의 남해무역을 통해 구매했다. 향약은 대부분 남해무역을 통해 중국으로 수입되었는데, 이는 향약 소비가 성행한 당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동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무역권을 형성하는 하나의 큰 요인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향약류의 움직임은 사료에서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을까.《책부원구》 卷971, 外臣部 朝貢4, 開元 12년(724) 3월조에 따르면 페르시아 등 향약을 생산하는 나라가 황제에게 향약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향약은 주로 해로를 통해 중국의 廣州로 집결되었으며 그 결과 광주는 가장 번성한 무역항이 되었다. 8세기 광주에서 페르시아 상인이나 무슬림 상인의 교역활동이 융성해지면서 開元 2년(714) 이후에는 교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황제는 市舶使를 파견했다. 이 시기 신라에서는 대당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당과 활발하게 교역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유입되었을 것이다.[129] 다소 뒤 시기의 일이긴 하나 《구당서》 권20 현종기, 《신당서》 권5, 현종기, 《資治通鑑》 권215 등 天寶 3년(744)에는,[130] 해적 吳禮光이 臺州 및 明州를 습격하자 당 현종이 河南尹 裴敦復, 晉陵郡太守 劉同昇, 南海郡太守 劉巨鱗을 파견하여 그를 토벌하였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유거린의 본거지가 바로 광주였으며, 유거린은 鑑眞을 위해 군용선을 준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결국 유거린은 군용선을 보유하고 오례광의 토벌에 참여한 것이 되며,

---

128) 家島彦一, 1989 〈法隆寺伝來の刻銘入り香木をめぐる問題－沈香·白檀の産地と七·八世紀のインド洋貿易－〉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37,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研究所, 126쪽, 2006 《海域から見た歷史インド洋と地中海を結ぶ交流史》,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에 재수록.

129) 김창석, 2019 〈고대의 대내·외 교역과 문자〉 《문자와 고대 한국 2: 교류와 생활》, 한국목간학회 편, 주류성, 238~239쪽.

130) 《舊唐書》 卷20 玄宗紀; 《新唐書》 卷5 玄宗紀; 《資治通鑑》 卷215.

이는 오례광 등의 강남 해적세력이 남해무역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131] 그리고 《唐大和上東征傳》에는 “台州, 明州, 溫州의 연안에서 해적이 다발하며 바다를 막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 해적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였다. 당 중앙은 오례광에 대항이 가능한 屯門鎭[현재의 홍콩 서해안]의 군사력을 기대하여 파견했던 것이다.[132] 해상전투 능력을 지닌 연안방어는 기본적으로 광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항구의 무역적 기능, 역할과도 무관하지 않다.[133] 앞의 《당대화상동정전》에 따르면 감진은 그의 다섯 번째 渡海 중 광주 남쪽의 海南島에 표류했을 때 재지의 실력자인 馮若芳의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풍약방 역시 주변을 통행하는 페르시아 상인의 배를 습격하여 뱃짐을 빼앗고 선원을 노예로 만들었던 해적이었다.

또한 풍약방은 손님과 만날 때면 아랍산 乳香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불을 밝혔으며 저택에는 蘇芳을 대량으로 쌓아두고 있었다고 한다. 유향과 소방은 752년에 신라가 일본으로 가져온 물품 중에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아마도 신라 역시 광주 등을 경유하거나 해당 경로를 이용하는 교역망을 통해 수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감진이 이후에 광주를 방문했을 때 향약 및 진보를 가득 싣고 있던 인도, 페르시아, 崑崙의 배를 목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다. 즉 8세기 중엽 단계에 이미 광주를 중심으로 향약류 및 진보 등의 물품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이 시기 융성했던 남해무역은 그 지역에 대한 해적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揚州에서도 보인다. 《신당서》 권144 열전69 田神功傳에 따르면 그 당시 양주에는 수천 명 규모의 소그드 상인이나 페르시아 상인이 거주했다. 신라는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물품을 이와 같은 교역망을 통해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입한 물품

131) 田中史生, 2016 앞의 책, 99쪽.
132) 夏炎, 2010 《唐代州級官府與地域社會》,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400～407쪽.
133) 于笛, 2017 〈唐代吳令光與王郢史迹探微 -王朝政治運作視野下的“海亂”平定史事之考察-〉 《史林》2017年 第一期, 北京師範大學歷史學院, 71～73쪽.

들을 일본에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광대한 해상 교역망을 주제로, 최근에는 해양고고학(Maritime Archaeology)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4] 대표적인 것은 인도네시아의 벨리퉁(Belitung) 섬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당 벨리퉁 침몰선(Tang Shipwreck)이다. 벨리퉁섬 침몰선은 1998년 벨리퉁섬에서 3km 떨어진 곳의 수심 17m 지점에서 발견되었으며, 침몰선의 길이는 18m에 달한다. 이 배는 서아시아에서 만들어져 해상 무역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35] 이 침몰선에서 확인된 유물은 현지법에 의해 일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기증되었다. 기증품 이외의 유물들은 보존처리를 거친 후 2004년에 일괄적으로 싱가포르의 국영 기업인 Sentosa Leisure Group에 판매되었으며, 현재는 Asian Civilisation Museum에서 'Tang Shipwreck' (Khoo Teck Puat Gallery Collection)이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다.[136]

---

134) 佐藤信編, 2018 《水中遺跡の歷史學》, 東京: 山川出版社; 木村淳·小野林太郎·丸山眞史編著, 2018《海洋考古學入門 - 方法と實戰》, 神奈川: 東海大學出版部.

135) Jun KIMURA, 2015 *ARACHAEOLOGY OF EAST ASIAN SHIPBUILDING,* University press of Florida, Florida.

136) Yvonne Tan, 2005 "Salvaging the Tang dynasty Belitung Cargo." *Arts of Asia* 35-3, pp. 80~88; Natali Pearson, 2023 "*BELITUNG The Afterlives of a Shipwreck*"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pp.113~117.

[그림 21] “寶曆二年 七月十六日”이라는 기년이 새겨진 도자기
(Asian Civilisations Museum, 2017, *THE TANG SHIPWRECK*, 33쪽)

침몰선에서 발견된 목재나 향약류 등의 유기물을 대상으로 한 방사성 탄소연대측정 결과와 “寶曆二年(826)七月十六日”라는 기년명 도자기, 그리고 이와 공반된 開元通寶와 乾元重寶 등 동전의 연대를 근거로 하여 선박의 침몰 시기는 830~840년대로 추정할 수 있으며, 878년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137]

침몰선에서는 당나라 시대의 도자기 7만 여점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는 다른 지역의 도자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 남부의 長沙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長沙에서는 도자기를 대량생산하여 서아시아에 수출하였으며, 중국 각지의 제품들이 집적되는 광범위 교통망이 정비되어 있었다.[138]

---

137) John Guy, 2001 “EARLY ASIAN CERAMIC TRADE AND THE BELITUNG(TANG)CARGO” *Transactions of the Oriental Ceramic Society* 66, London.

138) Dreak HANG, 2017 “THE TANG SHIPWRECK AND THE NATURE OF CHINA′S MARITIME TREAD DURING THE RATE TANG PERIOD” *THE TANG SHIPWRECK*, Ed. Asian Civilisations Museum, Singapore.

이외에도 오리 모양의 금은기나 손잡이가 있는 금기가 발견되었다. 먼저 오리 모양의 금은기는 法門寺 박물관에 소장된 874년 제작 오리 모양 금은기와의 형태적 유사성이 지적된 바 있다.[139]

[그림 22] 벨리퉁[BELITUNG]
침몰선의 오리 모양의 금은기
(Asian Civilisations Museum,
2017, *THE TANG SHIPWRECK*,
188쪽)

[그림 23] 금은기와 法門寺 박물관에 소장 금은기
(新潟縣立近代美術館, 1999 《唐皇帝からの贈り物》 149쪽)

139) 上海博物館, 2020 《大唐寶船》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벨리퉁 침몰선의 금은기 중에는 접시형 금기, 화형 형상으로 세공된 뚜껑이 있는 은기 등이 있지만,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림 24-1]의 손잡이가 있는 금기이다. 이는 팔각형으로 양각(relief)한 세공이 있는 손잡이가 있는 컵형에 해당한다. 이 당시 금은기의 무역항구로는 중국 양주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금은기의 형태와 함께 양주가 아랍 상인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랍상인과의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140]

[그림 24-1] 벨리퉁 침몰선 출토 손잡이가 있는 컵형 금기

[그림 24-2] 중국 西安 陝西省歷史博物館 소장 손잡이가 있는 컵형 금기

(Asian Civilisations Museum, 2017 *THE TANG SHIPWRECK*, 191쪽)

[그림 24-2]의 컵형 금기는 중국 西安 陝西省歷史博物館 소장품으로, 벨리퉁 침몰선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며 중앙아시아 요소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8세기 중엽까지 금은기가 중앙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지만, 그 이후 강남지방의 장인 집단을 중심으로 금은기 제작이 활성화되었다.[141] 원래 중국에서는 금의 산지가 강남지방에 집중 분포하여, 재료의

---

140) Qi Dongfang, 2010 “Gold and Silver Wares on the Belitung Shipwreck” *SHiPWRECKED*, M. Sackler Gallery Smithsonian; 2017 “GOLD AND SILVER ON THE TANG SHIPWRECK” *THE TANG SHIPWRECK*, Ed. Asian Civilisations Museum, Singapore.

141) 田中史生, 2012 《國際交易と古代日本》, 東京: 吉川弘文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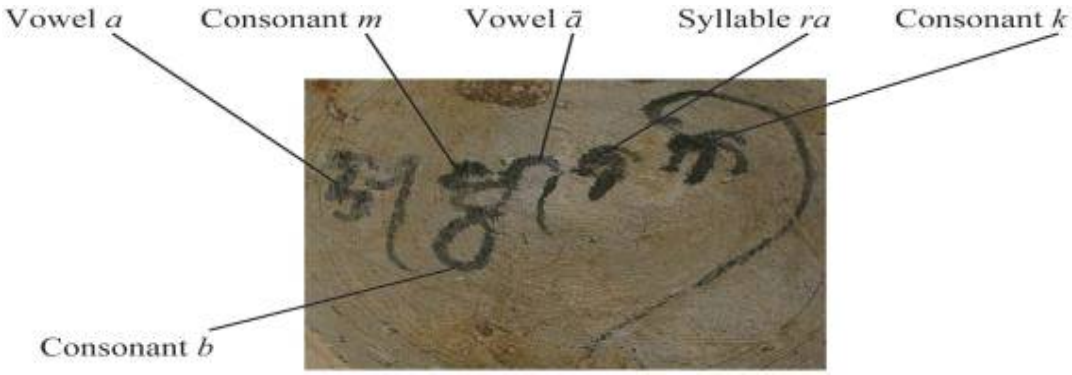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였다.[142] 이러한 당의 금은기는 신라도 수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흥덕왕 9년(834)의 하교에서는 금은기에 대한 禁令이 보인다. 그 이전에도 신라사회에서 비슷한 금령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며,[143] 최근 연구에서는 신라 중대 말기부터 하대 초기에 왕실뿐만 아니라 진골귀족 일반까지 금은기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 지적이 있다.[144] 이렇게 보면 신라에서는 금은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正倉院에 남아 있는 佐波理(銅, 錫, 鉛의 合金)가 확인된다. 〈매신라물해〉에서 보이는 물건을 정리한 표에서도 금은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본이 신라를 통하여서도 금은기를 수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대 초에 처음 발견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자우 탄(Châu Tân) 침몰선 역시 주목되는 자료이다. 2014년에 설립된 베트남 해양고고학 연구소가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초반 자우 탄 침몰선의 유물은 9세기대로 인식되었지만, AMS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의 결과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중반의 연대로 추정되었으며, 아랍, 인도와 중국의 무역활동 상황을 보여주는 침몰선이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145] 벨리퉁 침몰선과 유사성이 높은 長沙窯 제작품이 보이는 한편, 양적으로는 越州窯 제작품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광동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灰釉, 邢州 제작품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수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확인된다.[146] 도자기 편에

142) 李松蘭, 2016 〈송대 금은기의 사용 양상과 사회적 의미〉 《美術史學》 31.
143) 전덕재, 2009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144) 고태진, 2019 〈신라 興德王代 金銀器 禁令의 성격〉 《한국사론》6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45) 菊池誠一, 2017 〈ベトナムにおける水中考古學の研究と課題〉 林田憲三 編, 《水中文化遺産》, 東京: 勉誠出版, 93쪽.
146) Nishino, Noriko·Aoyama, Toru·Kimura, Jun·Nogami, Takenori·Le Thị Lien, 2014 “Nishimura Project: The Oldest "Shipwreck Found in Vietnam: Testimony to the Maritime Ceramic Route” *Underwater Archaeology in Vietnam and Southeast Asia: Co-opperation for Development Quang Ngai*, 14-16, pp.145~147.

는 인도어와 아랍어의 묵서가 보이고, 한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각서도 있다.

[그림 25] 자우 탄 침몰선 한자, 인도어, 아랍어가 보이는 도자기 편
(KIMURA Jun, 2015, 51쪽)



[그림 26] 자우 탄 침몰선의 "Ambārak"라고 해석할 수 있는 파편
(Nishino, Noriko·Aoyama, Toru, 2017, 119쪽)

[그림 25]에서 보이듯, 2014년의 조사를 통해 이 침몰선의 도자기에는 묵서와 각서 두 가지의 방식이 혼재함이 밝혀졌다. 그 중 각서는 147개 확인되었는데, 유약을 입히기 전에 새긴 것이다. 반면 묵서의 경우, 한문 14개, 아랍어 29개, 인도어 150개 이상으로 보고되었다.[147]

147) KIMURA Jun, 2015 "Maritime Archaeological Perspectives on Seaborne Trade in the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between the Seventh and Thirteenth Centuries" C*rossroad,* 11, pp.51~52.

[그림 26]은 판독 가능한 묵서 중 하나로, 이란의 Bushehr주 및 Kerman주의 “Ambārak”라는 지명이 확인된다. 이렇게 “Ambārak”라고 해석할 수 있는 파편은 23개나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볼 때 해당 도자기들이 이란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 당시 도자기 해상 경로상에 있는 목적지 중 하나는 페르시아만의 Siraf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3년 9월 태국 Samut Sakhon현 Wat Klang Khlong, Phan Thai에서 발견되어 2014년 이후 조사가 시작한 Phanom surin 침몰선이 있다. 침몰한 배뿐만 아니라 많은 유기물이 남아 있지만, 수습된 유물은 많지 않다. 그 중 도자기 혹은 항아리의 제작지는 중국, 토착, 아랍 등의 3개의 지역으로 구성된다. 광동 지방 녹유 도자기(항아리), Mon 도자기[태국 토착 도자기], 페르시아만 도자기[항아리], 魚雷항아리 [torpedo stoneware jars]이 있으며, 한자, 팔라비 문자 등의 글자가 보이는 유물이 2개 발견되었다. 이러한 도자기들은 대부분 음식을 저장하는 등 실용적인 기종으로, 실제 조리된 흔적을 보이는 것도 있어 교역품에 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148]

또한 Phanom surin 침몰선의 유물에서는 페르시아만에서 제작된 항아리(터퀴이즈 색의 윤을 낸 항아리)가 있다. 이러한 유물은 동남아의 넓은 지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Belitung 침몰선, Châu Tân 침몰선에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버마해(Andaman sea) 근처 라농(Ranong)현 Phu Khao Thong에 있는 집단촌락 무역유적, 중국의 해상루트에 있는 스리랑카 북부의 Mantai, 인도네시아 Tangera항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산지는 이라크 Basra의 가마에서 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이 9세기 Basra부터 중국 남부까지의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바스 왕조(750~1517)와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원거

148) Nishino, Noriko·Aoyama, Toru·Kimura, Jun·Nogami, Takenori·Le Thi Lien, 2017 “Nishimura Masanari's Study of the Earliest Known Shipwreck Found in Vietnam” *asian review of world histories,* 5, pp.115~118.

리 무역,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월주요에서 제작된 항아리의 묵서에는 'Yazd-bōzēd'라는 글자가 확인되는데, 이는 무역선에 승선했던 상인 혹은 항아리의 소유자의 이름으로 추정된다. 팔라비 문자는 이란에서 통용되었으며, 인도 남서부의 Malabar 지역의 해안에서도 국가에서 공인된 이란상인 집단 사회가 팔라비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인 집단과의 관련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림 27] 'Yazd-bōzēd'라는 글자가 확인된 월주요 제작 항아리
(Asian Civilisations Museum, 2017, *THE TANG SHIPWRECK*, 174쪽)

이 시기에는 당나라 이서의 각 항구를 연결하는 항로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결성의 중심에는 당이 있었으며, 항구 간 중개무역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향약류 등의 물품은 신라를 통해 일본까지도 전달되었다.

신라에서 금은기가, 일본에서 향약이 유행하였음을 생각할 때 유의되는 점은 강남 지역 재당신라인의 존재이다. 강남 재당신라인은 당나라 蘇州, 明州, 越州에 주로 거주하였으며, 월주인과의 접점이 많았던 당시의 揚州는 大食國, 波斯國, 占婆國 등 많은 외국 상인들이 모인 무역도시였다.[149] 신라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구당서》 新羅國傳에 보인다. 완도

149) 山崎雅稔, 2015 〈唐における新羅人の居留地と交易〉 《國學院大學紀要》53.

청해진 유적에서 발견된 월주 靑磁를 9세기 중기 전후의 월주 靑磁라고 본 견해도 있지만,[150] 이를 근거로 하여 장보고 무역선과의 직접 교역을 생각하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151] 다만 신라와 강남의 무역은 당나라 大中 연간(847~860)에 이미 시작되었으므로,[152] 그 이전부터 중국 강남지방에 재당신라인이 거주하였던 것은 확실하다. 강남의 재당신라인들은 당의 무역망에서 이슬람 세계와 연결되는 제일선에서 활약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산동반도의 신라인들과 구별되는 성격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9세기에 唐物이라는 표현이 보이는 점도 주목된다. 이 표현은 《일본후기》 大同 3년(808) 11월 11조[153]의 大嘗祭에 봉사하는 잡악 전문가들이 조정의 금제를 지키지 않고 당물로 몸을 치장하였다고 하면서 다시금 금지령을 내린다는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물은 大同 원년(806)에 일본으로 귀국한 延曆의 견당사가 귀국 시 지참하면서 일본 내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154] 사료에서는 해당 표현이 830년대부터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830년대의 동아시아 각국에서 외래 유물이 유행하고 있었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 卷33 雜志2 色服條에는 흥덕왕 9년(834) “이국의 진기를 좋아하고 鄙野한 토산품을 경시하니…”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때 ‘異物之珍奇’는 기본적으로 당나라에서 온 물품을 포함한 외래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당나라 물품이 신라 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시사한다.

동시기 일본은 新羅交關物을 대상으로, (신라) 상인이 왔을 때 신라선 내의 물품[雜物]을 簡定하여 適用之物을 선매하겠다는 내용이 보인다. 唐

150) 林士民, 1993 〈唐吳越時期浙東與朝鮮半島通商貿易和文化交流之研究〉 《海交史研究》 23, 泉州: 中國海外交通史研究會.
151) 越州 靑磁과 신라, 일본의 무역관계에 대하여 (劉恒武, 2021 《寧波對外貿易史》, 浙江: 浙江大學出版社)가 있다.
152) 田中史生, 2012 앞의 책.
153) 《日本後紀》 大同 3년(808) 11월 11일조.
154) 鄭淳一, 2019 〈9세기 일본의 당물에 관한 기초적 검토〉 《아시아문화연구》 49.

物도 이러한 新羅交關物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관리하고 신사(신궁) 및 산릉 봉폐에 사용하고, 신하에게 재분배한 경우도 보인다. 즉, 9세기 이전 시기에 新羅物을 官司專賣制를 통해 입수, 재분배한 것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唐物은 이를 계승한 형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779년에 신라의 대일 사신 파견이 중단됨에 따라, 9세기가 되면 신라물의 왕래는 신라 상인이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라물이 갖는 의의였던 '신라 사신이 가져오고 관사전매제로 실행되었던 교역'이라는 역할 역시 唐物에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관사전매제와 같이, 율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외래물품을 교역하게 하는 것은 당례의 무역관리제도와도 다른 일본 독자의 제도이다. 이러한 관사전매제는 일본 고대 사회의 마지막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외래품을 대하는 일본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9세기 신라는 각지에 여러 외항을 설치하고 이슬람 세계 및 남해무역과 연결되는 국제무역을 전개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무역망은 일본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신라상인들의 활발한 활동이 존재하였다. 통일기 신라의 외항은 각각 중앙사회와 연결되는 한편, 지방에서 성장하였던 재지 세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외항은 중앙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운영될 수는 없었지만, 중앙과 연결된 강도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층위가 존재하였다. 각 외항과 주변 재지 세력과의 연계에서도 차별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다층적인 관계가 곧 신라의 국제 무역을 전개하였던 하나의 요인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9세기 신라의 대일 교섭은 확대된 동아시아 국제 무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 일본은 신라상인을 매개하여 당, 이슬람 세계, 남해무역 등에서 유통되는 외래품들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結論

본고는 신라의 대일 교섭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하여,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국가와 지역 단위의 교섭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경제적 조건인 '물건의 움직임과 이동', 정치적 조건인 '외교제도'와 '외교문서'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인 '외교항로'에 주목하여 5세기부터 9세기 중엽까지의 신라의 대일 교섭의 실태와 전개를 검토했다. 신라와 일본의 동향만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주변 국가의 동향도 포함하여 검토했다.

5세기부터 9세기 중엽까지의 신라의 대일 교섭은 다섯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와 국가 이외의 존재와 복수의 교섭 형태가 보이는 5세기부터 6세기 초까지의 단계이다. 신라와 북부 규슈의 교섭을 보여주는 증거로는 貝 무역이 있다.

두 번째는 602년의 阿莫城 전투 이후 신라가 왜와 적극적으로 교섭 관계를 맺게 된 610년 이후의 시기다. '新羅道'의 이용이나 신라가 왜에 불상을 보낸 사건은 이 단계 양국 간 교섭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드러낸다.

세 번째는 7세기 말의 羅唐戰爭 이후부터 신라가 당에게 浿江 이남의 영유를 정식으로 인정받는 735년까지의 기간이다. 이때 신라는 대일 사신을 빈번하게 파견하였고, 別獻物이라는 이 시기의 특징적인 외교정책을 실행한다. 602년의 아막성 전투 이후부터 패강 이남의 영유권을 공인받는 735년까지는 신라에 있어 대일 교섭의 중요도가 높았던 시기이지만, 세부적으로 단계를 구분해보았을 때 그 성격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네 번째는 735년 이후부터 최후의 대일본 사신이 파견된 779년까지이다. 신라와 일본은 唐禮를 받아들이면서도 각자의 방식대로 변용하여 외교교섭을 추진하였다. 각국 내부에서의 변용 과정에서 발생한 인식의 차

이로 인하여 신라와 일본 사이에는 외교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마찰은 景德王대와 惠恭王대의 신라의 대일본 사신 파견과 일본의 신라인에 대한 조치 등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다섯 번째는 9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무역이 확대되고 新羅商人의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는 시기이다. 신라에는 복수의 外港이 존재하며 각 외항은 중앙과 지방세력을 연결하여 국제무역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신라상인 관련 사료와 해양고고학에서의 침몰선 연구 성과를 통하여 9세기 신라와 국제무역망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一章에서는 5세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신라와 왜의 대외교섭 양상에 주목했다. 5세기에는《三國史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신라에 대한 왜의 침공 기사가 빈번하며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신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북방에는 고구려가 존재하였고, 서쪽에는 고구려와 대립하는 백제, 남쪽에는 왜와의 연대가 강한 가야가 있었다. 중국과의 관계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구려나 백제를 통하는 '重譯外交'에 한정되었다. 즉, 양국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된 신라와 왜의 質子 외교는 '贈與外交'의 한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吉備 지역과 북부 九州의 지방 세력은 신라와의 항로를 확보하여 신라와 교섭하고 있었다. 즉, 왜 전체가 신라와 적대적인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는 경주를 비롯한 신라와 관계가 있었던 지역에서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야광패 가공 제품이 나온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바로 북부 규슈를 경유한 조개 무역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북부 규슈와 신라의 교섭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패각 제품과 조개 무역이다. 신라 경주 일대에서 발견되는 杯나 장식 마구의 재료로 사용되는 야광패, 청자고둥, 킨타카하마 등의 패류는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에서는 서식하지 않는다. 5세기 이전 일본에서 패각은 주로 '貝釧'으로 사용되었으며, 장식 마구류에 적용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식

마구에 琉球列島산 패각을 융합한 방식은 신라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이해된다.

5세기 이전의 패각이 유통되는 '패각의 길'을 고려하였을 때, 야광패, 청자고둥, 킨타카하마 등은 규슈의 지방 세력 혹은 海人 집단을 통하여 신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하는 점은 경주에서 보이는 야광패 제품이다. 야광패는 奄美大島 이남의 열대 인도양과 태평양에 분포하는 대형 巻貝이다. 야광패를 사용한 제품은 경주의 주요 왕릉에 주로 부장되었으며 패각 장식 마구류도 부장되는 특징이 있다.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에 야광패를 사용한 제품은 九州나 本州 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열도에서 야광패의 수요가 높아지고, 본격적으로 가공되는 시기는 당의 螺鈿 기술이 전달되었던 8세기대 이후이다.

경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야광패가 출토된 사례는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 44호분에서 출토된 야광패 국자가 대표적이다. 이 시기의 대가야는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기에 지산동 44호분 조영 세력이 야광패를 입수할 수 있었던 과정 역시 신라를 통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로 비정되는 지산동 44호분은 경주 금관총과 비슷한 시기의 고분이고, 청자고둥을 사용한 마구가 5세기 전반에 이미 신라에서 고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가야가 야광패 용기를 직접 입수하였기보다는 신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신라와 북부 九州 사이에 독자적인 교섭 관계가 있었으며, 야광패 등의 물품을 입수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磐井의 亂 직전, 대한해협 서쪽 지역의 패각 무역 경로는 磐井와 연대 관계가 있었던 火君 세력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磐井은 火·豊國으로도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磐井의 본거지인 筑紫 지역과 가까운 菊池 지역에는 久々智氏, 大伴部氏 등의 씨족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筑紫君과 '同祖 관계'로 표현될 정도로 가까웠으며, 특히 菊池 지역은 磐井의 세력권인 火國으로 정치적인 관계가 긴밀했던 지역이다. 이러한 당시의 역학 관계는 고고학적인 성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대한해협의 서쪽 패각 무역 항로에 존재한 집단은 그 이전 시기부터 존재한 海人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磐井의 亂을 계기로 하여 설치된 粕屋 屯倉의 위치는 대한해협의 博多灣에 면하고 왜 왕권은 이곳을 기점으로 한반도와의 교섭을 진행하였다. 磐井의 亂 이후에 왜 왕권이 각 지역에 청자고둥으로 장식된 마구를 배부한 것을 고려하면, 磐井의 亂을 계기로 대한해협의 서쪽의 패각 무역 항로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왜 왕권은 磐井가 소유하였던 무역 항로를 편입시켰으며, 그 이전에 吉備氏로부터 편입한 紀ノ川 수계를 통한 경로와도 연결하여 왜 왕권 주도의 對한반도 경로를 성립시킨 것이다. 이때 왜 왕권이 독점하게 된 북부 九州의 한반도 교섭 교통로는 6세기 후반에 왜 왕권이 신라와 새롭게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교통로와 연관하여 검토할 수 있다.

그러므로 吉備叛亂傳承과 磐井의 亂을 계기로 하여 신라와 교섭 관계를 맺고 있었던 왜의 지방세력은 왜 왕권에 편입되었으며, 그들이 소유하는 항로도 왜 왕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왜 왕권의 외교권 강화로 이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6세기 초의 磐井의 난 이전까지는 신라와 왜 지방세력의 교섭 관계가 왜 왕권과는 별도로 존재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왜 왕권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二章에서는 6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에 보이는 신라와 일본의 대외교섭에 관하여 검토했다. 신라가 대일 교섭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한 시기는 602년의 아막성 전투 이후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 관계를 맺게 된 610년부터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영유를 정식으로 인정받는 735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신라는 602년의 아막성 전투 이후 주변 국가와의 충돌을 반복하였으며, 당과의 관계 유지 역시 큰 외교적 과제였다. 신라는 일본의 在唐倭人留學生과 大唐學問僧이 '신라도'를 거쳐 당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라의 행위를 '送迎 외교' 혹은 '中繼 외교'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라가 왜의 대당학문승을 당에 데려다 준 행위는 신라가 당까지의 육로와 해로를 포함한 교통로를 확보하지 않

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신라는 왜, 당과 연결되는 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일본의 대당학문승이 신라를 거쳐 당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고구려, 백제와 달리 신라만이 실행할 수 있었던 특유의 외교정책이기에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 방법을 통해 신라는 백제, 고구려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7세기 한반도에서 각국 간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왜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왜와의 관계는 한반도 각국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다. 백제나 고구려에 비교하면 원래 신라와 왜의 관계는 소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7세기 이후 신라는 대왜 교섭의 방침으로 불상을 비롯한 불교 관련 물품을 왜에 보냈다. 즉, 신라는 630년대 이후 대당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왜의 학문승들을 당으로 보내 주는 방식을 통하여, 물적·인적 두 차원에서의 교섭을 실행하였으며 이를 신라의 대왜 외교의 강점으로 삼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라가 왜에 보낸 '調'는 신라가 철 자원이나 불교 물품 등 선진문물을 외부로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신라의 대왜 외교 수단의 하나였다. 즉, 신라의 대외정책 방침을 고려하면 '조'에는 신라의 문화적 선진 의식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신라의 대외인식은 7세기 이후에도 계승되어 신라 사신에 의해 전래되는 품목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7세기 말은 나당전쟁 종결 이후부터 신라와 당 간의 통상적인 교섭이 재개될 때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 신라는 대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는 사신 파견의 양상에서 잘 드러난다. 일본이 신라처럼 지속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일본에 계속해서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당시 당은 서방의 突厥 문제로 인해 신라에 대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여력은 없었지만, 신라와 당 양국 간의 긴장 관계는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일본으로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동시에 '別獻物'의 존재가 보이고

있다. 별헌물은 7세기 말 이외의 시기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라와 당 간의 교섭이 재개된 이후에는 별헌물의 존재를 사료상에서 확인할 수 없다. 신라가 일본에 보낸 별헌물은 '조'가 아니므로 공적 기관 창고의 '大藏'으로 수납되는 것이 아니라 '內臟'이나 그 이외의 家産 機關에 수납되었다.

이 별헌물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보인다. '조'와 세트로 보낸 별헌물과 천황 이외의 皇后, 皇太子, 親王들에게 보낸 별헌물이다. 7세기 말의 별헌물은 신라 사신이 관여한 공식적인 외교의례 내에서 전달된 것이었고,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한편, 내장과 천황 이외의 황후, 황태자, 친왕들의 가산 기관에 별헌물이 수납되는 이상, 사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신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별헌물의 품목은 신라의 문화적인 우월성이 내재된 물건들로 구성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본은 白江口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율령체제를 기반으로 국내 정치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천황의 가산 기관인 大藏省과 內藏寮가 분화되었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러한 일본의 국내상황을 고려하여 신라가 별헌물을 보냈다고 가정하면, 신라가 공식 사신을 파견하며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띠고 새로운 외교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7세기 말 신라가 일본에 별헌물을 보낸 행위는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신라가 전개한 대일 외교 방침의 하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라가 735년에 王城國이라고 自稱하고, 이에 대해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취한 배경은 역시 신라가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땅을 정식으로 인정받았던 사건과 관련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中納言 多治比縣守는 고위 귀족이였으며, 遣唐押使의 경력이 있어 특히 당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었다. 따라서 신라가 왕성국이라고 자칭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왕성국의 뜻이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소와 인물을 중심으로 양국 간 외교 문제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라가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땅을

정식으로 인정받았던 735년의 사건으로 인해 대일본외교의 전략적인 가치가 낮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신라는 602년의 아막성 전투 이후 혼란한 정세 속에서 주변 국가와의 충돌을 반복하였고, 당과의 관계 유지도 큰 과제였다. 아울러 신라는 610년 이후로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 관계를 맺었는데, 이를 통해 신라에 있어 일본이 외교적으로 유의미한 대상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나당전쟁 중 신라와 일본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기도 하였으나, 나당전쟁이 끝난 후 신라와 당 사이의 관계는 유민 문제, 고구려 백제 고지의 지배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졌다. 이에 신라는 일본에 사신을 빈번하게 파견하였고, 별헌물이라는 이전에 없었던 교섭 형태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당의 존재가 있었고 그 속에서 신라는 일본에 대한 새로운 교섭 정책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당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로 인해 대일본외교의 전략적인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 기점은 바로 732년 당과 발해의 전쟁에 신라가 참여한 한 일이다. 그중에서도 결정적인 계기는 735년의 당이 신라에게 패강 이남의 영유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三章에서는 752년부터 신라가 마지막으로 대일본 사신을 파견하는 779년까지의 상황에 대해 검토했다. 이 시기는 신라와 일본 각국이 가졌던 외교 관념, 외교 의식의 차이가 표면화된 시기이다.

기존 견해처럼 경덕왕대인 752년에 파견된 신라 사신을 계기로 하여 신라의 대일 교섭의 성격이 정치적(공적)에서 경제적(사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752년의 신라 사신단의 규모가 크고, 특히 〈買新羅物解〉를 통해 보면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이때의 무역 역시 무역 참가자와 장소가 한정되는 官司專賣制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正倉院文書의 향약류 반납문서를 살펴보면 향약의 현물 반납이 증가한 것은 9세기 때이며 8세기 단계에는 향약류가 안정적으

로 확보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9세기 이래의 변화는 역시 신라 상인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9세기 동아시아 국제 무역의 확대에 따른 신라 상인의 활동을 752년의 대일 교섭과 연관시켜 신라 상인의 성격이 변화한 계기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752년의 신라 사신인 金泰廉이 '假王子'이며 漢化 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에 다양한 물품을 가지고 대규모로 파견된 사신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신 파견 주체를 경덕왕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아닌 진골 귀족 세력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假王子'를 내세우는 대일 외교 형식은 이때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경덕왕대의 대일 교섭을 대당교섭과 대립하는 대외정책이라고 二項對立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신라 중대 경덕왕대의 국내 상황을 생각하면 진골 세력이 경덕왕 세력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의 신라의 대일 사신은 모두 일본에 '放還'이라는 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경덕왕대와 혜공왕대는 한화정책의 추진, 신라 내부의 개혁이 실행되었던 시기로 735년 이전의 시기와 달리 대일 교섭의 중요도는 하락했던 때이다.

아울러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에 신라 국내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사신 파견 주체인 신라의 입장으로 고려하면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의 신라의 대일 사신의 성격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 신라의 사신 파견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면 경덕왕 23년(764) 이후부터 留唐學僧의 소식을 담은 書簡 전달, 漂着한 일본 견당사의 護送 등을 목적으로 사신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사신 파견이라는 성격으로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혜공왕대에 파견되었던 세 번의 사신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파견되었다. 특히 혜공왕 15년(779)의 신라 마지막 대일 사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라는 혜공왕 12년(776) 이후 당을 포함하여 대외정책을 소극적인 자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

하여 779년 신라가 파견한 대일 사신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 파견한 사신이고, 해당 사신의 성격을 검토하면 送使의 역할이 강하였다. 결국 사신을 파견한 주체인 신라가 적극적인 대일 사신 파견의 의도 혹은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혜공왕대에는 신라에서 내란이 빈발한다. 그 시기에 사료상에 새로 등장하는 표현이 '流來新羅人'이다. '유래신라인'은 혼란한 신라의 상황 때문에 온 사람,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신라인을 포함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율령을 바탕으로 하여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일본으로 온 신라인에 대응했기 때문에 이에 따르지 않는 신라인에 대해서는 '유래신라인'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율령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신라인에 대한 조치로 太政官符를 내리고, 緣海警固의 명령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조치로 太宰府에 國家鎭護의 목적으로 신라의 관념을 인용한 四天王寺를 건립하였다. 즉, 일본은 증가하는 신라인에 대하여 율령 규정을 준수하는 속에서 대응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율령 규정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고심하는 모습이 보이는 시기이다.

다시 말하자면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의 신라와 일본은 당례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변용하여 외교교섭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변용 과정에서 발생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신라와 일본 사이에는 외교 마찰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신라가 정세에 따라 대일 교섭을 추진하였기에 일정한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四章에서는 신라 국제무역의 확대와 각 지역의 대외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의 양상에 대한 문헌 사료와 고고학적인 성과를 검토했다. 특히 9세기 전반 신라 외항이라는 관점으로 3개의 지역에 주목하였다.

우선 진주 지역의 경우 외교문헌인 〈新羅執事省牒〉 뿐만 아니라 〈泗川船津里新羅碑〉, 〈菁州 蓮池寺鐘銘〉의 금석문 자료를 통해 중앙과의

관계가 깊은 지역이자 중앙의 외교 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진주 지역의 경우 사료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앙과 면밀하게 연결된 지역이며 중앙의 항구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9세기가 되면 그 성격이 강화되었다. 진주 지역이 이러한 성격을 띠게 된 배경에는 출항하기가 쉽다는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그 당시 菁州 지방사회의 상황, 혹은 경주와의 가까운 거리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9세기 전반 金憲昌의 난이 일어난 후, 張保皐가 등장하여 淸海鎭이 설치되고 이를 중심으로 무역 활동이 실시되었다.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서남해안 지역은 중국과의 주요 교역 창구이기도 했지만, 〈靈岩 貞元銘 石碑〉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지방세력의 역할이 대두되는 지역이었다. 또한, 장보고는 赤山法華院과 在唐新羅人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불교 집단을 매개로 하여 무역 활동을 실행하였다. 그렇기에 서남해안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리적으로 장보고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으며, 중앙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남해안 지역은 진주 지역과는 다른 성격과 강도로 중앙 사회와 연결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서남해안 지역의 경우 일정 정도 지방세력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상황에서 해양 활동이 실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울산 지역은 반구동유적이 통일신라의 항구로 기능했지만, 통일기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위상을 유지했는지 의문이 있다. 경주와 거리상으로 제일 가깝고 왕경의 것과 흡사한 기와가 반구동유적 건물지에서 출토된 점을 고려하면 중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9세기에 진주 지역과 같은 중앙의 외교 창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외항과 내항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면, 시기가 내려감에 따라 내항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9세기 신라는 각지에 여러 외항을 설치하고 서아시아 및 남해무역

의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국제 무역을 전개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무역망은 일본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신라상인들의 활발한 활동이 존재하였다. 통일기 신라의 외항은 각각 중앙 사회와 연결되는 한편, 지방에서 성장하였던 재지 세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외항은 중앙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운영될 수는 없었지만, 중앙과 연결된 강도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층위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각 외항과 주변 재지 세력과의 연계에서도 차별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다층적인 관계가 곧 신라가 국제 무역을 전개하였던 하나의 요인이었다.

일본의 율령에는 新羅交關物에 대하여 “(신라) 상인 왔을 때 신라선내의 물품[雜物]을 簡定하여 適用之物을 先買하겠다”는 내용이 보이며, (신라) 상인의 외래품들은 율령에서 관사전매제의 대상이었다. 9세기에 보이기 시작하는 ‘唐物’도 이러한 신라교관물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관리하고 신하에게 재분배하는 관사전매제의 대상이다. 즉, 唐物은 9세기 이전 시기에 新羅物을 관사전매제를 통해 입수, 재분배했던 것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더 나아가 당물은 신라물을 계승하였던 형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는 779년에 신라의 대일 사신 파견이 중단됨에 따라, 9세기가 되면 신라의 물건 왕래는 신라 상인이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라의 물품이 갖는 의의였던 ‘신라 사신이 가져온 신라물을 관사전매제로 交關함’이라는 역할 역시 당 사신이 가져온 당물로 이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관사전매제와 같이, 율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일본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외래품을 교역하게 하는 것은 당례의 무역 관리제도와는 다른 일본의 독자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관사전매제는 일본의 고대사회가 종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외래품을 대하는 일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9세기 신라의 대일 교섭은 확대된 동아시아 국제 무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라는 이와 같은 무역망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고, 일본은 신라상인을 매개하여 당, 서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유통되는 외래품들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1) 史書

《三國史記》,《三國遺事》
《禮記》,《論語》,《尙書》,《宋書》,《梁書》,《舊唐書》,《新唐書》,《冊府元龜》, 《資治通監》
《古事記》,《日本書紀》,《續日本紀》,《續日本後紀》,《日本後紀》,《日本文德天皇實錄》

강인구 외, 2002 《譯註 三國遺事》 1~5, 이회문화사
연민수 외, 2013 《역주 일본서기》 1~3, 동북아역사재단
이병도 역주, 1996 《(개정판) 삼국사기》 상·하, 을유문화사
정구복 외, 2012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唐]姚思廉撰, 1987 《梁書》, 北京: 中華書局標點本
[後晋]劉昫撰, 1995,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標點本
[宋]歐陽修, 宋祁撰, 1986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標點本
[北宋]王欽若 等編, 1989 《冊府元龜》, 北京: 中華書局標點本
[宋]司馬光編著, [元]胡三省音注, 1976 《資治通監》, 北京: 中華書局標點本
汪聖鐸点校, 2015 《宋史全文(全 9 冊) : 中國史學基本典籍叢刊》, 北京: 中華書局

黑板勝美·國史大系編輯會 編, 1962·1968 《(新訂增補 國史大系) 續日本紀》 前·後,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1989 《(新訂增補 國史大系) 續日本後紀》,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1989 《(新訂增補 國史大系) 日本後紀》,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1973 《(新訂增補 國史大系) 日本文德天皇實錄》,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1999 《(新訂增補 國史大系) 類聚國史》, 東京: 吉川弘文館.

竹內照夫, 1971·1979 《禮記》, 新譯漢文大系 全3, 東京: 明治書院.

板本太郎 等 校注, 1965·1967 《日本書紀》 上·下, 東京: 岩波書店.

小島憲之 外譯, 1994·1996·1998《日本書紀》,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1～3, 東京:小學館.

靑木和夫 , 笹山晴生 他, 1989·1990·1992·1995·1998 《續日本紀》1～5, 東京: 岩波書店.

西宮一民編, 2006 《古事記 修訂版》, 東京: おうふう

2) 正倉院文書

〈香藥等雜物買物注文斷簡〉, 〈氏名闕買新羅物解〉, 〈天平勝寶四年六月廿日文書〉, 〈花氈〉殘欠, 〈色氈〉, 〈鳥毛立女屛風下貼文書〉, 〈飯高嶋足買物解〉

〈東大寺獻物帳〉,〈種々藥帳〉,〈天平勝寶八歲六月二一日獻物帳〉,〈國家珍寶帳〉 〈處々雜物出充帳〉

〈桂心請文〉,〈天平寶字八年七月廿五日施藥院解〉

〈周防國天平十年正稅帳〉

宮內廳正倉院事務所編, 1990 《正倉院古文書影印集成2 正集 表(卷22～45)》, 東京: 八木書店.

_____, 1996 《正倉院古文書影印集成10》, 東京: 八木書店.

東京大學史料編纂所, 1998 《大日本古文書 編年文書 2 覆刻版》,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_____, 1999 《大日本古文書25 (補遺2)》,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3) 기타

《晋楊誌》, 《新增東國輿地勝覽》, 《東文選》
《入唐求法巡禮行記》, 《抱朴子》, 《藝文類聚》, 《大唐六典》, 《文苑英華》,
《大唐開元禮》, 《唐律疏議》
《釋日本紀 筑後國風土記 逸文》, 《肥前國風土記》, 《延曆交替式》, 《上宮聖德法王帝說》, 《律令》, 《令義解》, 《令集解》, 《國造本紀》, 《懷風藻》, 《延喜式》,
《類聚三代格》, 《養老令》, 《法隆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 《日本紀略》, 《類聚國史》,
《平安遺文》, 《入唐五家傳》, 《安祥寺資財帳》, 《唐大和上東征傳》

김택민 주편, 2003 《譯註 唐六典》 上, 신서원.
_____, 2005 《譯註 唐六典》 中, 신서원.
_____, 2008 《譯註 唐六典》 下, 신서원.
노명호 외, 2000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상》, 서울대학교출판부.
이강언 외, 2012 《(수정증보판) 최신 군사용어사전》, 양서각.
임대희·김택민 주편, 1997 《譯註 唐律疏議 -各則-》 上, 한국법제연구원.
_____, 1998 《譯註 唐律疏議 -各則-》 下, 한국법제연구원.

願承甫, 何泉達点校, 1986 《入唐求法巡禮行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周一良審閱, 白文化校注, 1992 《入唐求法巡禮行記》, 石家莊: 花山文芸出

版社.
_____, 2019 《入唐求法巡禮行記》, 北京: 中華書局.
梁明院校注, 2010 《唐大和上東征傳校注》, 江蘇: 廣陵書社.

仁井田陞, 1964 《(復刻板) 唐令拾遺》,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仁井田陞, 池田溫 編輯代表, 1997 《唐令拾遺補 -附唐日兩令對照一覽》,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井上光貞 外 校注, 1976 《律令》(日本思想大系 3), 東京: 岩波書店.
廣池千九郎訓點, 1973 《大唐六典》, 千葉: 廣池學園事業部.
古典研究會編, 1972 《大唐開元禮》, 東京: 汲古書院.
黑板勝美·國史大系編修會 編, 1976 《(新訂增補 國史大系 普及版) 令義解》,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1985 《(新訂增補 國史大系 普及版) 令集解》 1,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1962 《(新訂增補 國史大系) 類聚三代格》, 前·後,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2007 《(新訂增補 國史大系) 延曆交替式, 貞觀交替式, 延喜交替式, 弘仁式, 延喜式》,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2000《(新訂增補 國史大系) 日本紀略≫, 東京: 吉川弘文館.
竹內理三, 1974～1976 《平安遺文》, 東京: 東京堂出版.
植垣節也校注·譯, 1997 《風土記》,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5, 東京: 小學館.
京都大學文學部日本史研究室編, 2010《安祥寺資財帳》, 京都大學史料叢書17, 京都:思文閣出版
藏中進編, 1979 《寶曆十二年版本 唐大和上東征傳》, 大阪: 和泉書院.
東寺觀智院旧藏本, 《入唐求法巡禮行記》, (現個人藏·全4帖)
東洋文庫, 1926 《觀智院旧藏本影印 入唐求法巡禮行記 東洋文庫論叢 7》 1 ～ 4, 東京: 東洋文庫.

國書刊行會編, 1907 《續々群書類從 第12》, 東京: 續群書類從完成會.
天台宗務廳文書課編, 1914 《四明餘霞 329所收 入唐求法巡禮行記》, 滋賀: 天台宗務廳文書課
大日本仏教全書刊行會編, 1915 《大日本仏教全書 遊方伝叢書 1》, 東京: 仏書刊行會
堀一郎譯, 1963 《國譯一切経 增訂版》, 東京: 大東出版社
足立喜六注·塩入良道校, 1970·1985《入唐求法巡禮行記》, 平凡社學術文庫 157, 442, 東京: 平凡社.
深谷憲一譯, 1990《入唐求法巡禮行記》, 東京: 中央公論社
大東文化大學東洋研究所編, 《藝文類聚 訓讀付索引》, 東京: 大東文化大學東洋研究所
冲森卓也 · 佐藤信 · 矢嶋泉, 2005, 《上宮聖德法王帝說—注釋と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4) 금석문 및 발굴보고서

〈泗川 船津里新羅碑〉, 〈菁州 蓮池寺鐘銘〉, 〈靈岩 貞元銘 石碑〉, 〈聖德大王鐘銘〉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將島淸海鎭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김병모·배기동 외, 1998 《唐城-1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김현철·지윤미·김민경·윤상덕, 2009 《울산 반구동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裵基同·朴晟喜, 2001 《唐城-2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배기동·김기룡·이상현, 2002 《唐城 4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안신원 외, 2020《唐城-5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편, 2007 《김해 신문리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三江文化財硏究院編, 2009 《金海 官洞里 三國時代 津址 김해 율하택지사업구간 내 발굴조사보고》.
국립진주박물관 편, 2016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쓰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편, 2018 《탐라》 국립제주박물관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편, 2020《베트남 옥에오문화 -고대해상 교역의 중심 옥에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편, 2014 《인천 옹진군 영흥도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울산대학교박물관, 2000 《울산달천유적》 울산대학교박물관 학술연구서 5.
蔚山文化財硏究院, 2008 《蔚山達川遺蹟 1次 發掘調査》.
蔚山文化財硏究院, 2010 《蔚山達川遺蹟 3次 發掘調査》.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입암리유적》.
울산박물관, 2020 《신라의 해문, 울산 반구동》 울산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편, 2019 《백제의 대외교섭과 베트남 옥에오문화》.

福岡市敎育委員會編, 1989. 《西新町遺跡》
_____, 2000. 《西新町遺跡2》
_____, 2006. 《西新町遺跡7》
_____, 2008 《西新町遺跡11》.
九州國立博物館, 2006 《南の貝のものがたり》, 福岡: 九州朝日新聞社.
東京國立博物館, 2020 《出雲と大和》, 東京.
新潟縣立近代美術館, 1999 《唐皇帝からの贈り物》, 東京: 朝日新聞社.

2. 연구 논저

1) 단행본

(1) 한국어

강봉룡, 2005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한얼미디어.

_____, 2016 《바닷길로 찾아가는 한국 고대사》, 경인문화사.

강종훈, 2011 《삼국사기 사료비판론》, 여유당.

權悳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 -遣唐使 硏究-》, 일조각

_____, 2005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일조각.

_____, 2012 《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권오영, 2019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 세창출판사.

慶尙南道, 慶尙大學校博物館 共編, 2001 《勒島遺蹟을 통해 본 韓·中·日 古代文化 交流》.

김문경 외, 1993 《張保皐 해양경영사연구》, 도서출판이진.

金文經, 1984 《唐代의 社會와 宗敎》, 崇田大學校出版部.

_____, 1997 《張保皐硏究》, 연경문화사.

金暘玉 외, 1985 《張保皐의 新硏究 - 淸海鎭活動을 中心으로-》, 莞島文化院.

金昌謙, 2003 《신라 하대 왕위계승연구》, 경인문화사.

김영태 엮음. 2003 《동아시아 한국불교사료: 일본문헌 편》, 동국대학교 출판부.

김창석, 2004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_____, 2013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김현구, 2009 《고대 한일교섭사의 諸問題》, 일지사.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_____,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문경호, 2014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혜안.

박남수, 1996 《신라수공업사》, 도서출판신서원.

_____, 2011 《한국 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 주류성.

_____, 2016 《한국 고대, 목면과 향료의 바닷길》, 景仁文化社.
박천수,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_____, 2016 《신라와 일본》, 진인진.
_____, 2022 《고대한일교류사》, 경북대학교출판부.
朴海鉉, 2003 《新羅中代政治史硏究》, 國學資料院.
邊東明, 2000, 《韓國中世의 地域社會硏究》, 학연문화사.
서영교, 2006 《나당전쟁사 연구 - 약자가 선택한 전쟁》, 아세아문화사.
서영일, 1999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송기호, 2020 《발해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孫兌鉉, 1982 《韓國海運史》, 亞成出版社.
신정훈, 2010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申瀅植, 1981 《三國史記硏究》, 一潮閣.
양기석, 2013 《백제의 국제관계》, 서경문화사.
_____, 2013 《백제 정치사의 전개과정》, 서경문화사.
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_____, 2003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尹明喆, 1996 《동아지중해와 고대 일본》, 청노루.
윤재운, 2006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_____, 2015 《교류의 바다 동해》, 경인문화사.
李基東, 1984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郞徒》, 一潮閣.
_____, 1997, 《新羅社會史硏究》, 일조각.
이도학, 1997 《새롭게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이문기, 2015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이용범, 1989 《韓滿交流史硏究》, 同和出版公社.
李賢惠,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일조각.
李弘稙, 1971 《韓國古代史의 硏究》, 新丘文化社.
전덕재, 2009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_____, 2018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정진술, 2009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조범환, 2018 《중세로 가는 길목 신라 하대사》, 새문사.

_____, 2022 《신라 중대 혼인 정치사》, 일조각.
조이옥, 2001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硏究 8세기를 中心으로》, 서경문화사.
주보돈, 2018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_____, 2020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채미하, 2015 《신라의 오례와 왕권》, 혜안.
채미하 외, 2019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최덕수 외, 2006 《장보고와 한국 해양 네트워크의 역사》,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최근식, 2005 《신라해양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허일 외 공저, 2001 《張保皐와 황해 해상무역》, 국학자료원.
한국해양사 편찬위원회, 2013 《한국해양사 1 선사 고대》, 한국해양재단.
황선영, 2002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2) 중국어

夏炎, 2010 《唐代州級官府與地域社會》,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章羣, 2000 《唐史札記 第二冊》, 臺北: 學海出版社.
上海博物館, 2020 《大唐寶船》, 上海: 上海書畵出版社.
劉恒武, 2021《寧波對外貿易史》, 浙江: 浙江大學出版社.
黎虎, 1998 《漢唐外交制度史》, 蘭州 :蘭州大學出版.
____, 2019 《漢唐外交制度史[增訂本]》,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馮立君, 2019 《唐朝与東亞》,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山東省水下考古研究中心編, 2019 《海岱遺珍》,北京: 文物出版社.
謝必震主編, 2020《中國海域史 東海卷》, 上海: 上海出版社.
戶美松, 2012 《船到城添外國人—唐代福州的對外交流》, 福建:福建美術出版社.

(3) 일본어

朝比奈泰彦 編修, 1995《正倉院藥物》, 植物文獻刊行會
池田溫, 2002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東京: 吉川弘文館.
石井正敏, 2001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石井正敏著, 鈴木靖民·赤羽目匡由·浜田久美子編, 2017《古代の日本列島と東アジア 石井正敏著作集1》, 東京: 勉誠出版
石上英一, 1974 《古代朝鮮と日本》, 東京: 龍溪書舍.
石母田正, 1989 《石母田正著作集第三卷 日本の古代國家》, 東京: 岩波書店.
井上直樹, 2021《高句麗の史的展開と過程と東アジア》, 東京: 塙書房.
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京: 東出版.
入江文敏, 2011 《若狹·越古墳時代の研究》, 東京: 學生社.
石見淸裕, 1998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東京: 汲古書院
諫早直人, 2012 《東北アジアにおける騎馬文化の考古學的研究》, 東京: 雄山閣.
井上主稅, 2014 《朝鮮半島の倭系遺物からみた日朝關係》, 東京: 學生社.
榎一雄, 1994 《榎一雄著作集》7, 東京: 汲古書院,
榎本淳一, 2008 《唐王朝と古代日本》, 東京: 吉川弘文館.
遠藤慶太, 2012 《東アジアの日本書紀-歷史書の誕生-》,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2015 《日本書紀の形成と諸資料》, 東京: 塙書房.
遠藤慶太·河內春人·關根淳·細井浩志編, 2018 《日本書紀の誕生-編纂と受容の歷史-》, 東京: 八木書店.
小野勝年, 1964～1969《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東京: 鈴木學術財団
木下尙子, 1996 《南島貝文化の研究·貝の道の考古學》, 東京: 雄山閣.
金鉉球,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河內春人, 2018 《倭の五王 王位繼承と五世紀の東アジア》, 東京: 中央公論新社.
小島憲之, 1962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上》, 東京: 塙書房.
木村淳·小野林太郎·丸山眞史編著, 2018《海洋考古學入門 - 方法と實戰》, 神奈川: 東海大學出版部.

高寬敏, 1996 《三國史記の原点的研究》, 東京: 雄山閣.
佐伯有清, 1978 《最後の遣唐使》, 東京: 講談社.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東京: 吉川弘文館.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東京: 校倉書房.
佐藤信編, 2018 《水中遺跡の歷史學》, 東京: 山川出版社.
志田諄一, 1974 《阿部氏とその傳承》, 東京: 雄山閣出版.
柴田承二監修, 2000 《圖說正倉院藥物》, 東京: 中央公論社
鄭淳一, 2015 《九世紀の來航新羅人と日本列島》, 東京: 勉誠出版.
新川登龜男, 1994 《日本古代文化史の構想-祖父毆打傳承を讀む-》, 東京: 名著刊行會.
_____, 1999 《日本古代の對外交涉と佛敎—アジアの中の政治文化—》, 東京: 吉川弘文館.
新川登龜男·早川萬年編, 2011 《史料としての<日本書紀>-津田左右吉を讀みなおす》, 東京: 勉誠出版.
菅沼愛語, 2013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唐·吐蕃·突厥の外交關係を中心に—》, 廣島: 溪水社.
杉本一樹, 2008 《正倉院》,東京: 中央公論新社.
鈴木靖民, 1985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鈴木靖民·金子修一·石見淸裕·浜田久美子, 2014 《日本古代の外交文書》, 東京: 八木書店.
瀨間正之編, 2018 《「記紀」の可能性(古代文學と隣接諸學10)》, 東京: 竹林舍.
高田貫太, 2014 《古墳時代の日朝關係一新羅·百濟·大加耶と倭の交涉史一》,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2017 《海の向こうから見た倭國》, 東京: 講談社.
_____, 2021 《アクセサリーの考古學 倭と古代朝鮮の交涉史》, 歷史文化ライブラリー522, 東京: 吉川弘文館.
田中史生, 1997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東京: 校倉書房.
_____, 2016 《國際交易の古代列島》, 東京: KADOKAWA.
_____, 2012 《國際交易と古代日本》, 東京: 吉川弘文館

谷澤亞里, 2020 《玉からみた古墳時代の開始と社會変革》, 東京: 同成社.
田村圓澄, 1990 《大宰府探究》,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1999 《古代日本の國家と佛教 -東大寺創建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田村圓澄 · 小田富士雄 · 山尾幸久, 1985 《古代最大の內戰磐井の亂》, 東京: 大和書房.
內藤雋輔, 1961 《朝鮮史研究》, 京都：東洋史研究會.
中野高行, 2008 《日本古代の外交制度史》, 東京: 岩田書院.
中村裕一, 1991 《唐代制勅研究》, 東京: 汲古書院.
新妻利久, 1969 《渤海國史及び日本との國交史の研究》, 東京: 東京電機大學出版局.
仁藤敦史, 2011《都はなぜ移るのか一遷都の古代史一》,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2021 《藤原仲麻呂-古代王權を動かした異能の政治家》, 東京: 中央公論新社.
_____, 2022 《東アジアからみた<大化改新>》東京: 吉川弘文館.
浜田久美子, 2022 《日本古代の外交と禮制》, 東京: 吉川弘文館.
濱田耕策, 2002《新羅國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2013 《朝鮮古代史料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東野治之, 1977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東京: 塙書房
_____, 1988 《正倉院》 岩波新書42, 東京: 岩波書店
廣瀨憲雄, 2011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古代日本》, 東京: 吉川弘文館
古尾谷知浩, 2006 《律令國家と天皇家産機構》, 東京: 塙書房.
古市晃, 2019 《國家形成期の王宮と地域社會-記紀·風土記の再解釋-》, 東京: 塙書房.
古畑徹, 2021 《渤海國と東アジア》, 東京; 汲古書院.
掘敏一, 1998 《東アジアの中の古代日本》, 東京; 研文出版.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卷, 東京: 吉川弘文館.
皆川完一, 2012 《正倉院文書と古代中世史料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松原弘宣, 1985 《日本古代水上交通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2009 《日本古代の情報傳達》, 東京: 汲古書院.

向井一雄, 2017 《よみがえる古代山城　國際戰爭と防衛ライン》 歷史文化ライブラリー440, 東京: 吉川弘文館.
桃木至朗編, 2008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東京: 岩波書店.
森克己, 2009 《新編 森克己著作集二 續日宋貿易の研究》, 東京: 勉誠出版.
森公章, 1998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2006 《東アジアの動亂と倭國》,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2008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 東京: 吉川弘文館.
家島彦一, 1991 《イスラム世界の成立と國際商業 國際商業ネットワークの變動を中心に》, 東京: 岩波書店.
_____, 2006 《海域から見た歷史インド洋と地中海を結ぶ交流史》,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柳澤一男, 2014 《筑紫野君磐井と磐井の亂》, 東京: 新泉社.
山內晋次, 2003 《奈良平安時代の日本とアジア》, 東京: 吉川弘文館.
山尾幸久, 1986 《日本古代の國家形成》, 東京: 大和書房.
米田該典, 2015 《正倉院の香藥 材質調査から保存へ》, 東京: 思文閣出版.
米田雄介, 2018 《正倉院寶物と東大寺獻物帳》, 東京: 吉川弘文館,
李成市, 1997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正倉院寶物が來たもうひとつの道-》, 東京: 靑木書店.
_____, 1998(《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東京: 岩波書店.
渡辺滋, 2014 《日本古代文書研究》, 東京: 思文閣出版.
渡邊誠, 2012 《平安時代貿易管理制度史の研究》, 東京: 思文閣出版.

(4) 영어

Asian Civilisations Museum, 2017 *THE TANG SHIPWRECK*, Singapore.
John N. Miksic, 2013, *SHINGAPORE& THE SILK ROAD OF THE SEA*, NUS Press Singapore, Singapore.
Jun KIMURA, 2015 *ARACHAEOLOGY OF EAST ASIAN SHIPBUILDING,* University press of Florida, Florida.

Natali Pearson, 2023 *BELITUNG The Afterlives of a Shipwreck*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Smithsonian Institution, 2010 *SHIPWRECKED*, Washington, DC.
Kathirithamby Wells and Villiers, John ed. 1990, *The Southeast Asian Port and Polity, Rise and Demise* :Singapore University Press, Singapore.

2) 석·박사학위논문

高慶錫, 2005 《淸海鎭 張保皐勢力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盧智潤, 2011 《신라 말 神德王의 出自와 卽位背景》,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승충, 1995 《加耶의 地域聯盟史 硏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小宮秀陵, 2014 《新羅 渤海의 對唐藩鎭交涉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선정, 2011 《新羅 麻立干 時期의 成立과 展開》,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선운, 2022 《加耶 港市의 成立과 展開》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최상기, 2020 《新羅 將軍制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희준, 2018 《新羅 外賓 迎接儀禮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 논문 및 기타

(1) 한국어

강은영, 2010 〈8세기 중후반 일본의 內政과 對新羅關係의 추이－752년 金泰廉 使行團의 來日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31.
_____, 2011 〈779년 신라의 遣日本使 파견과 '彼國 上宰'에 관한 검

토〉《日本歷史硏究》 34.
_____, 2022 〈7세기 신라·왜의 대외교섭과 贈物－'미츠키(調)'를 중심으로－〉《한국고대사탐구》40.
강봉룡, 2002, 〈장보고의 '청해진 체제'건설과 성공 비결〉, 최영호 외《장보고와 미래 대화》,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강종훈, 2006 〈신라 왕경의 방어체제 - 경주 지역 성곽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7.
고경석, 2008 〈재당 신라인사회의 형성과 발전〉 《韓國史硏究》140.
_____, 2011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 - 중부횡단항로와 남부사단항로 개설 시기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21.
고태진, 2019 〈신라 興德王代 金銀器 禁令의 성격〉 《한국사론》6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권오영, 2014 〈고대 한반도에 들어온 유리의 고고, 역사학적 배경〉《韓國上古史學》85.
_____, 2017 〈狼牙脩國과 海南諸國의 세계〉《百濟學報》20.
_____, 2023 〈고대 동아시아의 항시와 항시국가〉 주경철·유성희 엮음,《해양과 메가아시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연구총서, 진인진.
權悳永, 1996 〈新羅 遣唐使의 羅唐間 往復行路에 對한 考察〉 《歷史學報》149
吉井秀夫, 2004 〈토기자료를 통해 본 3~5세기 백제와 교류의 교류관계〉《漢城期 百濟의 물류시스템과 對外交涉》, 한신대학교학술원.
김경주, 2018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호남고고학보》 58.
김규운·김준식, 2009 〈泗川 船津里 石室墳〉 《영남고고학보》48.
金東洙, 1989 〈新羅 憲德 · 興德王代의 改革政治〉 《韓國史硏究》39.
김두철, 2022 〈加耶轉換期 金海 狗耶·金官國의 推移〉《고고광장》31.
金文經, 1967 〈赤山 法華院의 佛敎儀式 -佛敎 大衆化 過程의 一齣-〉《史學志》1.
_____, 1969 〈在唐新羅人의 集落과 그 構造〉 《李弘稙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김병남, 2002 〈百濟 武王代의 영역 확대와 그 의의〉 《韓國上古史學報》38.
_____, 2004 〈百濟 武王代의 阿莫城 전투 과정과 그 결과〉 《全南史學》 22.
金庠基, 1934,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야 [一]〉 《震檀學報》1.
김상현, 1988 〈新羅 誓幢和上碑의 再檢討〉《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美術史學論叢》, 通文館.
김선숙, 2007 〈新羅惠恭王代(765~780)의 國內情勢와 對日外交〉《정신문화연구》30-4.
金壽泰, 2011 〈신라 혜공왕대 만월부인의 섭정〉《新羅史學報》22.
김은숙, 2006 〈일본 최후의 遣唐使 파견과 張保皐 勢力〉 《한국고대사연구》42.
김재근, 1985 〈張保皐 時代의 貿易船과 그 航路〉 《張保皐의 新硏究》, 완도문화원.
金在庚, 1992 〈新羅中代 華嚴信仰의 社會的 役割〉 《震檀學報》73.
김재홍, 2018 〈통일신라시대 울산의 사찰과 특성〉 《신라문화》52.
김정배, 1998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문제〉《한국사연구》61, 62합집.
金貞淑, 1984 〈金周元世系의 成立과 그 變遷〉 《白山學報》28.
김주성, 1997 〈장보고세력의 흥망과 그 배경〉 《한국상고사학보》24.
金志垠, 2007 〈경덕왕대의 대일외교－752년 교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신라문화》30.
金昌謙, 2005 〈최근 발견 '泗川船津里新羅碑' 검토〉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동북아고대사연구소.
김창석, 2005 〈菁州의 祿邑과 香徒-신라 하대 지방사회 변동의 일례-〉 《신라문화》26.
_____, 2007 〈남북국시기의 교역〉《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_____, 2015 〈삼국시기 신라 外港의 변천과 그 배경〉《島嶼文化》45.

_____, 2016 〈신라 문화의 국제성〉 《신라의 대외관계와 문화교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_____, 2019 〈고대의 대내·외 교역과 문자〉 《문자와 고대 한국 2: 교류와 생활》, 한국목간학회 편, 주류성.
金澤均, 1990 〈三國史記 新羅의 對倭 關係 記事 分析〉 《江原史學》6.
김한규, 1999 〈7-8世紀 東아시아 世界秩序의 構造的 特性과 그 運營體制의 機能〉 《진단학보》88.
近藤浩一, 2002 〈赤山法花院과 平盧軍節度使〉 《韓國古代史硏究》28.
_____, 2006 〈9세기 중엽 聖住寺와 신라 王京人의 서해안 진출-장보고 교역 활동의 영향과 관련하여-〉 《신라사학보》8.
中村大輔, 2013 〈韓半島 玉文化의 硏究 展望〉《한국 선사 고대의 옥문화 연구》, 복천박물관.
南東信, 1992 〈聖德大王鐘銘〉 韓國古代社會硏究所編,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소.
_____, 1992 〈高仙寺 誓幢和上碑〉韓國古代社會硏究所編,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소.
남재우, 2019 〈아라가야의 공간과 지배〉《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呂聖九, 1993 〈원표의 生涯와 天冠菩薩信仰硏究〉 《國史館論叢》48.
문안식, 2015 〈백제의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와 기항지〉《사학연구》119.
박남수, 1997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매신라물해〉의 香藥〉, 《한국고대사연구》 55
_____, 2011 〈8세기 신라의 동아시아 외교와 迎賓 체계〉《新羅史學報》21.
_____, 2012 〈新羅 聖德王代 '上宰' 金順貞과 對日交涉〉 《新羅史學報》25.
_____, 2013 〈신라 聖德王代 浿江鎭 설치 배경〉 《사학연구》110.
_____, 2018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탐라문화》58
박용국, 2010 〈신라 蓮池寺 鑄鐘佛事의 배경과 그 성격〉 《新羅史學

報》 20.
_____, 2005 〈신라 憲德王代 金憲昌의 亂과 晉州地域〉 《퇴계학과 유교문화》37
_____, 2011 〈8세기 신라의 동아시아 외교와 迎賓 체계〉《新羅史學報》21
박유림, 2019 〈신라 고분 출토 경옥제 곡옥 연구〉《한국고고학보》113, 한국고고학회.
박정환, 2020 〈영남지역 통일신라시대 오통 시론〉 《중앙고고연구》33.
박종욱, 2013 〈602년 阿莫城 戰鬪의 배경과 성격〉《한국고대사연구》69.
박진숙, 2000 〈百濟 東城王代 對外政策의 變化〉 《백제연구》32.
박진혜, 2018 〈삼국～통일신라시대 울산지역 도로 연구〉 《고고광장》23.
박초아, 2015 〈통일신라시대 울산 강동지역의 정치사회적 위상〉 《울산사학》19.
백승옥, 2004 〈'안라고당회의'의 성격과 안라국의 위상〉《지역과 역사》14.
서영교, 2016 〈百濟의 남강유역 再진출과 倭〉 《서강인문논총》46.
_____, 2016 〈신라의 통일전쟁과 倭〉 《신라사학보》38
_____, 2019 〈金春秋의 渡日路程과 外交〉 《항도부산》38.
서지영, 2012 〈5세기 羅·麗관계 변화와 〈中原高句麗碑〉의 建立〉《한국고대사연구》68.
선석열, 2008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왜의 실체〉 《인문학논총》31.
小宮秀陵, 2019 〈고대 탐라와 일본〉, 한국목간학회편 《문자와 고대 한국2 교류와 생활》, 주보돈교수 정년기념논총, 주류성.
송기호, 2019 〈남북국의 전쟁, 경쟁과 교류〉《신라사학보》45.
孫兌鉉, 1980 〈古代에 있어서의 海上交通〉 《韓國海洋大 論文集》15.
孫兌鉉·李永澤, 1981〈遣使航運時代에 關한 硏究〉 《韓國海洋大 論文

集》16.
신동성, 2022 〈사천 선진리비석 측천문자의 명문 재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40-3.
신정훈, 2000 〈新羅 景德王代 王權强化策의 性格〉 《동서사학》6·7 합집.
신종원, 1982 〈삼국유사 郁面婢念佛西昇條에 대한 일고찰〉 《史叢》 26.
신카이사키코, 2020 〈8세기 중반 신라의 대일 관계 동향과 〈買新羅物解〉〉, 《한일관계사연구》67.
_____, 2021 〈신라 대일교역의 성격과 재당 신라인의 동향〉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 송기호 교수 정년기념논총》, 진인진.
申瀅植, 1984 〈新羅의 宿衛外交〉 《韓國古代史의 新硏究》, 一潮閣.
_____, 1989 〈韓國古代의 西海交涉史〉 《國史館論叢》2.
심봉근, 1997 〈三千浦 勒島遺蹟 出土의 凹線文 彌生係土器에 대해서〉 《문물연구》1.
安城賢, 2006 〈泗川 船津里土城 發掘調査槪要〉 《한국중세사연구》20.
여호규, 2000 〈6~8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연구의 진전을 기대하며〉 《역사와 현실》61.
우선정, 2000 〈麻立干時期新羅의 對高句麗關係〉 《慶北史學》23.
위가야, 2020 〈540년대 '사비국제회의'와 한반도 남부 정세〉 《백산학보》116.
윤선태, 1997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쯔게(買新羅物解)〉, 《역사와 현실》24.
_____, 2002 〈신라의 문서행정과 목간〉 《강좌한국고대사 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소 편, 청문당.
_____, 2005 〈新羅 中代末~下代初의 地方社會와 佛敎信仰結社〉 《신라문화》26.
_____, 2004 〈신라하대 무역관련 기구와 정책〉 《선사와 고대》20.
_____, 2015 〈新羅中代成典寺院과 密敎- 중대 國家儀禮의 視覺化와 관

련하여〉 《先史와 古代》44.
윤용구, 2007 〈삼한 삼국의 교역〉《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윤재운, 2021 〈한국 고대 해상 교통로 연구의 성과와 관계〉 《해양문화재》14.
이기동, 1992 〈薛仲業과 淡海三船과의 交歡〉《歷史學報》134·135
이기봉, 2018 〈신라 혜공왕대의 薦擧와 災異〉 《新羅文化》51.
李明植, 1984 〈新羅 下代 金周元系의 政治的 立場〉 《大邱史學》26.
이문기, 1999 〈통일신라 및 후삼국시대의 경상도〉 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慶尙道七百年史 -통사편》, 慶尙北道.
李成市, 1990 〈高句麗와 日隋 外交 -이른바 國書 문제에 관한 一試論-〉《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上, 창작과비평사.
李成制, 2009 〈570年代 高句麗의 對倭交涉과 그 意味 -새로운 對外戰略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韓國古代史探究》2.
이승호, 2021 〈5~8세기 耽羅國의 대외교류와 진상·조공 품목〉 《동국사학》70.
이연심, 2010 〈6세기 전반 가야, 백제에서 활동한 '왜계 관료'의 성격〉《한국고대사연구》58.
_____, 2014 <안라국의 대왜교역로에 관한 검토> 《한국민족문화》51.
_____, 2020 <6세기 전반 가야와 신라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회편, 《가야와 주변, 그리고 바깥》, 주류성.
이영식, 2006 〈5~6세기 고구려와 왜의 관계〉《北方史論叢》11.
이영재, 2012 〈6세기 말 고구려의 정국과 대왜 교섭 再開의 배경〉《역사와 현실》83.
李永澤, 1982 〈9世紀 在唐韓國人에 대한 考察 -入唐求法巡禮行記를 중심으로〉 《韓國海洋大學論文集》17.
이용범, 1969 〈處容說話의 一考察 -唐代 이슬람 商人과 新羅-〉 《震檀學報》32.
이유진, 2001 〈9세기 재당신라인의 활동에 대하여〉 《中國史硏究》13-1.

李鐘恒, 1977 〈三國史記에 보이는 倭의 實體에 대하여〉《국민대학논문집》인문과학편 11.
이청규, 1996, 〈耽羅上古社會 變遷過程 硏究〉 《省谷論叢》 27, 성곡학술문화재단.
이현주, 2017a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 -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硏究》85.
_____, 2017b 〈신라 중대 만월태후의 자기인식과 '성덕대왕신종'〉《여성과역사》27.
_____, 2020 〈신라 중대 冊封號 授受의 배경과 의미〉 《신라문화》55.
李昊榮, 1975 〈聖王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가지 문제〉《考古美術》125.
임영애, 2011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상과 불교 경전〉 《강좌미술사》 37.
장익수, 2010 〈新羅 麻立干期 對倭戰爭의 影響 -對外關係의 變化와 國防政策의 强化-〉 《한국사연구》150.
장일규, 2007 〈신라 하대 서남해안 일대 천태 관련 사찰과 장보고 선단〉 《신라사학보》10.
장창은 2019, 〈史書에 남겨진 古代 耽羅國 운위 실체의 재검토〉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全德在, 1997 〈新羅 中代 對日外交의 推移와 眞骨貴族의 動向 -聖德王～惠恭王代를 중심으로-〉 《韓國史論》37.
_____, 2004 〈신라의 대외인식과 천하관〉 《역사문화연구》20.
_____, 2007 〈신라중대〉 《한국고대사연구의 새동향》, 서경문화사.
_____, 2008 〈삼국시대 낙동강 수로를 둘러싼 신라와 가야세력의 동향 - 낙동강중류지역을 중심으로-〉 《대구사학》93.
_____, 2009 〈관산성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新羅文化》 34.
_____, 2013 〈新羅의 對中ㆍ日 交通路와 그 變遷〉《역사와 담론》65.
_____, 2013 〈新羅下代 浿江鎭의 設置와 그 性格〉《대구사학》 113.
_____, 2013 〈상고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역사문화연구》45.

_____, 2015 〈8세기 신라의 대일외교와 동아시아 인식〉 《日本學硏究》44.
_____, 2018 〈가야지역을 둘러싼 신라와 백제의 대립〉 《신라와 백제, 소통과 갈등》, 충청남도역사문화원·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_____, 2019 〈통일신라의 외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 고대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9 〈신라의 집사성첩과 일본〉 한국목간학회 편, 《문자와 고대 한국 2》주보돈교수 정년기념논총, 주류성.
_____, 2020 〈고대 고려 초 울산지역 변동과 蔚州의 성립〉 《대구사학》141.
_____, 2021 〈통일신라 주·군·현의 기능과 운영〉 《역사문화연구》79.
_____, 2021 〈신라 중고기 말 · 중대 초 縣制의 실시와 지방관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51.
정순일, 2013 〈《속일본후기》所收 신라국 집사성첩에 보이는 '島嶼之人'〉 《일본역사연구》37.
_____, 2019 〈9세기 일본의 당물에 관한 기초적 검토〉《아시아문화연구》49.
_____, 2022 〈신라국 집사성첩에 보이는 해민의 이동 실태와 도해 허가 문서〉 《史叢》105.
전상우, 2018 〈6세기 후반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화와 신라 阿旦城 공격〉 《한국고대사연구》89.
鄭雲龍, 1996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關係〉 《白山學報》46.
_____, 2015 〈淸海鎭 張保皐 勢力의 政治的 限界〉 《한국사학보》59
鄭義道, 2006 〈新羅丙雲大王銘碑 硏究〉 《한국중세사연구》20.
정재윤, 2001 〈熊津時代 百濟와 新羅의 관계에 대한 고찰〉 《湖西考古學》79.
조범환, 2002 〈張保皐와 赤山法花院〉 《대외문물교류연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_____, 2016 〈新羅 智證王代 北魏에 사신 파견과 목적〉 《서강인문논총》46
_____, 2019 〈新羅中代의 동아시아 政策과 對應〉 《신라사학보》45.
趙由典·金聖範, 1993 〈莞島淸海鎭遺蹟에 관한 一考 -發掘進行遺構를 中心으로-〉《淸海鎭 張保皐大使 海洋經營史 硏究》, 중앙대학교 동북아연구소.
趙二玉, 2015 〈신라 경덕왕대 국내외정세에서 본 일본의 '신라정토계획'〉 《신라문화》42.
朱甫暾, 1982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新羅의 膨脹과 關聯하여-〉《慶北史學》4, 慶北大學校慶北史學會.
_____, 1993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內政〉 《韓國學論集》20.
_____, 2008 〈신라 하대 金憲昌의 亂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51.
지윤미·김현철·김민경, 2015 〈울산지역의 막새기와 연구〉 《중앙고고연구》 7.
진영일, 1994,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 《제주도사연구》 3
_____, 2000, 〈《三國志》 東夷傳 韓條 〈州胡〉, 《三國史記》 〈耽羅國〉 硏究〉, 《인문학연구》6.
_____, 2007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沈京美, 2000 〈신라 중대 대일관계에 관한 연구〉《통일신라의 외교관계와 사상연구》, 백산자료원.
채미하, 2011 〈신라의 賓禮- 당 사신을 중심으로-〉《韓國史學報》43.
_____, 2018 〈애장왕 헌강왕대의 대일 외교와 그 활용〉 《신라사학보》44.
_____, 2020 〈문무왕·신문왕대의 대일본관계－調物과 別獻物을 중심으로－〉《史叢》99.
채웅석, 2016 〈한국 고대 香徒의 조직과 역할〉 《한국고대사연구》 81.
최상기, 2015 〈6～7세기 신라 장군의 역할과 운용〉 《역사와 현실》97.
崔宰榮, 2004 〈8～9世紀 唐朝의 蕃坊 運營과 在唐 新羅人社會 -唐朝의

외래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통제양상 비교〉《韓國古代史硏究》35.
최혜린, 2018 〈영남지역 출토 삼국시대 비취곡옥 연구〉 《영남고고학》81.
최홍조, 2004 〈신라 애장왕대의 정치변동과 김언승〉 《韓國古代史硏究》34.
卞麟錫, 1992 〈9세기 在唐新羅坊의 性格에 관한 試論的考察〉《인문논총》3.
하세봉, 2010 〈한국의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 - 민족주의적 성과와 탈근대적 전망 -〉 《동북아문화연구》 23.
하일식, 1996 〈창녕 인양사비문의 연구 -8세기 말~9세기 초 신라 지방사회의 단면-〉《한국사연구》95.
_____, 2003 〈新羅 統一期의 貴族私領과 郡縣制 -關門城 築造時의 力役編成 事例 分析-〉 《동방학지》122.
_____, 2021 〈마립간 시대 신라의 정치와 외교〉 《신라학 강좌 총서 2-마립간과 적석목곽분》, 국립경주박물관.
深津行德, 1991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중국 사서 인용에 대한 소고〉 ≪청계사학≫8.

(2) 중국어

于笛, 2017 〈唐代吳令光与王郢史迹探微 -王朝政治運作視野下的“海亂”平定史事之考察-〉 《史林》2017年 第一期, 北京: 北京師范大學歷史學院.
林士民, 1993 〈唐吳越時期浙東與朝鮮半島通商貿易和文化交流之硏究〉《海交史硏究》23, 泉州: 中國海外交通史硏究會.
席龍飛, 2000 〈第五章 隋·唐時代造船技術發展〉 《中國造船史》, 武漢: 湖北敎育出版社.
崔天勇, 2004 〈山東萊州發現陏唐獨木船〉 《中國文物報》第 2 版.

(3) 일본어

赤羽目匡由, 2015 〈渤海使の大宰府航路（朝鮮半島東岸航路）をめぐって〉《人文學報 歷史學編》43.

安里進, 2013 〈7～12世紀の琉球列島をめぐる 3 つの問題〉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79,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五十嵐基善, 2014 〈新羅征討計畫における軍事力動員の特質〉 《駿台史學》152, 明治大學史學地理學會.
井上直樹, 2008 〈570年代の高句麗の對倭外交について〉《年報朝鮮學》11.
井上秀雄, 1968 〈三國史記の原典をもとめて〉 ≪朝鮮學報≫48.
石見淸裕, 2012 〈唐朝外交における私覿について〉 鈴木靖民 編, 《日本古代の王權と東アジア》, 東京: 吉川弘文館.
宇野愼敏, 2015 〈宗像および周辺地域出土勾玉の地域性とその歷史的意義-宗像市·福津市·古賀市·新宮町を中心として-〉《法政考古學》41.
瓜生秀文, 2018 〈怡土城に關する諸問題 -怡土城築城擔當者と〈肥前守〉について-〉 大宰府史跡發掘五〇周年記念論文集刊行會 編, 《大宰府の研究》, 東京: 高志書院.
榎一雄, 1936〈賈耽の地理書と道里記の稱とに就いて〉《歷史學研究》. 6-7.
延敏洙, 1992 〈《日本書紀》の〈任那の調〉關係記事の檢討〉 《九州史學》105.
大高廣和, 2014 〈沖ノ島究の現在〉 《歷史評論》776.
大野克彦, 2002 〈弥生·古墳時代の玉〉 北條芳隆·禰宜田佳男編《考古資料大觀》 9, 東京: 小學館.
荻原史明, 2013 〈淸海鎭大使張保皐と在唐新羅人居留地の關係について-泗州漣水縣を中心に〉 《史苑》73.
荊木美行, 2016 〈磐井の亂の再檢討〉 《皇學館大學紀要》54, 皇學館大學文學部.
金子ひろみ, 2014 〈南朝梁の外交とその特質〉 《梁職貢圖と東部ユーラシア》, 東京: 勉誠出版.
蒲生京子, 1979 〈新羅末期の張保皐の擡頭と反亂〉 《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朝鮮史研究會.
龜田修一, 2001 〈古墳の時代—古代國家への道—〉 《牛窓町史 通史編》,

牛窓町.
_____, 2008 〈吉備と大和〉 土生田純之 編,《古墳時代の實像》, 吉川弘文館.
_____, 2022 〈吉備の考古學 吉備の渡來人〉, 龜田修一·白石純編 《講座考古學と關連科學》, 東京: 雄山閣.
菊池誠一, 2017 〈ベトナムにおける水中考古學の研究と課題〉 林田憲三編, 《水中文化遺産》, 東京: 勉誠出版.
北啓太, 1984 〈天平四年の節度使〉 《奈良平安時代史論集》上卷, 吉川弘文館.
木下尙子, 1987 〈弥生定形勾玉考〉 岡崎敬先生退官記念事業會編 《東アジアの歷史と考古》中, 東京: 同朋舍出版.
_____, 2002 〈韓半島の琉球列島産貝製品-1～7世紀を對象に-〉西谷正編, 《韓半島考古學論叢》, すずさわ書店.
_____, 2008 〈正倉院傳來の貝製品と貝殼 -ヤコウガイを中心に-〉《正倉院紀要》31.
_____, 2010 〈先史奄美のヤコウガイ消費 -ヤコウガイ大量出土遺跡の理解に向けて-〉《熊本大學文學部論叢》101.
_____, 2022 〈琉球列島の先史文化〉 《筑紫と南島》, 東京: KADOKAWA.
木下禮仁, 1982 〈五世紀以前の倭關係記事 -《三國史記》を中心として-〉 森浩一 編, 《倭人傳を讀む》, 東京: 中央公論社.
金文経, 2001 〈在唐新羅人社會と佛敎〉 《アジア遊學》26.
久住猛雄, 2014 〈〈博多湾貿易〉の成立と解体·再論～土器からみた倭と韓半島の交易網の変遷～〉 仁濟大學校加耶文化研究所·金海市《第20回加耶史國際學術會議 金官加耶の國際交流》.
河內春人, 1995 〈東アジアにおける安史の亂の影響と新羅征討計畫〉 ≪日本歷史≫ 561.
_____, 2000 〈新羅使迎接の歷史的展開〉 《ヒストリア》170.
_____, 2011 〈古代國際交通における送使〉 鈴木靖民·荒井秀規 編,

《古代東アジアの道路と交通》, 東京: 勉誠出版.
近藤浩一, 2012 〈景德王代 · 王子金泰廉の日本派遣と新羅國內政治 -派遣事情を中心に-〉 《京都産業大學論集》45.
酒寄雅志, 1984 〈日羅交涉終焉をめぐる事情〉 《朝鮮史研究會會報》74 .
笹川尙紀, 2011 〈白猪屯倉·兒嶋屯倉に關する初步的研究〉 新川登龜男·早川万年 編,《史料としての《日本書紀》—津田左右吉を讀み直す》, 東京: 勉誠出版.
鷺森浩幸, 1996 〈藤原光明子家に關する一史料〉 《續日本紀研究》305.
佐藤信, 1997 〈古代の〈大臣外交〉についての一考察〉 佐藤信 · 村井章介 編, 《境界の日本史》, 東京: 吉川弘文館.
重藤輝行, 2014 〈宗像地域における古墳時代首長の對外交涉と沖ノ島祭祀〉 世界遺産推進會議 編, 《宗像 · 沖ノ島と關連遺産群 研究報告1》
_____, 2016, 〈筑紫君磐井の亂と八女の古墳文化〉《八女の名寶》九州歷史資料館,
七野敏光, 1993 〈九朝律考および漢唐間正史刑法史〉 滋賀秀三 編, 《中國法政史基本資料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嶋田光一, 1991 〈福岡縣樞山古墳の再檢討〉 《古文化論叢 兒島隆人先生喜壽記念論文集》, 兒嶋隆人先生喜壽記念事業會.
下向井龍彦, 1992 〈捕亡令〈臨時發兵〉規定について一國衛軍政の法的源泉—〉 《續日本紀研究》279.
新川登龜男, 1999 〈調 (物産) の意味〉 《日本古代の對外交涉と仏教—アジアの中の政治文化—》, 東京: 吉川弘文館.
杉本一樹, 1990 〈鳥毛立女屛風本紙裏面の調查〉 《正倉院年報》12.
鈴木靖民, 1967 〈金順貞 · 金邕論－新羅政治史の一考察－〉 《朝鮮學報》45.
瀨間正之, 2023 〈續 · 欽明紀の編述〉《萬葉集研究》42.
高田貫太, 2022 〈考古學による日朝關係史から見た'磐井の亂'〉《國立歷史民族博物館研究報告》231.
高橋浩二, 2016 〈韓國玉田M4号墳出上の翡翠半玦形勾玉とその流通過程〉 《玉文化研究》2.

田中俊明, 1982 〈三國史記中國史書引用記事の再檢討〉 ≪朝鮮學報≫104.
_____, 2003 〈アジア海域の新羅人—九世紀を中心に—〉 《東アジア海域圈の史的研究》, 京都; 京都女子大學.
田中史生, 2007 〈江南の新羅人交易者と日本〉 佐藤信他 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 東京; 山川出版社.
_____, 2012 〈倭國史と韓國木簡 -六·七世紀の文字と物流·勞働管理-〉 鈴木靖民 編, 《日本古代の王權と東アジア》,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2018 〈古代東アジアの佛教と民間の國際交易〉 佐藤長門 編, 《古代東アジアの佛教交流》, 東京：勉誠出版.
_____, 2018 〈磐井の亂前後の北部九州と倭王權〉 新川登龜男 編, 《日本古代史の方法と意義》, 東京：勉誠出版.
谷川道雄, 1978 〈河朔三鎭における節度使權力の性格〉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74.
田村圓澄, 1979 〈新羅送使考〉 《朝鮮學報》90.
辻正博, 1987 〈唐朝の對藩鎭政策について: 河南〈順地〉化のプロセス〉 《東洋史研究》46-2.
都出比呂志, 1995 〈前方後圓墳體制と地域權力〉, 門脇禎二 編, 《日本古代國家の展開》上卷, 京都: 思文閣出版.
中尾浩康, 2010 〈天平期の節度使に關する一考察〉 《續日本紀研究》388.
西別府元日, 2003 〈九世紀前半の日羅交易と紀三津〈失使旨〉事件〉 《中國地域と對外關係》, 東京: 山川出版社.
西本昌彦, 1990 〈倭王權と任那の調〉 《ヒストリア》129.
仁藤敦史, 2004 〈'長屋王家'の家産と家政機關について〉,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33.
浜田久美子, 2017 〈日本渤海關係史—寶龜年間の北路來朝問題への展望〉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石井正敏の歷史學》, 東京: 勉誠出版.
_____, 2018 〈古代日本の外交儀禮-唐·新羅·渤海との比較-〉 田中史生 編, 《日本古代と興亡の東アジア》, 東京; 竹林舍.
廣瀨直毅, 2019 〈東シナ海～日本海の海流と航海環境〉 《古代東アジアの

航海と宗像・沖ノ島　報告書》　〈神宿る島〉宗像・沖ノ島關連遺跡群　特別研究事業.
朴天秀, 2006　〈古代の韓半島からみた若狹との交流〉　《若狹の古墳時代》, 福井: 若狹三方縄文博物館.
菱田哲郎, 2013　〈古墳時代の社會と豪族〉《岩波講座日本歷史》, 第一卷, 東京: 岩波書店.
平澤加奈子, 2006　〈八世紀後半の日羅關係　-寶龜10年新羅使を中心に-〉《白山史學》42, 東洋大學白山史學會.
平野卓治, 1994　〈日本古代國家の成立・展開と對外'交通'〉《歷史學研究》 664.
古市晃, 2011　〈五·六世紀における王宮の存在形態-王名と叛逆傳承-〉《日本史研究》 587.
_____, 2013 〈倭王權の支配構造とその展開〉 《日本史研究》 606.
_____, 2016 〈五·六世紀の倭王宮に關する基礎的考察〉 《日本古代·中世都市論》, 東京: 吉川弘文館.
古畑徹, 1986 〈唐渤紛爭の展開と國際情勢〉, 《集刊東洋學》55.
三上喜孝, 2003 〈出擧に關する二, 三の考察〉 笹山晴生 編, 《日本律令制の構造》,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2007 〈光仁・桓武朝の國土意識〉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34.
_____, 2017 〈古代日本の境界意識〉 《日本古代交流史入門》, 東京: 勉誠出版.
三品彰英, 1971 〈聖德太子の任那對策〉 《聖德太子論集》, 京都: 平樂寺書店.
溝口優樹, 2021 〈古代肥後の地方豪族と鞠智城〉《地域社會からさぐる古代山城-鞠智城》, 熊本縣教育委員會.
皆川雅樹, 2017 〈〈買新羅物解〉と天平勝寶四年來朝の新羅使についての再檢討〉 《專修史學》63.
森公章, 1985 〈耽羅方脯考－8世紀, 日本と耽羅の 〈通交〉－〉, 《續日本紀研究》239.

_____, 1986, 〈古代耽羅の歷史と日本〉, 《朝鮮學報》 118.
_____, 1995 〈古代難波における外交儀禮とその變遷〉 田中健夫編,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東京: 吉川弘文館.
森貞次郎, 1980 〈弥生勾玉考〉 鏡山猛先生古稀記念論文集刊行會 編,《鏡山猛先生古稀記念 古文化論攷》福岡: 大宰府町.
矢部いつか, 2005 〈隱岐海峽周辺海域における流れ場の季節變化〉《海と空》80ー4.
山﨑雅稔, 2007 〈新羅國執事省牒からみた紀三津《失使旨》事件〉 木村茂光 編, 《日本中世の權力と地域社會》, 東京: 吉川弘文館.
山﨑雅稔, 2015 〈唐における新羅人居留地と交易〉 《國學院大學紀要》 53.
山村信榮, 2005 〈大宰府における八・九世紀の變容 (第Ⅲ部 交通と周邊論)〉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34.
山本幸男, 1985 〈造東大寺司主典安都雄足の〈私経濟〉〉 《史林》68-2, 京都大學文學部史學研究會.
吉武孝禮, 1999, 〈まとめ〉《堤蓮町遺跡》甘木市教育委員會.

(4) 영어

Boonsoon Kang, Naoki Hirose, 2014 Transport Variability in the Korea/Tsushima Strait: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to Synoptic Atmospheric Forcing, *Continental Shelf Research,* 81.
Dreak HANG, 2017 “THE TANG SHIPWRECK AND THE NATURE OF CHINA′S MARITIME TREAD DURING THE RATE TANG PERIOD” *THE TANG SHIPWRECK,* Ed. Asian Civilisations Museum, Singapore.
Hong-Ryeol Shin, Ji-Hoon Lee, Cheol-Ho Kim, Jong-Hwan Yoon, Naoki Hirose, 2022 Long-term variation in volume transport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estimated from ADCP current measurement and sea level differences in the Korea/Tsushima Strait, *Journal of Marine Systems* 232.

John Guy, 2001 “EARLY ASIAN CERAMIC TRADE AND THE BELITUNG(TANG)CARGO” *Transactions of the Oriental Ceramic Society* 66, London.
KIMURA Jun, 2015 “Maritime Archaeological Perspectives on Seaborne Trade in the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between the Seventh and Thirteenth Centuries” *Crossroad*, 11
Nishino, Noriko·Aoyama, Toru·Kimura, Jun·Nogami, Takenori·Le Thị Lien, 2014 “Nishimura Project: The Oldest "Shipwreck Found in Vietnam: Testimony to the Maritime Ceramic Route” *Underwater Archaeology in Vietnam and Southeast Asia: Co-opperation for Development Quang Ngai*, 14-16
Nishino, Noriko·Aoyama, Toru·Kimura, Jun·Nogami, Takenori·Le Thi Lien, 2017 “Nishimura Masanari's Study of the Earliest Known Shipwreck Found in Vietnam” *asian review of world histories*, 5
Qi Dongfang, 2010 “Gold and Silver Wares on the Belitung Shipwreck” *SHiP WRECKED,*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M. Sackler Gallery Smithsonian; 2017 “GOLD AND SILVER ON THE TANG SHIPWRECK” *THE TANG SHIP WRECK*, Ed. Asian Civilisations Museum, Singapore.
Yvonne Tan, 2005 “Salvaging the Tang dynasty Belitung Cargo.” *Arts of Asia* 35-3,

Abstract

A Study of Silla's Relations with Japan during the 5th to 9th Centuries

Sakiko SHINKAI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examine Silla's relation with Japan from multiple perspectives, this dissertation discusses not only the bilateral negotia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tates but also that among regional units, which hitherto has not received close attention. Given that external relations are triggered by various factors, the dissertation examines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Silla's relations with Japan from the 5th to the mid-9th centuries, focusing on the economic prerequisite of "movement and transfer of goods," the political prerequisite of "diplomatic system and documents," and the

geographical prerequisite of “diplomatic routes.” In addition to looking at developments in Silla and Japan alone, the study also includes developments in neighboring states that may have influenced the foreign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The doctoral dissertation reaches the conclusion that Silla's relations with Japan from the 5th to the mid-9th centuries can be divided into five stages.

The first is the period from the 5th to the beginning of the 6th century, when not only state-to-state relations took place, but also multiple regions participated in diplomacy in the case of We (倭). One piece of evidence for relations between Silla and northern Kyushu (九州) is the shellfish trade through northern Kyushu. The relationship between Silla and Japan changed from the 5th to the beginning of the 6th century, triggered by the narrative of the Kibi Clan Rebellion (吉備叛亂傳承) and by the Iwai Rebellion (磐井의 亂), but the decisive change in diplomatic policy occurred in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after the Iwai Rebellion. During this period, local We powers that had diplomatic relations with Silla were incorporated into the We Kingship(倭王權), and the shipping routes owned by the local powers were also placed under the control of the We Kingship in an effort to seize diplomatic authority. In other words, until the Iwai Rebellion of the early 6th century, the negotiation relationship between Silla and the local powers of We existed separately from the We Kingship.

However, the situation can be understood as subsequently changing to a form led by the We Kingship. For the We Kingship, it was of great significance to seize control of the transportation routes and

diplomatic rights connecting the Kinai (畿內) region and Hakata (博多) Bay to the Korean peninsula. The Iwai Rebellion led to the incorporation of groups of northern Kyushu communities that had close ties with Silla into the We Kingship, which had strong ties with Baekje (百濟), and the relationship with Silla became less intense. This historical document of events is consistent with the archaeological data as well as the literary sources.

The second stage is the period after 610, when Silla actively engaged in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following the Battle of Amak Fortress (阿莫城戰鬪) in 602. Silla repeatedly clashed with neighboring states in the chaotic situation on the peninsula following the Battle of Amak Fortress, and maintaining relations with the Tang Dynasty (唐) was also a major challenge. Against this international backdrop, Silla actively entered into a negotiation relationship with Japan from 610 onward. The diplomatic policy of Silla toward We during this period included facilitating We diplomacy with the Tang Dynasty through the "Silla Province (新羅道)" owned by Silla, and human and material diplomacy by sending goods such as Buddhist statues and Buddhist-related articles to We. In comparison to the items that Silla sent to the Tang Dynasty, the Buddhist statues and Buddhist-related goods that Silla sent to We were items that demonstrated cultural superiority, and we can evaluate this approach as a means of diplomatic negotiation that expressed certain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ntions on the part of Silla.

In addition,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involvement of We in

diplomacy with Tang Dynasty using the “Silla Province” was a diplomatic tool of great strategic significance as a form of foreign policy toward Japan that allowed Silla, which had succeeded in incorporating the Han River area into its territories,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Baekje and Goguryeo (高句麗).

The third stage is the period from the end of the Silla-Tang War (羅唐戰爭) toward the end of the 7th century until 735, when the Tang Dynasty was officially granted possession of the territories south of the Taedong River (大同江[浿江]). During this period, Silla frequently dispatched envoys to Japan, received Silla scholars, and carried out a diplomatic policy through the physical medium of “separate offerings (別獻物),” which appeared characteristically only in the tense period after the end of the Silla-Tang War. The period from the Battle of Amak Fortress in 602 to 735, when Silla wa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Tang Dynasty as possessing the territories south of the Taedong River, is considered to be a period in which the importance of relations with Japan increased for Silla, and the direction of its diplomatic policy is considered to be similar. However, this period has a different character from the second stage. That is to say, Silla was in an unstable situation after the end of the Silla-Tang War due to its relations with Tang Dynasty, the issue of its popular legitimacy, and the problem of control over the former territories of Goguryeo and Baekje. Against this backdrop, Silla frequently dispatched envoys to Japan and attempted to strengthen its relations with Japan through a previously unheard of form of relation

known as “separate offerings.” The Tang Dynasty was behind this choice, and Silla established a new negotiating policy toward Japan in the midst of diplomatic and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However, the strategic value of diplomacy with Japan began to decline as relations with the Tang Dynasty developed. This development started with Silla's participation in the war between the Tang Dynasty and Balhae (渤海) in 732, and the decisive trigger can be understood as the incident in 735 when the Tang Dynasty officially recognized Silla's possession of the area south of the Taedong River.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incident in 735, when Silla was officially granted the lands south of the Taedong River by the Tang Dynasty, influenced Silla's hard-line attitude toward Japan, as it referred to itself as Wangseong-guk (王城國) in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735.

The fourth stage is from 735 onward until 779, when the last Silla envoy was dispatched. Silla and Japan accepted Tang ceremonial practice, but transformed it in their own ways and incorporated it into their diplomatic rituals to promote diplomatic relations, but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that arose during the acceptance process caused diplomatic friction between Silla and Japan. Such friction is characterized by the dispatch of Silla envoys to Japan during the reigns of King Gyeongdeok (景德王) and King Hyegong (惠恭王), as well as the measures taken by Japan against Silla people.

However, since Silla's primary diplomatic issue during this period was not Japan, it can be evaluated as a period when a certain level

of relationship was maintained since Silla promoted relations with Japan according to the situation, even though Japan had formulated plans to subjugate Silla.

Prior studies have understood Silla's relations with Japan to have shifted from a political (public) to an economic (private) character, mainly from a base year of 752. But, considering the position of Silla's policy toward Japan, the year 735, —which saw a fall in the strategic value of Silla's diplomacy toward Japan, which had been maintained since 610—, should be regarded as an important base point.

Furthermore, even from a trade perspective, the Shosoin (正倉院) documents other than the *Bai shiragimono no ge* (買新羅物解), which show that exchanges of incense, spices, and medicines increased during the 9th century, and that there is no evidence of a stable supply of such items during the 8th century.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relate the activities of Silla merchants associated with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East Asia in the 9th century to the diplomacy with Japan in 752 and see it as the catalyst for a change in the character of the Silla merchants.

Many studies understand the Silla envoys to Japan during the reigns of King Gyeongdeok and King Hyegong in the same character, in that both were subjected to the Japanese measure of "release(放還)." However, the reigns of Gyeongdeok and Hyegong were a period when the Han-ization policy (漢化政策) was promoted and internal

reforms were carried out in Silla, but the domestic situation in Silla during their reigns was different.

Therefore, considering the position of Silla, the entity that sent the envoys, the nature of Silla's envoys to Japan during the reigns of Gyeongdeok and Hyegong cannot be considered similar.

The fifth stage is the period from the 9th century onward, when international trade in East Asia expanded and Silla merchants became active. Silla had several outports (外港), each of which connected the central and local powers and formed the basis for international trade in East Asia. While each of Silla's outports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was connected to central society, they were also closely associated with local powers that grew up in the provinces. Although the outports could not operate without the influence of the center, the strength of the ties between each of the outports in Silla and the center differed, and there were several layers of ties. It can also be understood that ninth-century Silla's relations with Japan develop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trade network based on Jang Bo-go (張保皐), and that this was a period when Japan had relatively stable access to foreign goods circulating in Tang, West Asia, and Southeast Asia through the medium of Silla merchants. The nature of the South Sea trade (南海貿易) linking East and Southeast Asia, including Silla in the 9th century, and its relationship with West Asia and the Islamic world can be confirmed through historical sources related to Silla merchants and through maritime archaeological findings on shipwrecks.

keywords : Silla's relation with Japan(We), shellfish trade,
Silla Province(新羅道),
international trade in East Asia,
South Sea trade(南海貿易), outports(外港)
Student Number : 2016-30848